

# 韓國書院學報

제  
18  
호

韓國書院學會  
2024.6





## 목차

### ■ 기획논문 : 김천 자동서원(紫東書院) - 공간과 인간

김천지역 서원과 자동서원(紫東書院)의 설립과 복설 ... 이수환·채광수 ◦ 7

진주강씨 찰방공파(察訪公派) 족세의 성장과  
 종족촌락(宗族村落)의 형성 ..... 김성우 ◦ 35

진주강씨 남와(南窩) 강설가(姜濼家)의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구축과 작동 - 척연·학연 및 종족적 유대를 중심으로 - ..... 김학수 ◦ 71

기재(耆齋) 강여호(姜汝床)의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 활동 ..... 이근호 ◦ 143

강석구(姜碩龜, 1726~1810)의 학문과 관직 생활 ..... 김정운 ◦ 171

### ■ 일반논문

영해(寧海) 구봉서원(九峯書院)의 설립 과정과 운영 ..... 장준호 ◦ 203

경주손씨의 상주 정착과 손만웅의 활동 ..... 송석현 ◦ 235

## ■ 후보

- 연혁·활동 보고 | 267
- 회칙 | 270
- 편집 규정 | 277
- 논문투고 규정 | 281
- 원고작성 규정 | 287
- 연구윤리 규정 | 291
- 임원 및 편집위원 | 294

## ■ 기획논문 : 김천 자동서원(紫東書院) - 공간과 인간

- ▣ 김천지역 서원과 자동서원(紫東書院)의 설립과 복설
- ▣ 진주강씨 찰방공파(察訪公派) 족세의 성장과 종족촌락(宗族村落)의 형성
- ▣ 진주강씨 남와(南窩) 강설가(姜濼家)의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구축과 작동  
- 척연·학연 및 종족적 유대를 중심으로 -
- ▣ 기재(耆齋) 강여호(姜汝床)의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 활동
- ▣ 강석구(姜碩龜, 1726~1810)의 학문과 관직 생활



# 김천지역 서원과 자동서원(紫東書院)의 설립과 복설\*

이수환\*\*·채광수\*\*\*

- I. 머리말
- II. 김천지역 서원 설립추이
- III. 자동서원의 설립과 복설
- IV. 맺음말

## 【국문초록】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에서 동성촌의 발달과 함께 동성 내부의 상호결속과 사회적 지위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원은 족적 기반의 중심기구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오면 각 문중마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서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산되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유는 특정 가문의 본관지 및 입향지에 시조나 입향조 顯祖를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때문에 그 운영이 전적으로 문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다수는 향중유림의 동의 과정을 거쳤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강설·강여호 등을 제향하는 진주 강씨 문중사유인 자동서원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이 서원은 1811년(순조 11) 자양사로 건립되었다가 대원군의 미사액서원 철폐 때 훼손되었다가, 1923년에 자양사로 복설되고 강석구·강이회를 종향하였다. 이후 1927년에는 유림의 공의

\* 본 논문은 2024년 3월 15일 「진주강씨 김천 칠방공파의 역사적 전개와 자동서원(紫東書院)」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wndgy@ynu.ac.kr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corhkdt911@ynu.ac.kr

로 자동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자동서원의 설립과 복설에는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과 유림들의 지원이 있었다. 설립 시에는 훈반과 학연 등으로 연결된 병산·도남서원 등의 통문이 있었고, 복설 시에는 복설의 당위성을 공론화하는 松溪서당의 통문에 이어 또 수 십개 읍의 유림들이 儒稷를 결성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주제어 : 김천, 자동서원, 강설, 강여호, 강석구, 강이화

## I. 머리말

본 연구는 김천 지역에서 300여 년간 세거해 온 진주 강씨의 문중서원인 자동서원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원이 봉당정치에 있어서 자파 세력의 확대와 그들의 정치적 입장 강화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남설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원 남설로 야기된 폐단이 심각해지자, 국가에서는 신설 금지[숙종 7], 철폐 금지[숙종 39, 癸巳受教] 등의 일련의 조치로 통제책을 가했고, 1741년(영조 17)에는 실제 173개소의 院祠의 훼손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서원 신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사는 남설되어 갔다.

이 시기에 서원과 사우가 혼칭되면서 그 구별이 모호해진 가운데,<sup>1)</sup> 재지사족은 국가의 서원 신설 금지라는 금령을 피해 서원 설립의 전 단계로서 사우

1) 書院·祠宇의 개념은 정만조의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韓國史論』 2, 서울대 국사학과, 1975 ;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여기에 의하면 양자는 향사인과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서원은 강학과 祀賢의 기능이 있었지만, 사우는 祀賢만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향인도 서원은 유학자를 사우는 충절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양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원래는 엄격히 구분되었지만, 17-18세기 서원 남설로 양자 모두 사현 위주로 전환되면서 서로 혼칭되고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한다.

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 건립된 원사는 대부분 사우로 보이며, 조선 후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재지사족들의 향촌활동은 서원보다 사우에서의 활동이 좀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사의 남설은 18세기 이후 향촌 내 문중의식의 확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동성촌의 발달과 함께 동성 내부의 상호결속과 사회적 지위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원은 족적 기반의 중심기구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오면 각 문중마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서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산되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우는 특정 가문의 본관지 및 입향지에 시조나 입향조·顯祖를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때문에 그 운영이 전적으로 문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다수는 향중유림의 동의 과정은 거쳤다. 이러한 유림들의 동의라는 것이 엄격한 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남발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우에 대한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강설·강여호 등을 제향하는 김산의 진주 강씨 문중사우인 자동서원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서원은 1811년(순조 11) 자양사로 건립되었다가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미사액서원 철폐 때 훼철되었으나, 1923년에 자양사로 복원되고 강석구·강이화를 종향하였다. 이후 1927년에는 유림의 公議로 자동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자동서원의 설립과 복설에는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과 유림들의 지원이 있었다. 설립 시에는 혼반과 학연 등으로 연결된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인 병산·도남서원 등의 통문이 있었고, 복설 시에는 당위성을 공문화하는 松溪서당의 통문에 이어 또 수십개 읍의 유림들이 儒楔를 결성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렇게 볼 때 자동서원의 건립과 복설 과정은 이 시기 사우에 대한 사례로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현재 자동서원과 관련해서는 단편적인 자료만 남아 있어 서술에 한계가 있지만, 창건과 복설 당시의 통문 등 남아 있는 몇몇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Ⅱ. 김천지역 서원 설립추이

현재 김천시는 조선시대 金山郡, 開寧縣, 知禮縣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세 군현이 합쳐지면서 오늘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조선시대 원사의 설립 추이를 살펴보면 김산, 개령, 지례 세 권역으로 나누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의 설립 주체는 16세기 이후 조선 정치사를 주도했던 사림 세력이었다. 김종직을 필두로 한 사림파는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훈구의 전향을 비판하는 한편, 향촌문제에 대해서는 유향소 복립 등을 비롯한 향촌 자치제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는 유향소를 통해 향촌사회를 사족 중심의 유교적인 향촌질서 체제로 재편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훈구·척신계의 방해 공작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 이후 정치적으로 몇 차례 사회를 겪으면서 사림세는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사림과 훈구의 갈등 속에서 그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지방의 서원이었다.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교화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 세력의 견제도 덜 받았다. 이후 사림은 서원을 통해 결집하였고, 서원은 그들의 향촌 활동을 공식적으로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중심기구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에 의해 풍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설립되었다. 이어 후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에 의해 백운동서원은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았고, 나아가 퇴계와 그 문인들이 펼친 서원 보급운동으로 지방 사학으로서 서원은 조선 사회에 보급·정착되어 나갔다.

17세기 중반까지 서원의 설립은 대체로 一鄉 또는 一道 사림의 공론에 의해 제향자의 문인, 鄉人, 후손 등이 협력하여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sup> 그 과정에서는 지역적 범위나 규모의 차이는 있었으나 본현 내지 인근 지방관

2) 정만조, 「앞의 논문」, 『韓國史論』 2, 서울대 국사학과, 1975 ; 앞의 책, 집문당, 1997.

의 협조가 있었다. 대체로 후손만이 주동이 되는 원사 건립의 경우 남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18세기 이후 특히 그 후반 이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서원은 교육기간으로 설립되었지만, 선조 연간 사람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후 부터 점차 사림의 향촌 내 활동의 핵심 조직으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서원 설립은 그 지역 재지세력의 존재 형태에 비례하였으며, 당시 폭넓은 재지세력이 존재한 경상도를 위시하여 하삼도에 집중되었다. 이들 지역은 일찍이 유교 전통의 뿌리가 내려져 있었고, 봉당 정치의 주역으로서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한편, 향촌 내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천지역 재지 세력의 존재는 어떠한가?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김산의 토성은 쏠·김·백·이, 禦侮屬縣 토성은 박·鄭·방·오·전·심, 개령은 흥·林·문·田·尋, 지례는 박·錢·張·康이다. 이중 개령 토성에 흥·임·문씨가 사족으로 나타나며, 김산과 지례는 사족은 지례 장씨밖에 없고, 이족으로는 백·박씨 등이 확인된다. 특히 지례 장씨 張志道(1371~?)는 조선 초 사환의 길을 걸었다가 후에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하여 향촌 자제들의 교육에 몰두하였다. 이때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인물로는 지례에 거주했던 尹殷輔(1468~1544)·徐鸞(?~?) 등이 있다.<sup>3)</sup>

이처럼 김천지역 재지 토성은 그 성세가 미약했으며, 그 자리는 여말 선초 불사이군의 충절로 낙향했거나 남귀여가혼에 따라 이거해 온 타 가문이 매우 게 되었다. 일례로 김산의 벽진 이씨는 李希牧의 장자 李存仁(1344~?)이 여말 선초 지례현 부항에 은거하고, 막내아들 이존실은 성주 배씨 裴希輔의 딸과 혼인하면서 김산군 古加大面 賀老로 들어왔다.<sup>4)</sup>

특히 선산 출신 김숙자가 개령현감으로 부임하며, 아들 김종직이 김산의 창녕 조씨 曹繼門(1414~1489)의 딸을 맞으면서 지역의 학풍은 더욱 진작되었다. 아버지를 따라 개령에서 머문 9년간 화순 최씨家의 崔漢公(1423~1499)·漢

3) 이수진,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112쪽.

4) 김성우, 「조선시대 碧珍李氏 金山派의 성장과 金山 土族社會에서의 위상」, 『대구사학』 126, 2017, 5~6쪽.

候(1432~1505) 형제 및 그의 동서 崔漢伯·漢禎(1427~1486)·漢良 등과 교류했다. 또 양천 허씨의 許琮(1434~1494)·琛(1444~1505) 형제, 벽진 이씨 李約東(1416~1493), 연안 이씨 李淑臧 등과도 친근하게 지냈다. 이후 영일 정씨의 鄭以僑, 처남인 曹偉(1454~1503)·伸(1454~1529) 형제, 중화 양씨 楊守泗, 해주 정씨 鄭碩堅, 성산 이씨 李世仁(1452~1516) 등도 김종직의 문인이 되었다. 이처럼 김천 지역은 김종직을 매개로 영남 사림파의 일원들이 다수 배출되었다.<sup>5)</sup> 이중 창녕 조씨·영일 정씨·벽진 이씨·화순 최씨·성산 이씨는 김산 사족사회를 주도하는 가문이 되었다.<sup>6)</sup>

이러한 배경 아래 김산에는 1648년(인조 26) 김종직[주형, 이약동·조위중] 형를 제향하는 景濂書院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17세기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창녕 조씨·영일 정씨·벽진 이씨 주도의 서인 세력과 성산 여씨·진주 강씨로 대표되는 남인 세력으로 분화되면서 지역 내 긴장감이 들었다. 이때 서인 세력은 同色을 지닌 화순 최씨와 해풍 김씨를 끌어들이고, 이들은 1673년(현종 14) 崔善門(?~1456)과 金始昌(1472~1558)을 경림서원에 추향하였다. 이로써 김산지역 영남 사림파를 상징했던 경림서원은 서인계 서원으로 변모해 나갔다.<sup>7)</sup>

이는 효종-숙종 대를 거치며 서원이 당파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갑술환국 이후 노론은 자파세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남인의 본거지인 영남에 노론계 서원을 전략적으로 설립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남인계 서원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김산은 남인과 서인 세력이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17세기 후반 경림서원과 향교가 서인계의 결집처가 되자 남인 세력은 그들

5) 김성우, 「15-16세기 善山-金泉 지역 儒學者들의 교류와 朝鮮 性理學의 전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2015, 59~62쪽.

6) 김성우, 「鑑湖 呂大老와 星山呂氏 耆洞派의 宗族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1, 2018, 168쪽.

7) 김성우, 앞의 논문, 2017, 30쪽.

만의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남인은 1736년(영조 12) 呂應龜(1523~1577)·여대로(1552~1619) 부자를 제향한 松溪書院을 건립하였다. 본 서원은 성산 여씨의 문중서원적 성격이 강했지만 이 지역의 남인계 사족인 외손 진주 강씨, 여대로의 제자 가문인 인천 이씨·성산 배씨·하빈 이씨, 안동 권씨 등 여타 가문들이 참여하였다.<sup>8)</sup> 하지만 1741년(영조 17) 서원 철폐령이 내려지면서 송계서원은 설립된 지 5년 만에 철폐되었다. 이후 1785년(정조 9)에 鏡陽書院으로 증건하였다.

1809년(순조 9)에 성주 배씨 裴規·裴興立(1546~1608)·裴尙瑜(1622~1686)를 모신 三綱祠가 세워졌고,<sup>9)</sup> 이듬해에는 성주 이씨 李世幹(1664~1733)을 제향하는 尙親祠가 설립되었다. 상친사는 1926년에 중시조 이하 13위를 추향하였다. 1811년(순조 11)에는 본고가 다루는 紫陽祠가 건립이 된다.

개령현에서 처음 건립된 서원은 1669년(현종 10)에 건립된 德林書院<sup>10)</sup>으로 김중직과 鄭鵬(1467~1512)을 제향하였다. 김굉필의 문인인 정봉은 개령 탄동에서 태어나 이후 선산 신당으로 이거했다. 경림서원과 마찬가지로 덕산서원 역시 김중직으로부터 이어지는 영남 사람파를 상징하는 개령의 대표 서원이었다. 1676년(숙종 2)에는 정경세를 추향함과 동시에 德林書院으로 사액을 받았다. 당시 추향과 사액은 성산 이씨 출신인 李馥(1626~1688)가 주도했다.<sup>11)</sup> 그는 동향의 李堦(1598~1664)에게 수학했으며, 허목에게도 예학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정경세의 재전 문인이기도 했는데,<sup>12)</sup> 이러한 학문적 연원을 계기로 정경세를 추향한 것이다. 그는 1654년(효종 5) 문과로 발신해 예송논쟁 당시 송시열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숙종 때에는 절도 안치를

8) 김성우, 앞의 논문, 2018, 191쪽.

9) 김천문화원, 『김천의 재사』, 2016 등 향토지에는 삼강사의 설립을 1605년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제향자 배흥립의 몰년이 1608년이므로, 본 발표문에는 『교남지』에 의거하여 “純祖 己巳年(1809년)”을 따랐다.

10) 舊 德山書堂에 세워졌다. 『嶠南誌』.

11) 정중로, 『立齋集』 권29, 記, 「德林書院重修記」.

12) 『愚伏先生門人錄』(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주장하는 등 강경한 당론 입장을 취했다. 숙종 즉위 초반 남인의 치세 속에서 이루어진 정경세 추함과 사액은 덕림서원의 학문·정치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日新書院은 고려 말 충신 李思敬과 이색(1328~1396)을 향사한 공간이다. 전의 이씨 출신인 이사경은 절의를 지키기 위해 개령에 은거했고, 평소 이색과 교유했다고 알려져 있다.<sup>13)</sup> 설립 연대는 미상이며 현재는 티김천시 아포읍 예리만 남아 있다.

지례현에서 처음 건립된 서원은 1648년(인조 26) 연안 이씨 李崇元(1428~1491)을 제향하는 道洞書院이다. 지례의 연안 이씨는 여말 선조 李末丁(1395~1461)이 입향한 이래 후손이 번창하며 곳곳에 세거지가 형성되었다. 이승원은 1453년(단종 1) 문과 장원에 급제할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고, 두루 요직을 역임하는 한편 중종 대에는 청백리로 뽑힌 전력을 가졌다. 1771년(영조 47)에는 상원리 현조 李淑琦(1429~1489)와 증손 李好閔(1553~1634)을, 1797년(정조 21)에는 이숙기 동생 李淑城과 증손 李後白(1520~1578)까지 추향하였다. 따라서 제향 인물로 보면, 처음 도동서원은 연안 이씨 상좌원리 중간공파 [李崇元] 중종 서원으로 설립되었다가 현재 위치<sup>14)</sup>로 이견하면서 상원리 정양공파[李淑琦] 중종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문중서원이 된 셈이다.<sup>15)</sup>

1756년(영조 32)에는 송시열과 현손 宋能相(1709~1758)을 제향하는 노론계 春川書院이 등장한다. 연안 이씨 정양공파 일원이자 송능상의 제자인 李宜朝(1727~1805)가 충청도 황간 寒泉書院에 봉안된 송시열의 영정을 모사해서 建院한 곳이다. 아버지가 도암 이재의 문인<sup>16)</sup>이었던 만큼 지례의 대표적인 노론 가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지례에 세거하던 연안 이씨를 포함해 하빈 이씨, 벽

13) 『東文選』 권75, 記, 「送月堂記」.

14)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리 481-2

15) 이대화, 『20세기 김천지역 연안 이씨 중종의 지속과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 145쪽.

16) 이대화, 앞의 학위논문, 45쪽.

진 이씨, 순천 박씨, 거창 신씨, 성산 이씨 등 노론계 가문 출신들이 契와 전답을 마련해 공동으로 운용을 했다.<sup>17)</sup> 1805년(순조 5)에 이의조가 별세하자 제자들은 평소 스승이 강론하던 明誠齋에 영정을 봉안하여 ‘鏡湖影堂’이라 명했다.

김해 김씨 문중에서는 1782년(정조 6)에 三賢 九義士<sup>18)</sup>를 기리기 위한 景賢祠를, 김녕 김씨 문중에서는 1802년(순조 2)에 김문기·金玄錫(1420~1456) 부자를 立享한 剡溪書院을 세웠다. 당초 김문기는 충북 옥천에 거주했으나,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됨으로써 그 후손 일부가 지례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1860년(철종 11)에는 은진 송씨 宋天祥(1556~1806)을 모시는 花溪祠가, 1864년(고종 1)에는 의성 김씨 金汝權(1557~1640)을 안치한 景仁祠가 세워진다. 양자는 임란 때 지례향교의 위패를 구한 전력이 由緒로 작용했다. 송천상은 향교 뒤편 안전한 곳에 위판을 묻어 두고 등곡(현 조릉) 私家 옆에 초가를 짓고 8년간 성현의 위패를 지켰다고 전해진다.<sup>19)</sup>

앞에서 소개한 조선시대 김산군, 개령현, 지례현에 소재했던 서원 사우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sup>20)</sup>

〈표 5〉 조선시대 김천 지역 서원 사우 현황

지역	서원명	설립	사액	제향자	주요 가문
김산군	景濂書院	1648년		김중직, 崔善門, 이약동, 조위, 金始昌, 曹逾	曹逾: 조위 5세손, 1778년 추향
	松溪書院 (鏡陽書院)	1736년 1785년		呂應龜, 여대로	성산여씨
	紫陽祠	1811년		姜溍, 姜汝床, 姜碩龜, 姜履和	진주 강씨

17) 송기동, 앞의 책, 262쪽.

18) 3현 9의사 : 金世準, 金義壽, 金震孫, 金大鴻, 金大鵬, 金基遠, 金振遠, 金洪順, 金洪銀, 金洪哲, 金洪德, 金洪聲이다.

19) 김천문화원, 『김천의 재사』, 2016, 352쪽.

20) 이 표는 『증보문헌비고』, 『교남지』, 『조두록』, 『서원가고』, 『김천의 향교 서원·서당』(김천문화원, 2015), 『김천의 재사』(2016), 디지털김천문화대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尙親祠	1810년		李世幹	성주이씨
	三綱祠	1809년		裴規, 裴興立, 裴尙瑜	성주배씨
개령현	德林書院	1669년	1676년	김종직, 鄭鵬, 정경세	
	日新書院	미상		李思敬, 李穡	
지례현	道洞書院	1648년		李崇元, 이숙기, 李好閔	연안 이씨
	春川書院	1756년		송시열, 宋能相	
	景賢祠	1782년		金世準, 金義壽, 金震孫, 金大鴻, 金大鵬, 金基遠, 金振遠, 金洪順, 金洪銀, 金洪哲, 金洪德, 金洪聲	김해김씨
	鏡湖曝書堂	1805년 이후		李宜朝	연안 이씨
	剡溪書院	1802년		김문기, 金玄錫	김녕김씨
	花溪祠	1860년		宋天祥	은진송씨
	景仁祠	1864년		金汝權	의성김씨

### Ⅲ. 자동서원의 설립과 복설

17세기 중반에 오면 이른바 山林세력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서원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되며 그 역할도 커져갔다. 이 시기는 붕당정치가 성리학 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명분과 의리 중심으로 전환되어 향촌 사림의 여론이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향촌 사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차적 거점이었던 서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sup>21)</sup> 한편으로 당시 향촌 사림은 이러한 붕당정치의 전개과정 속에서 고립을 면하기 위한 중앙 정치세력과의 연계와 나아가 향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시기 사림의 향촌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였던 서원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러한 양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 시기 서원·사우가 폭발적으로 남설되어 나갔다. 실제로 당시 院祠를 갖지 못한 고을의 경우 사림의 활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사림들은 그들의 장수처로서 또

21) 書院·祠宇의 개념은 정만조, 앞의 논문, 1975 ; 앞의 책, 집문당, 1997.

는 향촌에서의 儒化를 위해서는 서원·사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앞 다투어 원사를 건립해 나갔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원사가 남설되고 이로 야기된 폐단이 심각하게 노출되자, 국가에서는 신설 금지[숙종 7], 첩설 금지[숙종 39, 계사수교], 서원 훼손[숙종 40, 갑오정식] 등의 일련의 조치로 통제책을 가하였다. 영조 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정책 기초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1741년(영조 17)에는 갑오정식을 기준으로 하여 173개소의 원사 훼손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정조 즉위 후 개혁사상의 진보적 흐름과 전통적인 양반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방향이 병존하면서 변화의 모습이 감지된다. 즉 서원 금지령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아래의 자료는 그런 정황이 잘 담겨져 있다.

① 예조판서 유언호가 아뢰기를, “영남에서는 世德祠니 향현사니 일컬으면 서 追享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틀어막는 것이 어떨지요?” 라고 하였다. 임금이 한참동안 망설이다 말씀하시길, “지난 가을에 몇 군데 허락해 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란의 단서가 있구나. 올해[정조 10]는 따지지 말고 내년부터 다시 엄중히 금하도록 할 일이다.”고 하셨다.<sup>22)</sup>

② 정조 13년 松崖의 옛터에 사당이 다시 설립되었다. 이때 조정의 금지하는 것이 조금 풀어졌다. 원근의 사우들이 차례로 복설되었다. 사람이 곧 송애의 옛터에 옛날처럼 嚴享하였다. 紹賢書院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傲賢祠라고 하였다. 임술에 성담 송환기가 서원으로 사액하였다.<sup>23)</sup>

위의 두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정조 대 서원에 대한 통제가 일정부분 완화되는 동시에 훼손된 서원이 복설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서원이 가장 많았던 영남지역[747개소] 설립 추이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22) 경산현 『玉川祠奉安時日記』, 筵說

23) 金慶餘, 『松厓集』 권3, 「연보」.

영남에서는 16세기 37개소, 17세기 220개소, 18세기 93개소, 19세기 이후 100개소, 미상 297개소의 서원이 설립되었다.<sup>24)</sup> 여기에서 보면 18세기가 17세기에 비교해 절반이상 감소한 것 같지만, 노론전제 정권이 확립되는 1694년(숙종 20)부터 1800년(정조 24)까지를 18세기로 설정해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시기에 설립된 원사가 무려 196개소에 달하기 때문이다. 미상을 제외하면 전체 43%를 차지하는 셈이다. 여기에 1741년(영조 17)에 휘철 당한 52개소 원사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한다.<sup>25)</sup> 이는 숙종 조 이후 강력한 서원 신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사 건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원사의 남설은 18세기 이후의 향촌 내 문중의식의 확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sup>26)</sup>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에서 동성촌의 발달과 함께 동성 내부의 상호결속과 사회적 지위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원은 족적 기반의 중심기구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이는 향촌사회에 있어서 기존의 사족지배가 점차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 시기 향안·향약 등 사족간의 결속을 보장하던 자치조직이 쇠퇴하면서 사족들은 문중적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중의식의 확대와 함께 서원은 문중 내 顯祖의 제향을 통한 향중에서 벌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지속, 문중자제의 교육과 교화를 통한 문중 내 윤리질서의 유지 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27)</sup> 따라서 이때에 오면 각 문중마다

24) 통계 수치는 이병훈, 「조선 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설립과 변화 검토」, 『서원학보』 6, 2018에 수록된 것을 재인용 하였다.

25) 채광수,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6) 물론 서원도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家廟의 성격의 門中書院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서원 濫設과 疊設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서원의 문중화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가 참고 된다.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8.

27)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 『韓國史學』 10, 1989 : 앞의 책, 재수록.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서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원의 각 가문별 분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각 당파 간의 자파세력 확대정책이 결부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산되었다.

원사의 건립과 운영은 1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향중 공동의 관심사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점차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서 지역·문중별로 개별화 추세를 보이다가, 18세기 이후부터는 문중의 파별로 더욱 세분화되어 갔다. 이러한 서원의 성격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원사의 남설은 경상도가 타도에 비해 가장 심하였다.

이러한 추이 속에서 1811년(순조 11) 김산에서 자양사가 건립되었다. 현재 자양사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단편적으로 남아 있어 서술에 한계가 있지만, 통문 등 남아 있는 몇몇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사실 서원의 신설은 1681년(숙종 7) 이후 법적으로는 불법이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建院을 원하는 세력들은 서원이 아닌 사우·서당·영당·세덕사·精舍·齋舍 등을 먼저 건립했다가, 향후 陞院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양사도 1793년(정조 17)에 蓮峰山 아래의 터에 세운 遠慕齋가 전신이었다. 이곳은 평소 강여호가 소유한 杖履之地이기도 하다. 그의 문집에는 이곳을 거닐며 감회를 노래한 시가 전한다.

紫陽山 題詠

江湖 燧石 사이에 집터 새로 정하니,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살려네.

태평한 시대에 버려짐을 남은 한탄치 마소, 말년에 어긋남은 내가 편안히 여길 바이네.

저 名場의 영리 쫓아 바쁜 모습들 보니, 어찌하여 조용한 곳에 한가로울 수 있겠는가?

성현의 사업은 方策에 갖추었으니, 단지 소원은 藏修하여 공자, 안자를 배움 일세.<sup>28)</sup>

원모재 내에는 강설과 강여호를 봉안한 별묘와 그 아래에 齋舍 2개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었다. 전자는 蓮峰으로,<sup>29)</sup> 후자는 紫陽으로 편액을 하였다.<sup>30)</sup> 비교적 늦은 시기에 마련된 소규모 건축물에 불과하나, 江坪의 진주 강씨 문종의 정체성이 내재된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0여 년 뒤인 1804년(순조 4) 12월 6일에 고령의 梅林書院<sup>31)</sup>에서 강여호를 향사하는 사우 설립을 발의하는 통문이 답지하였다.<sup>32)</sup> 그러나 매립서원의 영남지역 내에서의 위상이 다소 낮았던 탓일까, 아니면 모종의 문제가 있었는지 사우 건립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1805년부터 1806년(순조 6)에 걸쳐 영남 내 유수의 서원 등 7개소에서 재차 立祠의 필요성을 재론한 통문들이 당도하였다. 처음 발의한 1805년 9월 18일 병산서원 통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앞드려 생각하니 덕이 있는 이와 어진 이를 존송하는 것은 떳떳함을 잡은 公心이며 사당을 세워 정성을 드높이는 것은 선비들의 큰 책임이라.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耆齋 강선생은 시례의 가정에 태어나 도의의 문하에서 훈습하여 임금과 어버이에게 충효를 다하고 경중을 내외에서 살펴 眉叟는 論思로 천거하였고, 湖翁은 청백으로 칭찬하여 거울을 닦는 방법과 白圭의 시를 반복해 읽은 공부<sup>33)</sup>라는 설봉공의 백세 信筆에서 나온 것이며, 洪木齋(홍여허) 姜三休(姜世龜)와 평생에 도의로 사귀며, 그 맑은 지조와 높은 명망은 진실로 후생들의 모범이 되거늘 백년간이나 인몰하여 아직도 모임에서 제사의 의식이 없었으니, 이것이 유림의 欠典으로 도내의 章甫들이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8) 강여호 著·강희대 譯, 『耆齋先生文集』 「자양산 제영」, 김천향토사연구회, 2020, 51쪽.

29) 『嶠南誌』.

30) 강여호 著·강희대 譯, 『耆齋先生文集』, 「遠慕齋記」(姜履和).

31) 1707년(숙종 33)에 고령군 쌍림면에 고창오씨 吳善基와 현풍곽씨 郭壽岡을 제향한 양 문중이 연대한 서원이다.

32)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梅林書院 通文」, 258~260쪽.

33) 復圭之工 : 논어에 南容이 白圭의 시를 하루에 세 번씩 읽는 것을 보고 공자가 질서로 삼았다는 고사이다.

生等은 근래에 엮드려 매립서원의 통유문자를 보니 많은 이들의 마음이 함께 하여 큰 논의가 이미 정하여 공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을 보니 때가 마침 오늘을 기다린 것 같으니 엮드려 원하건데 첨군자는 속히 욕의를 거행하여 多士의 희망에 부응하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sup>34)</sup>

이 통문에는 병산서원 都有司(원장 前참봉 李堦(1739~1811))를 비롯해 119인이 이름을 올렸다. 병산서원은 당대 안동, 나아가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의 위상이 있었고, 원장 이우는 1792년 ‘사도세자신원만인소’의 疏首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통문의 지역 내 영향력을 족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후 선산 낙봉서원(1805년 10월 4일), 인동 동락서원(1806년 2월 19일), 칠곡 사양서원(1806년 2월 19일), 상주 도남서원(1806년 3월 9일), 安義 某里齋(1806년 9월 3일) 등<sup>35)</sup>에서 차례로 사우 건립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통문이 이어졌다. 통문을 보내 온 이들 서원 자체만으로도 제향 할 강여호의 지역적 위상을 가늠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는 또한 이 서원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모리재에서 온 통문에 의하면 “공의가 일어난 것이 병산서원에서 시작하여 이어서 도남서원에서 여론이 일어나니 吾黨의 諸生들이 누가 선생의 풍도를 듣고 마음을 흥기하지 않겠는가 ... 같이할 것입니다.”<sup>36)</sup>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자양사의 건립 과정에서 보면 사우 건립을 처음 발의한 매립서원 뿐만 아니라 병산·낙봉·동락·사양·도남서원 등은 제향자로 강여호 한 사람만을 거론하고 있었다. 다만 1806년 2월 1일의 김산향교 통문에서는 강여호와 그의 부친인 강설 두 사람을 거론하였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온 1806년 9월 3일 모리재의 통문에서도 제향자로 두 사람을 거론하였다. 어떤 공론의 과정을

34)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屏山書院 通文」, 260쪽.

35)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262~270쪽.

36)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安義 某里齋 通文」, 269~270쪽.

거쳤는지는 추적할 수는 없으나 자양사가 건립될 당시에는 두 사람을 제향하였다.

대부분의 사우는 특정 가문의 本貫地 및 입향지에 시조나 입향조·顯祖를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그 운영이 전적으로 문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다수는 향중유림의 동의를 거쳤다. 이러한 유림들의 동의라는 것이 엄격한 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남발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자양사의 건립도 이러한 영남 내 유림들의 공론 형성의 단계를 밟았다.

한편 통문을 보내온 병산·동락·낙봉서원은 진주 강씨 가계와 혼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원들이다. 강여호의 손자 姜震煥은 장현광의 증손 張萬元의 딸을 처로 맞이했고,<sup>37)</sup> 증손녀는 풍산의 柳澐에게 출가하였다. 또한 증손자 강석구와 4대손 姜履坦이 동락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sup>38)</sup> 姜履載는 1809년(순조 9) 장현광의 문묘배향 상소에 앞장섰다.<sup>39)</sup>

낙봉서원을 경영한 선산 김씨는 강여호의 사돈 家이자, 4대손 강이화의 처가라는 세의가 있었다. 한편 도남서원의 경우에는 당시 원장이던 선산출신 金驥燦은 강여호의 증손자 강석구와는 척연이 있고,<sup>40)</sup> 중앙관료 생활을 함께 한 친숙한 사이였다.<sup>41)</sup>

동계 정운을 모신 모리재는 1806년(순조 6) 중수를 위해 列邑에 發通할 때

37) 장만원은 허목에게 수학했다고 알려져 있다. 박정숙, 「학암 강석구에 관한 일고찰」, 『통합인문학연구』 10, 2018, 64쪽.

38) 강석구는 1794년(정조 18)에, 강이탄은 1807년(순조 7)에 동락서원 원장에 선임되었다. 덕천서원 복원추진위원회, 『덕천서원』 「동락서원 통문」, 62쪽 ; 동락서원 운영위원회, 『東洛書院誌』 2018, 141쪽.

39) “강이재가 승지 金宗善을 만나러 가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헌 장현광은 문묘에 배향될 수 있으나, 한강 정구는 당시 올린 상소에 인목대비를 폄박하는 말이 있어서 문묘에 함께 배향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노상추 일기 9』(1809.4.15.), 2019.

40) 김기찬은 강석구 고모의 손자이다.

41) 이러한 모습은 『노상추 일기』 곳곳에 산견이 된다.

강이화가 이름을 올린 것이 확인이 된다.<sup>42)</sup>

이러한 공문에 힘입어 1811년(순조 11) 2월에 강설과 강여호를 모신 3칸의 廟宇를 완공해 ‘紫陽祠’로 명명했다. 진주 강씨 문중에서 사우를 보유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사우 건립의 성공의 배경에는 당대 강석구의 명망과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강석구는 1768년(영조 44) 문과로 발신해 정조·순조 연간에 정치 활동을 전개한 영남 남인의 대표적 문신 중 한명으로 꼽힌다. 당시 영남에서는 드물게 근기남인과의 연계를 맺고 있었으며, 향촌에서 남다른 입지를 가진 인사였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復戶, 정려, 증직도 미흡하다. 사우를 세워 俎豆하는 것이 백세에 여러 선비들에게 우러러짐이다.’<sup>43)</sup>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자양사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다시 말해 문중 활동의 정점은 사우 설립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강이화는 상량문을 지어 낙성을 기념했다. 그 중요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sup>44)</sup>

(생략) 엿드려 생각하니 南窩府君(강설)은 자운 선생의 착한 손자요. 한강 선생의 높은 제자였다. 병자호란에 한성의 의병으로 달려가니 靡然히 다시들이 따르기를 원하였고, 당시 군수가 湖堂<sup>45)</sup>에 친거한 것을 배척하였으니, 진실로 여러분들의 추종을 받으셨도다. 동쪽으로 추로의 고을로 옮겨, 집안에 술을 새로 걸었고 위로 퇴계 선생의 연원을 찾아 학업이 점진하였다. 팔방의 창문 밝은 밤에 무곡과 태극의 眞髓를 비추어 보았고, 한 책상에서 강마하던 때에는 인심과 道心の 묘리를 발휘하였네. 사람을 가르칠 때 에는 時雨처럼 사물에 젖었고, 사물을 접할 때 봄별처럼 따뜻하였네. 동정에 어김이 없었으며 원기를 充養하였다. 이것이 모두 실천하는 효험이었고 또한 반드시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42) 「花葉成造時通文書簡」, 한국고문서자료관.

43) 김연이, 『華山禮輯』, 「建祠通章」;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127쪽, 재인용.

44) 강여호 著·강희대 譯, 『耆齋先生文集』, 「紫陽祠宇上樑文」(1811년 3월 17일).

45) 호당湖堂: 조선시대 젊고 유능한 문관에게 휴가를 주어 오로지 학업을 닦게 하던 독서당이다.

규범이라.

앞드려 생각하니 耆齋府君[강여호] 돈독히 仁을 쌓은 집안에 태어나서서 능히 성리性理의 학문을 이으셨네. 백세에 아름다움을 전하겠다는 중국의 관상가의 눈이 신령과 같았으며, 한 문장을 빛나게 하겠다는 泉叟의 知鑑이 물과 같았네. 30년을 화려한 요직을 이력하셨으나 立朝는 겨우 수삭의 기일에 지나지 않았다. 6·7음의 넉넉한 관직에 나아갔으나 돌아올 때의 행장은 청백이란 두 글자에 불과하였네. 方策을 체행하여 일찍이 繼往開來의 공부를 가다듬었고, 軒冕[벼슬]의 浮榮을 하찮게 보고 만년에는 몸을 감출 뜻을 두었네.(생략)

이어 그의 주도로 1817년(순조 17) 강당까지 상량이 되면서,<sup>46)</sup> 서원의 규모로 시설을 완비한 것이다. 1849년에 강당 중수가 한 차례 있었다.<sup>47)</sup>

이때 건립된 자양사는 진주 강씨의 세덕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문헌상에서도 보면 ‘자양 세덕사’라는 언급이 있고, 또 봉안문도 ‘세덕사봉안문’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세덕사는 조상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자양사가 훼손된 후 복설하면서 강서구·강이화 두 분을 중향한 것도 자양사의 세덕사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자양사의 봉안문과 상향축문은 1840년(헌종 7)에 확인된다. 설립되고 상당한 기한이 소요된 원인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봉안문과 상향축문은 당대 남인의 문장가로서 명성을 남긴 姜世綸(1761~1842)에게 부촉했다.<sup>48)</sup> 사당과 강당 건축을 주관한 강이화는 당대 영남을 대표하던 학자인 상주의 정종로와 교유가 두터웠다. 자연스레 그는 정종로의 제자인 李升培를 비롯해 상주권 남인계 인사와도 인연을 맺고 있었다.<sup>49)</sup> 강세륜은 바로 정종로의 고제이면서 지역 문학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에서, 봉안문을 撰하는데 매우 적합한 인사

46)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紫陽講堂上梁文」(1817년 10월 26일).

47)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紫陽祠講堂 重修上樑文」(1831년).

48)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世德祠奉安文」, 「常享祝文」(姜世綸, 227~230쪽).

49) 이승배, 『修溪集』, 권1, 「시-次呈江湖姜丈」.

였다. 관직 은퇴 후 유유자적 말년을 보내던 강세륜은 강설과 강여호 두 분의 행적과 봉안 의의를 축약해 보내주었다.<sup>50)</sup> 이와 같이 19세기에 진주 강씨들이 사우 설립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19세기 중엽에도 여전히 사우가 필요했던 당시 향촌 사회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서원·사우는 영조 17년 전국에 걸쳐 173개소라는 대규모 휘철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설·첩설은 말할 것도 없고 원사로 야기된 사회적 폐단도 제거되지 못한채, 오히려 더욱 악화되면서 대원군의 전면적인 휘철을 맞게 되었다. 대원군의 원사휘철은 집권 초에 구상되어 이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고종 원년(1864)에 원사에 대한 조사에 이어, 2년에 시범조치로 원사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만동묘를 철폐 시켰다. 이어서 1868년(고종 5) 8월에 미사액서원에 대한 전면적인 휘철을 단행하였다.<sup>51)</sup> 이때 휘철 대상을 미사액서원이라 했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향현사·영당·생사당 등 모든 미사액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자양사 역시 이 조치로 인해 휘철이 되었다.

대원군 실각 후 서원 복설을 요구하는 상소가 이어졌지만, 고종은 서원을 深弊處로 인식해 복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강경 분위기 탓에 복설이 어려워지자, 유림들 사이에서는 차선책으로 壇所를 설치하지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에 휘철된 원사는 壇을 세워 의례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원의 옛 터에 서당·정사·서재 등 여러 형태로 복설이 추진되었다. 단이나 서당·정사 등을 세울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서원터에 유 허비를 세우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sup>52)</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21년

50) 강설 : 性理의 학문이며, 맑고 깨끗한 지조로다. 끼친 모범 우러러 보며, 어찌 행실을 돈독히 하지 않으리.

강여호 : 忠貞으로 입조하고, 詩禮로 집안을 계승하였네. 羹牆에 추모하는 마음 불이니, 典刑이 멀지 않으시네(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常香祝文」, 230쪽).

51) 『일성록』, 고종 5년 8월 3일, 박주대, 『羅巖隨錄』 1책, 무진 8월.

52) 윤희면, 「고종대의 書院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0, 1999, 175~179쪽.

송계서당에서 자양사 복설의 당위성을 공론화하는 통문이 나왔다.

(훤철되어) 빈터가 되어 있고 堂廡는 숲이 되어 있고 자손은 답답해하고 사림은 슬퍼하면서 지금에 이른 것이 50여년이 되었다. ... 신유년(1921)에 송계서당 모임에서 공의가 크게 일어나 말하기를 “世賢을 숭祀하는 것에 의례를 줄여서 모시는 것은 의례에도 근거할 수 있으며 의리에도 구애가 되지 않는다” 하고 드디어 모임을 결성하여 재물을 모아 장차 崇奉의 일을 하려고 하며 또 鶴巖[강석구]과 湖淵[강이화] 두 분을 종향하려고 한다. ... 예전에 모시던 일을 회복하고 새로운 위패를 모시는 것은 모두 사림의 큰일이므로 한 고을의 사사로운 논의로는 갑자기 결정할 수 없어 이에 一道에 公衆의 논의에 붙여 바른 길로 행하기를 구하려 하니 ... 修契하여 도울 것이니 없드려 원하건데 여러분들은 오는 3월 일에 大事를 이루어 주시면 吾黨의 다행이며 사문의 다행이겠습니다.<sup>53)</sup>(신유 10월 21일)

여기에서 보면 자양사 복설을 위한 공론을 형성하고, 복설과 동시에 기존에 제향된 두 분과 더불어 진주 강씨 가학을 계승한 강석구와 강이화를 종향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복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修契하여 돕겠다고 하였다.

복설비 마련을 위한 儒楔추록 포함 605명을 결성했는데,<sup>54)</sup> 유계에는 1920년 266명, 1921년 129명이 참가하였다. 그 이후에도 추록이 계속되어 1923년에 48명, 1924년에 77명, 1926년에는 51명이, 그 이후 1961년에도 34명이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영남의 수십개 고을에서 동참을 하였다. 이 유계는 복설뿐만 아니라 복설 이후 서원의 운영에도 일정한 경제적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1923년에 마침내 자양사가 복원되고 네 분을 봉안하였다.<sup>55)</sup> 1927년에는

53)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金山 松溪書堂 通文」(1921년 10월 21일), 270~272쪽.

54)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好懿齋 儒楔序」(1933년, 呂錫武), 278~294쪽.

55)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紫陽祠復元奉安文」(李時佐), 249쪽 ; 「尙懿祠 重建上樑文」(1922년, 張錫英), 273쪽.

사람의 존봉이 되기 위해서는 서원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유립의 공의에 힘입어 서원으로 승격해 院號를 ‘紫東’으로 하고, 사당은 尙懿, 강당은 敬居, 동서 兩室은 각각 養善, 育英, 門은 濟蹕으로 하였다.<sup>56)</sup> 紫東은 ‘朱子の 학문이 이 堂에서 다시 밝아짐을 얻는다’에서 연유하였다.

복설이 될 무렵부터 작성된 원장·유사안인 『紫陽院錄』을 보면 당시 자동서원의 인적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sup>57)</sup> 여기에는 1923년부터 1987년까지 원장 61명과 유사 44명의 명단이 입력되어 있다. 주요 성씨를 보면 이씨 19명, 김씨 9명, 강·여씨 각 5명 등의 순이다. 서원의 주인인 강씨 비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자동서원이 특정 가문의 사유가 아닌 공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서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김산에서 300여 년간 세거해 온 진주 강씨의 문중서원인 자동서원의 설립과 복설 과정에 대해서 통문 등 남아 있는 몇몇 자료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았다. 이를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한다.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원이 남설되면서 이로 야기된 폐단이 심각하게 노출되자, 국가에서는 신설 금지, 첩설 금지 나아가 영조 대에는 173개소 원사의 훼손을 단행하였지만, 이후에도 원사는 여전히 남설되어 갔다. 당시 원사의 남설은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에서 동성촌의 발달과 함께 문중결속과 문중 활동의 구심점으로서 원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원과 사우가 혼칭되면서 그 구별이 모호해진 가운데, 재지사족은 국가의 서원 신설 금지라는 금령을 피해 서원 설립의 전 단계로서 사우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

56) 강여호 著·강희대 譯, 앞의 책, 『敬居堂記文』(1938년, 송준필(宋浚弼), 295~297쪽.

57) 『紫陽院錄』.

았다. 18세기 특히 후반 이후 건립된 원사는 대부분 사우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추이 속에서 1811년 김산에서 자양사가 건립되었다. 자양사는 1793년에 강여호가 평소 소유했던 杖履之地에 세운 원모재가 전신이다. 원모재 내에는 강설과 강여호를 봉안한 별묘와 그 아래에 齋舍 2개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재사는 紫陽으로 편액하였다.

이후 문중결속과 문중 활동의 구심체로서의 원사 설립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804년 12월 6일에 고령 매림서원에서 사우 설립을 발의하는 통문이 답지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후 1805년 9월 18일의 병산서원 통문을 시작으로 약 1년 간 낙봉·동락·사양·도남서원, 안의 모리재 등 영남 내 유수의 서원 등 7곳에서 재차 立祠의 필요성을 재론한 통문들이 당도하였다.

처음 통문을 낸 병산서원은 이 시기 안동 나아가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의 위상이 있었다. 이 같은 사정은 모리재에서 온 통문에서 “공의가 일어난 것이 병산서원에서 시작하여 이어서 도남서원에서 여론이 일어나니 吾黨의 諸生들이 누가 선생의 풍도를 듣고 마음을 흥기하지 않겠는가”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통문을 보내온 서원은 진주 강씨 가계와 혼반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원이다.

이러한 공론에 힘입어 1811년 2월에 강설과 강여호를 모신 3칸의 묘우를 완공해 ‘자양사’로 명명했다. 이후 1817년 강당까지 상량되면서, 서원규모로 시설을 완비하였다. 자양사의 봉안문과 상향축문은 1840년에 확인된다. 예식 문자는 당대 남인의 문장가로서 큰 족적을 남긴 강세륜에게 부촉했다.

자양사는 1868년 대원군의 미사액서원에 대한 전면적인 철폐 때 훼철되었다. 이후 1921년에 자양사 복설을 위한 송계서당의 통문이 나왔다. 이 통문에서 자양사 복설을 위한 공론을 형성하고, 복설과 동시에 기존에 제향된 두 분과 더불어 진주 강씨 가학을 계승한 강석구, 강이회를 중향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복설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修契하여 돕겠다고 하였다. 이어 수십 개 고을의 유림들이 儒契를 결성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23년에 자양사가 복원되고 네 분을 봉안하였다. 이후 1927년에는 유림의 공의로 자동서원으로 승격하였다.

## 【참고문헌】

### 1. 원본

『花葉成造時通文書簡』, 『교남지』, 『玉川祠奉安時日記』, 『愚伏先生門人錄』, 『일성록』, 『조두록』, 『서원가고』, 『증보문헌비고』, 『紫陽院錄』.

### 2. 연구논저

- 강여호 著·강희대 譯, 『耆齋先生文集』, 김천향토사연구회, 2020.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노상추 일기 9』.  
金慶餘, 『松厓集』.  
김천문화원, 『김천의 재사』, 2016.  
김천문화원, 『김천의 향교 서원·서당』, 2015.  
동락서원 운영위원회, 『東洛書院誌』, 2018.  
서거정, 『東文選』, 협성문화사, 198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이승배, 『修溪集』.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8.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종로, 『立齋集』.  
김성우, 「15-16세기 善山-金泉 지역 儒學者들의 교류와 朝鮮 性理學의 전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 2015.  
김성우, 「鑑湖 呂大老와 星山呂氏 蒼洞派의 宗族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1, 2018.  
김성우, 「조선시대 碧珍李氏 金山派의 성장과 金山 士族社會에서의 위상」, 『대구사학』 126, 2017.  
박정숙, 「학암 강석구에 관한 일고찰」, 『통합인문학연구』 10, 2018.  
이대화, 「20세기 김천지역 연안 이씨 종중의 지속과 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이병훈, 「조선 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설립과 변화 검토」, 『서원학보』 6, 2018.  
채광수,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Abstract

## Establishment and Restoration of Seowons in the Gimcheon Region and Jadong Seowon

Lee, Soo-hwan\*·Chae, Gwang-su\*\*

After the 18th century, with the emergence of needs for mutual binding of the same family line and sustainment of social status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villages with the same family lines in a local community, the seowon (traditional school) increased its social role as a central legacy-based organization. Therefore, for each period, each family line direly felt the need of sowon to represent respective interests and understanding, and as a result, such a phenomenon has expended even more significantly. There is a difference depending on regions but most of lineage was established to pay tribute to the sijo (founder of a family) or iphyangjo·hyeonjo in the family clan site and iphyang-site of the specific clan. Because of this attribute, it is frequently a case that the operation is undertaken exclusively by the family, but majority went through the process of consent of the hyangjung-yurim.

Under this article, as part of case studies on such a lineage, it made the review on Jadong Seowon as the family lineage of Jinju Kang Clan that enshrined Kang Seol, Kang Yeo-ho and others. This seowon was established as Jayang-sa in 1811 (the 11th reign of King Sunjo) and was shut down during the time of shut down of unauthorized seowon by Daewon-gun, but it was

---

\*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wndgy@ynu.ac.kr

\*\*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 corhkdt911@ynu.ac.kr

restored as Jayang-sa in 1923 and enshrined Kang Seok-goo and Kang E-hwa. Thereafter, it was promoted to Jadong Seowon with the consensus opinion of the yurom (Confucius scholars) in 1927. For the establishment and restoration of Jadong Seowon, there were supports of representative seowons and yurims of Youngnam.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there were written notice of Byeongsan and Donam Seowon and others that were linked with marital relations, academic ties and the like, and for the restoration, the yurims in tens of eups (geographical administrative unit) organized the yuseol to render economic support following the written notice of Songgye Seodang that places the justification of restoration to be publicly disputed

Key word : Gimcheon, Jadong Seowon, Kang Seol, Kang Yeo-ho, Kang Seok-goo, Kang E-hwa

논문 투고일: 2024. 05. 08 심사 완료일: 2024. 06. 11 게재 확정일: 2024. 06. 11



# 진주강씨 찰방공파(察訪公派) 족세의 성장과 종족촌락(宗族村落)의 형성

김 성 우\*

- I. 머리말
- II. 강설(姜濼)의 김산(金山) 입향과 족세의 성장
- III. 인구압과 강평(江坪) 이주
- IV. 종족(宗族) 활동의 전개와 종족촌락(宗族村落)의 완성
- V. 맺음말

## 【국문초록】

진주강씨 동지공파의 일원인 강설(姜濼, 1583~1651)은 조부 강부(姜符)가 김천 찰방을 역임한 것을 인연으로, 당대 김산을 대표하던 명사 여대로(呂大老)의 사위가 되어 김산 기동(耆洞, 기름)으로 입향했다. 당시 기동은 고려 시대 이래의 혼속인 부처제(婦處制)에 따라 하빈이씨, 인천이씨, 성산여씨를 비롯한 다양한 성씨들이 잡거(雜居)하는 전통 마을(traditional village)이었다. 여기에 진주강씨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기동은 4개 성씨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다. '기동의 평화'는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에 이르러 깨어졌다. 마을 인구의 증가로 식량 생산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전염병이 빈발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른바 '말더스의 함정'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족세가 가장 컸던 성산여씨는 기동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시켜 갔고, 나머지 3개 성씨 집단들은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진주강씨는 18세기 중반 기동에서 가까운 계곡 마을인 강평(江坪, 강바대)로 집단 이주했다. 진주강씨는 이곳에서 현조(顯祖)들의 현창, 각종 문자의 확보, 문중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kswuhi@hanmail.net

사우(門中祠宇)인 자양사(紫陽祠) 건립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해, 이곳을 그들의 남계친 자손들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종족촌락(宗族村落, lineage village)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런 노력 끝에 이들은 '강평 강씨'로 알려졌고, '기동 여씨'와 더불어 김산의 남인계 사족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대 종족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주제어 : 부처제(婦處制), 부처제(夫處制), 전통 마을, 종족촌락(유교마을), 인구 증가, 맬더스의 함정, 종족 활동, 위선사업, 문중 사우(門中祠宇)

## I. 머리말

한국의 전통 혼속(婚俗)은 결혼 이후 사위가 처가 집에 사는 부처제(婦處制, 혹은 壻留婦家婚)였다. 그에 따라 수많은 사위가 처가 동네로 들어왔고 외손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성씨가 마을의 주인이 되었다.<sup>1)</sup> 다양한 성씨들이 서로 섞여 사는 이성잡거(異姓雜居) 촌락은 전통적 관습과 관행에 기초한 전통 마을(traditional village)이었다. 그렇지만 17세기 전·중반 이후 남계(男系) 조상의 후손들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마을 운영을 주도하는 종족촌락(宗族村落, 혹은 동성(同姓) 촌락)으로 전환해 갔다. 종족촌락은 유교적 가정·사회 질서인 종법제도(宗法制度)에 기반한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교 마을(confucian village)이라 부를 수 있다. 종족촌락은 하나 혹은 두 개의 남계친 집단이 한 마을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현조(顯祖)를 받드는 사우(祠宇)나 서원(書院)을 건립하고, 이런 기구를 이용하여 여타 지역의 종족이나 사우·서원과 유대하면서 주민들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마을이었다.<sup>2)</sup>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전통 마을이 유교 마을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주목

1) 김성우, 「15,16세기 사족층의 고향 인식과 거주지 선택 전략-경상도 선산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8, 2008, 40~47쪽.

2) 善生永助(전쇼 에이스케), 『朝鮮の聚落』, 조선총독부, 1933.

해 왔다. 재산 및 제사 상속 관행의 변화를 통해 자녀균분(子女均分) 상속에서 남자균분(男子均分) 상속으로, 그리고 적장자(嫡長子, 宗孫) 단독 상속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아들과 사위, 그리고 친손과 외손이 더불어 살아가던 전통 마을이 점차 남계친 조상의 후손들만이 거주하는 유교 마을로 전환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sup>3)</sup> 이런 인식의 변화에는 주자학적(朱子學的) 세계관의 수용, 주자학적 가정·사회 윤리의 확산, 종법제도의 확립이라는 사회 저변의 도도한 흐름이 있었다고 이해한다.<sup>4)</sup>

그렇지만 이러한 제반 과정을 주자학적 세계관의 수용과 종법 질서의 확립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회변화를 사상과 이데올로기 측면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법제도의 수용과 확립 시기를 임진왜란 이전/이후로 보는 견해, 17세기 전·중반/17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하여, 유교 마을의 성립 시기를 확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종족촌락의 형성과 관련한 세 가지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사회에서 종법 질서가 수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7세기 중·후반, 유교 질서가 확립된 시점은 18세기 초·중반이다. 둘째, 17세기 중·후반~18세기 초·중반 인구압의 증가가 유교사회로의 전환을 재촉했다.<sup>5)</sup> 셋째, 전통

3) 최재석, 「17세기 친족구조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일지사, 1993 ; 「조선 중기 가족·친족제의 '재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 1993 ; 이수건,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조 사회사의 一研究」, 『한국사학』 9, 1987 ;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 역사학회 편, 『한국친족제도사』, 일조각, 1992.

4)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26, 28, 136, pp.281-282(이훈상 역, 『한국사회의 유교적 전환』, 아카넷, 2003) ; Mark A. Peterson, *Korean Adoption and Inheritance - Case Studies in the Creation of a Classic Confucian Societ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김혜정 역, 『儒敎社會의 創出 - 조선 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일조각, 1999, 29~31·212~213쪽).

5) 17세기 중·후반~18세기 초·중반 이후 종법 수용이라는 사상·이념과 인구압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서로 착종하면서 종족촌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

마을이 유교 마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배층인 사족(士族)들이 다양한 종족 활동을 통해 현조(顯祖)를 현창하고,<sup>6)</sup> 여타 종족이나 지역과 유대하면서 지역사회를 주도할 만한 강력한 지배력을 구축해야 한다.

본고는 이런 가설을 입증할 사례로 경북 김산(오늘날 김천)에 세거해온 진주강씨(晉州姜氏) 찰방공파(察訪公派)에 주목하고자 한다. 찰방공파는 강설(姜濩, 1583~1651)이 여대로(呂大老, 1552~1619)의 사위가 되어 17세기 초반 김산 기동(耆洞, 기름)으로 입향한 후 후손들이 다양한 종족 활동을 전개하면서 김산의 명문으로 떠올랐다. 찰방공파의 사례 연구는 17세기 초반 결혼을 통해 처가 동네로 들어온 성씨 집단이 원주민들과 섞여 사는 과정, 인구가 차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씨 집단 간의 우열이 발생하는 과정,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인구압에 직면하여 주민들이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과정, 18세기 전·중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개발하고 18세기 중·후반 이래 활발한 종족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들의 마을을 종족촌락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가 전통 마을에 살았던 한 성씨 집단이 주자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가정과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종법 질서를 수용하면서 그들의 마을을 유교 마을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Ⅱ. 강설(姜濩)의 김산(金山) 입향과 족세의 성장

### 1. 강설의 김산 입향

진주강씨 은열공파(殷列公派, 姜民瞻)의 한 지파인 동지공파(同知公派)는

---

에 대해서는 김성우, 「성산여씨(星山呂氏) 기동파(耆洞派)의 사회적 성장과 지배 종족(支配宗族)으로서의 생존 전략」(『역사학보』 242, 2019)이 참고된다.

6) 김성우, 「밀성박씨 소고공파(嘯臯公派)의 청도 정착과 종족(宗族) 활동」, 『진단학보』 91, 2001, 194~214쪽.

충청도 회덕현 자운동(紫雲洞)을 중심으로 족세가 아주 번창했다. 입학조 강문한(姜文翰, 1464~1547)을 중시조로 하는 동지공파는 증손 대까지 문과 급제자 5명과 소과 합격자 8명을 배출하여, 발군의 과거 합격 성적을 기록했다<sup>7)</sup>. 그들의 다수가 문과와 소과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면서, 음직(蔭職) 관직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면서 이들은 회덕향안(懷德鄉案)에 다수가 입록되었다. 1672년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회덕향안에는 송씨가 가장 많다. 또 ‘남송(南宋)·북강(北姜)’이라는 명칭이 있으니, 강씨가 두 번째로 많다.”<sup>8)</sup> 고 언급할 정도로, 은진송씨 다음으로 진주강씨가 많이 입록되었다. 이들은 임진왜란 발발 이후 의병장으로서[강절(姜節)], 관료로서[강침(姜籤), 강주(姜籟)], 그리고 관군 지휘관으로서 맹활약하거나 순국하기도 했다.<sup>9)</sup>

이런 가문적 배경에 힘입어 강문한의 장남 가계인 강림(姜琳, 왕자사부)의 둘째 손자 강부(姜符, 1536~1606)는 1603년 2월 67세의 노령으로 김천도(金泉道) 철방에 임명되었다. 당시 김산에는 여대로가 지역의 공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김산 의병장, 지례 현감, 의성 현령을 역임했고, 전후에는 사헌부 지평(1605.7, 종5품)에 임명되는 등, 중앙 정계에서 영남을 대표하는 명사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다.<sup>10)</sup> 그는 3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 3형제와 장녀[이실, 전의 이씨 이중택의 첩]는 결혼한 상태였고, 나머지 2녀

7) 문과 급제자 5명: 강근(아들 대), 강천상(손자 대), 강절, 강침, 강주(증손 대). 소과 합격자 8명: 강림, 강구(아들 대), 강구상, 강인상(손자 대), 강부, 강균, 강범, 강진(증손 대).

8) ‘회덕향안서(懷德鄉案序)’, 송시열(宋時烈), 1672년.

9) 순국한 인물들은 강절을 비롯해서, 강인상(姜麟祥)과 강옥상(姜玉祥), 강희원(姜希元), 강희중(姜希中), 강희복(姜希復), 강희보(姜希輔), 강희열(姜希悅) 등 모두 8명이었다. 16~17세기 충청도 진주강씨 동지공파의 성장과 족세에 대해서는 강완식, 『충청도 진주 강문(晉州姜門)의 선비정신과 예술세계 - 은열공(殷烈公) 후학사공파(學士公派)를 중심으로』(한국족보편찬위원회, 2023, 39~54쪽)가 많이 참고된다.

10) 김성우, 「감호 여대로와 성산여씨 기동파의 종족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174~183쪽.

는 미혼이었다. 강부가 찰방으로 재직할 무렵 미혼인 손자 강설(姜澌, 20세)과 여대로의 차녀(1586년생, 17세) 사이에서 혼담이 오갔을 것이고, 그의 재직기간(1603년 2월~1605년 6월)에 결혼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설은 당시 혼속에 따라 처가인 김산 기동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는 영남 학파의 종장(宗匠) 정구(鄭誦, 1543~1620)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과거 공부에도 전념하여 1612년(광해군 4) 진사가 되었다. 그는 결혼 이후에도 원 고향인 회덕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나갔다. 고향에는 부모(강해로, 고성이씨)가 생존했고, 두 살 아래의 9촌숙 강학년(姜鶴年, 1585~1647)은 ‘호서 7림’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학문적 명성이 높았다. 1625년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자, 그는 자운동 백호 자락의 조부 강부 묘소 아래에 부모의 산소를 쓰고, 삼년상을 치렀다.

회덕 진주 강문(姜門)의 일원, 정구의 제자이자 진사시 합격자였던 그는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53세의 나이로 회덕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그는 1637년 1월 의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출정했지만, 인조가 청(淸) 태종(太宗)에게 항복하는 바람에 군사를 되돌렸다. 이처럼 그는 전후 회덕 사족사회의 주도 인물로 활약할 정도로 원 고향에서의 기반이 확고했다. 그렇지만 그가 선택한 고향은 김산이었다. 1651년 그가 사망하자, 세 아들이 성주 신흥방(新谷坊) 사천(沙川)[오늘날 김천시 감천면 용호동 고당산]에 그의 유택을 마련한 것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 2. 진주강씨 찰방공파(察訪公派) 족세의 성장

강설과 성산여씨는 3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 세 아들은 모두 소과나 문과에 합격한 재원으로, 장남 강여구(姜汝渠, 1610~1662), 차남 강여울(姜汝율,

11) 『진주강씨 왕자사부공(王子師傅公) 파보(派譜)』, 2023, “성균 진사 남와(南窩) 강공(姜公, 설(澌) 행장(行狀)”(정종로(鄭宗魯)).

1614~1644), 삼남 강여호(姜汝床, 1620~1682) 삼 형제는 훗날 진주강씨 칠방공파의 삼대 지파를 형성했다. 차남이 가장 먼저 진사시에 합격했고(1639년), 삼남이 1654년(효종 5)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했으며, 장남은 가장 늦게 생원시에 합격했다(1660년).

강설 4 부자가 현달하면서, 이들은 기동에 세거하는 4대 성씨[하빈이씨, 인천이씨, 성산여씨, 진주강씨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1616년 결성된 기동동약(耆洞洞約)에서 강설이 선주족(先住族)인 3개 성씨와 함께 입록된 것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동중 족계(洞中族稾)]. 기동 동약은 1640년대에 두 번째로 결성되었는데(향립약조(鄕立約條), 두 차례 결성된 동약에 입록된 회원은 모두 23명이었다.<sup>12)</sup> 성산여씨가 8명(34.8%)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씨(6명, 26.1%), 하빈이씨(5명, 21.7%), 진주강씨(4명, 17.4%) 순이었다. 진주강씨 동지공파는 김산에 세거한 진주강씨를 김천 칠방 강부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칠방공파(이하 칠방공파)라 부른다. <표 1>은 1620~1800년 칠방공파의 지파별 종족 인원의 증가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 1> 칠방공파 3대 지파별 족세의 증가 추이

세대	백파	중파	계파	합	비 고
1대(1620)	1(강설)			1	*강설: 진사
2대(1650)	1 (강여구)	1 (강여율)	1 (강여호)	3	*강여호: 문과, 승지 *강여구: 생원, *강여율: 진사
3대(1680)	1	1	2	4	*강필중: 문과, 현감, *강필명: 생원
4대(1710)	4	2	3	9	*강진삼: 생원
5대(1740)	5	6	5	16	*강석구: 문과, 한성 우윤

12) 기동 동약은 1616년 처음으로 결성된 이래 1880년대까지 다섯 차례 중수되었다. 후대 어느 누군가가 이들 동약과 좌목(座目)을 하나의 책자로 엮어, '사성족계(四姓族稾)'라는 명칭을 붙였다. 오늘날 4대 성씨의 후예들은 이 자료를 '사성족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한 입장을 존중하여 본고도 이 자료를 '사성족계'라 부르기로 한다. 학암(鶴巖) 강석구(姜碩龜)의 8대 주손 강용규 씨는 '사성족계'를 비롯해서 족보, 분재기, 각종 인물 약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6대(1770)	8	10	10	28	*강이화: 학자
7대(1800)	9	13	8	30	
합	28	33	29	91	

출전: 『진주강씨세보(晉州姜氏世譜)』 무오보(戊午譜)(1918)

〈표 1〉에 따르면, 찰방공파 3개 지파는 200여 년 동안 대체로 비슷한 종족원을 배출했고(28명, 33명, 29명), 문과 3명(강여호, 강필중(강여호의 아들), 강석구(강여호의 증손)과 소과 5명(강설, 강여호, 강여율, 강필명, 강진삼)을 배출했다. 각 지파 간 족세는 비슷했지만, 세 명의 문과 급제자를 독점했던 계파의 위세가 다른 지파보다 좀 더 우세했다고 여겨진다.

17세기 초반 이래 찰방공파는 기동에 세거해온 여러 성씨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해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기동이 개발되고 동네 주민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김산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쳐 지례와 접경하는 오지인 기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였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주민은 감사 송길정(宋吉貞, 1401~?, 문과)과 그의 아들 송중문(宋仲文), 송인문(宋仁文) 형제였다(김해송씨). 이후 세종대 이웃 마을인 장암(壯巖)에 살던 현감 이선동(李善叟, 하빈이씨)이 선주민인 남해홍씨와의 결혼을 통해 이곳으로 이주했다. 거의 같은 시기 이렴(李濂, 고성이씨, 철성부원군 이원(李原)의 증손)도 이곳에 살았다.<sup>13)</sup>

하리(下里)에 인구가 밀집하는 상황에서 이선동은 이웃에 있는 중리(中里)로 이주했다. 이후 그의 사위 이승원(李承元, 인천이씨)이 대구에서 이곳으로 이주했다. 성산여씨의 입향조로 알려진 여종호(呂從澗)는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 그의 사위가 되어 성주에서 이곳으로 들어왔다.<sup>14)</sup> 여종호는 중리에서 남쪽으로 조금 치우친 “잡초가 우거지고 수목이 무성한” 황무지를 개척하여 그곳 상리(上里)에 터전을 잡았다.<sup>15)</sup>

13) 여이명(呂以鳴, 1650~1737), 『금릉지(金陵誌)』, 「郡南 果谷內面 考證」, 제1방 耆老洞 下里(1718).

14) 여이명, 『금릉지』, 「郡南 果谷內面 考證」, 제1방 耆老洞 中里.



해야 한다.<sup>17)</sup>

타성의 기동 이주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사위가 처가 집에 사는 혼속이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이곳 주민과 결혼한 사위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주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위와 외손들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원 고향으로 돌아갔다. 17세기 전·중반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터라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기동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8)</sup> 그렇게 해서 진주강씨는 기동에 정착한 마지막 성씨가 되었다. 강설이 충청도 회덕의 명문인 진주강씨 동지공파의 한 지파라는 점, 임진왜란 당시 김산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여대로의 사위라는 점, 정구의 제자로서 진사시에 합격한 재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소과 혹은 문과에 합격한 당대 재사였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었다.

17세기 전 기간 평화롭게 지내던 기동의 4개 성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균열이 생겨났다. 특정 성씨를 중심으로 자손들이 급증하면서 마을 인구 구성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문과나 소과 합격자의 배출 유무에 따라 가격(家格)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족세가 단연 두드러졌던 성씨는 성산여씨였다. 성산여씨는 여대로 세 아들의 자손이 크게 번창하여 기동에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했다. 게다가 이들은 문과와 소과 급제자를 대거 배출하면서 김산 최고의 명문으로 부상했다. 임진왜란 이후 300여 년 동안 김산이 배출한 문과 합격자는 19명, 소과 합격자는 42명이었는데, 성산여씨는 이 기간 전체 문과 합격자의 47.4%(9명), 소과 합격자의 19%(8명)를 배출하면서, 김산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했다.<sup>19)</sup>

17) 김천 향토사연구회, 『김천(金泉)의 계안(契案)』, 2023, 「사성족계(四姓族契)」, “동중 족계 입의(洞中族契立議)”(1616).

18) 김성우, 「성산여씨의 지배 종족으로서의 생존 전략」, 81쪽.

19) 김성우, 「여대로와 성산여씨 기동파의 종족 활동」, 185~187쪽.

하빈이씨와 인천이씨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두 성씨 집단은 소과 합격자 5명과 4명을 각각 배출했을 뿐이고, 족세도 그다지 번성하지 못했다.<sup>20)</sup> 그에 비해 가장 늦게 주민이 된 칠방공파는 문과 급제자 세 명, 소과 합격자 다섯 명을 배출하고 자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산여씨의 뒤를 잇는 명문으로 성장해 갔다. <표 2>는 17세기 초반~19세기 후반 300여 년 동안 기동 동약에 입록된 성씨별 인구 분포와 변화 추이이다.

<표 2> 1616~1880년대 기동 동약의 입록 인원 및 성씨별 분포

연대	성씨 별 인원					주도자
	성산여	진주강	인천이	하빈이	합(명)	
1610~1640	8(34.8%)	4(17.4%)	6(26.1%)	5(21.7%)	23	이득지(하빈이)
1736	17(43.6%)	7(17.9%)	8(20.5%)	7(17.9%)	39	여이일(성산여)
1820	50(47.2%)	21(19.8%)	20(18.9%)	15(14.1%)	106	강이화(진주강)
1880	37(37.0%)	25(25.0%)	20(20.0%)	18(18.0%)	100	-
합	112(41.8%)	57(21.3%)	54(20.1%)	45(16.8%)	268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산여씨는 동약을 최초로 결성했던 1616~1640년대부터 이미 가장 많은 인원을 자랑했다(8명, 34.8%). 인천이씨(6명, 26.1%), 하빈이씨(5명, 21.7%), 진주강씨(4명, 17.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렇지만 동약 결성을 주도한 이가 이득지(하빈이씨)라는 점에서, 17세기 초반 기동의 원주민인 하빈이씨와 인천이씨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경과한 1736년에 세 번째 동약이 결성되었을 때, 성산여씨의 우위는 한층 두드러졌다. 전체 등록 인원(39명) 가운데 성산여씨가 17명(43.6%)을 차지했고, 인천이씨(8명, 20.5%), 하빈이씨·진주강씨(7명, 17.9%)가 그 뒤를 이었다. 동약 결성을 주도한 이는 성산여씨(생원 여이일(呂一))였는데, 18세기 전만 무렵 기동에서는 성산여씨가 족세로 보나, 운영 주체로 보나 우위를 점했다.

20) 여이명, 『금릉지』, 「郡南 果谷內面 考證」, 제1방 耆老洞 中里.

그로부터 80여 년이 경과한 1820년에 동약이 네 번째로 중수되었을 때도 성산여씨의 우위는 지속되었다(전체 등록 인원 106명 가운데 50명(47.2%)). 나머지 3개 성씨 가운데는 진주강씨의 입록자가 두 번째로 많았고(21명, 19.8%), 인천이씨(20명, 18.9%), 하빈이씨(15명, 14.1%) 순이었다. 그런데 동약 결성을 주도한 이가 진주강씨(姜履和)라는 점에서, 이 무렵 진주강씨는 족세나 마을 운영 측면에서 크게 약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는 1880년대 다섯 번째로 동약이 결성되었을 때도 유지되었다. 진주강씨는 전체 등록 인원(100명)의 25%(25명)를 차지하여, 성산여씨(37.0%)에 이어 제2의 족세를 자랑했고, 인천이씨(20.0%), 하빈이씨(18.0%)가 그 뒤를 이었다. 진주강씨는 19세기 이후 족세가 두드러지고 마을에서의 영향력 또한 한층 강해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하자.

### Ⅲ. 인구압과 강평(江坪) 이주

#### 1. 인구압의 발생

동약이 최초로 결성되었던 1616년에는 기동 주민들이 10여 명이었고, 두 번째로 결성되었던 1640년대에는 13명가량이었다. 이들 모두는 사족(士族)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노비를 보유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족과 그들이 보유한 노비를 모두 합쳐도 17세기 전·중반 무렵 기동에는 인구가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세 번째 동약을 결성했던 1736년이 되면, 입록 인원이 39명으로 증가하여 인구가 문제 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세력과 소외되지 않으려는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3차 기동 동약은 이런 갈등·대립을 조절하기 위해 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은 성산여씨와 진주강씨의 세대별 가호 증가 추이를 족보에서 확인한 후, 시기별 동약의 입록 수치를 근

거로 하빈이씨와 인천이씨의 가호 증가를 추론한 것이다. 이런 추론에 근거한 기동 전체의 가호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17~18세기 기동 4개 성씨의 가호 수 증가 추이

세대	성산 여씨	진주 강씨	인천 이씨	하빈 이씨	합(호)	비 고
1대 (1610~1620)	9	1	(6)	(6)	(22)	*1616년 1차 동약 결성
2대 (1640~1650)	17	3	(10)	(8)	(38)	*1640년대 2차 동약 결성
3대 (1670~1680)	30	4	(10)	(8)	(52)	
4대 (1700~1710)	48	9	(10)	(8)	(75)	*성산여씨 일부가 과곡, 건곡으로 이주
5대 (1730~1740)	62	16	(18)	(14)	(110)	*1736년 3차 동약 결성 **진주강씨의 강평 이주
6대 (1760~1770)	75	28	(24)	(22)	(149)	*일부 성산여씨의 봉천, 월명 이주 **1820년 4차 동약 결성
합	241	61	(78)	(66)	(446)	

출전: 성산여씨-여응구(呂應龜, 1523~1577), 『송오선생유집(松塢先生遺集)』, '송오선생 세계도(世系圖)'(1825).

진주강씨-『진주강씨세보』 무오보(1918).

<표 3>에 따르면, 1차 동약이 결성되었던 1610년대 기동의 가호는 22호 남짓이었고, 2차 결성이 이뤄진 1640년경에는 38호로 늘어났다.<sup>21)</sup>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1670~1680년대가 되면 52호로 불어났다. 두 세대 만에 가호가 136%나 증가한 셈이었다. 다음 세대인 1700~1710년대에는 가호가 또다시 44%나 증가하여(75호), 이즈음 기동은 더 이상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

인구압(人口壓)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동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악화되고, 영양 상태가 부실해지고, 감염병이 증가하는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기동 주민들은 두 가지

21) 마을 주민 가운데 일부만이 동약에 입록되었기 때문에, 실제 가호와 동약 회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전략을 구사했다. 하나는 남자 자손들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재산 분산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인구 희소지역을 개발하여 그곳으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전략은 1706년 강필형(姜必亨, 1646~1705, 강여호의 장남)의 처 안동 권씨가 자녀(4남2녀)에게 재산을 분급한 분재기(分財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 1706년 강필형이 자녀 4남2녀에게 분급한 재산 내용

	전답(마지기)				노비 (명)	합			비 고
	분급	승중	묘위	별급		전답	노비	가사	
강진석	11	11 + 집 2채	12	-	9	43	9	2	*장남.
김창현 처	10	-	-	-	9	10	9	-	
강진수	11	-	-	5	9	16	9	-	*부자 삼촌(강필창)에게 입양 *천연두를 잘 치렀다 하여 별급.
김정림 처	10	-	-	-	9	10	-	-	
강진욱	11	-	-	39 + 집 1채	9	50	9	1	*강진환으로 개명. *6남매 가운데 가장 가난.
막내 아들	7	-	-	-	9	7	0	-	*결혼 전에 사망. **강진욱이 제사를 담당.
손응갑	-	-	-	7	-	7	0	-	*강필형이 아끼던 사람.
합						143	45	3	

강필형의 전 재산은 전답 143마지기, 노비 45명, 그리고 집 3채였다. 그의 자식 가운데 차남 강진수는 삼촌 강필창(姜必昌)에게 출계(出系)했고, 막내아들은 성혼(成婚) 전에 사망했다. 강필형 부부의 재산은 입양이나 미혼자 사망과 관계없이 자녀라면 모두 균등하게 분재되었다. 이 집안은 조선 초기 이래 지속되어온 자녀균분 상속 관행이 지켜지고 있었던 셈이다. 균분상속의 기준은 결혼한 여식에게 지급한 몫이었다. 곧 장녀(김창현의 처)와 차녀(김정림의 처)에게 전답 10마지기와 노비 9명이 분급되었는데, 아들 세 명에게도 이 기준에 따라 재산이 분급되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생존한 아들 3명에게는 어떻게든 많은 재산을 분급하

려고 노력했다. 아들에게는 평균 분급한 재산전답 10마지기, 노비 9명 이외에 승중(承重)·묘위(墓位) 조(장남), 별급(別給) 조(차남과 삼남)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재산을 추가로 분급해 주었다. 그 결과 장남은 집 두 채와 논 32마지기를 추가 지급받아, 부모 전체 전답의 23.4%(43마지기)를 할당받았다. 삼촌에게 입양된 차남은 천연두를 잘 이겨냈다는 이유로 5마지기를 별급 받아, 전체 전답의 13.9%(16마지기)를 할당받았다. 삼남은 집 한 채와 논 39마지기를 추가 지급받았는데, 그가 자녀들 가운데 가장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결혼 전에 사망한 막내아들에게도 전답 7마지기와 노비 9명이 지급되었다. 그의 산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주려는 의도였는데, 제사와 산소 관리는 삼남의 몫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삼남은 부모의 전체 전답의 39.9%(57마지기)를 할당받아,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1706년 강필형 부부의 분재기는 18세기 전후 시기 경상도의 사족 집안에서 재산과 제사 관념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엿보게 한다. 첫째, 재산 상속에서 남녀 차별 관념이 생겨나고 있었다. 아들에게는 평균 분급 몫 이외에 다양한 명목의 토지가 추가 분급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아들의 경우 경제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급되었다. 가장 가난했던 삼남이 부모 전답의 39.9%(57마지기)를 지급받아, 승중·제사를 책임져야 할 장남보다 14마지기나 더 받은 것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입양이 확산되는 추세였지만, 입양 유무와는 별개로 자식이라면 재산을 평균 분급해 주었다. 출계한 차남에게 추가 지급된 전답은 5마지기뿐이었는데, 그것은 양부(養父)가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넷째, 미혼 상태에서 요절한 막내아들에게도 산소를 쓰고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의 몫으로 전답 7마지기와 노비 9명이 할당된 것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1700년 전후 시기 김산 기동에 거주하는 사족들의 재산과 제사 관념, 친족 의식을 유추할 수 있다. 강필형 부부는 종법(宗法) 질서가 점차 가정과 사회의 주요 운영 원리로 수용되는 시대 변화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재산과 제사 관행에서 ‘비(非) 주자학적’ 요소들이 여전히

강했다. 아들에게는 균등 상속이라는 대원칙 아래 경제 형편에 따라 분급 몫이 달랐고, 출계한 자식에게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주었으며, 사망한 미혼 자식에게도 제사를 지내주었다. 강필형 집안은 주자학에 기초한 종법제도가 가족과 사회의 전일적 규범으로 작동할 만큼의 강력한 규정력을 갖지 못한 셈이었다.

한 가정에서 종법제도와 질서가 아직 완벽하게 정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동이 여전히 이성잡거 촌락이었다는 마을의 구성원리와 상통한다. 기동에 사는 사족들이라면 종법 질서가 대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전일적인 가정·사회 규범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동에서 점차 지배집단으로 몸집을 키워가던 성산여씨도 대놓고 기동을 그들의 배타적인 마을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 성산여씨가 기동을 그들의 종족촌락(宗族村落 혹은 동성촌락)이라고 선언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던 탓에, 기동은 인천이씨, 하빈이씨, 진주강씨 등 세 개 성씨 집단이 성산여씨와 더불어 한 마을 거주가 가능했다.

## 2. 강평 이주

그런데 1700~1710년 이후 기동의 가호가 75호로 증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인구압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한 기동 주민들은 인구 희소지역이나 미개간지 개척에 적극 나섰다. 이런 움직임을 주도한 성씨집단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성산여씨였다. 이 무렵 여이소 형제는 기동에서 남쪽으로 3km 남짓 떨어진 두곡[파실]으로, 여이중과 여이이는 서북쪽 4km 떨어진 과곡으로 이주했다.<sup>22)</sup> 그렇지만 인천이씨, 하빈이씨, 진주강씨 등 비주류 3개 성씨 집단이 받는 압력은 훨씬 강했다. 점차 지배 종족으로

22) 여이명, 『금릉지』, 「郡南 果谷內面 考證」, 제2방 건곡(件谷) : 「郡南 果外面 七坊 考證」, 제6방 어모곡리.

전환해 가던 성산여씨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은 다음 세대인 1730~1740년 무렵 더욱 악화되었다. 기동의 가호는 110호로 불어나, 한 세대 만에 다시 50% 가까운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가 급증한 가운데 기동은 이제 예전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 성산여씨는 다른 지역을 찾아 나서는 한편, 기동을 그들의 종족촌락으로 굳혀가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했다.<sup>23)</sup>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3개 성씨 집단은 이들과 맞서 싸우거나 새로운 마을을 개척하여 이주하거나 하는 기로에 섰다. 이 무렵 칠방공파가 주목한 곳은 조마면 강해촌(江海村; 강바다)이었다(〈그림 1〉 참조). 기록상에서 확인되는 이곳의 최초 거주자는 1636년 병자호란 직후 이곳에 은거했던 생원 여곽(呂漵, 1603~1645, 여대로의 손자)이었다. 강여호(1620~1682)도 17세기 후반 낙향했을 때 이곳 산수를 사랑하여, ‘자양산을 시로 읊다’는 시를 짓기도 했다.<sup>24)</sup>

강해촌에는 사족들이 이따금 들어와 살았지만, 이들의 거주 기간은 길지 않았다. 이곳은 1702년 기동과 장암에 사는 사족들이 송계서당(松溪書堂)을 건립하여 학생들을 양성할 정도로 속세와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sup>25)</sup> 이곳에 다시 터전을 마련한 사람은 여홍구(呂弘耇, 1692~1766, 여곽의 고손자)였다. 1710~1720년경 그는 막내동생 사후 홀로된 노모(광산노씨)를 모시고 이곳으로 이주, 연화산(蓮華山, 연봉(蓮峯), 300미터) 아래 집을 짓고 살았다. 그는 이곳의 송계서당에서 학생들을 양성했다고 여겨진다.

이곳의 원주민은 ‘어리석고 억센’ 상민들이었다. 여홍구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유교적 윤리를 실천하고 의례를 실행에 옮기자, 이들도 점차 교화되어 “완고한 습속을 버렸다.” 그의 이주를 계기로 민촌(民村) 특유의 완고하고 험

23) 김성우, 「성산여씨 기동파의 지배 종족으로서의 생존 전략」, 86~91쪽.

24) 강태흠(姜泰欽, 1878~1948), 『속수금릉지(續修金陵誌)』(1934), 「인물」, “성산여씨”, ‘여곽(呂漵)’; 강여호(姜汝采, 1620~1682), 『기재선생문집(耆齋先生文集)』, “시(詩)”, ‘자양산을 시로 읊다(紫陽山題詠)’.

25) 여이명, 『금릉지』, “서당(書堂), 1718년.

악한 습속들이 사라져 간 것이었다.<sup>26)</sup> 그렇지만 1766년 여흥구가 향년 75세로 사망하자 자식들이 선산(先山)인 기동 뒷산에 묘소를 마련한 것으로 미루어,<sup>27)</sup> 그의 자손들은 강평 거주를 고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흥구가 이곳에 살고 있을 때 기동에 살던 강진환(姜震煥, 1681~1742) 가족도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강필형 부부가 1706년 자녀에게 분재했을 때 가난이 안쓰러워 전체 전답의 39.9%를 몰아주다시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sup>28)</sup> 그는 기동에 천연두가 창궐하자, 두 아들 강석기(姜錫耆, 1717~1802)와 강석구(姜碩龜, 1726~1810)를 데리고 여흥구 집 근처에서 피접(避接)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강석기 형제는 여흥구에게 배웠다. 훗날 강석기는 1742년 부친과 1746년 모친(인동장씨) 사후 아예 강해로 이주하여, 그의 이웃이 되었다.<sup>29)</sup>

1730년대 강진환 가족의 일시적인 강해 거주와 1748년 강석기의 이주는 이후 찰방공파가 기동을 떠나 강평으로 집단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태흠(姜泰欽)이 1934년 편찬한 『속수금릉지(續修金陵誌)』에 따르면, 생원 강진삼(1679~1742, 강여울의 손자, 중파), 강일복(1708~1756, 강여구의 증손, 백파), 강석기(강여호의 증손, 계파) 등 3명이 강평 이주를 주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0)</sup> 이들은 모두 찰방공파 3개 지파의 문장(門長)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강해 이주는 종족 차원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그 시기는 1752~1753년 경이었다. 이 무렵 기동의 가호는 110호를 넘어 150호로 향해 가고 있었다. 지배 세력인 성산여씨만 해도 60~70호가 되는 상황에서,

26) 사족이 민촌(民村)으로 이주한 이후 주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유교적 교화에 힘입어 점차 순화되어가는 모습은, 김성우, 「19세기 초반 노상추(盧尙樞)의 백운동 별업(別業) 조성과 경영」(『역사와 현실』 78, 21010, 269~282쪽)에서도 확인된다.

27) 강석구(姜錫龜, 1726~1810), 『학암유고(鶴巖遺稿)』, '목반(牧伴) 여공(呂公) (흥구(弘耆) 행장'.

28) 개명 전 이름은 강진욱이었다.

29) 강석구, 『학암유고』, '목반 여공(呂公) 행장' ; '목반(牧伴) 여공(呂公)께 올리는 제문(祭文)'.

30) 강태흠, 『속수 금릉지』, 「세거 구적(世居舊蹟)」, '강평동(강곡동)'.

나머지 성씨들은 이제 기동 거주가 불가능했다(인천이씨 18호, 진주강씨 16호, 하빈이씨 14호). 결국 칠방공파의 강해촌 이주의 결정적 원인은 기동을 중심으로 한 매우 높은 인구압이었다.

1750년대 칠방공파의 강해 이주는 대성공이었다. 이곳은 기동을 에워싸고 흐르는 감천 건너 남동쪽으로 2.5km 남짓 떨어진 마을이었다. 마을 앞으로는 성주 금수면과 김천 조마면에 접경하는 연속산(869.9m)과 김천 구성면 금평리 소재 가계산(682.7m)에서 발원하는 신계(新溪, 강곡천)가 흘러내렸다. 일정 유량을 확보한 신계가 굽이굽이 내려오는 곳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식수와 농업용수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다.

18세기 전·중반 인구압에 직면했던 김산의 사족들이 개척하고 이주한 곳은 대부분 강해촌과 지형 조건이 유사했다. 1718년 여이명(呂以鳴, 1650~1737)이 편찬한 『금릉지(金陵誌)』에 따르면, 김산에서 주민들이 부유하다고 소문난 곳은 4곳이었다. 가계산 아래의 건곡(杆谷), 덕대산(811미터) 아래의 과곡, 연속산과 가계산 아래의 사석동(백화동), 그리고 덕대산과 호초당산(893미터) 아래의 공자동이 그곳이었다(그림 1) 참조.<sup>31)</sup> 이들 지역은 김산의 대표적인 고산들이 만들어놓은 계곡에 형성된 마을들로서, 사시사철 개울물이 고르게 흘러내렸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축적된 고염토로 인해 토질이 비옥한 데다가, 천방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수전농업에 필수적 관개시설인 천방은 산간지대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리시설이었다.<sup>32)</sup> 그런 이유에서 17세기 전·중반 이래 한국의 수전농업은 천방 설치가 용이한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었는데,<sup>33)</sup> 과곡, 건곡, 사석동, 그리고 공자동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이들 지역

31) 여이명, 『금릉지』, 「각면(各面) 고증(考證)」, '건곡', '과곡', '사석동', '공자동'.

32) 정치영, 「지리산지 정주화(定住化)의 역사지리적 연구-농업과 촌락의 성쇠」,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240~245쪽; 김재호, 「산촌지역 수리체계의 특성과 수도작 일반화 과정」, 『농업사연구』 2-2, 한국농업사학회, 2003, 132~145쪽.

33)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 대구의 지역개발과 농업구조의 재편」, 『대동문화연구』

의 원주민은 상민들이었다. 고산을 끼고 발달했던 이들 지역은 읍치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여서 17세기 중·후반까지도 지역의 사족들이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다. 이곳의 상민들은 17세기 중·후반 이래 발달하던 이양법(移秧法)을 전면 수용하여 수전농업을 행하면서 ‘요부(饒富)한 삶을 살고 있었다.

17세기 후반 이래 인구압이 점점하면서 위기 상황에 내몰렸던 김산의 사족들이 이런 풍요로운 지역을 그냥 내버려 둘 리 만무했다. 18세기 초반 일부 성산여씨는 두곡(여이소 형제)과 과곡(여이중·여이아)으로 이주했고, 거의 같은 시기 경상도 병사(兵使)를 역임했던 이유향(李維抗, 성주이씨)이 거창에서 사석동(백화동)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sup>34)</sup> 이들이 이런 지역을 개척하게 됨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의 인구압을 낮추는 한편, 수전농업을 전면 도입하여 경제력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었다.<sup>35)</sup>

강해촌은 염속산과 가제산에서 발원한 신계가 백화동을 거쳐 조마 들판과 감천으로 유입하기 전에 형성된 마을이었다. 그런 점에서 강해촌의 지형 조건은 백화동의 판박이었다. 신계에 설치한 천방(川防, 보)을 통해 농업용수가 논으로 공급되면서, 이곳은 수전농업의 새로운 적지가 되었다. 그런 이유에서 이곳에 사는 상민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았다. 1710~1720년대 여흥구가 이곳으로 이주했을 때 이웃에 살았던 ‘어리석고 억센’ 상민 부자(富翁)가 그런 경우였다. 새로운 수전 농업지대로 부상 중이던 강해촌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 찰방공과는 이곳에서 수전농업을 행하면서 경제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17세기 이래 찰방공과 성인 남성의 수 및 평균 수명의 변동 추이

59, 2007, 168~182, 한국농업사학회.

34) 권숙월, “우리 고장 어제와 오늘”(10) - ‘조마면(助馬面)’ 편 -, 『김천신문』, 2015. 6.3.

35) 김성우, 「19세기 초반 노상추(盧尙樞)의 백운동 별업(別業) 구성과 경영」, 263~269쪽;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 - 영남농법과 한국형 지역개발』, 태학사, 2012, 336~360쪽; 「성산여씨 기동파의 지배 종족으로서의 생존 전략」, 88~91쪽.

를 통해 그런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찰방공파가 김산 기동에 정착한 17세기 초반 이후 1790년대까지 200여 년 동안 출생연도별 성인 남성의 수 및 평균 수명의 변동 추이이다.

<표 5> 17~19세기 찰방공파의 연도별 출생자 및 평균 수명

출생 연도	인원	평균 수명	비 고
1530~1549	1	70	*강부, 회덕 거주
1550~1569	1	63	*강해로, 회덕 거주
1570~1589	1	68	*강설, 김산 기동 이주
1590~1609	-	-	
1610~1629	3	48	*기동 거주, **강여호, 문과, 판결사(정3품)
1630~1649	3	69	
1650~1669	2	53	
1670~1689	8	69	
1690~1709	9	59	
1710~1729	15	50	*강석구, 문과, 한성 우윤(종2품)
1730~1749	16	57	*1750년대 강평 이주, **학자 강이화
1750~1769	17	52	*강평 거주
1770~1789	12	58	*종족 활동의 개시
1790~1809	5	57	*종족촌락의 완성
합	93	56	

17세기 초반~18세기 후반 200여 년 동안 찰방공파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56세였다. 가장 장수했던 시기는 1630~1649년생과 1670~1689년생이 성인이었던 1650~1680년, 1690~1720년이였다. 1630~1649년생은 가장 장수했지만(69세) 인구가 정체되었던(3호→3호) 반면, 1670~1689년생은 평균 수명과 인구가 동시에 증가했다(69세, 2호→8호). 그런 점에서 찰방공파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족세가 가장 성장했던 시기는 1690~1720년이였다. 이 무렵 찰방공파는 성산여씨, 인천이씨, 하빈이씨 등 4개 성씨와 더불어 기동에서 살고 있었다.

‘기동 시대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이후 가호 증가가 완만해졌고(8호→9호→15호),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급감했다(69세→59세→50세). 가장 큰 위기는 가호 수가 15명으로 증가했지만 평균 수명이 50세로 급감했던 1730~1760년이였다(1710~1729년생). 원인은 인구압이었다. 이 시기 기동에는 4개 성씨 75~110호가 거주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좁은 공간에 밀집하게 됨에 따라, 마을의 인구 지지력(population capacity)이 크게 낮아졌다.

급증하는 인구 대비 농업 생산성의 완만한 증가로 인해, 주민들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직면했고, 주거 환경이 불결해졌으며, 천연두, 홍역 같은 전염병의 유행 주기가 잦아졌다. 1730~1760년경 찰방공파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50세로 급감한 것이 그런 점을 반영한다. 나머지 3개 성씨의 상황도 찰방공파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마을이 점차 ‘말서스의 함정(Malthusian trap)’에 빠져들면서, 각 성씨 간 긴장과 갈등은 이제 폭발 직전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족세나 가격(家格) 양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성씨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마을에서 몰아내는 전략이 노골적으로 구사되었을 것이다.

이런 대립·갈등 속에 성산여씨는 기동을 그들의 종족촌락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반면, 나머지 3개 성씨 집단은 기동을 떠나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야만 했다.<sup>36)</sup> 강한 이주 압력 속에 찰방공파가 선택한 곳이 강해촌이었다. 조만간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강해촌 이주 첫 세대인 1730~1749년생 성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다시 증가했기 때문이다(50→57세). 이들이 성인이었던 1750~1780년은 가호와 평균 수명의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시기였다(15→16호, 50세→57세). 그런 점에서 수전농업의 적지인 강평 이주 이후 30년 만에 찰방공파는 1650~1680년과 1690~1720년에 이어 세 번째 도약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36) 김성우, 「성산여씨 기동파의 지배 종족으로서의 생존 전략」, 86~91쪽.

#### IV. 종족(宗族) 활동의 전개와 종족촌락(宗族村落)의 완성

##### 1. 종족 활동의 전개

칠방공파가 1750년대 강평으로 이주했을 때만 해도 이곳 주인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선주민은 배우지 못한 ‘완고한’ 상민들이었고, 성산여씨 중파(여곽-여흥귀)의 일부가 먼저 이곳에 관심을 가졌다. 칠방공파 3대 지파(백파, 중파, 계파)가 거족적으로 이주를 단행했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이런 조처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대표적인 이가 강석구였다. 강석기·강석구 형제는 1742년과 1746년 부친(강진환)과 모친(인동장씨 장만원의 여식)의 연상(連喪)을 겪은 후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던 가정 경제가 “파탄 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강석기는 1750년대로 접어들면서 백파와 중파의 문장들과 합심해서 강평 이주를 단행했다.<sup>37)</sup>

반면 동생 강석구는 외가인 인동으로 이주했다. 강석구가 1768년(영조 44)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 생활을 하고, 관직의 꿈을 접고 낙향했을 때 그의 거주지는 인동이었다. “인동의 죄량 강석구가 마침 와서 안부를 물었다.”(1785년) ; 1800년(정조 24) 2월 동부승지에 임명되어 국왕 정조를 알현한 자리에서 “신은 인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곳의 환폐(還弊)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는 기록에서 그의 거주지가 인동임을 알 수 있다. 1810년 그가 향년 84세로 사망했을 때 임종한 곳도 ‘인동 우거(寓居)’였다.<sup>38)</sup>

일부 구성원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는 달리 칠방공파는 강평 이주 이후 경

37) 강해촌은 18세기 중반 칠방공파의 집단 이주 이후 강평(江坪, 강바다)으로 더 많이 불렸다. 그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18세기 중반 이후의 강해촌을 강평으로 부르거나 한다.

38) 강석구, 『학암유고』, ‘선승정(選勝亭)에서 산자(山字) 운을 언다(송은, 松隱)’(1785년 가을) ; ‘1800년 2월 23일 동부승지 강석구가 국왕에게 인동의 환곡 폐단에 대해 아뢰다.’ ; “제문”, ‘재종질 강이화(姜履和)’.

제적으로 빠르게 안정되면서 인구와 평균 수명이 동시에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강평의 평화’는 한 세대를 가지 못했다. 인구가 다시 정체 내지 감소로 돌아섰고(16→17→12호), 평균 수명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57→52→58세). 한 세대 만에 이곳에서도 인구압이 발생한 것이었다. 인구 압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국면에서 찰방공파는 그들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부 문제를 돌파하려 했다. 강평을 그들이 지배하는 배타적인 마을로 만들고, 그곳을 기반으로 족세를 확대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들이 사는 마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강평을 종족촌락(lineage village)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런 작업의 대전제는 위선사업(爲先事業)이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현조(顯祖)를 배출한 남계친 후손들이 그들을 배향하는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이런 기구를 활용하여 여타 지역의 서원·사우나 종족들과 교류하고 유대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사는 마을을 종족촌락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39)</sup>

찰방공파가 위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시점은 1790년대였다. 이 작업을 주도한 이는 백과의 강일복-강이화 부자와 계파의 강석기 등이었는데, 이들은 찰방공파의 강평 이주를 주도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위선사업의 첫 결실은 1793년 김산 입향조 강설과 그들이 자랑하는 현조 강여호 두 선조를 제향(祭享)하는 별묘(別廟)인 자양재(紫陽齋, 혹은 원모재(遠慕齋)의 건립이었다.<sup>40)</sup> 자양재는 찰방공파의 강평 이주 40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최초의 조상

39) 18~19세기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지배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1) 호족 상 유학(幼學) 직역(職役)의 등재와 족보(族譜) 보유, 2) 유교적 의례의 준행과 다양한 특권의 향유, 3) 종중(宗中, 문중)과 종족촌락(동성촌락)의 형성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김성우, 「18-19세기 ‘지배양반’ 되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 49, 2005, 173~188쪽). 동일 남계친 조상의 후손들이 배타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을 종족촌락이라 하고, 종족촌락을 지배하는 성씨 집단을 종족(lineage)이라 부른다. 중법에 기초한 중국 친족조직의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Maurice Freedman, 1958, *Lineage Organization in Southeastern China* (The Athlone Press/김광역 역, 『동남부 중국의 종족(宗族) 조직』(대광문화사, 1988)이 참조된다.

추모 공간이었다. 별묘 건립 이후 찰방공파는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문중 회의를 개최하고, 자제들을 공부시켰다. 강이화(姜履和, 1741~1828)는 자양재 건립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고가(古家)의 말학(末學)으로 외람되어 문호(門戶)를 계승할 책임을 지고 자제들을 인도하고 있다. 계술(繼述)에 뜻을 둔 자질(子姪) 몇 사람이 매번 밝은 창문 아래에서 시례(詩禮)의 학문에 힘쓰고 읍양(攄讓)의 예절을 깨우쳐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고가의 유풍(遺風)을 다시 보게 되었다.”<sup>41)</sup>

자양재는 조상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자, 자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자, 후손들이 수학하는 공간이었다. 그런 점에서 자양재 건립은 ‘고가의 유풍’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다. 강이화는 별묘 건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우(祠宇)나 서원(書院)의 건립을 위해 노력했다. 재사(齋舍)에 모신 선조는 후손들이 기리는 존재라는 점에서 어느 종족이든 임의 배향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사우나 서원에 조상을 배향하기 위해서는 가까이는 김산 향내, 멀리는 경상도 전체 사족들로부터 그들 선조의 업적을 추인받아야만 했다. 성격이 이러했기 때문에 사우·서원은 한 종족의 의지만으로 건립될 수 없었다. 김산 향내 사족들이 찰방공파의 의중에 찬동해야 했고, 경상도의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서원·사우, 그리고 유수한 종족들이 그러한 움직임을 승인해 주어야만 했다.

향내와 도내 사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명한 관료나 학자들로부터 선조들에 대한 업적을 추인받고, 그것을 입증할 문자(文字), 곧 행장(行狀), 묘갈명(墓碣銘)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었다. 찰방공파 선조들의 문자 확보에 적극 나선 이는 강석구와 강이화였다. 강석구는 정조대 부쩍 커진 정치적 입지를 발판으로 동지공파의 친척인 강세황(姜世晃, 1713~1791)과 당대 근기 남인의 차세대 주자인 이헌경(李獻慶, 1719~1791)으로부터 강여호의 묘갈명(墓碣銘)

40) 『진주강씨 왕자사부공 파보』(2023), ‘원모재기(遠慕齋記)’(강이화, 1793).

41) 『진주강씨 왕자사부공 파보』, ‘원모재기’(강이화).

을 받아냈다. 당대 영남의 학자로 평가받던 강이화는 상주의 정종로(鄭宗魯, 1738~1816)에게서 강설의 행장(行狀)을 받아냈다.<sup>42)</sup>

이렇게 강설과 강여호에 대한 문자가 확보되자, 찰방공과는 사우/서원 건립에 적극 나섰다. 그리하여 1804년부터 1806년까지 2년에 걸쳐 김산 향교를 위시해서, 고령의 매림서원(梅林書院), 선산의 낙봉서원(洛峰書院),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 인동의 동락서원(東洛書院), 칠곡의 사양서원(泗陽書院) 등 영남 상도(上道)의 우수한 서원과 향교로부터 문중 사우의 건립을 추진받았다.<sup>43)</sup> 이와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1811년 마침내 강설·강여호를 배향하는 자양사(紫陽祠)가 건립될 수 있었다.

## 2. 종족촌락의 완성

1800년대 이후 찰방공과의 종족 활동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이는 강이화였다. 종가의 지차(之次)였던 그는 아들(姜體淳)을 큰 형(姜宅文)에게 입양시켜 종가를 잇게 하고, 종택(宗宅)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종가(宗家) 중심으로 종족 활동이 전개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sup>44)</sup> 이후 강평은 그들의 종족촌락으로 빠르게 전환해 갔다. 찰방공과는 1790년대부터 1810년대까지 20여 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강평을 그들의 종족촌락으로 전환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후 타지로 흩어졌던 종족원들이 강평의 흡입력에

42) 강여호, 『기재선생문집』, ‘묘갈명’(전 예조참판 이헌경(李獻慶), 글씨 예조참판 강세황(姜世晃)); 『진주강씨 왕자사부공 파보』, “성균 진사 남와 강공(諱) 행장”(정종로(鄭宗魯)).

43) 강여호, 『기재선생문집』, 「통문(通文)」, 고령 ‘매림서원(梅林書院) 통문’(1804년 12월); 선산 ‘낙봉서원(洛峰書院) 통문’(1805년 4월);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통문’(1805년 9월); 김산향교 통문’(1806년 2월); 인동 ‘동락서원(東洛書院) 통문’(1806년 2월); 칠곡 ‘사양서원(泗陽書院) 통문’(1806년 2월); 상주 ‘도남서원(道南書院) 통문’(1806년 3월); 안의 ‘모리재(某里齋) 통문’(1806년 9월).

44) 『진주강씨 왕자사부공 파보』, ‘호은(湖隱) 강공(姜公, 이화(履和)) 행장(行狀)’(1920년 9월, 승지 장석신(張錫薰)).

이끌려 재결집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이가 강석구였다.

강석구는 1750년 전후 시기 인동으로 이주한 후 1810년 그곳에서 임종할 정도로 60여 년을 인동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그가 찰방공파의 종족 활동에 아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영조~정조대 중앙 관료직을 수행했던 그는 당시 종족 활동을 주도했던 강석기, 강이화 등을 도와 조상 관련 문자 확보에 노력했고, 1800년대 자양사 건립 과정에도 깊숙이 간여했다. 그는 자양사가 한창 축조되던 1808~1809년 강평에 머물면서 건축 과정을 지켜보았고, 강평으로의 이주를 고민했다. 그리하여 아들 강이재(姜履載)를 먼저 강평으로 보냈고, 1810년 가을 추수 이후 이사하리라 결심했다. 그해 9월 그가 사망하면서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sup>45)</sup> 그의 자손들이 강평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강평은 이제 찰방공파의 명실상부한 종족촌락이 되었다. 강평이 그들의 종족촌락이 된 이상, 이곳은 남부끄럽지 않은 명승지가 되어야 했다. 강이화는 20여 년 전인 1793년 자양재 건립 당시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예전에 나의 고조부 (응교(應敎) 부군) 기재공(耆齋公, 강여호)이 최초로 강평(江坪)의 물과 돌 사이를 새로이 차지하여(新占) 시를 읊고, “여러 지운(地運)이 순환한다.”고 천명하셨다. 기동(耆洞)에 누대를 살았던 우리 후손들이 선조의 뜻을 받들어 강평으로 이주한 것이 이제 40년이다. 저 자양산의 지맥을 살펴보면 용이 나는 듯하고 봉황이 춤추는 듯하여, 북쪽에서 굽이굽이 내려와 연봉(蓮峰)이 되었다. 그 아래 한 조각 가장 문명(文明)한 터가 있으니,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춰둔 곳이다. 어찌 오늘을 기다렸겠으며, 우리 선조(강여호)가 점유하여 시를 읊고 노래한 곳이 아니었던가?”<sup>46)</sup>

강평의 형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형물은 가제산이었다. 강여호가 가제산을 자양산(紫陽山)이라 부른 이래, 찰방공파는 이 산을 자양산이라 불렀

45) 강석구, 『학암유고』, ‘제문’(재종질 강이화).

46) 『진주강씨 왕자사부공 파보』, ‘월모재기’(강이화).

다. 자양산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 1130~1200)가 서원을 건립하고 제자들을 양성했던 성리학의 이상향이였다. 가계산이 자양산으로 불리게 된 이상, 그 아래 위치한 명당인 강평은 무이서원(武夷書院)이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같은 교육기관이 들어서고 학생들을 양성하는 유교의 본산이 되어야 했다. 강이화의 이런 당돌한 꿈은 1811년 자양사(紫陽祠) 건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1817년 자양사의 강당(講堂)을 상량(上樑)했을 때 그가 지은 축문에서 그런 포부를 엿볼 수 있다.

“예전 (선조의) 장구지소(杖履之所) 생각하니, 곧 여기 강호(江湖, 강평)의 한 구역이라.

어느 산, 어느 계곡에 감취 두었던 의미를 상상하겠으며, 꽃 하나 돌 하나에도 노래하며 읊던 정신 경모하네.

이에 선세(先世)의 높은 발자취 따라 후손들이 살 곳을 분점(分占)하였네.

평소 자양(紫陽)이 명장(名庄)이라 일컬어지더니, 자못 옛 백록동(白鹿洞) 같도다.

이곳에 거처하며 선조 욕보일까 두려워하고, 잠자고 일어남에 영령 모실 일 잊지 않았네.”<sup>47)</sup>

강이화는 자양산 아래 위치한 강평이 주자의 손길이 깃든 옛 백록동처럼 ‘가장 문명한 터’이자 ‘명장(名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곳에서 교육받고, 활동하고, 여타 종족이나 사위/서원과 교류했던 찰방공파의 자제들은 그들이 ‘고가의 유풍’을 계승한 명문이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찰방공파는 기동에서 이주한 지 60여 년 만에 강평을 그들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종족촌락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김산과 영남의 사족들은 찰방공파를 ‘강평의 강씨 문중’이라 불렀다.<sup>48)</sup> ‘기동의 여씨 문중’과

47) 『진주강씨 왕자사부공 파보』, ‘자양강당(紫陽講堂) 상량문(上樑文)’(1817년 10월, 강이화).

48) 김천 향토사연구회, 『김천의 계안』, 「송계서당(松溪書堂) 강안(講案)」, ‘송계당안(松溪堂案)’(1961).

더불어 김산의 남인계(南人系) 사족사회를 영도하는 최고 명문 종족인 ‘강평의 강씨 문중’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었다.<sup>49)</sup>

## V. 맺음말

진주강씨(晉州姜氏) 찰방공파(察訪公派)가 경북 김산(오늘날 김천)에 살게 된 것은 17세기 초반 강설(姜潑)이 여대로(呂大老)의 사위가 되어 처가인 기동(耆洞)으로 이주한 것이 계기였다. 강설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현달하면서, 찰방공파는 처가(혹은 외가)인 기동에서 선주족(先住族)인 하빈이씨, 인천이씨, 성산여씨와 더불어 4대 성씨로 인정받았다. 17세기 초반 20호 남짓이었던 기동의 가호는 17세기 후반 50여 호로 증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감천(甘川)이 바깥으로 에워싸고 안으로는 너른 들판을 보유한 기동에서는 인구가 문제 되지 않았다. 찰방공파의 경우, 17세기 후반까지 가호는 계속 늘어났고(3→8호), 집안의 가장들은 장수하는 편이었다(69세).

그렇지만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가호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8→15호), 평균 수명은 50세로 내려앉은 것이었다. 인구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였다. ‘멜서스의 함정’으로 빠져들면서 기동은 예전 같은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다. 4개 성씨 집단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족세를 자랑하던 성산여씨는 나머지 3개 성씨 집단을 축출하여 기동을 그들의 종족촌락으로 만드는 한편, 인구 희소지역이나 미개간지를 개척하여 이주하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18세기 전·중반 성산여씨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한 찰방공파는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그들이 주목한 곳은 기동에서 남동쪽으로

49) 김성우, 「여대로와 성산여씨 기동파의 종족 활동」, 190~193쪽.

2.5km 남짓 떨어진 강바대(江海, 혹은 江坪)였다. 이곳은 성주의 염속산과 김산의 가제산이 만들어놓은 계곡으로, 신계(新溪)가 굽이굽이 흘러 조마 들판과 감천으로 유입되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산골짜기에 위치한 탓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구하기 쉬웠고, 신계에 천방을 설치하여 수전농업을 행하기도 좋은 곳이었다.

강평 이주 이후 찰방공파는 다시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강평의 평화’는 한 세대를 가지 못했다. 18세기 후반 이후 가호는 정제하거나 줄어들었고(16→17→12호), 평균 수명도 감소했다(57→52→58세). 한 세대 만에 인구압이 다시 찰방공파를 괴롭힌 것이었다. 그들은 내부 단결과 활발한 종족 활동을 통해 이런 위기국면을 돌파하려 했다. 그리하여 1790년대부터 시작하여 181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그들은 입향조(入鄕祖) 강설과 그들이 자랑하는 현조(顯祖) 강여호(姜汝床) 두 선조에 대한 현창 사업을 전개하고, 그들을 배향하는 자양사(紫陽祠)를 건립하는 데 매진했다. 이런 노력 끝에 강평은 찰방공파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종족촌락이 되었고, 이후 그들은 ‘강평의 강씨 문중’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찰방공파의 사례는 전통 마을인 이성잡거(異姓雜居) 촌락이 새로운 형태의 유교 마을인 종족촌락(宗族村落)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시기를 짐작케 해준다. 17세기 이래 지배 신분인 사족들은 주자학적(朱子學的) 세계관을 수용하고 종법(宗法) 질서를 채택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이래 면면이 내려오던 전통적 세계관과 질서가 쉽게 해체되지는 않았다. 오랜 관습과 관행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도와 질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이 필요했다. 17세기 후반 이후 본격적인 사회 문제가 된 인구 증가,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의 극심한 인구압, 그리고 수전농업의 산간지대로의 확산 등이 그러한 충격 요인으로 작용했다.

18세기를 전후한 시기 삼남(三南) 어디에서나 인구압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족들은 남자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 중심으로 제사를 거행하는 새로운 관행 도입에 적극성을 띠었다. 마침내 주자학적 세계관이 조선사회에

전면 수용될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성이 잡거하는 전통 마을은 동일한 남계친 성씨 집단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유교 마을로 전환했다. 이러한 사회사적 대전변은 18세기 전·중반에 시작되어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특정한 남계친 성씨 집단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종족촌락이 되기 위해서는 위선사업(爲先事業)을 통해 선조들을 현창하고 그들을 배향하는 문중 사우·서원을 건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할 때 이런 기구들을 이용하여 여타 지역의 종족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었을 때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지배 종족은 ‘어느 마을의 어느 성씨’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강평의 강씨 문중’이 그런 것이었다. 김천의 진주강씨 찰방공파 사례는 전통 마을이 유교 마을로 전환하는 과정과 시기를 유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강석구(姜錫龜, 1726~1810), 『학암유고(鶴巖遺稿)』.  
강여호(姜汝床, 1620~1682), 『기재선생문집(耆齋先生文集)』.  
“강필형(姜必亨) 처 안동 권씨 분재기(分財記)”(1706).  
강태흠(姜泰欽, 1878~1948), 『속수금릉지(續修金陵誌)』(1934).  
『김천신문』, “우리 고장 어제와 오늘”(10) ‘조마면(助馬面)’ 편, 2015.06.03.  
김천 향토사연구회, 『김천(金泉)의 계안(契案)』(2023).  
『사성족계(四姓族契)』.  
善生永助(젠쇼 에이스케), 『朝鮮の聚落』, 조선총독부(1933).  
여응구(呂應龜, 1523~1577), 『송오선생유집(松塢先生遺集)』(1825).  
여이명(呂以鳴, 1650~1737), 『금릉지(金陵誌)』(1718).  
『진주강씨세보(晉州姜氏世譜)』 무오보(戊午譜)(1918).  
『진주강씨 왕자사부공(王子師傅公) 파보(派譜)』(2023).  
『회덕향안(懷德鄉案)』(1672).

### 2. 연구서 및 연구 논문

- 강완식, 『충청도 진주 강문(晉州姜門)의 선비정신과 예술세계－은열공(殷列公) 후 학사공파(學士公派)를 중심으로』, 한국족보편찬위원회, 2023.  
김성우, 「밀성박씨 소고공파(嘯臯公派)의 청도 정착과 종족(宗族) 활동」, 『진단학보』 91, 2001.  
김성우, 「18-19세기 ‘지배양반’ 되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 49, 2005.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 대구의 지역개발과 농업구조의 재편」, 『대동문화연구』 59, 2007.  
김성우, 「15,16세기 사족층의 고향 인식과 거주지 선택 전략－경상도 선산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8, 2008.  
김성우, 「19세기 초반 노상추(盧尙樞)의 백운동 별업(別業) 조성과 경영」, 『역사와 현실』 78, 21010.

-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영남농법과 한국형 지역개발』, 태학사, 2012.
- 김성우, 「감호(鑑湖) 여대로(呂大老)와 성산여씨 기동파의 종족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 김성우, 「성산여씨(星山呂氏) 기동파(耆洞派)의 사회적 성장과 지배 종족(支配宗族)으로서의 생존 전략」, 『역사학보』 242, 2019.
- 김재호, 「산촌지역 수리체계의 특성과 수도작 일반화 과정」, 한국농업사학회, 『농업사연구』 2-2, 2003.
- 이수진,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조 사회사의 一研究」, 『한국사학』 9, 1987.
- 이수진,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 역사학회 편, 『한국친족제도사』, 서울, 일조각, 1992.
- 정치영, 「지리산지 정주화(定住化)의 역사지리적 연구—농업과 촌락의 성쇠」,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 최재석, 「17세기 친족구조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서울, 일지사, 1993.
- 최재석, 「조선 중기 가족·친족제의 ‘재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 1993.
- Deuchler, Martina,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이훈상 역, 『한국사회의 유교적 전환』, 아카넷, 2003).
- Freedman, Maurice, *Lineage Organization in Southeastern China*, The Athlone Press, 1958(김광익 역, 『동남부 중국의 종족(宗族) 조직』, 대광문화사, 1988).
- Peterson, Mark A., *Korean Adoption and Inheritance—Case Studies in the Creation of a Classic Confucian Societ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김혜정 역, 『儒敎社會의 創出—조선 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일조각, 1999).

Abstract

## The Growth of Ch'albanggong sublineage (察訪公派) of Chinju Kangs and Formation of the Lineage Village in Kimchŏn

Kim, Sung-woo

Kang Sŏl (姜濼, 1583-1651), a member of the Chinju Kang's Tongjigong sublineage (同志公派), settled in Kidong(耆洞) in Kimchŏn after becoming a son-in-law of Yŏ Tae-ro (呂大老), a prominent figure of Kimsan at the time, thanks to his grandfather Kang Pu (姜符)'s service as chief of post station (察訪) there. At that time, Kidong was a traditional village populated by various lineage members, including Habin Yis, Inch'ŏn Yis, and Sŏngsan Yŏs, in the matrilineal residence customs since Koryŏ Dynasty. With the entry of the Chinju Kangs, Kidong became a village where four lineages were living in harmony. However, the "peace of Kidong" was broken in the late 17th and mid-18th centuries. As the village population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on reached its limit, and the village fell into the so-called "Malthusian trap," in which people's immunity was weakened and various infectious diseases occurred frequently, raising the number of deaths. In this situation, the Sŏngsan Yŏ lineage, which had the largest number of members further strengthened their control over Kidong, and the rest three lineages were forced leave the village.

The Chinju Kang lineage migrated en masse to Kangp'yŏng (江坪), a valley village near Kidong, in the mid-18th century. They succeeded in creating a lineage (or confucian) village of their own there with the activities to pay

---

\* Daegu Haany University,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swuhi@hanmail.net

tribute to their prominent ancestors, collect their writings and establish their lineage shrine, Chayangsa (紫陽祠).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y came to be called “Kangp’yŏng Kangs” and emerged as one of the two leading lineages of the literati society of Southerner Faction in Kimsan.

Key word : matrilineal residence, patrilineal residence, traditional village, confucian village (or lineage village), population increase, Malthusian trap, lineage activities, ancestor worship, lineage shrine

논문 투고일: 2024. 05. 15 심사 완료일: 2024. 06. 11 게재 확정일: 2024. 06. 11



# 진주강씨 남와(南窩) 강설가(姜溥家)의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구축과 작동 - 척연·학연 및 종족적 유대를 중심으로 -

김 학 수\*

- I. 머리말
- II. 영남 정착과 문호의 확립 : 금릉시대(金陵時代)의 개막과 전개
- III. 종족적 유대와 교유의 실상 : 회덕 본종과의 동종의식(同宗意識)을 중심으로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화담연원의 호서권 소북계가 척연·학연을 통해 남인 퇴계학파로 정착 해가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강설(姜溥;南窩)을 파조로 하는 진주강씨는 한강문인 여대로(呂大老)의 사위가 됨으로써 호서의 회덕에서 영남의 김산(현재의 김천)으로 이거하여 류성룡·정구·장현광·정경세 등 17세기 영남학파의 주류 인물 또는 가문들과의 혼맥과 학맥을 형성하며 사회적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나갔다.

18세기까지 사환지향적 성향이 강했던 남와가는 19세기 이후 학자집안으로서의 가도를 전환하게 되는데, 그런 흐름을 이끈 인물은 강설의 5세손 강이화(姜履和)였다. 그가 성주권의 한강학맥, 상주권의 우복맥, 선산·의성권의 한려학맥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형성했던 것은 자가의 학문연원에 대한 환기인 동시에 단절되었던 관계의 복원과 확장이라는 복합적 의지의 작동으로 포착된다.

남와가의 학통적 전개에 있어 주목할 것은 이원성이다. 즉, 이들은 정구를 매개로 퇴계학을 수용하는 동시에 소북계의 학문전통에 대한 애착도 컸다. 배상유(裴尙瑜)와의 학연은 그런 경향의 단적인 표출이었다. 강설은 강학년의 문인이고, 배상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부교수. ksoya@aks.ac.kr

유는 강백년의 문인이었던 바, 양자는 서경덕으로 소급되는 학통상의 동질성이 있었다. 강여호(姜汝床)의 세 아들 강필태(姜必泰)·필형(必亨)·필창(必昌) 형제가 배상유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강이화가 배상유의 현양론에 깊이 관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강학년(姜鶴年)·백년(栢年), 강세황(姜世晃), 강원(姜侁), 강침(姜忱) 등 호서권 본종들과의 돈독한 교유는 강설가가 영남남인과 기호남인의 경계에 위치하며 양자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실상이 된다.

주제어 : 진주강씨, 강설, 강여호, 강석구, 강이화, 자동서원, 강학년, 강백년, 여대로, 정구, 배상유

## I. 머리말

이 글은 남와(南窩) 강설(姜濼, 1583~1651)을 입향조로 하는 진주강씨 남와가(南窩家)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구축과 작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의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척연·학연 및 종족적 유대라는 세부 과점을 도입, 적용하였으며, 이는 17세기 호서에서 이거한 객반(客班)이 남인 퇴계학파를 지향했던 영남의 정치·사회·학술·문화적 풍토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가늠함으로써 ‘가문의 사회사’라는 담론의 실마리를 제시하는데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관점과 목표의 해명을 위해 본고는 크게 두 개의 스토리라인을 설정했다. II장에서는 영남학파 편입 및 문호의 확장 과정을 17세기의 척연과 학연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그렇게 구축된 인프라가 18세기 이후에는 어떤 양상으로 복원 및 확장되어 가는지를 강이화(姜履和)의 사회·학문적 행보를 중심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이 대목에서 유념할 것은 영남학과 기호학의 접합성인데, 만학당 배상유(裴尙瑜)와 남와가의 학연은 조선후기 영남학의 중층 구조를 해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장에서는 남와가가 그들의 본거지였던 회덕과와 어떤 방식으로 세교를 지속했고, 그것이 시사하는 사회사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가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1절에서는 강여호(姜汝床)와 강백년(姜栢年)·강선(姜銑)·강현(姜鉞) 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2절에서는 강석구(姜碩龜)와 강세황(姜世晃)·강완(姜完)·강침(姜忱) 등과의 세교의 실상을 살피는데 논점을 모았다.

이 논고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은 남와가가 17세기 이후 영남남인을 표방했으면서도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식 속에 근기남인[또는 畿湖南人]적 성향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고, 나아가 남와가를 ‘영남(嶺南)’과 ‘경남(京南)’ 제후의 교량적 존재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를 탐색하는데 있음을 밝혀 둔다.

## Ⅱ. 영남 정착과 문호의 확립 :

### 금릉시대(金陵時代)의 개막과 전개

#### 1. 명가와와 통혼과 사회적 기반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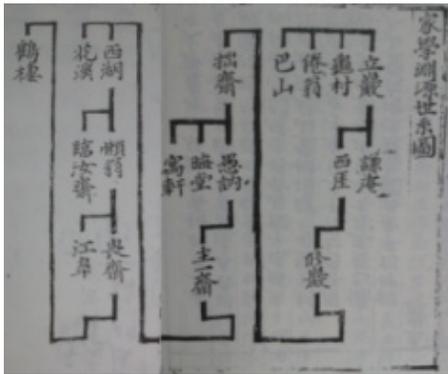
##### 1) 성산여씨 감호가(鑑湖家)의 척연과 학문적 네트워크 : 남와가(南窩家)의 ‘영남정착’의 사회문화적 배경

진주강씨 찰방공파(察訪公派) ; 이하 南窩家의 영남 정착의 고리는 혼맥이었다. 강설은 김산 기동에 세거했던 성산여씨 여대로(呂大老, 1552~1619)의 사위가 되면서 영남김산으로 이거함으로써 금릉시대(金陵時代)의 서막을 열었다. 분재기 등 사회경제적 실상을 알려주는 문헌의 부재로 인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김산 이거는 남귀여가혼의 혼인 관행과 자녀균분이라는 상속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여대로가(呂大老家 ; 이하 鑑湖家)의 탄탄했던 재지적 기반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서가(塚家) 인입의 강

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감호가와의 혼인은 인척적 유대에 바탕한 공간적 확장에 국한되지 않았다. 즉, 남와가는 감호가가 구축하고 있었던 양질의 척연 및 학연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획득함으로써 영남사람의 본류 속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감호가가 구축했던 척연 및 학연적 인프라의 범주와 성격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여대로의 척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대로는 한강학통을 계승한 17세기 영남남인계 학자·관료로 알려져 있지만<sup>1)</sup> 그의 지식문화적 환경의 범주는 이보다 훨씬 넓었다. 그는 16세기 중후반 퇴계학파의 주축을 이룬 학자관료인 동시에 ‘풍산류씨가학’의 연원으로 인식된 석학 류경심(柳景深, 1516~1571)의 사위였다. 퇴계학의 유입을 통해 풍산류씨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이었다면 탁월한 문장과 경제지학(經濟之學)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충시킨 ‘명지달식(明智達識)’의 학인이 류경심이었던 것이다. 후일 김응



조(金應祖)가 그의 ‘신도비명[龜村先生大司憲柳公神道碑銘]’에서 유술(儒術)에 바탕한 문장, 국익을 우선하는 경세가로서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한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sup>2)</sup>

류경심의 학문과 경세 역량은 종질 류성룡(柳成龍, 1542~1607)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았

柳膺睦, 『豐山柳氏家學淵源錄』 「家學淵源世系圖」

1)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2) 金應祖, 『鶴沙集』 卷9, 〈龜村先生大司憲柳公神道碑銘〉 “公爲人豪爽俊邁 濟之以文學 於藝皆通 尤長於理劇 世之以吏事自負者 皆以爲不可及”

다. 류성룡은 그를 시대적 위난임진왜란을 타개했을만한 인재로 평가하였는데, 아래 인용문에서 읽히는 정서는 계승의식이었다.

만약 공이 살아 계셨다면 반드시 능히 당시의 어려움[倭亂]을 구제했을 것이며, 나와 같은 무리들이 어찌 능히 대임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sup>3)</sup>

류경심은 성주배씨와의 사이에서 1남 9녀를 두었는데, 여대로는 6녀서였다. 10남매 가운데 문호를 형성하여 영남사림 주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하게 유지한 것은 감호가를 비롯하여 1녀서 전해(全海) 계통, 9녀서 이의(李穡) 계통 등이었다.

류경심(柳景深) 자녀도(子女圖)	
柳景深	⇨①子 成龜
	⇨①女 全海(沃川人)
	⇨②女 尹大鳴
	⇨③女 梁天遇
	⇨④女 張遇
	⇨⑤女 崔確
	⇨⑥女 李懲
	⇨⑦女 呂大老(星山人)
	⇨⑧女 趙塘
	⇨⑨女 李穡(固城人)

다만, 전해 계통의 경우 아들 성헌(成憲:서애교유)·사헌(士憲:한강문인)·시헌(時憲:서애문인)이 류성룡·정구와 사우·문인관계를 맺으며 영남학파로 활

3) 金應祖, 『鶴沙集』 卷9, <龜村先生大司憲柳公神道碑銘> “公歿後十八年而南亂作 西厓先生歎曰 若使公在世 必能濟時艱 如我輩其能當大任乎”

동하였으나 손자 유경(有慶)·유장(有章) 등이 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의 문하를 출입하며 서인(노론)을 표방함으로써 남인 퇴계학과와는 대척점에 서게 되었다.<sup>4)</sup> 이의(李穡) 계통 역시 외손자 이파(李坡), 외증손 이지석(李志奭)·지완(志完)이 송시열의 문인이었다는 점에서 서인적 성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sup>5)</sup>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류경심이 갖는 퇴계학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착실하게 계승한 것은 6녀서 여대로 계통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는 그 외파였던 진주강씨 남와가의 학문·정치적 좌표 설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술하겠지만 남와가가 풍산류씨, 특히 서애가와 척연을 맺고 강한 세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가 류경심과 여대로의 용서관계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여대로가 정구의 한강문하를 출입한 시점 및 경위는 자세하지 않고, 사제간의 학문적 수수(授受) 관계 또한 구체적 파악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구의 『한강집(寒岡集)』에는 여대로에게 보낸 답신 한 통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사제간의 분의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더러 그대의 동정(動靜)이 들려오는 것으로 보면 세상 밖의 어느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가르침을 얻지 못하니, 책 속의 옛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리 먼 길음일지라도 출발하면 마땅히 도착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득히 먼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고 한 번도 서로 직접 뵈지 못하고 있으니, 만리 거리에 비유한 당신의 말씀은 혹 그렇지 않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면목이야 비록 서로 접하지 못한다 하

4)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의 정치적 분화」, 『조선시대사학회』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5) 1녀서 奎海와 9녀서 李穡 계통에서 주목할 점은 류경심 현양사업을 그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金應祖에게 류경심의 신도비명을 청한 것은 이의의 사위 李尙逸이었고, 류경심의 문집 『龜村集』의 편찬을 주관한 인물은 전혜의 손자 奎有章이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자손의식의 표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17세기 이후 류경심가가 서인으로 전향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라도 서찰을 전하는 것이야 구애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포기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습니까?<sup>6)</sup>

이 편지에는 자주 방문하지도 않고, 서신조차 드물었던 9세 연하의 문인에 대한 도타운 정서가 원망 가득한 어조로 피력되어 있다. 이는 여대로에 대한 신뢰가 매우 깊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비록 여대로는 정구보다 한 해 빠른 1619년에 사망하지만 정구와의 학연은 사위 강설을 통해 더욱 강화 되기에 이른다.

정구와의 학연은 강안권 한려학인과의 연대와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정황은 장현광(張顯光)·서사원(徐思遠)·이천배(李天培) 등 인동·칠곡·대구·성주권 한려학인들과의 회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601년 3월의 ‘금호선사선유(琴湖仙查船遊)’는 그 단적인 장면이었다.

1601년 금호선사선유(琴湖仙查船遊) 참가자				
순번	성명	거주	사승	비고
1	徐思遠(1550~1615)	달성	寒岡門人	
2	呂大老(1552~1619)	김산	寒岡門人	李宗文의 사돈
3	張顯光(1554~1637)	인동		
4	李天培(1558~1604)	성주	寒岡門人	
5	郭大德(1558~미상)	달성		
6	李奎文(1562~미상)	성주		徐思遠의 고모부
7	宋後昌(1563~미상)	창녕		
8	張乃範(1563~1640)	인동	寒岡·旅軒·樂齋門人	
9	鄭四震(1563~1616)	영천	旅軒門人	
10	李宗文(1567~1638)	달성		
11	鄭 鏞(1567~미상)	달성		한강문인 鄭鍾의 형
12	徐思進(1568~미상)	달성	樂齋門人	徐思遠의 종제
13	都聖俞(1571~1657)	달성	寒岡·樂齋門人	
14	鄭 鏞(1572~미상)	달성		鄭鏞의 종형

6) 송기채, 『국역한강집』 續集 卷8, 〈答呂聖遇 大老〉.

15	鄭 鍾(1573~1612)	달성	寒岡·樂齋門人	
16	都汝俞(1574~1640)	달성	寒岡·樂齋門人	
17	徐 恒(1574~미상)	달성	樂齋門人	徐思遠의 아들
18	鄭 鉉(1575~미상)	달성		鄭鍾의 아우
19	鄭 鉉(1579~미상)	달성	寒岡·樂齋門人	鄭鍾의 아우
20	徐思選(1579~1651)	달성	寒岡·旅軒·樂齋門人	徐思遠의 종계
21	李興雨(1579~미상)	성주		
22	朴曾孝(1581~미상)	영천		
23	金克銘(1581~미상)	서울	樂齋門人	

이 선유는 서사원이 주관하고 장현광·이천배·송후창·정사진·도성유 등 한강·여헌문인 23명이 동참하여 성회를 이루었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인동·달성·성주·창녕 등 강안권 인사들이었고, 타처 인사로는 김산의 여대로, 영천의 정사진(鄭四震)·박증효(朴曾孝), 서울 출신의 서사원 문인 김극명(金克銘) 등 4인에 지나지 않았다.

서사원의 서재 완락재(玩樂齋)의 낙성을 기념하여 설행된 이 주유는 선사에서 출발하여 부강정(浮江亭)에 이르는 낙강 연안의 누정기반을 활용한 문화행사였다. 여대로는 타지역 인사로는 드물게 초빙되었는데, 나이에 따라 작성된 좌목에는 제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초빙은 한강문인으로서의 동문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그는 김극명의 요청으로 이 모임의 취지와 전말을 담은 서문을 지음으로써<sup>7)</sup> ‘금호선사선유’의 대미를 장식함은 물론 한강문파의 본거지에서 동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여대로는 11세 연하의 정경세(鄭經世, 1563~1633)와도 교제가 매우 돈독했다. 정경세는 류성룡의 고제라는 점에서 이 사귀는 처부 류경심을 통해 맺어진 풍산류씨[특히 서애문파]와의 학문적 친연성의 확장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7) 呂大老, 『鑑湖集』卷2, 〈琴湖同舟詩序〉“金秀士克銘恐勝事淪沒 謀作他日之面目 而囑余爲之序 余其敢以不文辭 歲辛丑時暮春 日則二十有二也 星山後學鑑湖釣徒呂大老序”

여대로(呂大老)의 학문적 계통 : 사우(師友)

- ① 柳景深과의 응서관계 : 西厓門派와의 학문적 친연성 강화
- ② 鄭述와의 사제관계 : 寒岡門派 편입
- ③ 張顯光 및 徐思遠과의 사우관계 : 寒旅學人과의 동문의식 강화
- ④ 鄭經世와의 교유관계 : 愚伏門派로의 학문적 교유권 확장

김산과 상주는 근읍(近邑)이라는 점에서 왕래 또한 잦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양인의 교유상은 1619년 여대로 사망 때 지은 정경세의 만시가 사실상 유일하다. 5언 52구로 구성된 이 만시는 행장에 비길수 있을만큼 여대로의 인품과 학식, 관료적 역량과 책무의식, 사문(斯文)에 미친 영향, 교유 과정에서의 문견과 감상 등을 짚진하게 기술하고 있다. 만사에 부기된 세주에 따르면, 여대로는 1600년대 초반 상주로 가서 옥성서원(玉成書院)에서 하루를 묵으며 정경세와 담론한 바 있고, 1610년 10월 정경세가 나주목사로 부임할 때는 증로에서 전별하는 등 친교가 자못 깊었는데, 한 편의 서사(敘事) 구조를 이루는 장편의 만시는 이런 관계성의 반증일 것이다.

예전에 공이 눈발 속에 나를 찾아와 옥성서원(玉成書院)에서 함께 자며 담론하였으며, 그 뒤 경술년(1610) 겨울에 내가 나주목사로 부임할 때 길에서 만났다가 해질녘에야 이별하였다.<sup>8)</sup>

정경세는 여대로를 ‘외모가 준수한 호장부(好丈夫)’, ‘문한가풍에 흡수된 유학자’, ‘재국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처우(仕宦)를 감내한 덕인’, ‘산림에 은거해서도 임금을 잊지 않은 충신’, ‘안빈낙도하며 후진을 양성한 학인’으로 기억하고, 또 기술하고 있다.<sup>9)</sup>

8)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1, 〈挽呂郡守大老〉.

9)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1, 〈挽呂郡守大老〉.

정경세는 여대로를 서로를 기꺼워했던 지기(知己), 학문적 대화가 통했던 익우(益友)로서 깊이 신뢰했는데, 아래 인용문에는 상장(相長)의 기회가 차단된 것에 대한 강한 아쉬움이 표출되어 있다.

‘군수 여대로의 죽음을 애도하며’	
서로를 환대했던 정 어찌 잊을까	歡情那可忘
교계의 우정 언제라도 변치 않았지	交道未曾渝
눈 내리는 밤 흥금을 트고 대화를 나눴고	雪榻論襟夜
추운 저녁 길가에서 나를 송별했었네	寒垆敘別晡
...	
서신은 서로 간에 자주 오고 갔지만	書疏相來往
마음속엔 늘 풀지 못한 답답함이 있었네	心肝每鬱紆 <sup>10)</sup>

정경세와 여대로의 교계는 우복가와 남와가가 세교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강설의 증손 강진익(姜晉益)이 정석교(鄭錫僑·정경세 증손)의 사위가 되고, 5세손 강이화(姜履和)가 정종로(鄭宗魯)의 문하를 출입하게 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호가는 척연·학연 등을 통해 류경심·류성룡·정구·장현광·서사원·정경세 등 영남학파의 명사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었고, 이 기반은 서가(壻家)였던 남와가의 가격 신장에 있어 양질의 자양분으로서의 효험을 지니게 된다.

## 2) 남와가(南窩家)의 인척적인프라 : 척연의 외연과 범주

남와가의 척연은 감호가에서 구축했던 혼맥과 학맥의 수용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만큼 연관성이 깊었다. 우선 강설(姜濼) 자녀 대의 경우 3남 1녀 가운데 장자 강여구(姜汝槩)를 제외한 모든 자녀의 혼맥이 서

10) 정선용, 『국역우복집』 別集 卷1, 〈挽呂郡守大老〉.

애·우복·한강문파와의 연결성을 보이고 있었다.

차자 강여울(姜汝棗)은 성산이씨 이택룡(李澤龍)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처부 이택룡(李澤龍·梅圃)은 형인 이현룡(李見龍·竹圃)·문룡(文龍·菊圃)과 함께 '강문산포(岡門三圃)로 일컬어진 한강문하의 고제였다.<sup>11)</sup>

강설(姜濩) 자녀의 혼맥

- ① 姜汝桀 : 영일 鄭維翰女
- ② 姜汝棗 : 성산 李澤龍女 \_한강문파
- ③ 姜汝床
  - ① 재령 康用候女 \_서애/우복문파
  - ② 풍산 金時翼女 \_서애문파
  - ❶ 女 李維達 : 성산인

3자 강여호의 조취 재령강씨(載寧康氏)는 우복문인 강용후(康用侯)의 따님이자 서애문인 강응철(康應哲·南溪)의 손녀였으며, 재취 풍산김씨는 서애문인 김영조(金榮祖)의 손녀였다. 사위 이유달(李惟達)의 경우 한강고제 이윤우(李潤雨)의 손자 이원기(李元麟)를 사위로 맞았다는 점에서 한강문파와의 친연성이 매우 컸던 인물로 볼 수 있다.

강설(姜濩) 손자녀의 혼맥[略]

- ① 姜必泰 : 선산김씨 金廈槌女 \_여헌문인 金養 손녀
- ② 姜必明 : 거창신씨
- ③ 姜必亨 : 안동권씨 權斗章女 \_한강문인 權濤 증손녀

11) 郭鍾錫, 『侂字集』 卷149, 〈星山李氏六賢遺墟碑 辛亥〉 “是有三子 長曰見龍字誠伯號竹圃 次曰文龍字晦叔號菊圃 季曰澤龍字季確號梅圃 並師事鄭先生 世所稱岡門三圃是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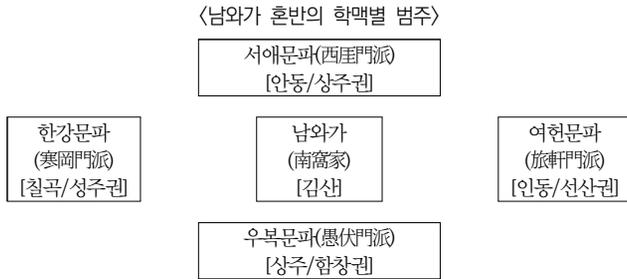
- ④ 姜必昌 : 전주이씨 \_여헌문인 李善述 孫女 \_한강문인 李之英 외손녀  
 ①女 李海潤 : 한강문인 李彦英 손자  
 ②女 黃 沃 : 우복문인 黃 紉 후손  
 ③女 金孝基 : 퇴계문인 金復一 현손  
 ④女 朴命益 : 한강중유인 朴忠後 5세손

자녀 대에 형성된 혼맥은 손자녀 대에 이르러 더욱 강화,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장손 강필태(姜必泰)는 김하천(金廈榘)의 따님과 혼인했는데, 선산 출신의 김하천은『여헌집(旅軒集)』·『역학도설(易學圖說)』의 간행을 주도했던 여헌고제 강양(金養陽)의 아들이었다. 3자 강여호의 장자 강필형(姜必亨)의 처부 권두장(權斗章)은 강우권(丹城)의 대표적 한강문인 권도(權壽, 東溪)의 손자였다. 차자 강필창은 여헌문인 이선술(李善述)의 손녀이자 한강문인 이지영(李之英)의 외손녀와 혼인함으로써 한려학맥과의 밀착성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강여호의 네 사위 모두 명가의 자제들이었다. 장녀서 이해윤(李海潤)은 한강·여헌문인 이언영(李彦英)의 손자였고,<sup>12)</sup> 상주 출신의 차녀서 황옥은 우복문인 황뉴(黃紉)의 후손, 3녀서 김효기는 퇴계문인 김복일(金復一)의 현손, 4녀서 박명익(朴命益)은 정구와 친교가 깊어 1607년 정구·곽재우·장현광 등이 참여했던 용화산하동범록(龍華山下同泛錄)에도 이름을 올린 박충후(朴忠後)의 5세손이었다.<sup>13)</sup>

증손 대에 이르러서도 통혼권은 위의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는 남와가의 혼반이 강안권 퇴계학과[서애/우복/한강/여헌문파] 속에서 범주화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12) 김학수, 「李彦英의 家庭經營論과 交遊·學問論－寒旅學風の 계승과 응용－」, 『영남학』 6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13)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 의식－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그럼에도 증손대에 구축된 인척적 관계망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은 서애·우복문파와의 친연성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안동·영양·상주권의 학봉문파, 강우권의 정운가(鄭蘊家)로까지 통혼권이 확대된다는 사실이다. 퇴계학과 4대 문파 중에서도 조목의 월천문파(月川門派)와의 통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학맥에 따른 친소 관계에서 연유하기보다는 혼인이 갖는 속성, 즉 지역적 ‘거리(距離)’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설(姜渫) 증손자녀의 혼맥[략]	
① 姜震顯 : 상산김씨 金壽一女	_ 서애문인/겸암사위 金弘美 중헌손녀
② 姜晉益	
① 初娶 : 진주정씨 鄭錫僑女	_ 鄭經世 현손녀
② 再娶 : 순천박씨 朴世胄女	_ 한강문인 朴玠衢 증손녀
③ 姜震休 : 평산신씨 申弼勳女	_ 우복연원 申衡耇 증손녀
④ 姜震彦 : 초계정씨 鄭重泰女	_ 한강문인 鄭蘊 현손녀
① 柳夢瑞 : 柳雲龍 현손	
① 姜震一 : 창녕조씨	
② 姜震三 : 풍양조씨 趙命胤女	_ 학봉/한강문인 趙靖 증손녀
① 朴重趾 : 순천인	_ 朴彭年 후손
② 尹之復 : 파평인	
③ 李世瑒 : 한강문인 李潤雨 현손	
④ 趙德鄰 : 한양인 _갈암문인	
① 姜震錫 : 풍산류씨 柳百之女	_ 퇴계문인 柳成龍 증손녀

- ② 姜震煥 : 옥산장씨 張萬元女 \_張顯光 현손  
 ❶ 金昌鉉 : 金誠一 현손  
 ❷ 金夢洛 : 金誠一 현손  
 ❶ 姜震秀 : 갈암문인 權斗寅女

먼저 서애·우복문파와의 경우 류성룡 형제 및 정경세 본가와와의 혼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진석의 처부 류백지(柳百之)는 류성룡의 3자 류진(柳珍)의 차자였으나 무후했던 중부 류단(柳端)을 계후한 경우였고, 강진익의 초취 처부 정석교(鄭錫僑)는 정경세의 장중손이었다. 이 혼인은 후일 강이화(姜履和)가 정종로(鄭宗魯)와 사승관계를 맺고 영남학계가 주목하는 학인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강진환(姜震煥)의 처부 장만원(張萬元) 또한 여헌종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강설의 증손대는 서애·우복·여헌종가 등 강안권 명가들과 통혼하며 양질의 혼맥을 구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와가가 강설의 입향 이후 3대만에 영남학파의 본류에 비견될 수 있을만큼의 가치를 신장했음을 반증하는 장면이다.

학봉문파 또는 학봉가와와의 혼맥은 강진삼(姜震三 ; =학봉문인 趙靖 증손녀), 강진수(姜震三 ; =학봉연원 權斗寅女), 강필형(姜必亨)의 장녀서 김창현(金昌鉉)과 차녀서 김몽락(金夢洛)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강필명(姜必明)의 4녀서였던 조덕린(趙德鄰)은 이현일의 문인으로서 18세기 초반 영남 남인을 이끌었던 학자관료였는데, 후취였던 강씨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 못함으로써 세의의 밀도 또한 약화되었다.

증손대 혼맥의 또 다른 특징은 동일 패틴의 통혼 양상에 따른 연혼·중혼의 사례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강진익(姜震翼)의 초취 진주정씨와 강진휴(姜震休)의 부인 평산신씨는 각기 신상철(申尙喆; 우복문인)의 외증손녀와 현손이었고, 강필명의 사위 이세준(李世琿)은 강여호의 외손서 이원기(李元麒)의 증손자였다.

한편 현손 대에도 혼반의 외적 범주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주목할 것은 이황→김성일→이현일로 이어지는 학통과의 척연이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17세기 중반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학자·관료적 현달을 계기로 영남학파의 주도권이 학봉·갈암학통으로 이행하는 흐름과 관련이 깊었다.

강설(姜溲) 현손자녀의 혼맥[략]

- ① 姜日復 : 아주신씨 申震龜女 \_ 申之懶(한강문인)현손/南屋(서애연원)외손녀
- ② 姜碩復 : 성산여씨 呂命舉女 \_ 李湫(한강연원)외손녀
- ❶ 曹明佑 : 창녕인 \_ 曹應仁子 \_ 曹希仁(우북문인)종질
- ① 姜碩虎 : 의성김씨 金爾鉉女 \_ 權壽昌(한강문인 權濬 玄孫)외손녀
- ② 姜日履 : 신천강씨 康聖弼女
- ③ 姜碩鳳 : 은진송씨 宋光鼎女 \_ 宋麒壽 8世孫女
- ❶ 蔡德川 : 仁川人 \_ 蔡獻徵(갈암문인)손자
- ❷ 愼爾訥 : 居昌人
- ① 姜日是 : 순천김씨 金夏鎭女 \_ 金如萬손녀/金允安(서애문인)현손녀
- ② 姜碩良 : 경주이씨
- ③ 姜曄 : 전주최씨/상산김씨
- ④ 姜曙 : 전주이씨 李雲根女
- ⑤ 姜昉 : 성주이씨
- ⑥ 姜日漢 : 순천박씨
- ① 姜暹 : 인천채씨 蔡獻徵(갈암문인)녀
- ② 姜晚 : 여주이씨 李維祖女
- ❶ 洪命壽 : 洪汝河(우북연원)손자
- ❷ 張大進 : 玉山人 \_ 張顯光 5세손
- ① 姜碩耆 : 파평윤씨 尹商宰女
- ② 姜碩龜 : 광주이씨 李啓中女 \_ 李元祿(한강연원)현손녀/李周命(갈암문인)증손녀
- ❶ 柳滢 : 柳成龍 6세손
- ① 姜日觀 : 풍산류씨 柳後陽女 \_ 柳成龍 5세손녀
- ❶ 南鼎國 : 의령인 \_ 南屋손자/南嶸(서애문인)5세손
- ❷ 李啓中 : 李元祿(한강연원)증손/李周命(갈암문인)손자

즉, 이현일이 안동권은 물론 낙동강 연안에서 진주지역에 이르기까지 영남 사람을 광범위하게 규합하여 갈암학파(葛庵學派)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애·우복·한강·여헌문과 후학 및 후손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편입되어 갔던 것이다.<sup>14)</sup>

선행연구에 따르면, 갈암문인 341명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당하는 82명이 서애·우복 및 한강·여헌문과에서 학봉학통인 갈암문하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서애/우복 및 한강/여헌문파에서 갈암학파로 이행한 인물[략]

□ 西厓/愚伏門派

柳後章·柳後·柳後百·柳經河(이상 서애후손), 李泰至(서애문인 이준의 증손), 成文夏(우복문인 成女義의 손자), 孫萬雄(우복문인 孫禧의 손자), 全五倫(우복문인 全以性的의 손자) 등

□ 寒岡/旅軒門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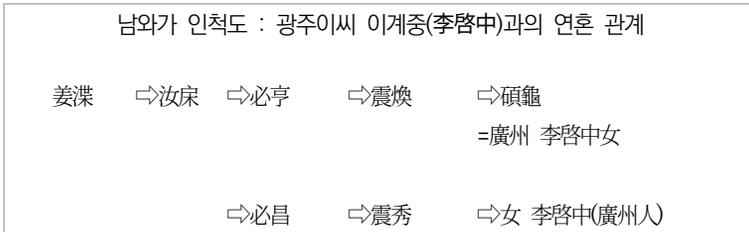
裴正徽(한강문인 배상호 손자), 李夏命·李周命·李基命·李世瑗·李世寶/金南粹(한려문인 金孝可 현손), 申叔範(여헌문인 신흥망 손자), 金元燾(여헌문인 金廈樑의 자), 李秀暉(여헌문인 李民成의 증손) 등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강일복의 처가(아주신씨 申弘望家), 강진언의 사위 채덕천(인천채씨 蔡獻徵 손자), 강섬의 처가(인천채씨 蔡獻徵家), 강석구의 처가(광주이씨 李周命家) 등이 갈암학통에 속했다. 남와가와 갈암학통과의 통혼은 강여호의 손자 강진수(姜震秀)가 갈암문인 권두인(權斗寅)의 사위가 되는 과정에서 단초를 열었고, 이런 경향은 18세기 이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갈암학통과의 통혼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연흔·중흔관계인데, 그 대상

14) 김학수, 「葛庵 李玄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5) 김학수, 「갈암학파의 성격에 대한 검토 : 諸 學脈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퇴계학』 20, 안동대학교 퇴계연구소, 2011.

은 갈암문인 채헌징(蔡獻徵·함창)과 이주명(李周命·칠곡) 집안이다. 먼저 채헌징 집안과의 경우, 강진언의 딸과 강섭은 3종남매 사이였지만 각기 시가와 처가인 인천채씨에 기증하여 계촌하면 3촌 숙질[고모와 친정조카] 사이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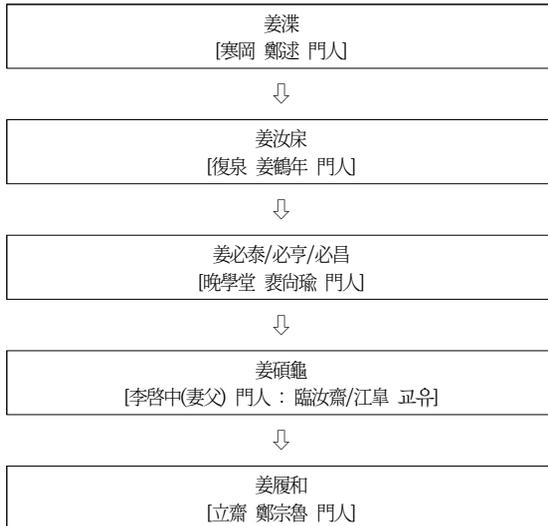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주명 집안과의 관계이다. 위 표에 따르면, 이주명의 손자 이계중(李啓中)은 강진수의 사위인 동시에 강석구의 처부가 된다. 남와가에 기준할 때, 강석구에게 이계중은 재종자형인 동시에 처부가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계중의 딸과 강석구 사이에는 7촌의 척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소하다. 그렇다면 이런 통혼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짐작컨대, 이계중은 진주강씨[초취로 추정]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 못했고, 강석구의 부인은 재취 부인에게서 얻은 딸로 생각된다. 강석구 또한 초취 광주이씨[이계중네]에게서 자녀를 두지 못함으로써 흔히 '파족(破族)'으로 일컬어지는 친족관계의 교란 구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갈암학파로의 척연인프라의 확장은 남와가가 영남학파의 주류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했고, 더욱이 이것이 김산 입향 이후 4~5대 100년만의 성취라는 점은 괄목할만한 발전 양상이었다.

## 2. 학통의 다원성과 영남학과 주류로의 성장 : 영남학과 기호학의 습합

### 1) 남와가(南窩家)의 학통 : 지식문화의 다원적 수용

남와가의 영남학 계승의 통서는 퇴계학과 4대문파(月川/鶴峯/西厓/寒岡) 중에서도 정구의 한강문파와 류성룡·정경세의 서애·우복문파의 계승양상이 뚜렷했다. 그 단서를 마련한 것은 강설의 한강문하 입문이었고, 대미를 장식한 것은 5세손 강이화(姜履和)였다. 물론 강석구의 처부이자 스승격인 이계중은 한강학의 바탕 위에서 갈암학통을 수용한 집안의 자제라는 점에서 학봉문파와의 절충성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18세기 중반까지 남와가 학통의 기축은 한강학에 있었고, 이후 강이화 대에 정종로와의 사승관계를 통해 우복학통까지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남외가의 학통 : 영남학(嶺南學)과 가학(家學)의 접합

李滉 ⇨ 鄭述 ⇨ 姜溧(南窩)  
 ⇨ 李潤雨 ⇨ 李周命 ⇨ 李啓中 ⇨ 姜碩龜(鶴巖)  
 ⇨ 柳成龍 ⇨ 鄭經世 ⇨ 鄭宗魯 ⇨ 姜履和(湖隱)  
 姜鶴年 ⇨ 姜汝床  
 姜栢年 ⇨ 裴尙瑜 ⇨ 姜必泰  
 ⇨ 姜必亨  
 ⇨ 姜必昌

회덕 자운동(紫雲洞) 태생의 강설(1583~1651)이 처향인 김산 기동(耆洞)으로 이거한 것은 병자호란 이후로 파악된다. 당시의 혼령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여대로의 사위가 된 것은 1600년 전후로 추정할 수 있는 바, 혼인 이후에도 30년 이상을 회덕의 본거에서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한강 문하를 출입한 것도 자운동 거주 때였고, 그 시기는 1600년~1620년(정구의 졸년)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외행장(南窩行狀)’에는 과장에서 외유(外誘)에 흔들리지 않는 결기,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배상룡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병진년(1616)에 별시에 응시하여 반촌(泮村)에 머물렀다. 외가 쪽 사람 중에 요직에 있던 한 사람이 공을 방문하러 와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호당(湖堂)에 녹선될만한 재목을 선발하려 하니, 공께서 지금 응하면 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백의(白衣)의 한림(翰林)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공은 내일이라도 선비의 옷을 벗고 입신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소매에서 하나의 관절(關節 뇌물)을 꺼내 보여 주었다. 공이 “이른바 ‘과거가 사람을 얽어맨다.’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고, 그날로 행장을 꾸러 급히 돌아와서는 마침내 과거공부를 포기하였다. 등암(藤菴) 배상룡(裴尙龍)이 마침 한집에 살며 이를 목격하고는 몹시 훌륭하게 여겨 시를 보내 “명리(名利)

의 갈림길에서 그 누가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던가, 향기로운 미끼로 달려드는 것인 줄 진즉에 분명히 알았네.”라고 하였으니, 그 실상을 제대로 기술한 것이다.<sup>16)</sup>

배상룡은 정구의 ‘만년고제(晩年高弟)’로 일컬어진 한강문하의 주축이었다. 그는 정구로부터 심학(心學)의 요체를 배웠음은 물론 스승 사후에는 『한강집(寒岡集)』의 편찬, 회연서원(檜淵書院)의 건립 등 사문추양론에도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아래 허목의 언급은 한강문하에서 접했던 배상룡의 비중을 가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sup>17)</sup>

등암(藤庵, 裴尙龍)은 한강선생의 만년 고제이다. 그의 큰 재목과 뛰어난 국량은 세상에서 큰일을 하기에 충분하였으나, 불행히도 장년(壯年)이 되어 왕부(王侯)의 아픔을 품고서 과거 공부를 폐하고 두문불출하며 일생을 마치려고 하니, 그를 아는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공은 일찍이 한강 문하에서 배웠는데, 심학(心學)의 요체와 예를 강론하는 조목을 듣고서 선생이 애지중지하였다. 내가 비록 어린 시절에 정선생을 보았지만 나태하고 용졸하여 끝내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였고, 선생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흠모하여 좇아가려는 정성으로 당시 한강문하에서 배운 선비를 만나면 마음을 기울여 기쁜 표정으로 그도 통의 살마리를 들고자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등암은 선생에 대하여 단지 스승의 얼굴만 본 분이 아니다. 선생의 문고(寒岡集)를 편찬하고 선생의 사당(檜淵書院)을 세웠으며, 무릇 선생의 사업을 드러내는 일에는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매번 공을 만날 때마다 선생의 곁에 있는 것 같았다.<sup>18)</sup>

배상룡의 증시는 한강문하 동문의식의 표현으로도 읽히는데,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강설은 1616년 이전에 정구와 사승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

16) 김영옥 외, 『국역입재집』 別集 卷6, 〈成均進士南窩姜公行狀〉.

17) 배상룡과 허목의 교유관계에 대해서는 김학수, 「선유를 통해 본 낙강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의식: 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嶺南學』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참조.

18) 정현섭 외, 『국역간송집』 別集 卷1, 〈開津期會錄〉.

다. 다만, 방문·문답 등 사제관계의 구체적 실상은 파악이 쉽지 않지만 현손 강석구는 ‘남외묘갈명(南窩墓碣銘)’에서 정구와의 학연을 이렇게 기술했다.

을축년(1625) 4월 고비(考妣) 상을 당해 3년을 자운동(紫雲洞)에서 시묘하며 예를 다해 복상했고, 상복을 벗은 뒤 가인들에게 ‘교남(嶠南)은 본디 추로지향으로 일컬어져 현현이 배출된 곳이니 어찌 그곳으로 가서 살지 않겠는가’라고 하고는 김산 기동(耆洞)에 집을 짓고 남외(南窩)라 자호했다. 한강(寒岡) 정선생의 문하에 집지하여 덕성을 훈도함으로써 행실은 고결하고 학문은 정련하여 영남유림이 외경(畏敬)하였다.<sup>19)</sup>

즉, 강설은 문명론적 입장에서 김산 이거를 기획했던 것이고, 자신의 주자학적 문명화를 이끌어 줄 지적(知的) 매개로서 정구를 염두했던 것이다. 강석구는 정구와의 사승관계를 ‘집지(執贄)’라는 최경어(最敬語)를 통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남외가의 한강인식(寒岡認識)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강설은 정구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1622년 정구 대상 때 이상각(李尙恪)·여절(呂沔) 등 김산지역 동문들과 연명으로 올린 제문이 거의 유일하다. 여기서 그는 정구를 ‘동방 이학(理學)의 계승자’, ‘사도(師道)를 자임하며 후학을 양성한 학인’, ‘유자의 표준이자 북두(北斗)와 같은 위상을 지닌 순유(醇儒)’로 평가했는데,<sup>20)</sup> 이는 정구에 대한 향념이 흑모(酷慕)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강여호는 3종(從) 대부(大父)인 강학년(姜鶴年;復泉)에게 수학함으로써 회덕 자운동에서 양성(釀成)된 ‘강문가학(姜門家學)’을 계승하게 된다. 다만, 강학년의 사승을 고려할 때, 그의 복천문하 수학은 가학과 사림학의 양면적 계승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강학년은 고조 강문한(姜文翰) 이래의 가학을 착실하게 계승하는 한편으로 외부(外傳)로서 덕신정(德信正) 이난수(李鸞壽)와 이영언(李英彦)을 사사하여 사림학을 아울러 수용하였다.<sup>21)</sup> 여기서

19) 『南窩耆齋世稿』〈南窩墓碣銘〉(姜碩龜撰).

20) 鄭述, 『寒岡全書』附錄 卷2, 〈門人姜溲李尙恪呂沔等祭文〉.

주목할 인물은 이난수이다. 그는 김굉필(金宏弼)⇨류우(柳翹)⇨이중호(李仲虎)⇨박주(朴洲 : 초명 朴洞)로 이어지는 학통을 이은 셈인데, 서출이었던 이중호와 박주는 각기 회현문파(會賢門派)와 돈의문파(敦義門派)를 형성하여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 서울 사족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들이었다.

이중호(李仲虎) 문인 : 회현문파(會賢門派)

- 朴洲 □ 金謹恭 □ 徐起 □ 李止男 □ 柳祖認 □ 申煦 □ 錦川君 李瑊 □ 順川君 李瑄
- 朴應男 □ 朴應福 □ 鄭芝衍 □ 朴漸 □ 尹斗壽 □ 李誠中 □ 崔滉 □ 奇大鼎 □ 金有一
- 柳纘 □ 金玠 □ 尹喜孫 □ 金就礪 □ 權用中 □ 羅士忱 □ 李陽元 □ 鄭崑壽

이중호의 문인의 대부분은 서울 및 근기지역 출신의 사대부가의 자제들이었고, 이 중에는 박주(朴洲)·김근공(金謹恭)·서기(徐起) 등 서얼층도 있었지만 금천군 이함(李瑊), 순천군 이관(李瑄) 등 종실 및 박응남(朴應男; 이관)·박응복(朴應福; 정인)·정지연(鄭芝衍; 우상)·박점(朴漸; 감사)·이성중(李誠中; 판서; 퇴계 문인)·윤두수(尹斗壽; 영상)·김취려(金就礪; 퇴계문인)·나사침(羅士忱)·이양원(李陽元; 퇴계문인)·최황(崔滉; 계문인) 등 저명 인사들이 많았다.

이중호 문인 가운데 사문(師門)의 교육자적 면모를 가장 잘 계승한 것은 박주(朴洲)였다. 그는 서울의 돈의문에서 40년 동안 강학하여 학자로 명성을 얻었고, 경학은 물론 경세지학에도 해박하여 통유(通儒)로 일컬어졌다. 이황이 이중호의 예에 따라 6품직에 서용할 것을 건의하고<sup>21)</sup> 이식(李植)이 그를 ‘근세의 서류(庶流) 학인 가운데 으뜸’으로 평가한 것에서 그 위상을 족히 짐작할 수 있다.<sup>22)</sup> 이런 바탕 위에서 그는 다수의 문인들을 배출했는데, 그 대표

21) 姜鶴年の 사승관계는 김문준, 「復泉 姜鶴年の 生涯와 思想」, 『復泉遺稿』(上), 아산시청, 2011 참조.

22) 盧守愼, 『穌齋集』 卷10, 〈許擘神道碑銘〉 “上召滉 再造朝 又言先朝有庶擊李仲彪/張崙 學行名世 學者多趨之 今朴洞小學爲教 其徒常數百人薦補童蒙訓導 以不就考試居殿 猶盡心不倦 請例彪崙昇祿 從之”

적 인물을 정리하면 아래 같다.

박주(朴洲) 문인 : 돈의문파(敦義門派)

- 李慎誠 : 진사 \_大學에 정통
- 李貞民 : 小學 및 四書 수학
- 金庭睦 : 有祭文
- 李命麟 : 有祭文
- 李秀增 : 韓山人
- 尹 瓘 : 出入朴鼎山洞門 絕意仕宦 潛心古道
- 河景淸 : 武官으로 선회
- 羅德峻 : 與弟德潤偏交一時名流 講禮於柳汎愛祖訃/朴鼎山洞/申斯文義慶
- 閔仁伯 : 文科 \_知中樞府事
- 奇自獻 : 文科 \_領議政 \_必稱先生
- 德信正 李鸞壽 : 經學/音樂/禮學에 정통

이난수는 경학·예학·음악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는데, 특히 '상례언해(喪禮諺解)'는 김장생을 비롯하여 송시열·안정복 등으로부터 그 공로와 가치를 크게 인정받은 바 있다.

- ① 덕신정은 교관 박형(朴洞:朴洲)에게 수학하면서 경서를 읽고 또 예학에까지 미쳤는데, 그는 세속 사람들이 특히 급작스러운 변고를 당했을 때에 예를 그르치게 되는 것을 걱정해 왔다. 그래서 마침내 상례의 초종(初終) 예절을 뽑아 언해(諺解)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설령 부인(婦人)이라 할지라도 이에 근거하여 행하면 아마도 대사(大事)를 치름에 유감이 없을 것이니, 그 뜻 또한 근심하다 하겠다.<sup>24)</sup>

23) 李植, 『澤堂集』別集 卷15, 〈示兒代筆〉(追錄) “朴鼎山洞 字洞之 庶人也 勤學善誨 居京授徒 弟子常數百人 小學經書之外 不教他書 文義精密 舉世莫及 明宣兩朝朝士 童時則皆從鼎山學 … 當爲近來庶流學問中之第一”

24) 박완석, 『국역사계전서』 卷5, 〈喪禮諺解序〉.

- ② 지금 선산부백(善山府伯)으로 있는 안공(安公) 모(某)를 통하여 비로소 덕신정(德信正) 이난수(李鸞壽)의 <가례언해>가 있음을 알았으나,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sup>25)</sup>
- ③ 충실인 덕신정이 예를 좋아하여 주자의 가례(家禮) 중에서 초종(初終)부터 성복(成服)까지의 네 조목을 취하여 언문으로 풀이해서 몽매한 선비나 부녀자들이 그에 따라 초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김사계(金沙溪)가 보고 매우 칭찬하였다. ... 덕신정은 세조의 왕자인 덕원군의 증손으로, 이름은 난수(鸞壽)이고 자는 문수(文叟)이며 호는 서곡(西谷)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며, 문장과 학문을 좋아하였다. 박주(朴洲)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박주가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sup>26)</sup>

이런 맥락에서 김장생은 사실상 이난수를 돈의문파(敦義門派: 朴洲 門下)의 수문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른바 덕신정 문하의 수문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 강학년(姜鶴年)과 허후(許厚)였던 것이다.

신문(新門: 朴洞)이 후생들을 가르쳐 그를 추종하는 자가 거의 수십, 수백 명에 이르지만 학문이 성취되어 학업을 계승한 자는 한 사람도 없으니, 인재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오직 문수(文叟: 德信正)만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늘도록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가당한 일이다.<sup>27)</sup>

덕신정(德信正) 이난수(李鸞壽) 문인

- 許 厚 : 허목의 종형 \_소북계 근기남인 \_寒岡門人
- 姜鶴年 : 소북계 근기남인 \_姜世晷의 종조
- 蔡裕後 : 소북계 근기남인 \_대제학 \_강학년 문인
- 李挺豪 : 동몽교관
- 申達道 : 영남남인 \_학봉/월천학통 \_덕신정의 사위
- 李有謙 : 서인(노론) \_기호학통 \_陶庵 李穡 증조

25) 이기석, 『국역송자대전』 卷146, <家禮諺解跋>.  
 26) 홍승균, 『국역순암집』 卷13, <象軒隨筆>.  
 27) 박완석, 『국역사계전서』 卷5, <喪禮諺解序>.

① 강학년(姜鶴年)

덕신정(德信正) 이난수를 증유하여 『대학(大學)』, 『주역(周易)』을 수업하였으며, 이대순(李大淳) 선생에게 『중용(中庸)』을 배웠다.<sup>28)</sup>

② 허후(許厚)

학문이 통달하면서 덕신공자(德信公子) 이난수를 증유하여 『역(易)』을 배우고, 『대학(大學)』을 강론하여 <대학구결(大學口訣)>과 『경전요해(經傳要解)』를 편성하였다.<sup>29)</sup>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강여호의 복천문화 수학은 이중호[會賢門派] 박주[敦義門派] 강학년으로 이어지는 회현·돈의문파의 정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회현·돈의문파의 학문이 경학을 토대로 하여 음악·예학 등 그 스펙트럼이 넓었다는 점에서 강여호가 계승한 것은 적용(適用)의 학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덕신정 문화의 수문에 해당하는 강학년·허후의 묘도문을 한강고제 허목이 찬술했고, 덕신정의 사위로서 강여호와는 동문관계에 있던 신달도(申達道)가 여문십현(旅門十賢)의 한 사람인 신열도(申悅道)의 형이라는 점이다. 이는 강여호가 덕신정과 강학년으로 상징되는 실용학풍(實用學風)의 서울학과 도학풍(道學風)의 영남학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그의 관료적 진출과 역할 또한 두 학풍의 절충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남와가의 학통과 관련하여 주목할 또 다른 인물은 강여호의 증손 강석구(姜碩龜)이다. 강석구의 청소년기는 뚜렷한 사승 없이 가학을 통해 학업을 이어오던 시기로 파악된다. 17세 되던 1742년 부친 강진환(姜震煥)을 여읜 것도 사회·학문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곤액(困厄)스런 상황은 20세 되던 1745년 칠곡 소재 광주이씨 박곡가(李元祿家)에 장가들면서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었다. 박곡가는 이윤우(李潤雨)→

28) 許穆, 『記言』別集 卷22, <復泉姜公墓銘>.

29) 許穆, 『記言』卷44, <觀雪先生墓誌銘>.

도장(道長)⇒원록(元祿)⇒주명(周命)에 이르기까지 4대가 문과를 통해 관계에 진출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 또한 매우 탄탄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sup>30)</sup> 강석구의 처부 이계중(李啓中)은 이주명의 장손이었으므로 그의 처가는 광주이씨 박곡가(朴谷家)의 종가였던 것이다.

광주이씨와의 혼인은 단순히 성가(成家)의 의미를 넘어 학문과 사회적 활동의 방향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엄정(嚴整)·청수(淸粹)·관후(寬厚)한 인품으로 종족 및 향당에서 신망이 높았고, 학문 또한 뛰어났던 처부 이계중의 알선과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는 차녀서 강석구에 대한 이계중의 관심과 애착이 함축되어 있다.

을축년 여름 소자(小子:姜碩龜)가 장가들었을 때 공께서는 저를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으로 여겨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역(周易) 한 권과 중용(中庸) 한 부를 주시면서 베끼고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소자는 명을 받들어 매일 베끼고 읽었으며, 아침마다 배송(背誦)하여 어느새 학업의 과정(課程)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논어와 중용에 이르러서는 구두의 청탁을 자상하게 가르쳐줌으로써 그 은의(恩義)를 극진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용서(翁孀 : 장인과 사위) 관계에 견줄 바가 아닐뿐더러 저의 공부가 성취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공께서 교도하여 주신 것에 힘입은 것입니다.<sup>31)</sup>

위 인용문은 1760년대 중반 이계중(李啓中)의 소상 때 지은 제문이다. 사실, 강석구는 초취 광주이씨가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1747년 자녀를 두지 못한 채 사망하자 순천박씨를 재취로 맞아 2남 1녀를 두게 된다. 부인의 단명과 무자녀는 척연의 약화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sup>32)</sup> 강석구는 초취 처

30)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31) 姜碩龜, 『鶴巖遺稿』〈祭聘丈李公晚醉堂啓中〉.

32) 초취의 묘소 또한 김산이 아닌 친향인 칠곡에 소재함으로써 정서적 격리감을 끼우는 요인이 되었다. 이계중은 말년에 강석구에게 묘소의 이장을 여러 차례 거론하였으나 실행되지는 못한 것 같다. 다만, 강석구는 이계중의 재종손 李弼運을 사위로 맞았는데, 이는 초취의 단명과 무후에 따른 척연의 감퇴성을 보완하

부 이계중을 은의(恩義), 즉 응서이자 사제라는 양면적 측면에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강석구를 이계중 문인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광주이씨 학통 : 강석구 처가

李潤雨    ⇨道長    ⇨元祿    ⇨周命    ⇨世瑢    ⇨啓中    ⇨女 姜碩龜  
 (寒岡門人) (寒岡門人) (眉叟門人) (葛庵門人)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이씨 박곡가는 한강학의 기반 위에서 17세기 후반 이후 이현일의 갈암학통을 수용하는 이원적 학통 구조 속에 있었다. 당초 그가 이계중의 딸과 혼인한 것도 양가(朴谷家/南窩家) 사이에 존재했던 한강학통으로서의 학통적 동질성과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강석구는 처부 이계중을 ‘사(師)’로 인식함으로써 박곡가와와의 통혼은 갈암학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통로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2) ‘학자집안’의 가도(家道) 정립과 강안학맥(江岸學脈)과의 소통 : 강이화(姜履和)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본 관계의 복원과 확장

(1) 강이화의 ‘영남유현론(嶺南儒賢論)’과 사우관계의 스펙트럼

서애·우복·한강·여헌문파로 집약되는 남와가의 학문적 통서를 수렴하여 학자로서의 면모를 가장 확고하게 갖춘 인물은 강설의 5세손 강이화(姜履和, 1741~1828)였다. 그는 강설(姜溲)⇨강여구(姜汝槩)⇨강필태(姜必泰)⇨강진현(姜震顯)⇨강일복(姜日復)⇨강이화로 이어지는 장파(長派) 계통으로 백형 강택문(姜宅文)과 함께 일문의 문풍을 진작하는 한편 영남일대의 석학들과 사우관계를 맺으며 평생 학자의 길을 걸었다.

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중전까지 남와가의 문호 시장을 이끈 인물이 3자 강여호(姜汝序)와 그 증손 강석구(姜碩龜)였다면 강이화의 학자적 성장은 장파의 종족적 권위 회복에<sup>33)</sup> 더하여 남와가의 사환지향적 경향을 ‘학문’으로 선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강이화는 산수에 대한 애착이 깊어 여유(旅遊)의 기회가 매우 잦았다. 이 여유는 산수벽에 따른 취미생활을 넘어 학인들과의 회합을 통해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교유의 외연을 확장하는 매우 유익한 학자적 삶의 과정으로 포착된다. 그의 문집 『호은집(湖隱集)』에 따르면, 그는 서울을 비롯하여 상주·인동·선산·의성·대구·칠곡·성주 등 퇴계학파권은 물론 함양·진주·안의 등 남명학파권에까지 족적이 미쳤으며, 심지어는 호남의 남원을 다녀오는 등 그 행보가 매우 광폭적이었다.

그의 여유 및 방문의 경로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면 선대의 척연 및 학연과 밀접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선대로부터 축적된 제 연(緣)이 그에게는 매우 소중한 무형의 자산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영남학인’으로서 강이화가 영남의 학술문화적 지형과 판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산인대비론(山人對比論)’에서 그 일단을 포착할 수 있다.

영남의 명산이 적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불씨(佛氏)가 점거하여 이름을 얻은 것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거니와 산은 높다고 해서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인(偉人)이 있으면 명산이 되는 것이다. 도산(陶山)은 퇴옹(退翁; 李滉)을 만나 명산이 되었고, 옥산(玉山)은 회옹(晦翁; 李彥迪)을 만나 명산이 되었으며, 덕산(德山)은 남옹(南翁; 曹植)을 만나 명산이 되었으며, 애옹(厓翁; 柳成龍)·겸옹(謙翁; 柳雲龍)·학옹(鶴翁; 金誠一)·충옹(冲翁; 權櫟)과 태백(太白)·소백산(小白山), 한옹(寒翁; 鄭述)와 무흘산(武屹山), 여옹(旅翁; 張顯光)·야옹(冶翁; 吉再)와 금오산(金烏山), 우옹(愚翁; 鄭經世)와 우산(愚山), 동옹(桐翁; 鄭縑)과 원학산(猿鶴産)의 관계 또한 주인이 있어 이땅(海左)에서 이름을 얻은 것이다.<sup>34)</sup>

33) 강설의 장자 姜汝槩는 조카 姜必泰(姜汝序의 3子)를 입양하여 가통을 이었으므로 장파 또한 혈통상으로는 모두 강여호의 자손들이다.

그는 위인론적 입장에서 산을 인식하고 있고, 인간의 역할, 즉 인문성을 산의 가치를 계측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산식에 따라 그가 설정하는 ‘영남유현’과 ‘산’의 조합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그는 각기 김굉필·정여창을 연상케 하는 가야산과 지리산을 언급하지 않았고, 류성룡·류운룡·김성일·권벌 및 장현광·길재의 기명(記名) 순서 또한 예사롭지 않는데, 이는 위인론의 기준이 도학적 위상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강이화(姜履和)의 명산위인론(名山偉人論)

- 陶山 : 李滉
- 玉山 : 李彥迪
- 德山 : 曹植
- 太白山/小白山 : 柳成龍·柳雲龍·金誠一·權檉
- 武屹山 : 鄭述
- 金烏山 : 張顯光·吉再
- 愚山 : 鄭經世
- 猿鶴山 : 鄭蘊

위 표에 따르면, 남와가의 학문연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 류성룡·정경세·정구·장현광은 위인으로서의 존재성을 탄탄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강이화의 학자적 행보에서 자주 거론, 포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의 핵심 사우였던 정종로(鄭宗魯)·남한조(南漢朝)·신체인(申體仁)·이경유(李敬儒)·이상배(李升培)·도상욱(都尙郁)·이하운(李夏運)·이만운(李萬運) 등도 학통상으로는 이 범주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34) 姜履和, 『湖隱集』 卷3, 〈紱遊山錄後〉.

강이화의 사우 관계

- 鄭宗魯(상주) : 大山/百弗菴/南野門人 \_ 鄭經世 6세손(愚伏淵源)
- 南漢朝(상주) : 大山門人 \_ 南嶸 6세손(西厓淵源)
- 申體仁(의성) : 大山門人 \_ 외종형 \_ 申之悌 6세손(寒岡淵源)
- 李敬儻(상주) : 李萬敷 증손(西厓淵源)
- 李升培(상주) : 李峻 7세손(西厓淵源)
- 都尙郁(성주) : 都世純 5세손(寒岡淵源)
- 李廈運(칠곡) : 大山門人 \_ 李潤雨 7세손(寒岡淵源)
- 李萬運(칠곡) : 李潤雨 7세손(寒岡淵源)
- 鄭 燾(성주) : 大山/百弗菴門人 \_ 鄭逵 8세손(寒岡淵源)

(2) 성주권 한강학맥 : 연원순례(淵源巡禮)와 학술문화적 일체의식

강이화가 회연(檜淵)에서 무흘(武屹)에 이르는 한강학의 주요 공간에 대한 심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점은 1801년 무렵으로 파악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산수벽이 있어 도내의 명승을 두루 답사하며 심신 수련과 사우 교유의 계기로 삼았는데, 특히 성주는 평생의 지우 도상욱(都尙郁)의 향리였던 바, 왕래의 기회도 더욱 잦을 수밖에 없었다.

1801년 3월 강이화는 의령의 류필권(柳必權)을 방문했다가 그의 집에서 반매(蟠梅)를 감상하고는 강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이에 그는 그 감회를 ‘류옹반매서(柳翁蟠梅序)’라는 글로 남기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일찍이 방문한 바 있던 회연 백매원(白梅園)의 매화를 ‘한매(寒梅)’로 평가하며 정구의 학자적 품성을 추억한 바 있다.<sup>35)</sup>

백매원 방문은 자연스럽게 회연서원(檜淵書院) 참배로 이어졌다. 회연에서의 알모는 강이화에 있어 연원 순례의 과정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예를 마친 강이화는 백매원과 망운암(望雲庵) 사이를 배회하다 서원 뒤편에서 정구가 손수 심은 오죽(烏竹)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그는 대(竹) 하나를

35) 姜履和, 『湖隱集』 卷1, 〈柳翁蟠梅序〉.

취하여 노년을 의지할 지팡이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다. 정구가 손수 심은 대라는 점에서 그가 기했던 것은 육신의 의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 아울러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서원 벽에 씌여진 ‘대를 자르지 말라는 경계(勿剪之戒)’ 문구를 보고는 단념하고 돌아왔지만 회연 오죽에 대한 집착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1803~1804년 무렵 3종질 강복순(姜復淳)을 통해 어렵사리 회연의 오죽을 구해 지팡이를 만들기에 이른다. 아래는 오죽장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글인데, 여기에는 자가(自家)의 학문연원인 정구에 대한 경모심이 강렬하게 투사되어 있다.

무릇 대나무는 그 마디(節)가 곧은데, 선생은 대중지정(大中至正)한 절개를 바로 세웠으며, 대나무의 성(性)은 온전한데, 선생은 청명순수(清明純粹)한 성품을 온전히 하였으며, 대나무의 속은 비워져 있는데, 선생께서는 경(敬)을 위주로 하여 허령(虛靈)의 묘(妙)를 보존하였으며, 대나무의 체(體)는 털어냄에 있는데, 선생은 신독(慎獨)의 공부로 현묘(玄妙)한 이치를 궁구하셨다.<sup>36)</sup>

이렇듯 강이화는 정구를 ‘대중지정(大中至正)한 절개와 ‘청명순수(清明純粹)한 성품으로 경(敬)과 신독(慎獨)을 통해 허령(虛靈)의 묘(妙)와 현묘(玄妙)한 이치를 궁구한 대유(大儒)로 묘사하고 있는데, 행간에 흐르는 정서는 흑모(酷慕)에 근접한다.

흑모의 정서는 강렬한 계승의식으로 치환될 수 있었고, 그 결과 타인의 접근을 엄금했던 ‘무흘장서(武屹藏書:棲雲菴藏書)’를 열람하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한강 노선생께서 평일에 읽었거나 도(道)를 담아 저술하신 글이 무흘(武屹)에 갈무리 된 지가 수백 년이 되었다. 나같은 후생은 종종 신수 구경을 갈 때면 늘 그 서책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선생의 본손이 아니면 서고의 문을 개폐할 수가 없었다. 요사이 정씨 몇 사람이 서운암(棲雲菴)에 우거하면서 누각

36) 姜履和, 『湖隱集』 卷6, 〈烏竹杖韻并記〉.

안에 보관된 서책들을 내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갈이 있었다.<sup>37)</sup>

무흘장서(武屹藏書)는 정구가 생전에 읽고 학습했던 서책 및 그의 저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방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한강문인 허목 또한 '수도산(修道山) 무흘(武屹)에 정씨장서(鄭氏藏書)가 있다'<sup>38)</sup>고 했을만큼 이 장서는 유가의 대표적 지식문화인프라로서 국중의 명소가 된 지 오래였다. 이런 이유에서 그 관리는 매우 철저하여 본손이 아니면 열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강이화 또한 좀처럼 그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73세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열람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기록의 소략으로 인해 서운암 장서의 열람 과정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한강문인 후손으로서의 연원성, 학자로서의 개인적 자질과 명성, 정구에 대한 착실한 계승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숙원의 하나였던 무흘장서의 열람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정위(鄭煒)·정시(鄭蓍) 등 정구의 본손을 비롯하여 도상욱(都尙郁)·이하운(李廈運)·이만운(李萬運)·김두범(金斗範) 등 칠곡·성주권 한강연원의 학인들과도 긴밀한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정위(鄭煒)는 정구의 8세 종손(宗孫)이라는 점에서 종족적 위상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학문, 특히 예학에 뛰어나 『지애집(芝厓集)』과 『가례회통(家禮彙通)』의 저작을 남긴 석학이었다. 19세기 초반 그는 성주유림을 대표하는 노유(老儒)로서 1808년 도상욱(都尙郁) 등의 주관으로 단산서숙(丹山書塾)에서 설행된 오로회(鄭煒·鄭東羽·朴弘昇·權思漢·金斗範)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강이화는 이 회연(會宴)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단산오로회가(丹山五老會歌)'에 화운(和韻)하여<sup>39)</sup> 정위 등 5로(五老)의 학덕을 칭송하고 축수한 바 있다. 1811년 정위의 사망 때 지은 만사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선명하게 표출되

37) 姜履和, 『湖隱集』 卷13, 〈惟我寒岡老先生...〉.

38) 許穆, 『記言』 卷28, 〈伽椰山記〉.

39) 姜履和, 『湖隱集』 卷9, 〈和丹山五老會歌三十四句贈霽南翁〉.

었는데, 여기서 그는 정구를 ‘대동(大東)의 원기(元氣)를 집성한 대유’, 정위를 ‘한강가학(寒岡家學)의 착실한 계승을 통해 심학을 더욱 발달한 학인’으로 평가했다.

한편 강이화는 1811년 가산군수 재임 당시 홍경래의 난이 발발하였을 때 관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다 아버지 정로(鄭魯)와 함께 순절한 정시(鄭蓍)의 만사에서 그의 충절을 선대(한강) 이래의 직절(直節)함의 계승양상으로 해석하며<sup>40)</sup> 깊은 애도의 뜻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로·정시 부자와 전혀 면식이 없었음에도 충절에 감동하고 한강후학으로서의 세의를 표하기 위해 아들 목순(穆淳)을 보내 치제하는 성의를 보였던 것이다.

호은거사(湖隱居士:姜履和)는 이공(二公:鄭魯·鄭蓍)과 전혀 면식이 없지만 두 공은 한강의 후손이고, 한강은 나의 선조 남외공(南窩公)의 스승이다. 따라서 두 집안 사이의 세의의 돈독함은 물론이고 그들이 지킨 이륜(彝倫)에 공감하고 그 절의(節義)를 씩씩하게 여기는 바, 어찌 영금영금 기어서라도 조문치 않을 수 있겠는가?<sup>41)</sup>

비록 정시와는 생전 교유가 아닌 충혼에 대한 위로에 그치기는 했지만 그 바탕에 흐르는 정서는 ‘한강가에 대한 존중’이었고, 동시에 이것은 연원의식의 강한 작동이었다.

한편 칠곡 출신의 이하운(李廈運, 1734~1808)·이만운(李萬運, 1736~1820)은 한강고제 이운우의 7세손이고, 성주 출신인 김두범(金斗範)은 한강문인 김정설(金廷契)의 후손이었다. 물론 이들은 이상정(李象靖)과 사우문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산학파의 일원으로 편입되었지만<sup>42)</sup> 강이화와는 한강연원으로서의 학문적 동질성이 컸던 인사들이다.

40) 姜履和, 『湖隱集』 卷13, 〈輓贈兵曹判書行嘉山郡守鄭蓍〉, 〈輓忠烈公鄭蓍葬事〉.

41) 姜履和, 『湖隱集』 卷13, 〈祭鄭兵判文〉.

42) 이만운의 경우 대산문하에 입문하지는 않았지만 李象靖의 손자 李秉遠을 사위로 맞는 등 大山門派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다.

이하운은 강이화와 마찬가지로 산수벽이 있어 1796년 금강산 유람을 기획하고는 정종로와 강이화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나 정종로는 전염병과 노친 봉양, 강이화는 자녀 혼사로 응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정종로는 증시(贈詩)로서 동참하지 못하는 마음을 곡진하게 표현했고, 강이화는 이하운 일행이 금강산에서 창수한 시축의 후지를 지음으로써 우의(友誼)에 답했다.

사우인 이통언(李通彦·李慶運)이 풍악산(금강산)에 가려고 산중으로 와서 나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는데, 전염병이 미쳐 가지지 않았고, 또 아흔 노모를 모셔야 하는 처지라 형세상 말미를 얻을 수 없었다. 마음은 이미 금강산에 있는데 몸은 여전히 산중에 있으니 그 안타까움을 어찌하겠는가.<sup>43)</sup>

‘이통언의 금강산수창록 후서[書李通彦金剛山唱錄後]’에 따르면,<sup>44)</sup> 강이화는 1797년 봄 금강산 유람의 감흥을 듣기 위해 칠곡의 이하운을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하운은 외병 중이었고, 그 아우를 통해 시축을 열람할 수 있었다. 위 글에는 이하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가사(婚朝)로 인해 동유(同遊)하지 못한 아쉬움과 금강산의 풍광에 대한 경탄(驚歎)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의 여행은 이들에게는 일상의 하나로서 교계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기는 했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발산되는 인간적 신뢰와 회우(會友)의 강고성이다. 즉, 강이화와 이하운은 7년의 연령 차이에도 사우로서의 정리(情理)를 굳건하게 이어나갔으며, 1806년 8월 선산(선산)→인동(인동)의성(의성)→칠곡에 이르는 여정에서도 칠곡에 들러 이하운과 이만운을 방문하는 등 이들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다.

8월 22일, 한서옹(寒棲翁) 이통언(李通彦)을 방문했다. 24일, 한서옹과 함께 이관운(李觀運)·겸운(謙運) 및 이사중(李思仲)·이담운(李聃運)을 방문했고, 석전

43) 鄭宗魯, 『立齋集』 卷2, 〈李友通彦將往楓嶽 委到山中 要余做轡 而余是未疫 又九耄 親下 則其勢未由也 魂往形滯 恨其如何 遂以近體 略道此意以贈〉.

44) 姜履和, 『湖隱集』 卷1, 〈書李通彦金剛山唱錄後〉.

(石田·돌밭)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이행운(李行運)의 집을 방문했으며, 석양 무렵에 이정언(李正言) 덕이(德而;李萬運)을 방문했다.<sup>45)</sup>

이보다 앞서 1806년 강이화는 부인의성김씨 金聖鐸妃 상을 당한 이만운에게 위장(慰狀)을 보내는 예법을 갖추었고,<sup>46)</sup> 이만운 또한 답조장을 통해 조문의 성의에 사례한 바 있지만 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상견 당시의 감회를 담은 시작(詩作)에서<sup>47)</sup> 그는 이만운을 상경(尙綱)의 겸허함으로 자양(紫陽;朱子)의 학문과 고품을 이을 학인으로 기억했다.

### (3) 상주권 우복학맥 : 척연에서 학연으로의 확장

강이화와 우복문파와의 관계는 척연의 학연으로의 확장이라는 발전적 과정으로 포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이화는 ‘위인명산론(偉人名山論)’에서 정경세(鄭經世)를 우산(愚山)과 연계시켜 영남학의 한 봉우리로 설정한 바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경세가 지닌 학자·관료적 역할과 위상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양가 사이에 맺어져 있었던 척연 또한 한 몫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표에서 보듯 강이화의 생가 조부 강진익(姜晉益)은 정석교(鄭錫僑; 정경세 증손)의 사위였으므로 강이화는 정석교에게 외증손이 되고, 정경세의 증손이었던 정종로와는 외변으로 6촌의 척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척연으로 인해 강이화는 상주 우산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가운데 정종로와는 사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자제인 정상진(鄭象晉)·상관(象觀)·상리(象履) 등 과도 학문적 교류를 지속했던 것이다.

45) 姜履和, 『湖隱集』 卷9, 〈東行日記〉.

46) 姜履和, 『湖隱集』 卷6, 〈慰李正言德而萬運書〉, 〈李正言萬運答書(丙寅正月十七日)〉.

47) 姜履和, 『湖隱集』 卷9, 〈夕陽訪李正言德而〉.

진주강씨 남와가(南窩家)와 진주정씨 우복가(愚伏家)의 척연도						
姜溧	⇨ 汝渠	⇨ 必泰	⇨ 震顯	⇨ 日復[系]	⇨ ① 宅文	
					⇨ ② 履揆	
					⇨ ③ 履和湖隱	
			⇨ 晉益 (鄭錫僑女)	⇨ 碩復		
				⇨ 日復[出]		
鄭經世	⇨ 杻	⇨ 道應	⇨ 錫僑	⇨ 胄源	⇨ 仁模	⇨ 宗魯

이처럼 남와가와 우복가의 친연성은 강이화의 의지와는 무관한 생득적 자산이었고, 여기에 그의 비범한 태몽이 더해지면서 그 관계의 강도 또한 높아졌던 것이다. 아래는 1801년 회갑을 맞은 강이화가 자신의 60년 생명을 술회하는 글인데, 여기에 ‘출생일화’가 언급되어 있다.

영조 17년(1741) 10월 어느날 선군자(姜日復)께서 바깥에서 주무셨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문숙공(文肅公) 정선생(鄭先生)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문숙공]이 평교자(平轎子)를 타고 파초(芭蕉) 부채를 잡으시고는 위엄 가득한 모습으로 중문으로 바로 들어오셨다. 조금 뒤에 작은 계집종 명월이 합문을 두드리며 ‘다섯 번째 남자가 정침에서 태어나셨는데, 어찌 들어와서 보지 않으십니까?’라고 했다. 선군자께서 하품을 하며 깜작 놀라 일어나 보니 꿈이었는데, 때는 10월 28일이었다. 선군자께서 기뻐하여 말씀하시길, ‘꿈에서 문숙공을 뵈었으니 이 아이가 어찌 문숙공의 후신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셨다. 태어난 지 사흘 째 되어 세아(洗兒)하던 날 아명을 ‘견숙(見肅)’이라 지어주셨다.<sup>48)</sup>

위의 출생일화에는 ‘문숙공(文肅公) 정선생(鄭先生)’이 등장한다. ‘정선생’에 초점을 두면 정구·정경세를 상정할 수 있지만 ‘문숙공’이란 호칭에서 정

48) 姜履和, 『湖隱集』 卷2, 〈回甲述懷序〉.

정세에 비중이 실린다. 즉, 정경세에게는 1663년 문숙(文肅)의 시호가 내려다가 1693년에 문장(文莊)으로 개시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문숙과 문장이 혼용되는 예가 적지 않았는데, 위의 일화 또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우복가와와 혼맥, 출생일화의 문맥을 고려할 때, 꿈속의 길인은 정경세가 분명했다. 동시에 이것은 강이화의 학자적 성장을 예견하는 길몽이었고, 그 길조는 정경세의 6세손 정종로를 통해 현실화 된다.

강이화와 정종로의 인친 및 사우관계는 『호은집(湖隱集)』 전반에서 산견되는 바, 여기서는 세 차례에 걸친 ‘우산행(愚山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강이화의 상주 우산행(愚山行) 연혁

- 1차 : 1807년 9월 16일 ~ 9월 21일
- 2차 : 1808년 2월 22일 ~ 9월 28일
- 3차 : 1809년 2월 19일 ~ 2월 30일

1807년 9월 16일 김산을 떠난 강이화가 우산에 도착한 것은 18일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정경세의 위패에 참배하는 것으로서 선외가(先外家)에서의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sup>49)</sup> 당시 정종로는 대산루(大山樓)를 학업 및 후학 양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강이화는 이곳 대산루를 정학(正學)의 연수이자 영남을 대표하는 학술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실제 대산루는 정경세의 만년 강학처 계정(溪亭)을 확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경세→정종로로 이어지는 우산가학(愚山家學)의 통서(統緒)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기에 충분했고, 서고를 가득 메운 도서 또한 강이화를 매료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대산루의 인문 정경을 노래한 시에서 ‘정학연원(正學淵源)’, ‘무적용능계술(無適翁能繼述)’, ‘도서요벽(圖書繞壁)’ 등의 표현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우산에서 이들을 묵은 강이화는 9월 20일 다음 행선지로 출발했으나 비(雨

49) 姜履和, 『湖隱集』 卷8, 「愚山行」〈十九日與無適翁晨謁文莊公〉.

가 문제였다. 이에 정종로는 장손 정민수(鄭民秀)로 하여금 우구(雨具) 갖추어 손님을 되맞아 오게 함으로써 하루를 더 묵게 되었다. 비로 인한 지체는 학문 논담 및 시담(詩談)으로 이어져 밤새 경의(經義)를 강론하는<sup>50)</sup> 한편 정종로 등 우산의 인친들과 창수(唱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sup>51)</sup> 이때 강이화의 호학의 품성에 감동한 정종로는 아래의 화답시를 지어 격려하는 한편 양가 사이의 세의를 다정하게 토로하며 훗날의 만남을 기약하게 된다.<sup>52)</sup>

‘혜화의 시에 화답하며’

작별한 벗이 구름 따라 멀어지다가	別眼隨雲遠
가는 참말이 비에 막혀 되돌아오네	征驂阻雨回
푸른 산에서 거둬 주렴 걷어올리고	靑山重捲箔
밝은 달빛에 다시 잔에 술을 부었네	明月更酬杯
그대는 학문하기에 좋은 자질이고	學問君多質
나는 문장에 마땅한 재주가 아니네	文章我不才
하늘 남쪽에 돌아오는 기러기 있거든	天南有歸鴈
자주 좋은 소식 부쳐 주오	頻寄好音來 <sup>53)</sup>

제1차 우산행이 있는 지 약 5개월 뒤인 1808년 2월 22일 강이화는 제2차 우산행을 실행하게 된다. 상주의 원포(遠浦·홍양이씨 세거), 봉촌(鳳村·강씨 및 정씨 세거)을 경유한 이번 방문길은 두역(痘疫)으로 인해 26일에 가서야 우산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정경세의 사당 참배를 시작으로 수일 동안 강론(講論)과 수창(酬

50) 姜履和, 『湖隱集』 卷8, 「愚山行」〈永夜靜坐 講論經義 吟五言近體〉. 이날 정종로와의 문답 내용은 姜履和, 『湖隱集』 卷8, 「愚山行」〈愚山丈席經義問答〉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51) 강이화와 창수한 인친은 동향의 鄭成魯·鄭宰魯·鄭榮魯, 姪行人 鄭象履·鄭象觀 등이다.

52) 姜履和, 『湖隱集』 卷8, 「愚山行」〈無適翁先吟一絕〉“姜氏吾家出 百年今三世 白頭始青眼 何日得重尋”

53) 김영옥, 『국역입재집』 卷4, 〈和子惠〉.

唱)이 이어졌다.

2월 27일, 새벽에 장석(丈席:鄭宗魯)을 따라 문장공 사우를 참배한 뒤 성리(性理)를 강론하고 시문을 수창한 것이 여러 날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되었다.<sup>54)</sup>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의 시축이 완성되자 강이화는 정종로에게 소서(小序)를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정종로가 이미 지난 1807년 1차 방문 때 수창한 시축에 붙인 발문이 공개되었는데, 이 글에는 그간 우복가와 남와가의 소원했던 관계, 정종로가 강이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선생께서 장자 일진(日晉:鄭象晉)에게 시축을 정사하게 했을 때 내가 ‘여기에 형님의 소서가 없을 수 없습니다’고 하자 일진이 ‘숙주께서 작년에 떠나신 뒤 노친께서 숙주를 잊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시축에 발어(跋語)를 붙여 두었으니, 오늘의 이 시축 뒤에 등서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선생께서 ‘무방하다’고 하셨다.<sup>55)</sup>

정종로의 슬회에 따르면, 양가는 용서(翁婿) 사이의 집안이었음에도 정석교의 아들 정주원(鄭胄源, 1686~1756; 鄭宗魯 조부)이 사망한 뒤로는 강진의(姜晉益:鄭錫僑 사위)의 장자 강석복(姜碩復)이 한번 다녀갔을 뿐 그 후로는 50년간 왕래가 끊어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1807년 강이화의 방문은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정종로 또한 그 점을 매우 강조했다. 더구나 강이화가 인친의 정리를 지속함은 물론 수업(受業)을 통해 학문을 심화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정종로는 더욱 감복했다. 몇일 동안의 논담 과정에서 정종로는 강이화를 ‘아정한 품성에 문식

54) 姜履和, 『湖隱集』 卷8, 「又作愚山行」〈曉隨丈席 瞻拜文莊公祠宇 因講論性理 酬唱律絕者 數晝夜矣〉.

55) 姜履和, 『湖隱集』 卷8, 「又作愚山行」〈丈席使日晉 寫詩軸之際 余曰不可無兄主小序於斯衣...〉

(文識) 또한 비범한 사람’, ‘자신의 경의(敬義) 강론도 이해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춘 학인’으로 인식하며 깊이 신뢰했다.

우리 집안은 진산(晋山; 晉州)에서 기원하고, 강씨는 금릉(金陵)의 기동(耆洞)에서 세거하고 있다. ... 왕고 침랑공(寢郎公; 鄭靑淵)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증조부의 큰외손재(碩復)께서 한번 다녀간 이후 50년 동안 서로간의 소식을 모르고 살았다. ... 이번엔 석복숙(碩復叔)의 조카 이화가 뜻밖에 방문하여 ‘상화(喪禍) 등으로 인해 이렇듯 적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중형제들은 이미 사망하고 제 한 몸만 남았는데, 저 또한 이미 나이가 여순 입곱이나 되었습니다.’고 했다. ... 수일 동안 더불어 대화하고, 또 그 사람을 보니 몹시 아정(雅靖)하고 문식(文識) 또한 범상치가 않은 학행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나의 경전(經典) 강의에 대해서도 열복하는 바가 많았다. ... 내년 봄 또는 가을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데, 노인의 일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를 향해 쏟는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다.<sup>56)</sup>

1807년 9월 21일 그가 우산을 떠날 때 ‘내년 봄 또는 가을에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 제2차 우산행이었던 것이다.

약속의 이행에 따른 기꺼움 때문이었을까. 정종로는 대산루와 그 주변의 산천과 풍경을 비롯하여 고송(古松), 거문고(琴), 남초(南草), 눈(雪)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무려 14수의 시를 지으며 노익장을 드러내자 강이화는 대부분의 시에 화답하는 성의를 보였고, 정종로의 장자 정상진 또한 이 아회(雅會)에 동참함으로써 인친과 사우의 정이 넘쳐 흘렀다.

9월 28일 강이화가 작별을 고하자 정종로 또한 송별의 시를 전했는데, ‘술잔에는 아직도 이별의 아쉬움이 감돌고, 황국이 피는 가을날에 다시금 만남을 기약한다’는 구절에는 강이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묻어 있다.<sup>57)</sup> 비록 정종로의 바램과는 달리 강이화는 국화의 계절에는 우산을 찾지 못했지만

56) 姜履和, 『湖隱集』 卷8, 「又作愚山行」(鄭宗魯跋文).

57) 姜履和, 『湖隱集』 卷8, 「又作愚山行」(送別走草).

서간 및 필찰을 통해 인부를 묻고 경의를 문답하는 등 학문적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sup>58)</sup>

강이화가 세 번째로 우산행을 떠난 것은 1809년 2월 19일이었다. 상주 원포(遠浦)의 이승배가(李升培家), 상현(上峴)의 질녀가(姪女家:李泰培)를 거쳐 봉촌(鳳村)의 동중 강세백(姜世白)을 만난 뒤 우산에 도착한 것은 21일 오후였다. 마침 정종로가 두역을 거친 터라 어초헌(漁樵軒:鄭象晉 書齋)에서 잠시 휴식한 뒤 저녁부터 밤까지 정종로와 산수헌(山水軒)에서 경의를 강론하는 열정을 보였다.<sup>59)</sup>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정종로가 굳게 만류하지 않았고, 23일 출발하여 상주 두릉촌(杜陵村)의 남한조(南漢朝:損齋)·남필석(南必錫)·남한모(南漢模)·남한보(南漢輔) 등과 회합하는 한편 남후(南廬)의 사당을 참배했다.<sup>60)</sup> 그가 사당 참배를 중요시했던 것은 남후가 모친 아주신씨의 외조부였기 때문이었고, 제 남씨 중에서도 남한보가 강이화와 의 상견을 몹시 고대했던 것은<sup>61)</sup> 그가 3종형 강치운(姜致雲)의 손서로 집안의 취객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2월 23일 우산을 떠난 후에도 25일까지 두릉촌에 머무르며 남한조 등 남씨 일문의 사우들과 교유했고, 26일에는 봉촌(鳳村)에 들러 강철흠(姜哲欽)·강세백(姜世白)·강세륜(姜世綸)과 척의를 다졌다.<sup>62)</sup> 그리고 27일에는 울리에 들러 역시 척연이 있는 정중로(鄭重魯)·손노현(孫魯賢)과 담화했

58) 姜履和, 『湖隱集』 卷9, 〈上愚山丈席書〉(262쪽); 卷9 後續 〈上愚山丈席書〉(268쪽).

59)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愚山行日記」〈2月 21日〉“二十一日 … 先入漁樵軒 俄頃丈席 使叔駢邀來故 入山水軒 自夕至夜分 講論經義”

60)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愚山行日記」〈2月 24日〉“又往宗伯家 余曰吾欲謁承旨公家廟”

61)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愚山行日記」〈2月 24日〉“與掌令戚叔往杜陵宗伯家 南進士漢普 方在苦待之地”

62) 봉촌의 강씨는 姜紳→弘秀→珞→碩蕃→樸→必岳→世綸·世白으로 이어지는 가계로 서울에서 상주로 이거한 경우에 속한다. 18세기 초반 근기남인을 이끌었던 姜樸(1690~1742)의 후손들로 진주강씨 ‘菊圃家’ 또는 ‘鳳臺姜氏:鳳臺姜氏’로 지칭할 수 있다.

고, 28일에는 유천(西川)의 이석배(李錫培)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다 2월 30일 환가했다. 총 11일의 여정을 마친 강이화는 정종로를 비롯하여 정상진(鄭象晉)·상승(象升)·상관(象觀)에게 서신을 보내 강학(講學)의 여운을 전하고 환대에 사례했는데,<sup>63)</sup> 우산에서의 제3차 강론의 내용은 무려 41개 조항에 달하는 ‘우산경의문답(愚山經義問答)’에 수록되어 있다.<sup>64)</sup>

(4) 선산·의성권 한려학맥 : 척연의 복원과 학연으로의 진전

선산·의성지역은 한려학파의 주요 거점의 하나로서 강이화는 척연에 따른 연고성이 강한 지역이었다. 선산은 증조 강필태(姜必泰)의 처형(金澆家)이자 아들 강목순(姜穆淳)의 처형(金就文家)이었고, 의성은 본인의 외형(申之悌家)이었다. 선산김씨 김양가 및 김취문가는 송당(松堂)→여현학통, 아주신씨 신지제가는 한강학통이라는 점에서 선산·의성권 척가(戚家)들은 학통상 한려문파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강이화와 의성/선산과의 혼맥적 연고성

- 本鄉 : 김산 \_남와가문(姜濩)
- 外鄉(선대) : 선산 \_선산김씨 陽灘家門(金 澆) \_증조 姜必泰 처가
- 外鄉(당대) : 의성 \_아주신씨 梧峯家門(申之悌)
- 婦鄉 : 선산 \_선산김씨 久庵家門(金就文)

이 권역과의 교유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은 1808년 8월의 여정을 담은 ‘동행일기(東行日記)’이다.<sup>65)</sup> ‘위양일기(渭陽日記)’로도 별칭할 수 있을만큼 의성 소재 외가 방문에 주안점을 둔 여정이었다. 이 무렵 강이화는 70세에 가까운

63) 정종로가 답신에서 수신자를 ‘江湖經案’으로 표기한 것에서 강이화에 대한 학문적 신뢰가 매우 깊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64) 姜履和, 『湖隱集』 卷10, 〈愚山經義問答〉(合41條).

65)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東行日記」.

노령에도 1807년 2월에는 제1차 ‘우산행’, 이 해 2월에는 제2차 ‘우산행’을 결행하는 등 왕성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외가인 의성 ‘구미행(龜尾行)’은 1808년 8월 17일에 시작되었다. 감문(甘文)⇒연흥(延興)⇒매학정(梅鶴亭; 선산)⇒해평(海坪; 선산)⇒삼현사(三賢祠; 선산)⇒화곡(花谷; 군위)⇒도리원(桃李院; 의성)을 거쳐 외가의 세거지 구미에 도착한 것은 8월 19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연흥의 파평윤씨 일문과 회합했고, 황기로(黃耆老)의 구택으로 외손인 덕수이씨에게 전계된<sup>66)</sup> 매학정(梅鶴亭)에 올라 황기로의 유거(幽居)를 회고하는 7언절구를 지었다. 그리고 해평에서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 강문인 최현(崔暉)의 6세손 최광직(崔光直)을 방문하였으며, 괴리(槐里)에서 삼현사를 참배하는 등 사림의 예법에 충실한 일정을 보냈다.

구미(龜尾) 도착 이후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오봉종가(樂善堂)이었다. 종손이 요절한 종가의 상황에 비감을 표하는 한편 외종제의 빈소에 곡하는 등 조문예법을 마친 뒤 낙선당에서 여러 외척(外戚)과 밤새도록 시문을 주고 받는 것으로서 그간의 안부에 대신했다.<sup>67)</sup>

8월 20일 강이화는 외선조 신지제(申之憐)의 사우와 그 아들 신흥망(申弘望)의 별묘에 참배했다. 특히 신흥망 별묘의 전신은 자신의 외조 신진구(申震龜)의 죽애정사(竹厓精舍)였다는 점에서 더욱 애착이 가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죽애정사의 유허를 배회하며 외조를 회고하는 시를 지어 추모의 마음을 투사하게 된다.<sup>68)</sup>

66) 매학정은 사위 李珣(李珣의 아우)에게 전계되어 덕수이씨 玉山派의 종가로 기능하게 된다. 李珣⇒景節⇒樞⇒東野⇒增華로 이어지는 이 가계는 조선 후기 영남 지역 서인(老論) 세력의 중심점으로 역할했다.

67)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東行日記」 〈往外從姪承烈家 哭外弟殯…與諸申終夜絃懷〉.

68)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東行日記」 〈二十日晴 謁外先祖梧峯先生祠宇 又拜孤松先生別廟 別廟卽外王考平時攸居竹厓精舍 …奉審後 徘徊竹厓遺墟 有感題一絕 吾祖於斯古有屋 青青竹厓若干餘 篇名二字云猶在 八月東遊曠感余〉.

아주신씨 신지제가(申之悌家) 세계 : 강이화(姜履和) 외가

申之悌 ⇨弘望 ⇨漢老 ⇨叔範 ⇨①賁龜 ⇨道三 ⇨重仁 : 申之悌宗家  
 ⇨②震龜 ⇨道萬 ⇨體仁 : 姜履和宗家  
 ⇨女 姜日復 ⇨宅文  
 ⇨履揆  
 ⇨宅齊  
 ⇨履和

외가행의 가장 명장면은 외형(外形) 신체인(申體仁, 1731~1812)과의 상견이었다. 신체인은 임필대(任必大)·김낙행(金樂行) 문하를 거쳐 34세 때인 1764년 이상정의 대신문하에서 수학하여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이종수(李宗洙)·류장원(柳長源)·조술도(趙述道) 등과 도의지교를 맺고<sup>69)</sup> 18세기 후반 영남학풍을 크게 진작시켜 ‘호문6군자(湖門六君子)’의 한 사람으로 인식된 석학이었다.

해가 저물기 전에 금연(錦淵)을 건넜다. 금연 가에는 금연정사(錦淵精舍)가 있는데, 곧 나의 외종형 회병(晦屏) 신체인씨(申體仁氏)가 은둔하는 곳이다. 주경재(主敬齋)로 들어가 나란히 누워 대화하다가 서문을 덧붙인 시 한 수를 올렸다.<sup>70)</sup>

당시 신체인은 금연정사에게 독서·강학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었고, 강이화는 이곳으로 가서 그와 하룻밤을 묵으며 인척의 정리를 다졌다.

69) 申體仁, 『晦屏集』 卷12, 〈晦屏行狀〉(李秉遠撰) “甲申 攝衣於大山李先生之門 盖自童子時從剛窩任先生學 後因往來祝室 質問於九思金先生 已知俗學之外有向上事業 而至是發憤刊落 一意內修 得師門剛明果勇之許 … 與后山李公川沙金公東巖柳公晚谷趙公 結以道義”

70)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東行日記」 〈夕前渡錦淵 淵上有錦淵精舍 卽我外從兄晦屏申體仁氏肥遯處也 入主敬齋 聯枕穩話 遂敬呈一絕并小序〉.

지난 계유년(1753) 겨울 공께서 나의 아버지를 방문하러 기동(耆洞) 옛집으로 오신 이후로 50여 년 동안 내가 세사에 얽혀 한번 찾아 뵈려 겨를이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달에 말미를 내서 사흘을 묵으며 강석의 끝에서 경의를 강론하며 평소에 듣지 못했던 견해를 들어 가슴 속에 있던 박잡함을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었으니 이 어찌 내 평생 십사리 얻을 수 없는 아름다운 회합이 아니겠는가?<sup>71)</sup>

위의 언급대로라면 감리화는 13세 되던 1753년 신체인을 만난 이후 55년 만에 재회한 셈이 된다. 1807년에 재개된 상주 우산과의 왕래 또한 50여 년만의 일이었고 보면, 18세기 중후반 남와가, 특히 장자 강여구(姜汝楙) 계통의 대외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산문화의 고제로 일컬어지며 대유로 성장한 신체인의 학문은 강이화를 압도했던 것 같고, 사흘을 묵으면서 들은 경전 해석은 강이화의 미심쩍음을 해소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다. 아래의 시에서도 표현되어 있듯 신체인의 ‘경의강론(經義講論)’은 상대로 하여금 말학(末學)을 자처하며 옷깃을 여미게 했을만큼 깊이가 있었던 것 같다.

‘강이화가 신체인에게 증정한 시’

대동의 원기는 금강(錦岡)에서 우뚝하고  
그 아래 새 정자는 물가에 임해 세워졌네  
금연이라 이곳은 공께서 70 여년을 은둔한 땅  
강호의 말학은 옷깃을 여미며 찾아 왔네<sup>72)</sup>

‘신체인의 화답시’

균은 어린아이고 나는 청춘일 때  
선공을 뵈러 갔다 칙식을 함께 했지

71)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東行日記」〈昔在癸酉冬 公訪我先君子于耆洞舊第…〉

72)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東行日記」“大東元氣錦岡巍 其下新亭近水開 七十餘年韜晦地 江湖末學斂衽來”

그날을 추억하면 꿈속의 일처럼 다가오건만  
오늘 와서 만나보니 그대도 이제 백발이구려<sup>73)</sup>

하루를 묵으며 정의(情誼)를 다지고 짧았지만 심도 높은 학문토론의 기회까지 얻었던 강이화는 8월 22일 도리원(→군위읍)→인동 중리(中里:張氏世居)을 경유하여 칠곡 매원 이하운(李廈運家), 석전의 이만은 등과 회합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신체인과의 ‘일야강론(一夜講論)’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것 같고, 그런 결핍은 서문(書問)을 통한 교류로 표출되었다. 여정을 마친 강이화는 외형 신체인을 비롯하여 외종질 신승렬(申承烈), 외척중(外戚從) 신덕순(申德順) 등에 게 편지를 보내 척의를 이어갔다. 특히 ‘구미행’ 이후 5개월이 지난 1809년 1월 신체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룻밤 강론에 50년 의문을 풀 통쾌함’, ‘상호 표리를 이루는 신체인의 ‘주경설(主敬說)’과 이상정의 ‘경재잡설(敬齋箴說)’에 대한 보강(補講)을 청하기 위해 구미행을 염두하고 있다’는 사연이 실렸다.<sup>74)</sup> 이제 그는 신체인을 외종형을 넘어 ‘사(師)’의 범주에서 인식하고 있었고, ‘공산에서 문을 걸어닫고 소학(蘇學)을 강송한 지 30여 년’이란 표현에서는<sup>75)</sup> 그의 학문이 대산학(大山學:蘇湖之學)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천명한 것에 다를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제2차 ‘구미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1812년 신체인 또한 사망함으로써 강론의 기회 또한 끝내 주어지지 않았다.

1808년 8월의 「동행일기(東行日記)」에 기술된 ‘구미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50년 단절되었던 외가와외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것인 동시에 남와가의 학문이 강이화 대에 이르러 한강학에서 학봉(金誠一)→갈암(李玄逸)→

73)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東行日記」 “君爲童穉我青春 往來先公宿食親 疑是一場春夢裏 今來相對白頭人”

74)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敬呈錦淵丈申再從體仁氏書〉.

75) 姜履和, 『湖隱集』 卷9 後續, 〈敬呈錦淵丈申再從體仁氏書〉 “從弟窮山閉戶 只誦蘇學 卅餘年”

밀암(李裁)를 거쳐 이상정을 통해 집성되는 대산학(大山學)으로의 이행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취라 하겠다.

(5) 함양·안의권 강우사림 : 의리론의 공감과 ‘상우동계론(尙友桐溪論)’

강이화가 이른바 지리산·원학산·가야산 문화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강우지역을 유관(遊觀) 및 교유의 대상으로 삼아 왕래를 시작한 것은 1778년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78년 지리산 유람은 그런 행보의 물꼬를 튼 행보였고, 이후 함양의 서계(西溪) 및 이요정(二樂亭), 가야산, 진주의 축석루 및 의암(義巖), 안의의 원학산(猿鶴山)·모리(某里), 거창의 수승대(搜勝臺)로까지 그 동선이 확장되었다.

1778년 8월에 이루어진 지리산 유관은 호남의 남원(南原)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실상사(實相寺) 등 제 사찰에서 승려들과 시문을 주고받는 등 한때나마 유불 통교(通交)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sup>76)</sup>

강이화의 강우지역 주요 유관 및 심방처

- 智異山 : 1778년
- 西溪/二樂亭 : 1778년
- 伽倻山 : 1790년
- 猿鶴洞/某里 : 1796
- 黃山 : 1797년
- 矗石樓/義巖 : 1800년
- 觀水亭 : 1801년
- 凌虛亭/搜勝臺/葛川書堂/某里/四樂亭/龍淵 : 1807년

하지만 그는 귀가 이후 자신의 유산기(遊山記)에 붙인 소발(小跋)에서는 유자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만다. 명산의 명구(名區)를 독점하고 있는 사

76) 姜履和, 『湖隱集』 卷1, 〈方丈山秋遊記事〉(戊戌:1778).

찰 터에 서원을 건립하여 공맹(孔孟)과 염락(濂洛) 제유를 잇는 유자의 양성소로 삼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백록동(白鹿洞) 고구에 따라 특별히 서원을 건립하여 송조(宋朝) 선유 및 우리 동방의 선배들을 제향하는 곳으로 삼아 명륜당(明倫堂)을 열고 입덕문(入德門)을 세워 사방의 다사(多士)들을 초빙하여 강학과 음악에 힘쓰게 하고 존양(存養)과 성찰(省察)의 요체를 체인(體認)하게 하면 성세(聖世)에서 인재를 배양하는 환경 속에서 염락(濂洛)을 이을 진유(眞儒)가 반드시 이곳 추로의 땅에서 빈흥(賓興)하게 될 것이다.<sup>77)</sup>

강우 유람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1796년의 원학동(猿鶴洞) 유람이었다. 앞서 강이화는 ‘위인명산론(偉人名山論)’에서 원학산을 언급한 바 있는데, 원학동은 이 산의 최승경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에게 원학동 유람은 숙원(宿願) 가운데 하나였고, 마침 서촌(西村)이라는 곳에 용무가 있어 왔다가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남국에서 이름난 삼동(三洞:猿鶴·尋眞·花林洞) 가운데 원학동이 가장 으뜸인데, 예로부터 명현달사들이 빼어난 경치를 찾던 곳이기도 했다. 거사는 저 멀리 금릉에 살지만 원학동의 경치만큼은 일찍부터 실컷 들어온지라 이번에 서촌 행차를 나섰다가 몇몇 벗들과 함께 찾게 된 것이다.<sup>78)</sup>

원학동의 절경은 수승대·환선대·강선대로 압축되는데 강이화는 3승(勝) 모두에 제영을 남길만큼 그 기꺼움을 남김 없이 표현했으며, 특히 수승대에서는 이황에 대한 각별한 경모의 마음을 지피기도 했다.

원학동 유람을 마친 강이화 일행이 찾은 곳은 정온의 고종처이자 모리(某里)였다. 당시 모리에는 정온의 증손 정중원(鄭重元)이 권이진(權以鎭)의 글을

77) 姜履和, 『湖隱集』 卷1, 〈跋遊山記事後〉.

78) 姜履和, 『湖隱集』 卷1, 〈遊猿鶴洞〉(丙辰遺稿:1796).

받아 세운 ‘동계정선생유허비(桐溪鄭先生遺墟碑)’가 대명의리를 응변하고 있었다. 정온의 대절을 웅장한 필치로 담아낸 이 글에 감동을 받은 강이화는 ‘모리유허기(某里遺墟記)’를 지어 정온의 충의를 ‘순강정기(純剛正氣)’로 묘사하며 경모의 마음을 표현했다.<sup>79)</sup>

정온이 학자·관료 그리고 절신으로서 조선후기 사림사회에서 접했던 비종과 위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강이화의 정온에 대한 경모 또한 사람의 통념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의 경모가 특별했던 것은 집안 사이의 척연과 관계가 있었다.

남와가는 초계정씨 동계가와 증혼관계를 맺고 있었다. 강이화의 증조부 강진언(姜震彦)의 부인은 정온의 현손녀였고, 중형 강택제(姜宅齊)의 부인 또한 정온의 현손녀였다. 이런 맥락에서 강이화 자신도 며느리를 초계정씨에서 맞았다. 강이화는 부인 선산김씨와의 사이에서 2남(體淳/穆堧) 1녀(李錫暉)를 두었는데, 백형 강택문의 후사가 된 강체순(姜體淳)의 처(妻)가 초계정씨였다. 물론 그의 자부는 정온의 직계 자손은 아니지만 남와가가 안의지역 초계정씨와 굳건한 혼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에는 분명하다.

강우 유람에서 두 번째로 눈여겨 볼 것은 1807년의 함양·안의지역 탐방이었다. 능허정(凌虛亭)에서 용연(龍淵)에 이르는 이 여정은 임훈(林薰)·정온·(鄭繡)·정여창(鄭汝昌) 등 선유(先儒)를 향한 상우(尙友)의 행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식(金湜)의 제향처 완계서원(浣溪書院), 정온의 증조 정옥견(鄭玉堅)의 정자 능허정(凌虛亭), 수승대(搜勝臺)를 거쳐 갈천동(葛川洞)으로 들어간 강이화는 맨 먼저 용암정(龍巖亭)에 오르게 된다. 용암정은 임훈의 7세손 임석형(林碩馨)이 1801년에 건립한 안의의 새로운 경관이였다. 마침 정주 임석형은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했고, 이에 갈천(葛川)으로 가서 임명백(林命伯)과 대화를 나누고는 그와 함께 모리로 향하게 된다. 증로에 그는 임훈의 서재 갈천서숙

79) 姜履和, 『湖隱集』 卷1, 〈某里遺墟記〉.

(葛川書塾) 유희를 지나며 선유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한편 서숙이 중수되어 유풍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생애 두 번째로 모리를 찾은 강이화는 감회는 컸다. 그에게 모리는 ‘절신의 비둔지(肥遯地)’, ‘대명(大明)의 하늘 아래 존재하는 한 조각 건정지(乾淨地)’였고, 화엽루(花葉樓)는 일월과 더불어 빛을 다투어도 부끄럽지 않을 ‘동계충절(桐溪忠節)’의 상징처로 각인되어 있었다.<sup>80)</sup> 이후 그는 외출에서 돌아온 임석형을 만난 용암정에서 하루를 묵는 호사를 누리게 되는데, 이들의 회합이 특별했던 것은 두 사람 모두 정온의 ‘열성경모론자’라는 동지의식 때문이었다. 모리재에 정온의 복거시(卜居詩)를 비롯하여 비분격렬(悲憤激烈)했던 제 시어(詩語), 절신의 정충을 기린 정조의 사제문을 계판(揭板)한 사람이 임석형이었다.

영남의 인사들이 모두 이 재실에 시를 모사(模寫)하여 계판(揭板)함으로써 존모(尊慕)하는 정성을 부치기로 의논했으나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다. 이때 부사(府使) 안동(安東) 김인순(金麟淳) 공이 제창(濟昌)에 부임하여 교화를 돈독히 하고 절의를 숭상하되 무엇보다 선생과 관련된 일에 지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임석형(林碩馨) 공이 향인(鄉人) 임지목(林之穆), 박윤광(朴潤光), 정호(鄭瑚), 정양학(鄭陽學), 정민제(鄭民濟), 임치옥(林致郁) 등과 의논하기를, “지금 이 시기가이다.” 하고, 마침내 그 전말을 갖추어 말하니, 부사공(府使公)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어제시(御製詩)와 제문을 모각(模刻)하고, 또 선생의 두 시를 새겼다. 또 당세의 명공거경(名公巨卿)에게 편지로 부탁하여 각각 크고 작은 편액의 글자를 써 오도록 하니, 이는 모두 부사공의 힘이었다. ... 임석형 공은 하정공(夏亭公) 임세명(林世明)의 손자이다. 하정공은 일향(一鄉)의 기덕(耆德)으로, 모리의 일에 대해 늙을 때까지 게을리하지 않아 선생의 후손인 정영복(鄭榮福)·선(僊) 과 함께 개연(慨然)한 마음으로 서로 의논하면서 이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겼다. 영당(影堂)을 중수한 것은 공이 실로 주관한 것이다. 이번에 임석형 공이 계판(揭板)하는 일을 시행하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했던 것

80) 姜履和, 『湖隱集』 卷8 後續, 〈某里遺墟記〉 “某里卽某翁某年某月某日立大節肥遯地也 ... 大明一片乾淨地某里而已 ... 花葉樓三字 必與億萬斯年 日月爭光 偉乎壯哉”

은 또한 선대의 뜻을 추념한 것이다.<sup>81)</sup>

임석형의 열성은 동계가(桐溪家)와 갈천가(葛川家) 사이에 굳게 다져져 있었던 세의의 강렬한 표출이었다. 즉 양가는 임훈과 정유명(鄭惟明·鄭蘊父)의 사제관계를 통해 세교가 형성되었고<sup>82)</sup>, 이런 맥락에서 임석형의 조부 임세명(林世明)이 모리 및 모리재의 경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임석형 또한 개판(揭板) 사업을 통해 그 뜻을 이어갔던 것이다. 강이화가 임석형과의 회합에 갈급하고, 임석형 또한 그를 몹시 환대했던 것은 ‘동계인식’의 공감에서 비롯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용호정에서 하루를 묵으며 임세명과 ‘의리의 공감’을 재확인한 강이화는 이황이 명명한 것으로 잘 알려진 전철의 사락정(四樂亭), 정여창의 유상처인 용연(龍淵), 학담(鶴潭), 불고대(不孤臺) 등을 관람한 뒤 4월 27일 약 열흘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귀가했다.

이 여정에서 강이화가 유적을 통해 접촉한 선현은 정옥견·정여창·이황·전철·임훈·정온 등 그 수가 적지 않았지만 가장 애착을 가진 인간과 공간은 정온과 모리였다. 이는 그가 존주의리를 중시했던 주자학적 원칙론에 투철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런 정서는 정온의 후손 정박(鄭璞)의 모리운(某里韻)을 차운한 시작(詩作)에서 정온의 절의와 공덕을 ‘조선 땅 삼천리를 포괄하는 당당한 절의, 억만년토록 빛날 공’으로<sup>83)</sup> 표현한 대목에서 명징하게 천명되었다.

81) 박대현, 『국역동계집』 續集 卷3, 附錄 〈揭板事記(尹勉欽)〉.

82) 鄭蘊, 『桐溪集』 卷3, 〈成均進士府君行狀〉 “府君姓鄭 諱惟明 字克允 草溪人 自號暉陽 … 稍長 受業於葛川林先生之門 遂得其道 爲門人領袖”

83) 姜履和, 『湖隱集』 卷11, 〈用鄭進士琢之璞某里韻次百世清風樓四韻〉 “三千界裏堂堂節 億萬年間炳炳功 莫樞遺墟凡草木 春允都是大明紅”

## (6) 김산 만학당가(晩學堂家) : 연원의식의 자각(自覺)과 발휘(發揮)

남와가와 강이화의 학문적 스펙트럼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배상유(裴尙瑜)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본디 서울 출신으로 1654년 조모를 모시고 김산의 만력동(萬曆洞)에 정착한 이후 근기와 영남의 교량적 역할을 했던 학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유형원·허목·윤휴·이현일 등 17세기 근기 및 영남학계의 석학들과 두루 교류했다. 특히 유형원과는 경제학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이 담론은 ‘경남(京南)’과 ‘영남(嶺南)’의 학문적 교유의 명장면으로 밝혀져 있다.<sup>8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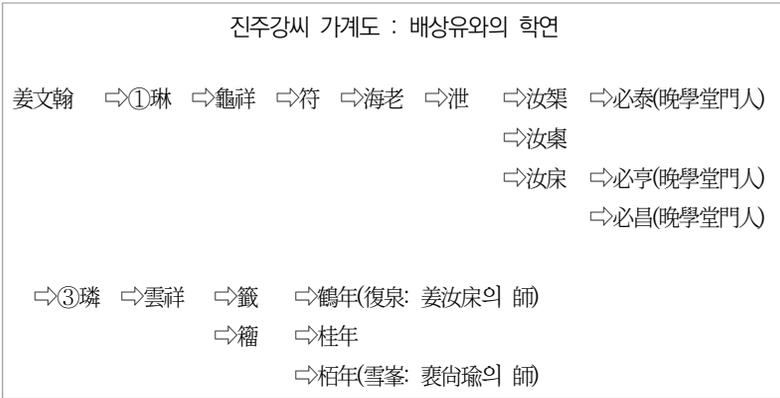
철연·학연 등을 고려할 때, 배상유 집안 또한 소북에서 남인으로 전향한 계열로 파악된다. 그의 외조부가 소북의 영수 유영경(柳永慶)이고, 그 손자 유심(柳愼·배상유의 외종형)이 어릴적 스승이었다는 사실은 이런 추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한편 배상유는 외가(柳永慶家)에서 성장했고, 외변의 인적 연계망에 힘입어 강백년(姜栢年)의 문하를 출입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선생의 외숙 전창위(全昌尉) 유공 정량(廷亮)은 호가 소한당(素閑堂)인데, 성품이 엄준하고 덕량이 옛 사람에 견줄만했다. 판서 설봉(雪峯) 강백년(姜栢年) 선생은 박학다문(博學多聞)하여 한 시대의 유종(儒宗)으로 일컬어졌다. 선생은 외가에서 성장하여 이미 장려함을 입은데다 설봉문하(雪峯門下)에까지 종유하여 수기(修己)의 요체를 들었고, 때로 예경(禮經)을 논설하고, 때로 의리를 강론하여 의심스러움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했고, 가르침이 있으면 즉시 깨달음이 있었다. 정미하게 살펴야 할 곳이나 사물의 오묘함에 있어서는 깊고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음이 없어 닿는 곳마다 통달하여 막히거나 지체됨이 없었다. 이에 두 공이 늘 준수한 기국(器局)으로 칭찬하며 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sup>85)</sup>

84)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85) 裴尙瑜, 『晩學堂集』 卷6, 附錄 〈行狀〉(崔柱夏撰) ; 강백년과 배상유 사이의 사제관계의 실상에 대해서는 『晩學堂集』 卷2에 수록되어 있는 5편의 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일 그의 묘갈명(晩學堂墓碣銘)을 강백년의 아들 姜鏡이 찬술한 것도 학연에 따른 世交의 확장 과정으로 파악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남외가와 배상유 사이에는 접점이 발생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산 입향조 강설의 아들 강여호(姜汝床)는 강학년(姜鶴年)의 문인이고, 배상유는 그 종제 강백년의 문하에서 수학함으로써 ‘강문가학(姜門家學)’의 지적(知的) 수혜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더구나 양가(南窩家/晩學堂家)는 전후 약 20년의 간격을 두고 김산으로 이거한 객반(客班)이라는 점에서도 사회적 여건의 동질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여호는 배상유를 매우 신뢰하여 관직생활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출처를 자문하는<sup>86)</sup> 등 긴밀한 관계를 지속했다. 아래는 배상유가 강여호(1620~1682)의 죽음을 애도한 만시인데, 교계의 실상이 매우 살갑게 드러나 있다.

그대는 낮빛이 아닌 마음으로 사귀 친구였고  
 꾸밈 없는 가르침 받을 때마다 내 어리석음에 경계가 되었지  
 ...  
 큰 고을 수령 두루 거쳤건만 집에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고  
 대헌(臺憲)에서는 풍도를 바로잡아 못 관료들을 압도하였지<sup>87)</sup>

86) 裴尙瑜, 『晩學堂集』 卷3, 〈答姜啓叔〉, 〈答姜啓叔〉.

이처럼 배상유는 강여호를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한 ‘심계(心契)’로 인식했고, 이런 신뢰는 그 자질(子姪)들이 만학당 문하를 출입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장질 강필태(姜必泰·생부 姜汝床), 두 아들 강필형(姜必亨)·필창(必昌)이 배상유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강백년(姜百年) 배상유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였는데, 이는 남와가의 학통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강여호의 세 자질은 배상유로부터 학자적 자질을 인정받으며 문답을 통해 학연을 더욱 강고하게 다졌다. 특히 강여호의 2자 강필창(1649~1670)이 22세로 단명하자 배상유는 그를 자신의 문하의 ‘한혈구(汗血駒;千里馬)’이자 강문의 ‘명주(明珠)’로 평가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 바 있는데, 이는 강문(姜門) 3형제의 학자적 자질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남와가의 장손 강필태는 상례 시 복식과 관련된 사안들을 꼼꼼하게 문의하는 치밀성을 보였고<sup>87)</sup>, 배상유 또한 『가례(家禮)』를 비롯하여 송인수(宋麟壽)·이황(李滉)·김집(金集) 등의 예설을 착실하게 검토하여 회답하는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배상유의 예학적 소견이 남와가의 예법 확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는 장면으로 포착된다.

1686년 배상유 상례 때 일가를 대표하여 치제한 것은 강여호의 장자 강필형(姜必亨)이었다.

공은 선군과  
교계(交契)가 예사롭지 않았네  
나는 어린 나이에 문하에 나아가  
부끄럽게도 답답함을 풀 수 있었네  
향교에서는 예를 물었고  
선방에서는 유업(儒業)을 강론했네<sup>89)</sup>

87) 裴尙瑜, 『晩學堂集』 卷1, 〈輓姜判決事啓叔汝床〉

88) 裴尙瑜, 『晩學堂集』 卷3, 〈答姜必泰〉.

89) 裴尙瑜, 『晩學堂集』 卷6, 附錄 〈祭文〉(門生姜必亨).

강필태의 만학당문하 수업은 강여호와 배상유의 교유 관계의 확장이었고, 이른 나이에 이미 등문하여 향교·선방 등 제 공간에서 시강(侍講)하며 유자로서 근기를 배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이화가 ‘만학당현양론(晩學堂顯揚論)’에 적극 참여하고, 그와 관련된 제 반 문의에 성실하게 응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앞서 배상유에게 상례 때 의복 관련 문목을 올렸던 강필태가 증조였다. 따라서 그에게 ‘만학당현양론’은 일종의 연원사업이었다.

강이화가 동참했던 현양론은 묘향(廟享)이었다. 1809년 배상유의 자손들은 선대 제향을 위해 ‘삼강묘(三綱廟)’라는 사당을 건립했다. 그 명호에서 연상되듯 ‘충효열’의 유교 윤리에 독실했던 선대를 제향함으로써 이를 ‘종족적 가치’로 천양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현양론의 이론적 토대는 배주석(裴柱石)이 편찬한 『삼강실록(三綱實錄)』에 갖추어져 있었으며, 강이화는 그 서문을 부탁받으면서 현양론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sup>90)</sup>

성산배씨 선대의 행력 : 대수는 배상유 기준

- 裴規 : 大司諫 \_春秋大義 \_關西夫子 (9대조)
- 裴閑 : 左司諫 \_直道 (8대조)
- 裴允詢 : 進士 (7대조)
- 裴碩輔 : 訓鍊院參軍/贈刑曹參議 (6대조)
- 裴國賢 : 隱德不仕/贈刑曹參判 (5대조)
- 裴仁範 : 靈山縣監/贈左贊成 \_孝友篤實 (고조)
- 裴仁範妻金氏 : 烈女 \_三綱行實圖 수록 (고조모)
- 裴興立 : 宣武功臣/贈左贊成 \_壬亂有功/孝子旌閭 (증조)
- 裴時望 : 孝子 (조)
- 裴命全 : 比安縣監/儒行 (부)
- 裴尙瑜 : 學行/大明義理 (己)

90) 姜履和, 『湖隱集』 卷13, 〈序三綱廟實錄〉 “日裴友柱石甫 纂集三綱實錄 示余曰吾先祖廣大輝光底事業 昭晰在茲 子盍爲我記之 余亦大諫公外裔也 辭不獲 遂爲說”

위의 표에서 보듯 성산배씨는 절의·충·효·열을 세전해 왔고, 그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배상유의 학문과 존주의리였던 것이다. 삼강묘에 위패가 봉안된 것은 1812년이었고, 묘향의 대상은 배규(裴規)·배흥립(裴興立)·배상유(裴尙瑜) 3인이었다.

묘우의 건립에서 봉안에 이르기까지는 예식(禮式)과 관련된 많은 논의 과정을 필요로 했고, 배문(裴門)에서는 위판의 형식과 제호(題號) 방식, 제관(祭官) 및 재임(齋任)의 분정을 향현사의 규례에 따를지 여부, 헌관 및 재임의 본손 및 외손 배정 여부 등 중요 사안의 전반을 강이화와 상의했다.<sup>91)</sup> 이에 대해 강이화는 헌관 및 재임은 향현사(鄉賢祠)의 예(例)를 준용하고, 초헌은 본손, 아헌·중헌 및 재임은 본손과 외손이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92)</sup> 이런 절차를 거쳐 1812년 겨울 봉안 예식을 치름으로써 삼강묘(三綱廟; 三綱祠)는 사묘로서의 체격을 갖추게 되었는데, 예식문자인 봉안문 및 상향축문의 찬자는 정종로였다.<sup>93)</sup> 어떤 이유에서인지 ‘삼강묘’는 1815년 3월 당초의 위판을 고쳐 쓰는 개제(改題)하는 일이 있었고, 그 사유를 알리는 고사축(告辭祝)의 찬자가 강이화였다.<sup>94)</sup>

이처럼 강이화는 삼강묘의 건립에서부터 봉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런 적극성은 자신이 배규(裴規)의 외손이라는 혈통상의 이유에 더하여 배상유가 자기(自家)의 가학연원이라는 학통상의 명분과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간공(大諫公; 裴規)은 춘추의리로서 세상을 울렸고, 이상공(貳相公; 裴興立)

91) 姜履和, 『湖隱集』 卷14, 〈裴善汝問目〉.

92) 姜履和, 『湖隱集』 卷14, 〈裴善汝問目〉(姜履和答問目).

93) 『晚學堂集』(卷6, 附錄)에는 ‘三綱廟’가 아닌 ‘三綱書院’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정종로가 찬술한 봉안문 및 상향축문, 柳尋春이 지은 ‘三綱書院上樑文’이 수록되어 있으나 정종로의 『立齋集』과 류심춘의 『江臯集』에서는 이 문자들을 확인할 수 없다.

94) 姜履和, 『湖隱集』 卷14, 〈三綱祠改題板告辭祝〉.

은 문무와 충효로서 세상을 올렸으며, 침랑공(寢郎公; 裴尙瑜)은 평소 경학의 힘을 은축하여 마침내 의열로서 세상을 올렸으니, 혁혁하도다 그 올림이여!<sup>95)</sup>

이것이 강이화가 성산배씨 일문의 역사에서 압착해내는 유교적 가치의 요체였고, 그런 가치의 마지막 집성 및 발휘자(發揮者)가 증조 강필태(姜必泰)의 스승 배상유였던 것이다.

### Ⅲ. 종족적 유대와 교유의 실상 : 회덕 본종과의 동종의식(同宗意識)을 중심으로

#### 1. 강여호(姜汝床)와 회덕파와의 관계

병자호란 이후 강설(姜溧)의 김산 이거가 본향 회덕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회덕파’와 ‘김산파’는 종족적 세의에 더하여 사회·학문적 영역에서도 유대의 끈을 이어갔는데, 강여호가 4종(從) 대부 강학년(姜鶴年)의 복천문하(復泉門下) 수학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강학년(姜鶴年)·계년(桂年)·백년(栢年)으로 대표되는 회덕파는 사환지향적 경향이 강하여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근기남인의 핵심을 이루었고, 남와가 또한 18세기까지는 과거를 통해 출사하여 영남남인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환로는 정치·사회 그리고 종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주요 공간이자 접점이었다.

종족간 상호 교유는 전별(錢別)에 따른 문자 증정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1676년 5월 강여호가 중성부사로 부임할 때 강백년을 비롯하여 강선(姜銑)·강현(姜峴)·강세구(姜世龜) 등 4인이 증별시를 보내거나 전별하는 성의를 표했다. 강백년의 경우 모두 두 편의 시를 증정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전별시가

95) 姜履和, 『湖隱集』 卷14 後續, 〈次裴善汝三綱廟韻并序〉.

아니라 관료로서의 경험과 방략의 전수, 즉 일종의 ‘지방관이 지켜야 할 원칙과 알아야 할 비결’을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담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강여호의 종성부사(鍾城府使) 부임시 증시 및 전별인 : 회덕파

- 姜栢年 : 贈詩(2篇)
  - 贈別鍾城倅姜啓叔
  - 送別姜鍾城汝床之任
- 姜銑 : 餞別
- 姜銳 : 餞別
- 姜世龜 : 餞別

강백년은 강여호를 종단의 특달(特達), 즉 집안을 대표할만한 덕과 인품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옥과 난초같은 자질과 기미(氣味)를 타고나서 시례(詩禮)의 가풍으로 훈화(薰化)되어 효제와 돈친에 독실한 선비, 염결의 일상화를 통해 군왕의 지우를 입은 관료, 민생의 피해를 개선할만한 역량을 지닌 경세가로 인정했다.

여기서 그는 종장(宗丈)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세심함도 놓치지 않는다. 일찍이 자신도 북방에서 지방관을 지낸 이력이 있었기에 종성 주변의 지형·기후 및 풍토와 인심을 자세하게 일러주며 작은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백성이 순고하여 형벌을 시행함에 수고롭지 않다’는 구절에서는 모종의 안도감이 느껴진다.

아울러 그는 고을을 맡은 관료라면 누구나 숙지했을 ‘수령7사(守令七事)’를 환기시키며 각오를 되새기게 한다. 여기서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서당 등 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문교의 진흥과 흉년에 대비한 생계 대책이었고, 성첩(城堞) 등 군사시설의 정비와 관곡의 철저한 관리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반드시 심복을 비장(裨將)으로 삼으라는 충고에서는 선험자(先驗者)의

경륜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 이 모든 당부를 넘어 그가 진심으로 전하고자 했던 훈계는 선비(士/大夫)의 율신의 준칙인 ‘근독(謹獨)’이었다. 결국 강백년의 증별시는 시문의 형식을 빈 ‘당부와 비결의 전수’였고, 그 바탕에는 족친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깔려 있었다.

사해가 모두 형제라 하나  
우리 동족만 못하느니라<sup>96)</sup>

강백년은 강여호를 내외직을 가리지 않고 충신(忠信)을 다하고, 나아감과 물러남의 도리를 아는 관료로 평가하며 부임하면 백성들을 다그치지 말고 충효로서 인도할 것을 권고했다. 경연에서 군주를 시강(侍講)할 때의 정성스러움과 전장에 임한 장수의 신중함으로 고을을 다스린다면 지방관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던 것이다.<sup>97)</sup>

사실 강백년은 강여호와 더불어 보사(譜事·族譜編纂)를 논의했을만큼 평소의 신뢰와 기대가 매우 컸다. 1674년 강여호가 진주목사로 부임하자 강백년은 ‘은열공파족보(殷列公派族譜)’ 편찬을 기획하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된다. 그를 책임자로 판단한 것은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 결과였다. 하나는 국가의 출판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관으로서의 직무적 장점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회덕입향조 강문한(姜文翰)의 종손이라는 종족적 지위 때문이었다. 이에 강여호는 진주지역의 동중 강국주(姜國柱)·강유형(姜有亨) 등과 보사를 추진하였으나 도중에 체임됨으로써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다.<sup>98)</sup>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족보편찬론’은 회덕파와 김산파의 종족적 소통 양상, 강여호에 대한 강백년의 신뢰를 가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당초 강백년

96) 姜汝床, 『國譯耆齋集』 附錄, 〈贈別鍾城倅姜啓叔〉(姜栢年).

97) 姜栢年, 『雪峯遺稿』 卷20, 〈送別姜鍾城汝床之任〉 “輸忠均外內 隨遇信行藏 … 教導先忠孝 操持在弛張 … 翼翼思經席 欽欽若戰”

98) 강완식, 『충청도 晉州姜門의 선비정신과 藝術世界 - 은열공 후 학사공파를 중심으로 -』, 한국족보편찬위원회, 2023, 333~334쪽.

이 발문하고 강여호가 추진했던 족보 편찬은 그 후 약 50년이 지난 1727년 강유형의 아들 강신곤(姜信坤)에 의해 실현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진양강씨족보 초간본인 ‘정미보(丁未譜)’인데, 강현(姜覲; 姜栢年 子)은 그 서문에서 강백년·강여호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특서했다.

우리 집안의 보첩이 어느 시대에 유실되어 아직 중수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흠이 아닐 수 없다. 지난 갑인년(1674)에 승지공(姜汝床)께서 진주목사로 있을 때 나의 선고 문정공(姜栢年)께서 보첩을 중수하고자 종원인 국주와 유형 등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승지공이 진주목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완성하지 못해 지금까지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sup>99)</sup>

정조 연간 증손 강석구가 증조 강여호의 묘갈 건립을 위해 이헌경(李獻慶)으로부터 갈명을 받아 강세황(姜世晃)에게 글씨를 청했을 때, 강세황이 이를 흔쾌하게 수화했던 것은<sup>100)</sup> 자신의 선대인 강백년(조부)·강현(부)과 정치학문적 공동 보조는 물론 종사까지 돈독하게 논의했던 강여호의 역할에 대한 정성스런 회답이었다.

## 2. 강석구(姜碩龜)와 회덕파와의 관계

강여호 이후 회덕파와의 종족적 유대의 중심에 위치했던 인물은 증손 강석구였다. 그가 시문을 매개로 족의(族誼)을 확대, 강화한 대상은 강세황(姜世晃)·강완(姜完) 부자 및 강침(姜忱)이었다. 강석구에게 강세황은 증조항, 강완은 조항, 강침은 동항이었고, 촌수는 10촌을 훨씬 벗어나 있었다.

99) 강완식, 앞의 책, 330쪽, 〈丁未譜序〉(姜覲).

100) 姜汝床, 『國譯耆齋集』附錄 〈墓碣銘〉에 따르면, 묘갈을 새운 것은 강세황 사후인 1805년이다. 생전에 미리 글씨를 받아 둔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강씨 가계도

文翰 ⇨①琳 ⇨龜祥 ⇨符 ⇨海老 ⇨泄 ⇨汝渠 ⇨必泰  
 ⇨汝棗  
 ⇨汝床 ⇨必亨 ⇨震煥 ⇨碩龜  
 ⇨③璘 ⇨雲祥 ⇨籤 ⇨鶴年 ⇨鎬 ⇨世鳳 ⇨達 ⇨守愚 ⇨忱  
 ⇨籀 ⇨桂年 ⇨覲 ⇨世元  
 ⇨世晁 ⇨倅  
 ⇨栢年 ⇨銑 ⇨世胤

문헌상으로 관계성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강완(1739~1775)과의 교류였다. 강완은 강석구보다 13세 연하였지만 과업(科業)을 함께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강석구는 1768년 43세 나이로 문과에 합격하기까지 서울을 왕래하며 과업에 종사하였는데, 이 때 강완과 동접(同接)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런 정황은 1775년 강완이 3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을 때 강석구가 지은 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용렬함으로 그대의 보살핌을 입은 것이 특별하였습니다. 유생의 갓을 쓴 지 10년 세월에 나의 어리석음을 열어주었고, 나의 방황을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 글을 지어 읽기를 권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행장을 화려하게 꾸며주었습니다 ... 내가 본가로 돌아가 살 때, 공께서도 남향(南鄉)에 계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병들어 신음하는 아들을 조섭하기가 어려울 때, 봉급을 나누어주어 탕계를 풀이는데 보태게 했습니다. 종족에게 돈독하게 하고, 가난한 이를 구휼하였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sup>101)</sup>

강석구에게 강완은 동종(同宗)이자 동학(同學)이었고, 정서적인 위로자, 경제적인 후원자였던 것이다. 발군의 재능을 지녔던 강완은 1763년 약관 25세

101) 姜碩龜, 『鶴巖遺稿』 卷2, 〈祭姜承旨宗丈全美氏文〉.

에 문과에 합격했다. 이후 사람의 극선인 봉교·대교·병조좌랑 등 화요직(華要職)에 재임하고 있을 때인 1768년 강석구가 비로소 문과에 합격하게 된다. 이에 강완은 축하와 위로 그리고 기대를 담은 글을 증정하게 되는데, '낙서를 금릉으로 보내며[送洛西歸金陵]'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강석구는 젊어서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한 뒤로 약 10년 동안 경학(經學) 공부에 힘쓰며 학자의 길을 걸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과거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마흔을 넘긴 나이에 문과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이다. 강완은 이를 '기재서업(耆齋緒業)의 계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중중의 낙서씨(洛西氏; 姜碩龜)는 영남의 아름다운 선비이다. 젊어서 과거를 위해 시문에 공력을 쏟았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거업(學業)을 버리고 명경(明經)에 전념한지 10년만인 올 봄에 문과에 올랐으니, 이는 기재(耆齋; 姜汝床)선생의 서업을 이은 것이리라.<sup>102)</sup>

등과 이후 강석구에게는 관료로서의 또 다른 포부가 있었다. 그것은 한림직에 서용되는 것이었다. 어쩌면 강완의 한림직 역임이 그 욕구를 더욱 자극했을 수도 있다. 봉교·대교·검열을 통칭하는 한림은 사람의 극선으로 존재들만 서용될 수 있는 청화직의 꽃이었다. 그런만큼 자격 요건도 까다로웠던 바, 강석구는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자 낙심 끝에 귀향을 결심하고는 강완에게 송별의 글을 부탁했던 것이다.

강완은 득살에 연연하지 않고 이록을 탐하지 않는 강세구의 삶의 지향을 높이 평가했다. 그것은 위로였다. 여기에 더해 그는 구경(九經)에 침잠하여 의리를 분별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알아 집안의 명성을 계승해 나간다면 그것이 화려한 벼슬을 사는 것보다 나은 삶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기대였다.<sup>103)</sup> 이렇듯 두 사람은 13년의 터울에도 불구하고 상장(相長)의 사귀음을 지속했다.

102) 姜碩龜, 『鶴巖遺稿』 卷2, 附錄, 〈送洛西歸金陵〉.

103) 姜碩龜, 『鶴巖遺稿』 卷2, 附錄, 〈送洛西歸金陵〉.

이런 가운데 중앙의 화직을 두루 거친 강완이 1769년 부안현감으로 부임하게 된다. 이듬해인 1770년에는 부친 강세황(姜世晃)을 부안 임소로 초빙하여 시봉하고 있었다. 강석구가 부안을 방문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共和詩帖의 수록 현황

- 姜 侁 : 원운
- 姜碩龜 : 차운
- 姜世晃 : 차운
- 姜碩龜 : 차운
- 姜世晃 : 차운
- 姜碩龜 : 차운

강세황·강완 부자와의 합좌는 문이(文雅)합의 극치를 이루었고, 이들은 시를 통해 족의를 다지고 회포를 풀며 단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정취는 『학암유고(鶴巖遺稿)』에 실린 ‘학암이 표암과 더불어 서로 화답하다(鶴巖與豹巖共和)’라는 시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시첩에는 강흔의 원운과 강석구·강세황의 차운 등 총 6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작품마다 ‘객지에서 만끽하는 자유로움과 여유’, ‘종족간의 정리와 살가움’이 물씬 풍기는 가운데 사대부로서의 국가에 대한 책무의식 또한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석구 및 강세황의 작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강석구 차운’

먼 곳 사는 나그네 땅의 끝까지 찾아드니  
친척끼리 기꺼운 모임에 가을을 잊게 하네  
세상사에 찌든 마음이야 후선각(候仙閣)에서 이미 씻어버렸고  
시를 짓기야 망월루(望月樓)만한 곳이 없다네  
운연(雲煙)을 마주하고 앉았다가 함께 잠을 자고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만날 때면 함께 그곳에 머물렀지  
강호에 방랑하는 나를 사람들이 비웃는 까닭은  
나라를 위한 사업을 이루지 못한 때문이겠지<sup>104)</sup>

‘강세황 차운’

글을 논하고 또 천추의 사업에 힘쓰니  
술에 취함이 어찌 열흘의 놀이에 방해가 되겠는가?  
이제부터 즐거운 유람은 구학(丘壑)에 가득할지니  
작은 수레와 지팡이 하나로 그대를 위해 애써보리라<sup>105)</sup>

‘강석구 차운’

우리 집안의 늙은 손자  
바탕이 질박하니 옛 사람의 풍도르다  
농사짓는 것으로 시론(時論)에 동요하지 않고  
선비의 의관으로 한가로운 세월을 보내네  
집에서는 늘 일찍 일어나  
나라를 근심하고 풍년이 들기를 염원하였다네  
말이 임금과 신하에 미칠 때면  
그간에 읽은 경서 뱃속에 가득하네<sup>106)</sup>

강세황은 죽증손 강세구의 방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런 마음은 시축에 후지를 붙이는 정성으로 표현되었다.

집안의 자제가 저 멀리 금릉으로부터 천리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낭주(浪州; 부안) 관아를 방문해서는 오는 도중에 읊은 시문에 대해 회답을 청하였다.<sup>107)</sup>

이로부터 5년 뒤인 1775년 강완은 생을 마감했고, 전술한 바와 같이 강석

104) 姜碩龜, 『鶴巖遺稿』 卷1, 〈鶴巖與豹巖共和〉 ‘姜碩龜次韻’

105) 姜碩龜, 『鶴巖遺稿』 卷1, 〈鶴巖與豹巖共和〉 ‘姜世晃次韻’

106) 姜碩龜, 『鶴巖遺稿』 卷1, 〈鶴巖與豹巖共和〉 ‘姜碩龜次韻’

107) 姜碩龜, 『鶴巖遺稿』 卷1, 〈鶴巖與豹巖共和〉 ‘姜世晃後識’

구는 제문을 지어 애도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석구가 간관으로 재직하던 1788년, 조정에서는 채제공의 거취를 두고 정쟁이 격화되었다. 이에 강석구 또한 이 해 여름에 잠시 관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때 강세황은 76세의 고령이었음에도 송서(送序)를 통해 강석구를 격려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는 성현의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음탕하고 사특한 예약이 그 총명함 속에 머무르지 않으며, 슬퍼하거나 후회하지도 않고 삶을 즐기면서 늙음이 찾아옴을 잇을 따름이었다. ... 영남은 본디 경서를 궁구하고 행실이 맑은 선비가 많은 곳으로 일컬어졌으니, 학암(鶴巖·姜碩龜)은 고향으로 돌아가 나의 말로써 사람들에게 질정하기를 바라네. 학암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이가 있다면 또한 마땅히 내 말도 이해할 것이다.<sup>108)</sup>

이후 간관에서 해임되고 부사과에 임명된 강석구는 1789년 6월 안동부사 신익빈(申益彬)과 경상감사 홍익(洪億)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진직 관료로서 방백의 장단과 득실을 논했다’는 이유로 파직되는 수난을 겪게 된다.<sup>109)</sup> 이에 강석구는 동년 10월 무렵 심신의 휴양을 위해 금강산 유람을 계획했는데, 강침(姜忱, 1732~1808)의 ‘동쪽으로 풍악을 유람하러 가는 죽형 낙서씨를 보내며[送洛西氏族兄東遊楓嶽小序]’라는 제목의 소서는 이 때 보내온 것이다. 강침은 강여호의 스승 강학년(姜鶴年)의 5세 종손이었던 바, 회덕과 중에서도 친연성이 가장 깊은 인사 가운데 하나였다.

강침은 강석구의 상소를 일찍이 연관직에 있었던 관료로서의 마땅한 조처이자 감언·직언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이런 단호함은 개인의 절기를 넘어 회덕과 김산을 아우르는 ‘진주강문(晉州姜門)’의 종족적 가치로 확대, 해석했다.

우리 종중에 곧은 절개와 맑은 명예를 지닌 인물이 많으니, 나의 선조인 추

108) 姜碩龜, 『鶴巖遺稿』 卷2, 附錄 〈送正言宗侍歸嶺南序〉.

109) 『正祖實錄』 〈正祖 13年 6月 22日(丙子)〉.

월헌(秋月軒; 姜籤)·복천(復泉; 姜鶴年)·삼당재(三當齋; 姜侗) 및 방조인 설봉(雪峯; 姜鶴年)·자각(紫閣; 姜銑)·백각(白閣; 姜錕)·기재공(耆齋公; 姜汝床) 또한 모두 직도를 행하셨는데, 낙서씨는 곧 기재공의 후손이다. 그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고 가정(家聲)을 실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낙서씨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 낙서씨의 이름이 이로 인하여 서울과 영남 사이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으니 우리 집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sup>110)</sup>

강침이 소서를 통해 강석구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변함없는 마음가짐과 행동이었다. 한번의 기염(氣焰)이 아니라 이욕(利欲)·화복(禍福)·빈궁(貧窮)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절(志節)의 고수를 추구했던 것인데, 그 바탕에 흐르는 정서는 진주강문으로서의 동종애(同宗愛), 즉 혈연의식이었다.

#### IV. 맺음말

17세기 이후 영남학파의 주요 세력으로 성장한 가문 중에는 15세기 이래 타지역으로부터 이거·정착한 집안이 적지 않았다. 성주의 청주정씨 정구가, 영해의 재령이씨 이현일가, 안동의 한산이씨 이상정가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으며, 본고에서 다룬 진주강씨 강설가 또한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강설가가 회덕에서 김산으로 이거한 것은 17세기 초반이었고, 그 계기가 된 것은 성산여씨 여대로 집안과의 혼맥이었다. 한강문이자 류경심의 사위였던 여대로는 류경심·정구는 물론 장현광·정경세 등 당대 영남의 명사들과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런 기반은 사위 강설의 영남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으로 기능했다. 강설이 정구의 한강문하에서 수학하여 영남학파의 본류로 편입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다.

110) 姜碩龜, 『鶴巖遺稿』 卷2, 附錄〈送洛西氏族兄東遊楓嶽小序〉.

강설가의 학문 가학 연원은 강백년·학년(학년수)→이난수(난수)→박주(주)→이중호를 거쳐 서경덕에게로 소급되고, 정치적으로는 동인(동인수)→소북을 표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남인 퇴계학파가 주류를 형성했던 영남 정착파 문호의 확충은 하나의 난제로 대두될 수 있었지만 정구 및 한강학맥과의 학맥·혼맥에 바탕한 친연성의 강화를 통해 퇴계학파의 주류로 착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강설가의 경우 서애(풍산)·우복(상주)·여헌(안동)·한강문파(성주)로 대표되는 강안권과의 네트워크는 매우 견고했음에 반해 안동·예안·영해 등 17세기 후반 이후 갈암학파의 영향력이 확대된 영남의 동북부권 사림과의 교유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강설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간취되는 특성은 ‘이중성’과 ‘매개성’이다. 이중성은 화담학과 퇴계학을 절충하는 수용성으로 치환할 수 있고, 매개성은 영남남인(嶺南)과 기호남인의 교량적 역할로 규정할 수 있다. 17세기 ‘영남’과 ‘경남’ 교유의 상징적 인물로 일컬어지고 있는 배상유와 강설가의 학연 또한 그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고, 강여호와 강백년의 교유, 강석구와 강세황·강완·강침의 교유 또한 종족적 유대를 넘어 중간자적 수행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지금까지 영남지역 유력 사족 가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적지 않게 축적되었지만 학문·정치적 성향이 달랐던 집안의 ‘영남화’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예컨대, 이이의 아우 이우(李瑀)가 황기로의 사위가 되어 선산에 정착하였지만 그들은 집안의 정치·학문적 입장인 서인 기호학파로서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는 달리 강설가는 학문적으로는 화담학풍의 영향이 짙고 정치적으로는 소북계통이었음에도 영남 이거 이후 남인 퇴계학과 주류로 편입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설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조선후기 영남의 사족사회의 층이 생각보다 단조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고, 보다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그 실상을 더욱 분명하게 조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 『正祖實錄』, 『晉州姜氏世譜』(南窩公派), 『南窩耆齋世稿』  
鄭述, 『寒岡集』  
송기재 『국역한강집』(한국고전번역원)  
呂大老, 『鑑湖集』  
鄭經世, 『愚伏集』  
정선용, 『국역우복집』(한국고전번역원)  
金應祖, 『鶴沙集』  
郭鍾錫, 『俛宇集』  
鄭宗魯, 『立齋集』  
김영옥, 『국역입재집』(한국고전번역원)  
趙任道, 『澗松集』  
정현섭 외, 『국역간송집』(한국고전번역원)  
鄭述, 『寒岡全書』  
盧守愼, 『穌齋集』  
李植, 『澤堂集』  
金長生, 『沙溪全書』  
김영옥·박완식 외, 『국역사계전서』(한국고전번역원)  
宋時烈, 『宋子大全』  
이기석, 『국역송자대전』(한국고전번역원)  
安鼎福, 『順菴集』  
홍승균, 『국역순암집』(한국고전번역원)  
許穆, 『記言』  
姜碩龜, 『鶴巖遺稿』  
姜履和, 『湖隱集』  
申體仁, 『晦屏集』  
鄭蘊, 『桐溪集』  
박대현, 『국역동계집』(한국고전번역원)

裊尙瑜, 『晚學堂集』  
姜栢年, 『雪峯遺稿』  
姜汝床, 『耆齋集』  
姜碩龜, 『鶴巖遺稿』

## 2. 논저

- 이수진,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 강완식, 『충청도 淸州姜門의 선비정신과 藝術世界－은열공 후 학사공파를 중심으로－』, 한국족보편찬위원회, 2023.
- 김학수, 『葛庵 李玄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의 정치적 분화」, 『조선시대사학보』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의식－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김학수, 「조선중기 寒岡學派의 등장과 전개－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 김학수, 「갈암학파의 성격에 대한 검토 : 諸學派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퇴계학』 20, 안동대학교 퇴계연구소, 2011.
- 김문준, 「復泉 姜鶴年의 生涯와 思想」, 『復泉遺稿』(上), 아산시청, 2011.
- 김학수, 「李彦英의 家庭經營論과 交遊·學問論－寒旅學風의 계승과 응용－」, 『영남학』 6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Abstract

##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ocio-cultural Infrastructure of the Namwa (南窩) Kang Seol (姜濩) Family of the Jinju Kang Clan: Focusing on Personal, Academic, and Clan Ties

Kim, Hak-su\*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ition of the Hoseo region's Sobuk faction within the Hwadam academic lineage to the Toegye school of the Southern Faction (Namin) through personal and academic connections. Originating from Kang Seol (姜濩 : Namwa), the Jeonju Kang clan moved from Hoedok in the Hoseo to Gimcheon in Yeongnam by becoming the son-in-law of Yeo Daero (呂大老), a disciple of Hangang. This move facilitated the foundation of social networks through marital and scholarly ties with prominent figures and clans of the Yeongnam School in the 17th century, such as Ryu Seongryong, Jeong Gu, Jang Hyeon-gwang, and Jeong Gyeongse.

The Namwa family, known for its governmental aspirations up to the 18th century, transitioned into a scholarly lineage in the 19th century under the influence of Kang Ihwa (姜履和), the fifth-generation descendant of Kang Seol. Kang Ihwa's intimate associations with the Hangang school in Seongju, the Ubok school in Sangju, and the Hanryeo school in Seonsan and Uiseong reflect both a recalling of his family's academic roots and a complex will to restore and expand past relationships.

---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soya@aks.ac.kr

Of particular note in the Namwa family's scholarly development is their dual affiliation: they embraced Toegye studies via Jeong Gu while maintaining a strong affinity for the Sobuk academic tradition. This tendency is epitomized by the scholarly connection with Bae Sang-yu (裴尙瑜). Kang Seol was a disciple of Kang Haknyeon, and Bae Sang-yu was a disciple of Kang Baeknyeon, suggesting a scholarly lineage traceable to Seo Gyeongdeok. Kang Yeoho's (姜汝床) three sons, Kang Piltae (姜必泰), Pilhyeong (必亨), and Pilchang (必昌), studied under Bae Sang-yu, and Kang Ihwa was deeply involved in promoting Bae Sang-yu's social status, necessitating an understanding within this context.

Furthermore, Kang Seol's close interactions with the main branch of the Hoseo, including Kang Haknyeon (姜鶴年), Baeknyeon (栢年), Kang Se-hwang (姜世晃), Kang Wan (姜完), and Kang Chim (姜忱), illustrate the bridging role of the Kang family played between the Yeongnam Namin and Giho Namin factions.

Key word : Jeonju Kang Clan, Kang Seol, Kang Yeoho, Kang Seokgu, Kang Ihwa, Jadong Seowon, Kang Haknyeon, Kang Baeknyeon, Yeo Daero, Jeong Gu, Bae Sang-yu

논문 투고일: 2024. 05. 15 심사 완료일: 2024. 06. 11 게재 확정일: 2024. 06. 11



# 기재(耆齋) 강여호(姜汝床)의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 활동\*

이 근 호\*\*

- I. 머리말
- II.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 기반
- III. 사환과 정치 활동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姜汝床의 관직 생활과 정치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강여호의 경우,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기에 자료의 한계가 있으며, 전해지는 자료도 사실만을 전해주는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이런 한계를 전제로, 강여호의 관직 생활과 정치 활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당시 정국의 흐름을 바탕으로 추적하였다. 이 글은 강여호 개인에 대한 검토를 넘어 당대 정치사의 한 단면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강여호가 속한 진주강씨는 懷德에서 金山으로 이거한 뒤, 강여구, 강여룡의 小科 합격과 강여호의 문과 급제 등을 통해 家格을 높이면서 주변 지역의 주요 사족들과 학연, 姻緣을 맺었다. 강여호는 문과 급제 뒤 사환을 시작했으나, 효종대 중반 이후 현종대까지 서인 주도의 정국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신 지방의 수령직을 두루 경험하였다. 강여호는 현종 말년 남인이 주도하는

\* 이 연구는 2022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본고는 2024년 한국서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진주강씨 김천 칠방공파의 역사적 전개와 자동서원(紫東書院)>(2024.3.15.)에서 발표된 원고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lkh1117@paran.com

정국이 조성되고 숙종이 즉위한 뒤, 홍문록에 입록되면서 淸要職에 나아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1676년에 종성부사로 나아갔다. 일부에서는 이를 좌천이라 지적하기도 하였다. 다만, 강여호가 종성부사로 나아갈 때 동대문 밖 전별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강여호의 정치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겠다. 종성부사에 재임하면서는 국왕의 구언에 응하는 응지상소를 올려,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종성부사를 마치고 잠시 서울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주목사로 나갔으나, 경신환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파출되었다.

주제어 : 姜汝床, 기재선생문집, 金山, 회덕, 종성부사

## I. 머리말

이 글은 17세기 중반 이후 중앙 정치에 참여하였던 姜汝床(1620~1682)의 사환과 정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강여호가 속한 진주강씨는 金山(오늘날의 김천시)에 세거하던 성씨로, 강여호의 부친인 姜濼 때에 호서의 懷德에서 김산으로 이거하였다. 김산 정착 후 진주강씨는 서울, 경기 지역 南人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영남에 정착하면서 嶺南南人 주요 가문과 혼맥, 지연, 학연 등을 통해 연결되었다. 강여호는 이런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중앙에 진출하여 사환 생활을 한 인물이다.

강여호에 대해서는 그간 지방사의 차원에서 지역 유학자의 일원으로 언급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정리되었다.<sup>1)</sup> 또한 김천 지역의 증가나 사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sup>2)</sup> 강여호의 연구가

1) 송기동, 「김천 유학의 형성과 발전」, 『향토경북』 10, 경상북도 향토사연구협회의 회, 2012 ; 김천시, 『김천시사』, 1999 ; 한국국학진흥원·김천문화원, 『김천의 유학자』, 2016.

2) 김미영, 권삼문, 『김천 증가문화의 전승과 현장』, 민속원, 2015 ; 김성우, 「감호 여대로(鑑湖 呂大老)와 성산 여씨(星山呂氏) 기동파(耆洞派)의 종족(宗族) 활동」,

부진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기록의 한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2020년 강여호의 문집으로 『(국역)기재선생문집』<sup>3)</sup>이 간행되어 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강여호의 전 생애를 조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강여호에 대해서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서 확인되는 기록도 있으나, 생애 스토리를 구성하기에는 한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이상의 한계를 안고 강여호의 사환과 정치 활동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가 정치 활동을 할 때 기반이 되었을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 기반을 살펴볼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특정 인물의 정치 활동이나 특정 그룹의 활동에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혈연이나 학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강여호를 둘러싼 혈연이나 학연 등을 소개할 것이다. 이어서 출사 이후 강여호의 사환 경력과 정치 활동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강여호 개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17세기 중반 사람정치 시기 정치사의 한 단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 II.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 기반

강여호는 진주강씨 金山 南窩公派의 일원인데,<sup>4)</sup> 남와공은 강여호의 부친인 姜濼(1583~1651)을 지칭한다. 강설의 조부는 姜符인데, 강부는 학행으로 천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 김성우, 「성산 여씨(星山呂氏) 기동파(耆洞派)의 사회적 성장과 지배 종족(支配宗族)으로서의 생존 전략」, 『歷史學報』 242, 2019 ; 김성우, 「조선시대 碧珍 李氏 金山派의 성장과 金山 土族社會에서의 위상」, 『大丘史學』 126, 2017 등.

- 3) 강여호의 시문 등은 사후 후손 湖隱 姜履和가 수집한 필사본 형태로 전해지다가 2017년 姜龍圭가 각종 문헌에서 강여호의 문자나 그와 관련된 문자를 수집해서 추가하였고, 2020년 이를 姜熙大가 번역하여 『(국역)기재선생문집』으로 간행하였다.
- 4) 분파는 『진양강씨세보』(1898 刊,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00-95)에 의거하였다.

거되어 金泉道 찰방을 역임하였다. 강부가 속한 진주강씨 일문은 1672년 송시열이 작성한 「懷德鄉案序」에서 “南宋北姜”이라 칭할 정도로, 은진송씨에 버금가는 집단이었다.<sup>5)</sup>

강부 당대에 一門에서 姜籤, 姜籀 등이 翰苑에 들어가며, 재종형제 12인이 조정에 포진하였다. 이들 중 姜籤은 1591년(선조 24) 식년시에 급제 뒤 두루 청요직을 거쳤으며 강원감사와 경상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강침은 관직에 있으면서 李元翼과는 心友로 교류하며, 이원익이 임진왜란 때 사도도체찰사가 되자 강침을 종사관으로 추천하여 함께 전장에 나아갔다.<sup>6)</sup> 이원익은 강침과의 관계에 대해서 “同事於幕府”하였고, “同仕於朝廷”하였다고 기록한 바 있다.<sup>7)</sup> 姜籀는 선조 연간 과거 급제 뒤 예문관 김열을 시작으로 이후 청요직을 두루 거치다가 1604년(선조 37) 연말 宋應琦 사건과 관련해서 파직되면서 관직 생활을 마쳤다. 허목은 강주에 대해 “평생 문학으로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하며, 강주의 대부분 작품은 “곤궁하고 억울한 처지에서 나온 것”으로, 그 글이 더욱 뛰어났다고 평가하였다.<sup>8)</sup> 강주는 叢桂堂 鄭之升에게서 수학하였고,<sup>9)</sup> 小北의 金蠶國, 李德澗 등과 교류하였다.

姜滌에게 삼중숙이 되는 姜鶴年은 인조반정 직후 學行儒生으로 추천되어<sup>10)</sup> 연기현감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강학년은 호서의 회덕에서 학문에 침잠하던 시기인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 지역으로 파천할 때 행재소에 나아갔다. 이후 강학년은 진천현감이나 예조 좌랑, 성균관 사업, 예안현감 등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1634년 仁城君 李珙을 사사한 것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해당 상소에서 “반드시 포악함으로 포악함을 갈아 치울 것[必有易暴]”<sup>11)</sup>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어 은진에 付處

5) 이해준, 「남송북강으로 알려진 진주강씨」, 『대전문화』 16, 2007 참고.

6) 『선조실록』 권128, 선조 33년 8월 30일(경자).

7) 李元翼, 『梧里集』續集 권2, 拾遺, 「大司憲姜公墓誌」.

8) 許穆, 『記言』 별집 권10, 跋, 「竹窓遺卷跋」.

9) 姜籀, 『竹窓集』序(鄭斗卿 撰).

10)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8일(정묘).

되었다. 이때 柳軫과 柳頤은 강학년을 옹호하다가 배척되거나 삭탈관직되었다.<sup>12)</sup> 강학년이 강경한 정치 의리를 드러낸 것과는 달리 그와 종형제 사이인 姜栢年은 문과 급제 후 관직에 나와서는 “두려워하고 삼가함이 특별히 심하여, 일찍이 남의 過失을 論駁하지 아니하였다”<sup>13)</sup>고 할 정도로 신중한 정치적 자세를 보였다. 이런 때문인지 강백년은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조판서와 의정부 좌참찬, 예문관 제학 등을 거쳤다. 이렇게 회덕을 기반으로 생활하던 진주강씨는 인조대 이후 중앙 정치에 참여하는 주요한 가문으로서, 세상에서 “懷德竹下”라 불렸다.<sup>14)</sup> 이들 회덕에 세거하던 진주강씨는 김산으로 이거한 진주강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강여호가 강학년에게 수학하고,<sup>15)</sup> 이후 餞別詩 등을 보내는 것에서도 확인된다.<sup>16)</sup>

강설은 1583년 회덕의 紫雲洞에서 출생하였다.<sup>17)</sup> 강설은 1612년(광해군 4) 증광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이후 문과를 포기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湖中 선비들이 강설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여 起義하였으나, 남한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하였다. 강설은 1625년 부모의 상을 당하였고, 喪期를 마친 뒤에 “영남은 명현들이 배출된 고장으로, 평소 鄒魯之鄉이라고 일컬어지니 자손을 기를 만하다. 어찌 가서 거주하지 않겠는가?”<sup>18)</sup>라며

11)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11월 3일(을묘).

12) 강학년에 대해서는 許穆, 『記言』別集, 권22, 丘墓文, 「復泉姜公墓銘」 및 김경호, 「복천 강학년의 생애와 학문」, 『유학연구』 20, 2009를 참고하였다.

13)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1월 17일(신미).

14) 李光庭, 『訥隱集』 권15, 行狀, 「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知製教者齋姜公行狀」.

15) 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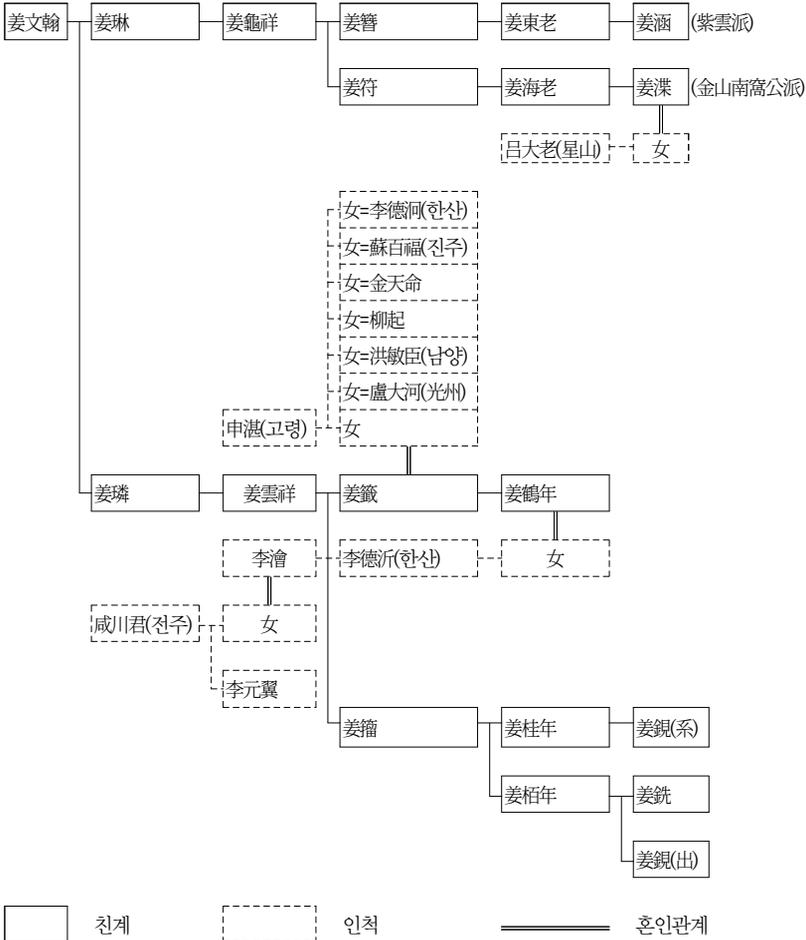
16)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완식, 『충청도 晉州姜門의 선비정신과 예술세계』, 한국 족보편찬위원회, 2023 ; 김학수, 「진주강씨 남외(南窩) 강설가(姜濼家)의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구축과 작동」, 『진주강씨 김천 칠방공파의 역사적 전개와 자동서원』, 2024년 한국서원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24, 61~63쪽을 참고하였다.

17) 姜濼에 대해서는 鄭宗魯, 『立齋集』別集 권6, 行狀, 「成均進士南窩姜公行狀」을 참고하였다.

18) 위와 같음, “嶠南名賢輩出之鄉也 素稱鄒魯 可以長子孫 蓋往居焉”.

가솔을 데리고 金山 耆老洞으로 내려왔다. 이로부터 김산남와공파로 분파되었다. 강설은 寒岡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性理之學을 강론”하였다.<sup>19)</sup>

〈표 1〉 진주강씨 先系圖 초략



19) 위와 같음 ; 鄭述, 『寒岡集』 「檜淵及門諸賢錄」 권3 姜溍條.

강설이 김산 기로동으로 옮긴 것은, 처가인 성산여씨 呂大老家의 사위로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성산여씨는 김산의 5대 班族 중 하나로, 16세기 초반 呂從獲가 인천이씨 李承元의 딸과 혼인하면서 김산 과내면 기동으로 입향하였다. 성산여씨 기동과의 현조로 추앙되는 呂應龜와 여대로의 활동을 계기로 김산의 명족으로 부상하였다. 이 중 여대로는 1582년(선조 15)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임진왜란 때 초유사 金誠一의 소모관으로, 김산의 의병 모집과 군량과 무기 조달의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1597년 정유재란 때는 3도 도체찰사 李元翼의 참모로 활약하였다. 광해군 때 여대로는 정인홍 등 대북 세력과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여대로는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sup>20)</sup> 향촌 사회에서 김산 향약을 중수하거나 상당수의 문인을 육성하였다.<sup>21)</sup>

김산에 정착한 진주강씨 남외공파 일원은, 강여구와 강여울이 소과에, 강여호와 강여호의 아들 강필중이 문과에 급제하는 등 점차 家格을 높여갔다. 더하여, 김산 및 안동과 상주권역 주요 사족 가문과 혼맥을 맺었다.

강여구의 처가인 연일정씨(정유한), 강여울의 처가인 성산이씨(이택룡), 강여호의 처가인 재령강씨(강용후)와 풍산김씨(김시익)을 비롯해 강필태의 처가인 선산김씨(김하정), 강필형의 처가인 안동권씨(권두장), 강필명의 사돈가인 광주이씨(이세원), 한양조씨(조덕린), 강필형의 사돈가인 의성김씨(김창현, 김몽락), 강여울과 강여호의 사돈가인 벽진이씨(이영수, 이해운), 강진익의 처가인 진주정씨(정석교), 강진후의 처가인 평산신씨(신후명), 강진언의 처가인 초계정씨(정중태), 강진환의 처가인 인동장씨(장만원), 강진수의 처가인 안동권씨(권두인) 등이 주목된다.

20) 위와 같음.

21) 여대로에 대해서는, 呂大老, 『鑑湖集』 권3, 附錄, 「司憲府持平鑑湖先生呂公行狀 [鄭象履]」; 같은 책, 墓誌 姜鶴年; 같은 책, 墓碣銘 并序 [柳命天]; 鄭述, 『寒岡集』 「檜淵及門諸賢錄」 권1 呂大老條 및 김성우, 「감호 여대로(鑑湖 呂大老)와 성산여씨(星山呂氏) 기동파(耆洞派)의 종족(宗族)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김성우, 「성산여씨(星山呂氏) 기동파(耆洞派)의 사회적 성장과 지배 종족(支配宗族)으로서의 생존 전략」, 『역사학보』 242, 2019 등을 참고하였다.

〈표 2〉 진주강씨 世系圖(16世~19世) 초략<sup>23)</sup>



Ⓢ 생원

Ⓢ 진사

Ⓢ 문과

(춘)(계) 출계관계

이들 성씨 중 김산의 세거 사족은 벽진이씨, 연일정씨 등이다. 벽진이씨는 14세기 후반 李存實이 성주배씨 裴希輔와의 혼인을 계기로 김산으로 이거하였다. 벽진이씨는 李約東의 현달을 계기로 김산의 유력 가문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벽진이씨는 소과 입격자와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한편 학자를 배출하였다. 벽진이씨는 정치적으로 17세기 전반까지는 李好閔, 鄭述 등과 교류하며 남인의 당색을 갖고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金集, 宋時烈의 문하로 들어가며 서인계로 활동하였다. 연일정씨 또한 벽진이씨와 같이 17세기 중반 이후 서인계 당색을 가진 성씨로, 벽진이씨와의 혼인을 계기로 김산에 입향하였다.<sup>24)</sup>

연일정씨는 鄭以教가 崔漢伯의 사위가 되어 김산에 정착한 성씨로, 김산의 巴旆面 일대에서 세거하였다. 김산에 정착한 연일정씨는 정이교의 아들인 鄭公徵이 한성부 서윤을, 鄭公虔이 사복시 첨정을, 鄭公弼이 武科에 급제한 뒤 郭山郡守를, 鄭公淸이 현감을, 鄭公藝가 참봉을 역임하였다. 이후 정공징의 아들 鄭昌文은 감찰을 지냈으며, 그 아들 鄭堯臣은 문장에 능하였으나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다. 정공진은 아들이 없어 정공필의 아들 鄭昌國을 후사로 삼았으며, 정창국은 무과에 올라 僉使를 지냈다. 정공필의 장남 鄭昌武는 무과에 합격, 호조 좌랑을 지냈으며, 정창무의 아들 鄭肅臣이 네 명 아들 중 鄭維藩은 문과를, 鄭維垣은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鄭維翰은 특이하게도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sup>25)</sup>

강여호가 再配로 맞아들인 풍산김씨도 주목된다. 강여호의 처부는 김시익이고, 김시익의 부친은 金榮祖이다. 김영조가 속한 풍산김씨는 김영조의 고조인 金揚震 때에 서울에서 풍산 오미동으로 이거한 성씨이다. 김영조와 형제

22)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진양강씨세보』에서는 김몽락으로 표기되었으나, 해당 가문에서는 김몽해로 칭한다고 하므로, 일단 병기하였음을 밝혀둔다.

23) 『진양강씨세보』(1898 刊,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00-95)에 의거함.

24) 김산의 벽진이씨와 연일정씨에 대해서는, 김성우, 「조선시대 碧珍 李氏 金山派의 성장과 金山 土族社會에서의 위상」, 『大丘史學』 126, 2017을 참고함.

25) 『金陵誌』; 金長生, 『沙溪全書』 권47, 附錄, 「門人錄」.

간인 金奉祖·金昌祖·金慶祖·金延祖·金應祖·金念祖·金述祖·金崇祖 중 요절한 김술조를 제외하고 모두 소과에 합격하였고, 김봉조·김영조·김연조·김응조·김승조 5인이 문과에 급제하여 국왕 인조로부터 “八蓮五桂之美”라 불리며, 이들이 사는 곳을 오미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김영조의 처는 의성김씨 김성일의 딸이며, 학통상으로 정경세, 장현광을 계승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강필태의 처가인 선산김씨(김하정) 역시 김산의 세거 사족 가문이다. 김하정은 張顯光·金應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강릉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sup>26)</sup> 강진익의 처는 진주정씨로, 정석교의 딸이며, 정경세의 현손녀이다. 강진휴의 처부는 평산신씨 신후명으로, 상주 출신이다. 신후명의 부친인 신행구의 딸은 정석교의 再配이다. 진주강씨는 진주정씨, 평산신씨를 통해서 우복 학맥과 연결되었다. 또한, 강진환의 처부인 장만원은 장현광의 증손으로, 혈연적으로 여현 학맥과도 연결된다. 이들 이외에도 강여호의 종손녀 남편인 광주이씨 이세원은 李元禎의 손자이고, 또 다른 종손녀의 남편인 조덕린은 갈암 이현일의 문인으로, 학봉 김성일의 학맥을 잇고 있다. 강여호의 손녀 사위인 김창현과 김몽락(김몽해)은 학봉 김성일의 현손이다. 이상과 같이 진주강씨는 김산으로 이거한 뒤, 인근의 주요 사족들과 혼맥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위로는 서애와 학봉, 정구 그리고 이어지는 정경세와 장현광을 비롯해 갈암 이현일의 학맥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여호의 인적 네트워크는 사후 만사를 작성한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27)</sup> 만사를 보내온 인물은 모두 118명이다.

〈표 3〉 강여호의 輓詞를 찬술한 인물

성명	본관	비고	성명	본관	비고	성명	본관	비고
李舜岳	龍仁		朴定邦	忠州	損末, 忠原後人	黃霖	長水	侍生, 長溪後人
金千鎰	善山	損下	鄭翼升	延日	姻記, 烏川後人	李珥	河濱	戚弟

26) 柳致明, 『定齋集』 권29, 墓碣銘, 「通訓大夫司憲府掌令三梅堂金公墓碣銘 并序」.

27) 姜汝床 著, 姜熙大 國譯, 『耆齋先生文集』, 부록 만사.

李溟翼	眞寶		呂孝章	星山	庚友,星山後人	黃載厚	長水	長溪
鄭弘鉉	東萊		金廈楨	善山	一善後人	黃載萬	長水	長溪後人
金聲久	義城		金魯	光山	地上故友, 鰲山後人	黃載大	長水	侍生,長溪後人
孫萬雄	慶州		鄭震平	延日	烏川後人	沈明翼	青松	戚末,青松後人
裴尙瑜	星山	晚學堂	李培	延安	戚弟	沈渠	青松	戚記,青松後人
李碩寬	韓山		李墩	延安	戚弟	李惟直	星州	星山後人
安宗信	廣州	廣州後人	李垓	延安	三從弟	鄭碩河	延日	烏川後人
申悅	高靈		張鈺	仁同	玉山後人	尹千之	海平	海平後人
安宗悌	順興		張錄	仁同	玉山	柳百之	豐山	
李舜元	全州		張遇一	仁同	玉山	田以魯	延日	舊記,延安後人
李坦	德水	姻姪,德水後人	金錫俊	昌原	檜山後人	李商英	河濱	從兄,河濱後人
申重漢	高靈	高靈後人	李希顏	仁川	戚末,仁川後人	鄭維章	延日	烏川後人
柳杓	全州	完山後人	李希朱	仁川	戚末,仁川後人	宋頴	礪山	記末
柳宗燧	全州	完山後人	裴世緯	星山	星山後人	徐守謙	?	瑞原後人
李昌鎮	碧珍	友人	裴正徽	星山	侍生	李球	全義	同庚後人
李穎鎮	星山	星山後人	都處亨	星州	記末	裴尙瑜	星山	星山後人
李在憲	興陽		鄭亨升	延日	烏川後人	李周英	河濱	從兄,河濱
申厚命	平山		李翊夏	星州	星山後人	李后沆	星山	
李榮鎮	慶州	月城後人	朴惟棟	忠州	撰記,忠州後人	鄭維經	延日	庚弟,烏川
金廈柱	善山	友人	李錫禎	延安		李河	仁川	戚記
崔璨	和順	和順後人	李錫祉	延安		權愼	安東	侍生
權斗望	安東	庚弟,永嘉後人	鄭后說	延日	烏川後人	金功成	光山	侍教生,鰲山後人
鄭弘鉉	東萊	友人,蓬山後人	鄭后望	延日	烏川後人	李爾全	全州	友人,完山
河海寬	晉州	晉陽後人	吳敬基	咸陽	牟陽後人	李敏卿	全州	查弟,完山
姜獻之	晉州	宗末	成甲夏	昌寧	夏山後人	金擘	安東	安東後人
李在寬	興陽	興陽後人	金時行	豐山	豐山後人	孫萬雄	慶州	戚下
呂翼濟	星山		李希楸	仁川	友人	宋燾	冶城	冶城後人
南扈	宜寧	侍生	鄭文升	延日	烏川後人	宋挺濂	恩津	
張瑱	仁同		李溟翼	眞城	友人	盧以益	慶州	月城後人
金賓	義城	姻友	黃霽	長水	戚弟,長水後人	李馥	?	三江累弟
朴廷薛	咸陽		李達意	慶州	友人	金聲久	義城	
鄭必達	晉州	友人	李碩馥	嘉林	嘉樹後人	柳楮	全州	友人
權克正	醴川	襄陽後人	鄭岐胤	草溪	八溪後人	柳世興	豐山	戚姪
姜象先	晉州		愼致中	居昌	侍生,娥林	黃以煥	尙州	戚老,商山後人

李時華	全義	全城後人	鄭順升	延日	烏川老人	裴幼章	星山	再從姪
金南斗	善山	侍生	宋光璧	冶城	情友	崔胤貞	興海	
	呂涵	星山	地上從	裴命新	星山			
鄭奎升	延日	情弟, 烏川後人	黃霽	長水	長溪後人			

상당수가 강여호의 친척이나 인척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찬자가 관계를 표시한 기록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강여호의 輓詞를 찬술한 인물의 그룹별 분류

친인척 그룹	李坦, 姜獻之, 金賓, 呂涵, 鄭奎升, 李希朱, 李希顏, 李垓, 李墩, 李培, 鄭翼升, 裴幼章, 黃以煥, 柳世興, 孫萬雄, 李敏卿, 李周英, 李商英, 沈渠, 沈明翼, 李明珮, 李河, 鄭維經, 黃霽
친우 그룹	金千鎰, 李昌鎭, 金廈柱, 鄭必達, 宋光璧, 李達意, 李溟翼, 李希楸, 鄭弘鉉, 呂孝章, 柳楮, 李爾全, 朴定邦, 呂孝章, 都處亨, 朴惟棟, 田以魯, 宋穎
문인 그룹	南屋, 金南斗, 愼致中, 裴正徽, 金功成, 黃載大, 黃霖, 權愼

친인척 그룹에 포함된 裴幼章은 강여호와 재종질 사이가 되는 裴幼華의 사촌으로, 강여호가 진주목사로 부임할 때 詩를 보낸 바 있다.<sup>28)</sup> 친우 그룹 중 鄭必達은 강여호에게 다수의 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sup>29)</sup>

문인 그룹과 강여호의 관계성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기록이 쉽게 찾아지

28) 裴幼章, 『八斯遺稿』 권1, 詩, 「送姜啓叔之任晉州」.

29) 鄭必達, 『八松集』 권1, 詩, 「送姜啓叔 汝宋 出宰金陵」과 鄭必達, 『八松集』 권2에 는, 「九月姜都事啓叔以敬差官來遊仙遊洞. 永春倅徐漢柱亦會. 是日風日清佳. 盡歡而罷」, 「翌日啓叔乘船下龜潭. 昌樂督郵鄭一老 東望 來與同舟. 送至丹丘峽. 仍次黃錦溪韻」 등 다수의 시가 전한다. 이상의 인물 이외에 위에서 제시한 인물들과 강여호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輓詞를 보낸 것은 강여호, 그리고 이후 후손들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본고의 심사 과정에서 이밖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논문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지적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단, 필자의 능력 한계와 함께 더 이상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바란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

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찬술한 만사에서 스스로 지칭한 것이어서 이를 수용하였다. 문인 그룹 중 南屋는 본관이 영양으로, 15살의 나이에 素堂 權愷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고, 1669년 문과 급제 뒤 성균관의 학유, 박사 등을 두루 거친 뒤 숙종 초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언관직에 진출하였다. “時事大變”한 庚申換局을 계기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어 “대간을 외직에 보임”하면서 남후는 중화부사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향촌에 퇴거하였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남후는 다시 중앙에 나와서 승지직을 역임하였다.<sup>30)</sup> 서인들은 남후를 許陞 계열의 인물로 파악하였다.<sup>31)</sup> 裴正徽는 從大父인 裴尙龍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許穆에게 器重을 받았다. 배정휘는 문과 급제 후 출사하여 성균관 전적을 비롯해 무장현감을 비롯해 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였고, 경신환국 뒤 유배를 갔다가 기사환국 뒤에 다시 臺省에 나아갔다. 인현왕후 폐비 때에는 배정휘가 홀로 부당하다는 상소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는 않았으며,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자 경원부사로 나아갔다가 부인상으로 체직된 뒤 퇴거하였다.<sup>32)</sup>

### Ⅲ. 사환과 정치 활동

주지하듯이 효종 연간의 정치 주도 세력은 서인이었다. 효종은 즉위 이후 북벌을 표방, 호란으로 인해 형성된 사람들의 반청 감정을 흡수하며 동조 세력을 규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인 金集을 비롯해 宋時烈 등을 불러들였으나, 이들은 국왕과의 정국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낙향하였다. 효종은 이들 산당을 대신해서 金堉를 중심으로 한 漢黨 세력들과 연계를 추진하였고,

30) 남후에 대해서는, 南漢朝, 『損齋集』 권15, 행장, 「高祖考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府君行狀」을 참고하였다.

31)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6월 16일(계유).

32) 李萬運, 『默軒集』 권11, 行狀, 「右副承旨孤邨裴公行狀」.

이들 한당은 남인 계열의 許積, 閔應亨 등과 연대하였다. 효종과 한당 세력은 大同法 실시를 추진하여 安民益國을 모색하였다.<sup>33)</sup>

그런데 1654년(효종 5)부터 재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당이 중심이 된 정국 상황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하나의 예가 남인 洪宇遠이 조정에 제출한 상소로, 홍우원은 상소에서 중요하게 두 가지 사안을 제기하였다. 하나는 인조의 후궁 趙貴人이 생산한 崇善君 澂과 樂善君 瀟의 放免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배 중인 소현세자의 아들에 대한 방면을 요청하였다. 홍우원의 상소에 대한 논란은 그가 체직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그가 상소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후 李敬輿나 金弘郁 등이 논의를 제기하는 등 그 여파는 계속 이어졌다.<sup>34)</sup>

이런 상황에서 강여호는 1654년(효종 5) 10월 초1일에 치러진 식년시 문과에서 급제하였다. 과거 급제 뒤인 같은 해 12월 권지승문원부정자로 分館되었다.<sup>35)</sup> 권지로 사환을 시작한 강여호는 1656년(효종 7)에 南夢賚와 權格 등과 함께 庚申契를 결성하였다.<sup>36)</sup> 경신계는 동년에 태어나 같은 조정에서 사환하는[生同歲仕同朝] 인물들이 조직한 계로, 모두 23명이 참여하였다. 경신계에 참여 인물은 <표 5>와 같다.

<표 5> 1656년(효종 7) 庚申契 계원<sup>37)</sup>

성명	과거	본관	성명	과거	본관
安命老	庚寅增廣	순흥	郭世翼	辛卯司馬 甲午式年	현풍
李球	丙戌司馬 壬辰增廣	진의	權格	庚寅司馬 辛卯庭試	안동
李守恒	庚寅司馬 甲午式年	순천	李紆	戊子式年(武)	경주

33) 이근호, 「孝宗代 執權西人의 賦稅制度變通論 ; 政局의 推移와 關聯하여」, 『북악사론』 3, 1993 ; 정만조, 「17세기 중반 한당의 정치활동과 국정운영론」, 『한국문화』 23, 1999 참고.

34) 이근호, 「인조 말~숙종 초 洪宇遠의 정치 활동」, 『한국사학보』 67, 2017 참고.

35) 『承政院日記』 133책, 효종 5년 12월 11일(정묘)

36) 南夢賚, 『伊溪集』, 「伊溪先生年譜」.

37) 과거 기록은 위의 남몽뢰 연보에 수록된 자료와 함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具鎰	壬午司馬	능성	金世鼎	戊子(庚寅 <sup>38</sup> )司馬 丁酉式年	광산
李萬樞	己卯司馬 庚寅增廣	전의	南夢賚	壬午司馬 辛卯式年	영양
沈攸	壬午司馬 庚寅增廣	청송	李雲根	壬午司馬 庚寅增廣	전의
洪汝河	甲午司馬 同年式年	부계	李延年	丙戌司馬 庚寅增廣	한산
南宮鈺	丙戌司馬 壬辰增廣	함열	權大載	丙戌司馬 癸巳別試	안동
李英龜	己卯司馬 戊子式年	예안	姜汝床	甲午式年	진주
洪處靖	丙戌司馬	남양	任奎	戊子司馬	풍천
李慶億	甲午庭試	경주	金夏鉉	丙戌司馬 辛卯式年	경주
朱震楨	辛卯式年	진주			

경신계는 당색을 초월한 계회이다. 강여호를 비롯해 안명로, 이구, 홍여하, 광세익, 권대재, 이연년 등은 남인이며, 구일, 심유, 이경억, 이만웅, 홍제정, 권격, 김세정 등은 서인이다. 이밖에도 무인으로 구일, 이저가 포함되었고, 특이하게 함흥 출신의 주진정도 계원으로 포함되었다. 경신계의 祿憲序를 찬술한 남몽뢰는 계회에 대해 禮俗相交와吉凶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로 보아 경신계는 계원들의 일상적인 교류를 넘어 광범위한 지원과 지지를 위한 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계원들 상호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강여호는 1658년(효종 9) 2월 승문원부정자로 옮겨갔다.<sup>39)</sup> 기록상으로 보면 과거 급제 뒤 대략 4년 정도가 지난 뒤이며, 이후 강여호는 승정원 가주서<sup>40)</sup>를 역임하였다. 기록상으로 보면 강여호가 과거 급제 뒤 4년 정도가 지나 권지직을 벗고 실직으로 나아간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같이 관직 제수가 지연된 것은 강여호가 포함된 남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상황

38) 『庚寅增廣司馬榜目』(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재인용)에서는 경인(1650년) 증광 진사시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기한다.

39) 『承政院日記』 148책, 효종 9년 2월 4일(신미). 『(국역)기재선생문집』(2020년 간)에 수록된 「기재선생연보」에서도 관직 제수의 시작 기록이 1658년 2월 4일 승문원부정자 제수 기사이다.

40) 『承政院日記』 153책, 효종 9년 12월 8일(경오).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1656년(효종 6)을 전후로 점차 전반기 효종의 정국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즉 山黨系 신진인사인 閔鼎重·李慶徽·金壽恒·閔維重 등은 앞 시기 효종과 한당이 행한 정치를 비판하면서 산당계 인사의 등용과 安民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였다. 갈수록 자신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효종은 이에 대한 탈출구를 모색하며 종전 자신의 정치 스타일을 바꾸었다. 동시에 1657년(효종 8) 산당의 출사를 권유, 같은 해 8월 宋浚吉이 출사하였고, 송시열은 모친의 상중인 관계로 입조하지 못하고 장문의 丁酉封事를 제출하였다. 이후 송준길은 효종의 修己를 위해 『심경』을 강론토록 권유하는 한편 자파 세력인 李惟泰·俞燾·朴長遠과 남인인 沈大孚 등의 등용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얼마 후 귀향하였다.

이후 1659년 한당의 영수인 金堉이 병으로 관직에 물러나 있던 7월 송시열이 출사하였고 얼마 후에 송준길이 다시 입조하면서 이후 산당 세력이 정국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다.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산당은 종래 효종과 한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정치를 쇄신함과 동시에 집권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민에게는 이들의 집권에 따른 기대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지지기반인 사족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였다.<sup>41)</sup> 이렇게 서인계 산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강여호의 관직 진출은 한계가 있었다.

강여호는 현종이 즉위하면서 호조좌랑<sup>42)</sup>을 거쳐 예조좌랑<sup>43)</sup>에 제수되었다. 예조좌랑 재직 때인 1660년(현종 1) 1월에는 왕명으로, 李珥와 金長生·金集 등의 서원에 사액 치제를 위해 連山에 다녀왔다. 또한 華巷書院의 사액 치제를 위해 청주에 다녀왔고,<sup>44)</sup> 같은 3월에는 收議를 위해 懷德에 다녀왔다.<sup>45)</sup>

41) 효종대 정국 추이에 대해서는, 이근호, 앞의 논문, 1993을 참고하였다.

42) 『承政院日記』 159책, 현종 즉위년 12월 26일(임자).

43) 『承政院日記』 159책, 현종 즉위년 12월 27일(계축).

이 시기 송시열이 회덕에 있었고, 대왕대비의 복제 문제로 수의를 하기 위해 파견되었다.<sup>46)</sup>

이후 현종 연간에 강여호는 일시적으로 중앙직인 형조정랑<sup>47)</sup>, 병조정랑<sup>48)</sup>, 시간원 정언<sup>49)</sup>, 사헌부 장령<sup>50)</sup> 등을 지내기는 하였으나, 상당수의 시간을 지방관으로 보냈다.

〈표 6〉 현종 연간 강여호의 외관직 제수 양상

시기	지방직	비 고
1661년(현종 2) 6월	강진현감 <sup>51)</sup>	
1665년(현종 6) 12월	평안도사 <sup>52)</sup>	不赴, 1666년(현종 7) 1월 개차 <sup>53)</sup>
1666년(현종 7) 5월	충청도사 <sup>54)</sup>	不赴
1667년(현종 8) 7월	황주판관 <sup>55)</sup>	不赴, 1667년(현종 8) 8월 개차 <sup>56)</sup>
1668년(현종 9) 1월	진주목사 <sup>57)</sup>	
1672년(현종 13) 12월	영광군수 <sup>58)</sup>	

- 44) 宋象賢, 『泉谷集』 권2, 附錄, 「顯廟庚子賜額莘巷書院文 遣禮郎姜汝床諭祭 [尹鏞].
- 45) 『承政院日記』 161책, 현종 1년 3월 20일(을해) ; 『承政院日記』 161책, 현종 1년 3월 28일(계미).
- 46) 『承政院日記』 161책, 현종 1년 3월 20일(을해).
- 47) 『承政院日記』 193책, 현종 7년 3월 6일(병술).
- 48) 『承政院日記』 202책, 현종 8년 6월 22일(을미).
- 49) 『承政院日記』 203책, 현종 8년 8월 23일(을미) ; 『承政院日記』 205책, 현종 8년 11월 16일(병진)
- 50) 『顯宗實錄』 권19, 현종 12년 6월 13일(임진).
- 51) 『承政院日記』 168책, 현종 2년 6월 21일(무술).
- 52) 『承政院日記』 191책, 현종 6년 12월 26일(정축).
- 53) 『承政院日記』 192책, 현종 7년 1월 21일(임인).
- 54) 『承政院日記』 195책, 현종 7년 5월 13일(계사).
- 55) 『承政院日記』 203책, 현종 8년 7월 15일(정사).
- 56) 『承政院日記』 203책, 현종 8년 8월 3일(을해).
- 57) 『承政院日記』 206책, 현종 9년 1월 8일(정미).
- 58) 『承政院日記』 231책, 현종 13년 12월 22일(계해).

위 표에서 보듯이 강여호는 현종조에 강진현감을 시작으로 평안도사, 충청도사 등 지방직에 제수되었다. 강여호의 지방직 제수에 대해 묘갈명을 찬술한 李獻慶은 “조정에 선지 30년에 京官에 있었던 것은 몇 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忠愛之志”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sup>59)</sup> 이 같은 강여호의 외관직 제수에 대해서는 동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이는 李馥이 강진으로 부임하는 강여호에게 보낸 序에서 확인된다.

啓叔이 강진의 수령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를 중유하는 자가 술을 보냈다. 그 중 반이 기뻐하면서 그에게 말하는 이는 ①“啓叔이 아버지 늙고 집안이 매우 가난한데 지금 專城(乞郡)으로 봉양하니 계속을 위해 하례한다”라고 하였다. 엄숙하게 고하는 이는 ②“계속이 正郎을 경유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品秩에는 좌천되는 것이니 계속을 위해 위로한다”하였다. 일어나 말하는 이는 ③“강진 고을이 바닷가의 풍토로 영남과 같지 않으니 오직 휴식하는 것에도 삼가기를 바란다”하고 또 말하기를 ④“강진은 업무가 번거롭고 풍속이 좋지 않아 다스리기 어렵다고 일컬어 長吏가 법에 저촉된 이들이 전후에 마주 바라보고 있어 이것이 염려된다”라고 하였다. …(중략)… 내가 말하기를, ⑤“계속은 힘쓸 지어다. 지역이 내외가 없고 맡은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으니 오직 마땅히 나의 마음을 다할 따름이라. 계속이 고인의 책을 읽고 입신양명하였으니, 스스로를 기대함이 어떠하였겠는가?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어 나의 학문을 행할 수 있고 나의 재주를 펼칠 수 있으니, 평소에 스스로 기대하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니, 계속은 힘쓸지어다.”라고 하였다.<sup>60)</sup>

위의 표현에서 ①과 ⑤는 강진 현감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례하는 내용이다. 다만 그 이유는 다른데, ①은 乞郡을 위해 좋은 것이라 하례한 것이고, ⑤는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어 자신이 배운 것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②~④는 좌천으로 보고 위로하는 내용이다. 즉 강진

59) 李獻慶, 『艮翁集』 권15, 碑, 「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齋姜公墓碑銘」. 이 같은 점은 행장을 찬술한 李光庭도 같은 표현을 하였다(李光庭, 『訶隱集』 권15, 行狀, 「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知製教齋姜公行狀」).

60) 李馥, 『陽溪集』 권5, 序, 「送姜啓叔之任康津序」.

은 영남과 같지 않아 휴식도 쉽지 않고, 풍속도 좋지 않으며, 장리의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강여호의 강진현감 부임을 놓고 이렇게 일부 의견이 달리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하례하는 측에서도 결국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같이 강여호가 “경관에 수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외직을 전전하는 모습은 당대의 정치 현실 때문이었다.

주지하듯이 현종 초반 국상 때 왕대비의 복제 문제를 두고 예송이 발생하고, 표면적으로 서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복제 논쟁 과정에서 참여했던 윤선도가 유배를 가고, 허목이 삼척 부사로 나가게 된 것은 이런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 남인계는 앞서 문제가 되었던 홍우원을 지속해서 중앙 정치로 소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결국 현종에게도 홍우원은 정치적인 부담이었던지 성균관의 직강과 홍문관의 부수찬을 제수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외직인 공주목사로 내보냈으며, 1662년(현종 3) 5월 다시 의정부 사인에 제수하였다.

이후 남인계는 앞서 복제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며 서인을 견제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였다. 1663년(현종 4) 4월 홍우원은 홍문관 수찬에 있으면서 장문의 상소를 올린 것이 다시 조정에 파장을 일으켰다.<sup>61)</sup> 상소에서 홍우원은 현종이 건강을 이유로 경연에 나아가지 않고 환관이나 宦妾에게 둘러싸인 현실을 비판하면서 公卿이나 대간을 자주 접할 것을 권유하였다. 한편 앞서 1659년(현종 즉위년) 이른바 예송 때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를 가게 된 윤선도를 옹호하며 송시열을 비난하였다. 상소에서 홍우원은 윤선도가 지적한 중통과 적통의 설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송시열이 잘못된 예를 적용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조정 관원들이 송시열의 잘못된 예 적용을 문제 삼지 않고 덮어주기까지 했다고 하였다. 남인계 입장을 대변하는 『현종실록』에서는 이 상소를 가리켜 “그가 예를 논한 곳을 보건대 명백하고 꼭 알맞아 斷案이라고 할 만했으며 또한 곧은 기상이 늠름하여 범하지 못할 바가 있었으니,

61) 『顯宗實錄』 권6, 현종 4년 4월 19일(병진).

참으로 명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홍우원의 상소는 이의 연장에서 제출된 것이었다.

홍우원을 중심으로 남인계가 송시열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어 이후 정치를 주도하던 서인 세력의 공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무엇에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抗直함을 자임하는 사람”인 徐必遠<sup>62)</sup>을 비롯해 상당수 서인이 홍우원의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홍우원의 파직으로 일단락되었다. 1664년(현종 5) 홍우원을 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직 제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남인 측에서는 홍우원의 調用을 요청하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1667년(현종 8) 유생 黃樞이 상소하여 송준길과 송시열을 거론하며 “중외가 다 귀의”하였으나 실시하는 일이 여망에 부응하지 않고 논의가 맞지 않으며 色目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며 양인을 비난하였다. 아울러 황연은 남인 계열의 인물 趙綱이나 허목, 윤휴, 홍우원, 權讓 등이 세상에 버림받았음을 안타까워하였다.<sup>63)</sup>

효종~현종 연간 서인 주도의 정국에서 주로 외관직으로 나아갔던 강여호는 현종 말 2차 예송 뒤 남인 주도 정국이 조성되면서 비로소 弘文錄에 入錄되고, 都堂錄에까지 올랐다. 강여호는 1675년(숙종 1) 5월 부제학 홍우원이 주관하여 홍문록을 선발할 때 20여 인에 포함되었다. 당시 홍문록에는 金臚·趙昌期·李沃·吳挺昌·柳命賢·趙嗣基·姜汝床·朴純·朴信圭·俞夏益·金奂·金德遠·權堦·李壽慶·閔黯·尹致績·李沆·睦昌明·趙宗著·沈壽亮 등이 入錄되었다.<sup>64)</sup> 강여호가 홍문록에 入錄된 것은 과거 급제 후 20여 년이 경과한 뒤이었다.

1675년 5월 홍문록에 入錄된 20여 인에 대해서 윤5월 일부가 도당록으로 나아갔고, 강여호는 홍문록에 入錄된 지 2달여가 지난 7월에 비로소 도당록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어서 사간원 헌납에 제수되었다.<sup>65)</sup> 그러나 출사하지

62) 위와 같음.

63) 『顯宗改修實錄』 권16, 현종 8년 2월 29일(갑술).

64) 『肅宗實錄』 권3, 숙종 1년 5월 6일(갑자).

65) 『承政院日記』 248책, 숙종 1년 7월 5일(신묘).

않다가 8월 사간원 사간에 제수되어 출사하였지만, 앞서 영광군수 때 사복시 말이 수척해졌다는 이유로 감봉의 처벌을 받아 대간직에 있기가 어렵다며 체차를 청하고, 사간원에서 處置하여 체차되었다.<sup>66)</sup> 체차된 뒤에 부호군에 제수되었다가<sup>67)</sup> 약 20일 뒤에 성균관 사성에 제수되었다.<sup>68)</sup> 이어 사간원 사간과 홍문관 수찬 등을 거쳤으며, 1675년 11월 다시 사간원 사간에 제수되었으나, 吳挺昌이 사간원에서 논계할 때 참여하지 않고 피험한 것을 문제 삼아 파직되었다.<sup>69)</sup> 강여호는 파직된 뒤 김산으로 낙향하여 지내다가 부수찬에 제수되었으며,<sup>70)</sup> 이때 홍문관의 요청으로 국왕의 有旨를 받고 상경하였다. 이어 며칠 뒤 집의에 제수되었다.<sup>71)</sup>

이 시기 허적과 윤희가 인사권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강여호가 여기에 연루되었다. 당시 윤희가 이조판서에 재임하던 상태였는데, 許積이 臺望의 注擬를 문제 삼은 것이었다.<sup>72)</sup> 허적은 윤희가 이조판서에 재임하면서 대망을 하게 되는데, 이복이 자신, 즉 윤희를 推考할 것을 청하자, 대망에 의망하지 않은 반면에 강여호는 윤희를 추고할 것을 陳啓하는 데 교묘히 피하고 참여하지 않아 홍문관 수찬에 注擬하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허적은 윤희가 대망에 포함한 愼景尹은 世累 때문에 벼슬길이 막혔던 사람이고, 權權는 명망이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하여 大論이 일어나자, 앞뒤에 그 말을 변환하였으므로 대망에 의망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하였다.

66) 『承政院日記』 248책, 숙종 1년 8월 7일(임술) ; 『承政院日記』 248책, 숙종 1년 7월 8일(갑오).

67) 『承政院日記』 248책, 숙종 1년 8월 11일(병인)

68) 『承政院日記』 248책, 숙종 1년 9월 1일(병술).

69) 『承政院日記』 249책, 숙종 1년 11월 17일(신축).

70)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12월 3일(병진) ; 『承政院日記』 249책, 숙종 1년 12월 7일(경신).

71)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12월 11일(갑자).

72)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12월 13일(병인).

이에 대해 윤희는 이복을 의망하지 않은 것은 송시열을 따랐다는 비방이 있어 추고할 것을 청하기 때문이며, 강여호를 수찬에 의망한 것은 鄭昌後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계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망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신경운은 세루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고, 권기는 인척이지만 淳直함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허적은 윤희가 무인을 계속해서 수령에 제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고, 윤희는 결국 사직하기에 이르렀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때 사안이 표면적으로는 臺望의 注擬를 문제 삼은 것이었으나, 그 발단은 외척이 군문의 長을 맡는 문제였다. 앞서 숙종의 國舅인 金萬基를 총용사로 삼은 것에<sup>73)</sup>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었다. 윤희는 척리가 군사를 거느리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었고, 허적은 윤희의 의견이 타당하지만, 임금이 어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外戚도 군사를 거느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강여호는 교리에 제수되었으나, 마침 김산에 있어서 나아가지 않다가,<sup>74)</sup> 1676년(숙종 2) 3월 종성부사에 임명되었다.<sup>75)</sup> 강여호가 종성부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좌천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윤희와 관련된 것이었다. 앞서 윤희와 허적의 입장 차이를 소개하였는데, 여기에 강여호가 언급된다고 하여 강여호를 바로 윤희 계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윤희와 인연이 있어 주목된다. 강여호가 사성으로 성균관에 나아갔을 때 윤희와 종일토록 담론을 나누었다고 한다. 무슨 내용으로 토론하였는지 알 수가 없으나, 윤희가 토론을 마치고 나가면서 강여호를 “眞土君子”라 하며 하위직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아쉬워한 바 있다. 그런데 뒤에 “윤희를 의심하는 자들이 강여호와 윤희가 평소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배척하였고 결국 변지로 좌천시켰다는 것이다.<sup>76)</sup>

73) 『肅宗實錄』 권2, 숙종 1년 1월 18일(정축).

74) 『承政院日記』 252책, 숙종 2년 3월 16일(무술) ; 『承政院日記』 252책, 숙종 2년 3월 25일(정미).

75) 『承政院日記』 252책, 숙종 2년 3월 25일(정미).

강여호는 1676년(숙종 2) 5월 11일 하직을 하고 부임지로 나아갔다.<sup>77)</sup> 강여호가 종성부사로 나아갈 때 49명의 인원이 동대문 밖에서 餞別하였다.

〈표 7〉 종성부사 강여호 동대문 밖 餞別 題名牒 수록 명단<sup>78)</sup>

성명	직함	본관	성명	직함	본관
閔熙	이조판서	여흥	宋錫福	전 현감	은진
李宇鼎	병조판서	전주	朴安道	전 현감	반남
姜栢年	전 판서	진주	許宓	직장	양천
李沃	호조참의	연안	姜世龜	참봉	진주
李德周	공조참의	전주	姜錕	진사	진주
李溟翼	대사간	진성	宋蕃昌	진사	은진
權璿	이조정랑	안동	柳英立	직감	전주
睦昌明	호조좌랑	사천	徐來益	참봉	부여
南天漢	좌승지	영양	姜象先	예조좌랑	진주
丁昌燾	우부승지	압해	姜復先	전부	진주
金德遠	동부승지	원주	金振漢	전 현감	강릉
崔湜	판결사	강릉	權萬濟	전 좌랑	안동
柳命賢	홍문관응교	진주	鄭鎰	안동부사	115쪽
李夏鎭	전 참의	여주	權德徽	선산부사	안동
權大載	전 감사	안동	李萬封	영천군수	전의
鄭樸	공조참의	해주	任畿	합천군수	풍천
李馥	전 장령	성주	權德淵	죽림찰방	
安如石	전 장령	순흥	蔡蕃龜	사복판관	평강
李日升	정언	연안	韓柱相	수운판관	
朴信圭	병조좌랑	밀양	韓鼎相	사복주부	
李燦漢	좌통례	진성	權珪	승문정자	안동
金邦杰	정언	의성	李聃命	홍문수찬	광주
姜銑	승문정자	진주	朴身之	학유	함양
閔安道	수찬	여흥	白如圭		수원
宋仁植	전 도사	은진			

76) 李光庭, 『訥隱集』 권15, 行狀, 「通政大夫掌隸院判事知製教者齋姜公行狀」.

77) 『承政院日記』 254책, 숙종 2년 5월 11일(임진).

78) 『耆齋先生文集』, 「肅宗三年丙辰五月十一日赴鍾城時東大門外餞別會員題名牒」.

친족인 강백년이나 강현, 강선을 비롯해 후에 정승에 오른 이조판서 민희나 동부승지 김덕원을 비롯해 당대 내로라하는 남인계 명사들이 대거 전별 모임에 참석한 것이다. 이는 당대 정치권에서 차지하는 강여호의 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임지에 나아가서는 1677년(숙종 3) 6월 숙종의 求言에 대한 應旨上疏를 올렸다. 강여호가 올린 응지상소는 대개 3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머리에는 “덕을 닦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재변도 해소되고 하늘에도 응답하는 근본이 됨[修德勤學爲消災應天之本]”을 말하였다. 중간에는 “徭役이 번다하고 무거운 것과 죄수가 오래 적체되어 있는 것과 爵賞이 매우 외람한 것과 號牌는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徭役煩重, 罪囚久滯, 爵賞太濫, 號牌當行]”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六鎮 軍民의 피해를 말한 것[六鎮軍民之弊]”이었다.<sup>79)</sup> 특히, 6진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1678년(숙종 4)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음 해 5월에 장례원 판결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가 1680년(숙종 6) 2월에 나주목사로 나아갔다.<sup>80)</sup> 나주목사에 나갔지만 같은 해 4월 경신환국이 발생하면서 罷黜되었다.<sup>81)</sup>

#### IV. 맺음말

이상에서 강여호의 사환 및 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정리하였다. 후대인으로서 역사적 인물을 조망하고, 삶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 쉽지 않은 일이다. 다면적인 삶을 영위했던 역사적 인물을 누가 제대로 그렸다고 할 수 있을까? 단, 해당 인물에 대한 기록과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그나마도 여러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강여호의 경우는 앞서도 지적한

79) 『肅宗實錄』 권6, 숙종 3년 6월 20일(을축) ; 『기재선생문집』, 계사, 「상소문」.

80) 『承政院日記』 275책, 숙종 6년 2월 2일(임술).

81) 『承政院日記』 277책, 숙종 6년 6월 21일(무인).

바와 같이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기에 자료의 한계가 있으며, 전해지는 자료도 事實만을 전해주는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이런 한계를 전제로, 강여호의 사환과 정치 활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당시의 정국 흐름을 바탕으로 추적하였다. 이 글은 강여호 개인에 대한 검토를 넘어 당대 정치사의 한 단면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강여호가 속한 진주강씨는 회덕에서 김산으로 이거한 뒤, 강여구, 강여를의 소과 합격과 강여호의 문과 급제 등을 통해 家格을 높이면서 주변 지역의 주요 사족들과 학연, 姻緣을 맺었다. 그는 문과 급제 뒤 사환을 시작했으나, 효종대 중반 이후 현종대까지 서인 주도의 정국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신 지방의 수령직을 두루 경험하였다. 강여호는 현종 말년 남인이 주도하는 정국이 조성되고 숙종이 즉위한 뒤, 홍문록에 입록되면서 淸要職에 나아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1676년에 종성부사로 나아갔다. 일부에서는 이를 좌천이라 지적하기도 하였다. 다만, 강여호가 종성부사로 나아갈 때 동대문 밖 전별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강여호의 정치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겠다. 종성부사에 재임하면서는 국왕의 구언에 응하는 응지상소를 올려,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종성부사를 마치고 잠시 서울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주목사로 나갔으나, 경신환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파출되었다.

### 【참고문헌】

- 『宣祖實錄』, 『仁祖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姜汝床 著, 姜熙大 國譯, 『耆齋先生文集』  
『艮翁集』, 『鑑湖集』, 『記言』, 『訥隱集』, 『立齋集』, 『默軒集』, 『沙溪全書』, 『損齋集』,  
『陽溪集』, 『梧里集』, 『伊溪集』, 『定齋集』, 『竹窓集』, 『泉谷集』, 『泉谷集』, 『八斯遺稿』,  
『寒岡集』  
『金陵誌』, 『庚寅增廣司馬榜目』  
『晉陽姜氏世譜』(1898 刊,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00-95)
- 강완식, 『충청도 晉州姜門의 선비정신과 예술세계』, 한국족보편찬위원회, 2023  
김경호, 「복천 강학년의 생애와 학문」, 『유학연구』 20, 2009  
김성우, 「감호 여대로(鑑湖 呂大老)와 성산 여씨(星山呂氏) 기동파(耆洞派)의 종족(宗族)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김성우, 「성산 여씨(星山呂氏) 기동파(耆洞派)의 사회적 성장과 지배 종족(支配宗族)으로서의 생존 전략」, 『역사학보』 242, 2019  
김성우, 「조선시대 碧珍 李氏 金山派의 성장과 金山 士族社會에서의 위상」, 『대구사학』 126, 2017  
김학수, 「진주강씨 남외(南窩) 강설가(姜濼家)의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구축과 작동」, 『진주강씨 김천 찰방공파의 역사적 전개와 자동서원』, 2024년 한국서원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24  
이근호, 「孝宗代 執權西人の 賦稅制度變通論; 政局의 推移와 關聯하여」, 『북악사론』 3, 1993  
이근호, 「인조 말~숙종 초 洪宇遠의 정치 활동」, 『한국사학보』 67, 2017  
이해준, 「남송복강으로 알려진 진주강씨」, 『대전문화』 16, 2007  
차미희, 『朝鮮時代 文科制度研究』, 국학자료원, 199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Abstract

## GiJae KangYeoHo's human network and political activism

Lee, Geun-ho\*

This article summarizes KangYeoHo's official life and political activities. In the case of KangYeoHo, there are limited sources for reconstructing his life, and the sourc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are mostly factual accounts. With these limitations in mind, this article examines KangYeoHo's official life and political activities, especially tracing them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This article is not only an examination of KangYeoHo as an individual, but also a way to examine the flow of political history at the time.

The Jinjungang clan, to which KangYeoHo belonged, moved from Hoeduk to Kimsan, and through gates and favors, KangYeoHo raised the status of his family and became connected by education and marriage to the leading families in the surrounding area. KangYeoHo began his civil service career after passing Mungwa, but his political growth was limited in the Seoin-led regime of the HyoJong to HyunJong dynasties. Instead, he served in various local positions. After the Namin-led regime was established at the end of HyunJong's reign and SookJong was enthroned, KangYeoHo was selected for Hongmunok and went to Cheongyojik, but it was short-lived, and in 1676 he went to JongseongBusa. During his tenure at JongseongBusa, he raised Sangso

---

\* Assistant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kh1117@paran.com

in response to the king's request and worked to resolve local issues by presenting them in detail. After JongseongBusa, he returned to Seoul for a while, then went out again to NajuMoksa, but ended up in the vortex of GyeongSinHwanGuk.

Key word : KangYeoHo, GiJaeseonsaengmunjip, Hoeduk, Kimsan, JongseongBusa

논문 투고일: 2024. 05. 15 심사 완료일: 2024. 06. 11 게재 확정일: 2024. 06. 11

# 강석구(姜碩龜, 1726~1810)의 학문과 관직 생활

김 정 운\*

- I. 머리말
- II. 훈인과 학문 기반
- III. 탕평 정국과 관직 진출
- IV. 정치 활동과 현실 인식
- V. 맺음말

## 【국문초록】

강석구는 18세기 후반, 영남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학자이면서 관료이다. 강석구의 일상은 일반적인 영남 지식인들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강석구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영조에서 정조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영남에서 성장하여 관직에 나아간 이들은 여러 문제에 봉착하였다. 출신 지역과 계통에 따라서 과거 합격부터 관직 생활까지 성취와 좌절이 급격하게 교차하였다. 이 시기를 살아갔던 강석구는 어떠한가.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 사대부의 입장이다. 강석구는 영남 사람으로 조덕린과 황익재에 대한 신원을 둘러싼 문제는 간과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안녕과 벼슬을 의식하지 않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학자 관료의 입장이다. 그의 응지 상소는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강석구는 당시의 사회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70대 후반까지 현실의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고안하는 합리적인 지식인이었다.

\* 경북대학교 연구교수, jeongun@knu.ac.kr

강석구가 이런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영남 지역의 기반과 함께 충청과 경기 일대에 영향력을 가진 진주강씨 일족들과 교류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강석구(姜碩龜), 자동서원(紫東書院), 김천, 진주강씨(晉州姜氏), 강세황(姜世晃)

## I. 머리말

강석구는 18세기 후반, 영남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학자이면서 관료이다. 강석구의 일상은 일반적인 영남 지식인의 한 사람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동성 친족들과의 연대 속에서 혼인으로 기반을 확대하였다. 여기에 국가의 제도와 정치문화의 분위기도 강석구와 같은 사대부의 일상에 크게 작용하였다. 강석구의 삶에는 18세기 후반, 영남지역 사대부의 학문과 현실 인식이 담겨있다.

18세기 후반 영조의 시대는 국가 운영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다양한 정치 세력의 갈등을 중재하고, 국가 운영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사정에 있었다.<sup>1)</sup> 영조는 즉위한 직후에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이 문제에 영남지역 사대부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았다. 어떻게 이들을 통합할 것인가. 영조에게는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고 영남의 사대부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했다.

강석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성장한 지역은 지금의 경상도 김천 지역이다.

1) 정만조, 「영조대(英祖代) 초반의 탕평책과(蕩平策) 탕평파의(蕩平派) 활동-탕평기반의(蕩平基盤) 성립에 이르기까지-」, 『진단학보』 56, 1983 ; 정호훈, 「전통시대 한국 정치사 속의 소통과 화해-영조대 蕩平政治의 지향과 방법-」, 『중앙사론』 31, 2010 ; 이근호, 「영조대(英祖代) 무신란(戊申亂)이후 경상감사(慶尙監司)의 수습책(收拾策)」, 『영남학』 17, 2010.

김천은 위로 충청도와 닿아 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충청 남부권에 거주하던 사대부들과 혼인과 학문으로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강석구 집안이 김천으로 이주하는 데에 작동하였고, 강석구가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아가는 데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sup>2)</sup>

강석구가 활동하는 데에 작용한 기반은 두 계통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진주 강씨의 혈연 기반이다. 다른 하나는 혼인으로 얻은 지역의 기반이다. 강석구의 선조가 김천에 정착한 것은 고조부 강설(姜濬, 1583~1651)이었다. 그 이전에는 충청도에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강설이 김천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 자손들은 충청도의 진주 강씨 동종 친족들과 유대를 유지하였다. 강석구가 활동하였던 시기에 영향을 주었던 이들은 증조부 강여호, 그리고 강세황과 강흔 부자, 강침이 있었다.

한편으로 강석구 집안은 김천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사대부들과 학문과 혼인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갔다. 강석구는 17세에 광주이씨 이계중(李啓中, 1700~1768)의 딸과 혼인하였다. 강석구는 혼인을 한 후에 처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강석구는 처부 이계중이 자신이 성장하는 데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혈연과 혼인을 통해 맺어진 기반은 강석구가 영조 대에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아가는 데에 작동하였고, 정조 대에 관직을 이어가는 데에도 작동하였다.

강석구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영조에서 정조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영남에서 성장해서 관직에 나아간 이들은 여러 문제에 봉착하였다. 출신 지역과 정치적 계통에 따라 과거 합격부터 관직 생활까지 성취와 좌절이 급격하게 교차하였다. 강석구는 어떠하였을까. 사대부가 성장하고, 활동하는 데에 배경으로 작동한 요소들과 이를 토대로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고민해 갔던 지식인의 모습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2) 김성우, 「감호(鑑湖) 여대로(呂大老)와 성산여씨 기동파의 종족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 김성우, 「성산여씨(星山呂氏) 기동파(耆洞派)의 사회적 성장과 지배 종족(支配宗族)으로서의 생존 전략」, 『역사학보』 242, 2019.

## II. 혼인과 학문 기반

강석구는 본관은 진주, 자는 낙서(洛瑞), 호는 학암(鶴巖)이다. 1726년(영조 2) 6월 24일 경상도 김산에서 출생하였다. 이곳은 현재 경상북도 김천이다. 강석구의 선조가 김천에 정착한 것은 고조 강설(姜濼, 1583~1651) 때이다. 강설은 충청도 회덕 출신으로 여대로(呂大老, 1552~1619)의 딸과 혼인한 후에 김천에 정착하였다.<sup>3)</sup> 강설은 처가를 기반으로 영남의 주요한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대표적인 사람은 정구(鄭述, 1543~1620)이다.

강설은 부모의 삼년상을 마치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영남에 정착하였다. 이때부터 지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진주 강씨가 자리하게 되었다. 이어서 강설의 셋째 아들이자 강석구의 증조 강여호(姜汝床, 1620~1682)가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기반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 기반은 강석구를 비롯한 자손들에게 승계되었다.

동종의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유대는 강석구가 학문과 관직 생활을 하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강세황(姜世晁, 1713~1791)·강흔(姜侁, 1739~1775) 부자와 강석구의 관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강석구는 1768년 43세 나이로 문과에 합격하기까지 서울을 왕래하며 공부하였다. 1775년 강흔이 사망하였을 때, 강석구가 지은 제문에서 이들의 관계를 볼 수 있다.

나의 용렬함으로 그대의 보살핌을 입은 것이 특별하였습니다. 유생의 갓을 쓴 지 10년 세월에 나의 어리석음을 열어주었고, 나의 방황을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 글을 지어 읽기를 권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행장을 화려하게 꾸며주었습니다 ... 가난한 살림에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조섭하기가 어려울 때, 봉급을 나누어주어 탕제를 끓이는데 보태게 하였습니다. 종족에게 돈독하게 하고, 가난한 이를 구휼하였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sup>4)</sup>

3) 김성우, 2018 ; 김성우, 2019.

4) 姜碩龜, 『鶴巖遺稿』 卷2, 祭姜承旨宗丈全美氏文.

강석구와 강흔은 열 다섯 살 가량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강석구는 강흔을 깊이 의지하였다. 제문에서 보면, 강흔은 강석구가 병든 아들을 보살피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자, 흔쾌히 살림을 털어 도움을 주었다. 깊은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흔은 1763년 25세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여전히 과거 공부를 하던 강석구에게 강흔은 더욱 의지가 되었을 것이다. 강흔은 문과에 급제한 후에 봉교·대교·병조좌랑 등을 거치며 관직 생활을 하였다. 그런 가운데 1768년 43세의 강석구가 드디어 문과에 합격하였다. 강흔은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다.

우리 중종의 낙서씨(洛西氏, 姜碩龜)는 영남의 아름다운 선비이다. 젊어서 과거를 위해 시문에 공력을 쏟았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거업(學業)을 버리고 명경(明經)에 전념한지 10년만인 올 봄에 문과에 올랐으니, 이는 기재(耆齋, 姜汝床)선생의 서업을 이은 것이다.<sup>5)</sup>

이에 따르면, 강석구는 젊어서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하자, 약 10년 동안 경학(經學)을 공부하였다. 드디어 과거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조정에서 영남의 사대부가 관직에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강석구는 합격을 한 때부터 국왕 영조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관직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다.<sup>6)</sup> 게다가 서울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처지였고, 강석구는 귀향을 결심하였다. 강석구를 보내는 강흔의 글은 걱정과 격려가 담겨 있다.<sup>7)</sup>

강석구가 고향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 강흔은 1769년 부안현감으로 부임하였다. 1770년 강흔은 부친 강세황(姜世晃)와 함께 부안에 있었고, 강석구는 그곳으로 가서 강세황 부자와 만났다. 이들의 관계는 『학암유고(鶴巖遺稿)』의 시첩에서 볼 수 있다. 시첩에는 강석구와 강세황의 시 6편이 수록되어 있다.

5) 姜碩龜, 『鶴巖遺稿』 卷2, 附錄, 送洛西歸金陵

6) 『승정원일기』 영조 44년(1768) 3월 18일.

7) 姜碩龜, 『鶴巖遺稿』 卷2, 附錄, 送洛西歸金陵

한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 곳 사는 나그네 땅의 끝까지 찾아드니  
 친척끼리 기꺼운 모임에 가을을 잊게 하네  
 세상사에 찌든 마음이야 후선각(候仙閣)에서 이미 씻어버렸고  
 시를 짓기야 망월루(望月樓)만한 곳이 없다네  
 운연(雲煙)을 마주하고 앉았다가 함께 잠을 자고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만날 때면 함께 그곳에 머물렀지  
 강호에 방랑하는 나를 사람들이 비웃는 까닭은  
 나라를 위한 사업을 이루지 못한 때문이겠지<sup>8)</sup> (강석구 차운)

글을 논하고 또 천추의 사업에 힘쓰니  
 술에 취함이 어찌 열흘의 놀이에 방해가 되겠는가?  
 이제부터 즐거운 유람은 구학(丘壑)에 가득할지니  
 작은 수레와 지팡이 하나로 그대를 위해 애써보리라<sup>9)</sup> (강세황 차운)

가을날 이었다. 강석구는 막 과거에 합격하였고, 관직에 나아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쉽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 과거에 합격하기 이전보다 더 큰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근심은 깊었지만, 친척끼리 모여 앉아 세상을 이야기하니 위로가 되었다. 강세황은 자신이 비록 미약하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화답하였다. 강석구는 따뜻한 응원을 얻고 귀가 하였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강호는 생을 마감하였다. 젊고 재능있는 아들을 잃은 강세황은 물론이고 강석구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강석구는 든든한 동반자를 잃었지만, 강세황과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777년 새 국왕이 즉위하면서 강석구는 예조 좌랑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오래 머물러 있기는 역시 쉽지 않았고, 다시 낙향하였다. 어느덧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고 10여 년이 흘렀다. 1786년 강석구에게 기성량의 관직이 내려졌고, 겨

8) 姜碩龜, 『鶴巖遺稿』 卷1, 鶴巖與豹巖共和 '姜碩龜次韻'

9) 姜碩龜, 『鶴巖遺稿』 卷1, 鶴巖與豹巖共和 '姜世晃次韻.'

올에는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그러나 강석구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 1788년 사헌부 지평을 제수 받았다. 이시기에 변화가 있다면, 체제공이 우의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 관직에 있다가, 격화되는 정쟁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때 강세황은 강석구에게 인사의 말을 전하였다.

영남은 본디 경서를 궁구하고 행실이 맑은 선비가 많은 곳으로 일컬어졌으니, 학암(鶴巖, 姜碩龜)은 고향으로 돌아가 나의 말로써 사람들에게 질정하기를 바라네. 학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이가 있다면 또한 마땅히 내 말도 이해할 것이다.<sup>10)</sup>

강세황 부자는 변함없이 지지와 격려를 해 주었다. 강석구는 복잡한 정계에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금강산을 유람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강침(姜忱, 1732~1808)이 보내온 글에서 당시의 정황을 볼 수 있다. 강침은 강학년(姜鶴年)의 5세 종손이고, 충청도 회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우리 종중에 곧은 절개와 맑은 명예를 지닌 인물이 많으니, 나의 선조인 추월헌(秋月軒, 姜籤)·복천(復泉, 姜鶴年)·삼당재(三當齋, 姜侗) 및 방조인 설봉(雪峯, 姜栢年)·자각(紫閣, 姜銑)·백각(白閣, 姜銳)·기재공(耆齋公, 姜汝床) 또한 모두 직도를 행하였다. 낙서씨는 곧 기재공의 후손이다. 그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고 가성(家聲)을 실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낙서씨를 두고 말하는 것이리라. 낙서씨의 이름이 이로 인하여 서울과 영남 사이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으니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sup>11)</sup>

강침은 강침, 강학년, 강흔, 강백년, 강선, 강현, 강여호를 말하면서, 강석구를 언급하였다. 강석구는 집안의 품격을 높인 사람으로 서울과 영남에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집안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어지는

10) 姜碩龜, 『鶴巖遺稿』 卷2, 附錄 送正言宗侍歸嶺南序.

11) 姜碩龜, 『鶴巖遺稿』 卷2, 附錄 送洛西氏族兄東遊楓嶽小序.

진주 강씨와의 유대는 강석구가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아가는 데에 자산이 되었다.

이와 함께 강석구는 혼인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다. 강석구는 광주 이씨와 혼인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반이 크게 확장되었다. 강석구는 1742년 17세에 부친상을 당하였고, 상을 마치고 1745년 20세에 광주 이씨 이계중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이듬해 1746년에는 모친상을 당하였다. 이제 강석구에게 남은 것은 처부 이계중이었다.

강석구는 이계중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였다. 이계중은 경상도 칠곡에 기반을 가졌고,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자는 자개(子開), 호는 만취당(晩翠堂)이다. 이원록(李元祿)의 주손이며, 아버지는 이세용(李世瑢)이고, 어머니는 남원 윤씨이다. 이계중은 이윤우의 셋째 아들 이도장(李道長, 1603~1644)의 후손으로, 이주명의 장손이었다. 강석구의 처가는 이윤우(李潤雨)에서 이도장(道長), 이원록(元祿), 이주명(周命)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문과에 합격하고 관직에 진출한 집안이었다. 게다가 경제적 기반 또한 탁월하였다.<sup>12)</sup> 강석구가 장인 이계중에게 올린 제문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소자가 사위가 된지 지금이 23년입니다. (중략) 이제 생각하니 을축년 여름에 소자가 처음 사위가 되어 공이 나를 어리석다고 버리지 않고 손수 주역 한권과 중용 일부를 모아 나에게 주면서 쓰고 읽게 하시니 소자가 명을 받고 매일 일을 쓰고 읽어서 매일 아침에 배송하여 공부의 과정을 만들었더니 논어와 중용 대학에 이르기까지 구두의 청탁을 귀로 듣게 하고 얼굴로 말씀하시니 그 은혜와 의리가 겹쳐서 극진하시니 다른 이들의 장인과 사위와는 다를 뿐 아니라 (중략) 소자가 이미 일찍이 부모를 잃어 이미 가정의 가르침이 적었고 어린 나이에 공에게 왕래하면서 상란과 우환에 받은 은혜가 적지 않으니 소자가 비록 용렬하나 또한 은혜를 받은 것에 감격할 줄 알지만 공이 또한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기쁨이 있어도 누구와 함께 기뻐하며 일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의논하겠습니까.(후략)<sup>13)</sup>

12)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강석구가 이계중에게 올린 제문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강석구는 혼인을 한 이후부터 이계중에게 나아가 학문의 기반을 잡았다. 이 관계는 제문에서 잘 드러난다. 이계중은 처음 혼인한 때부터 『주역』과 『중용』을 읽기 좋게 정리해서 강석구에 주었다. 매일 아침 읽고 외우고 쓰기를 반복하도록 지도 하였다. 그리고 『논어』와 『중용』, 『대학』까지 반복해서 지도하였다. 이른 나이에 부모를 잃은 강석구의 입장에서는 따뜻한 아버지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록 강석구는 아내 이씨와 2년 남짓 생활하고 아내는 사망하였다. 강석구는 박현의 딸과 재혼하였지만, 이계중과 강석구의 관계는 지속되었다. 강석구가 과거에 합격하던 해에 이계중은 세상을 떠났다.

광주 이씨와 혼인하면서 확대된 관계는 강석구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만운, 이동항·이동급 형제는 강석구가 관직에서 물러나 지역에서 생활할 때 가까이 교류하였던 인물들이다. 이들과 관계는 이만운의 만사에서 볼 수 있다.

이번에 이 액운은 고관들이 두려워하니  
 이 노인을 어찌하여 남겨두지 않는고  
 이목이 총명한 이가 여든의 나이에 이르렀고  
 탄핵하는 골은 이가 밝은 시대 만났다네  
 마음은 아교와 옷 같아 어울리기 어려운데  
 종적은 공공과 거히처럼 걸핏하면 따라다녔네  
 이별은 잠깐이니 어찌 한스럽겠나  
 분명 구천에서 다시 서로 만나리라.<sup>14)</sup>

이만운(李萬運, 1736~1820)은 1777년 봄에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고, 4월에 대과(大科)에 합격하여 승문원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경신옥사(庚申獄事)에 관련된 이원정(李元禎)의 후손이며, 이담명(李聃命)의 족손이라는 이유로

13) 姜碩龜, 『鶴巖遺稿』卷2, 祭聘文李公晚醉堂啓中 外舅.

14) 『默軒先生文集』 권1, 詩, 輓姜右尹碩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런 이만운의 사정은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강석구의 처지에서 볼 때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만운 역시 과거에 합격하였지만, 관직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였던 자신과 강석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 이동급(李東汲, 1738~1811)은 이만운의 족속으로 이동항(1736~1804)의 아우이다.<sup>15)</sup> 그 역시 강석구에게 만사를 남겼다.

강석구의 학문과 관직 생활에 작동한 두 기반은 진주 강씨의 혈연과 혼인한 광주 이씨와 관련있는 영남 지역의 기반이었다. 강훈, 강세황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활동에 도움을 나누었다. 다른 하나는 광주 이씨와 혼인으로 확대된 지역의 기반이었다. 이만운, 이동항, 이동급 등의 인사들이 중심 인물들이었다.

### Ⅲ. 탕평 정국과 관직 진출

1767년 1월 22일 국왕 영조는 집경당에서 유생들에 전강을 시행하였다.<sup>16)</sup> 시관(試官)은 심욱지(沈勗之), 홍중효(洪重孝), 윤동섭(尹東澮), 참시관參試官은 유수(柳脩)·정상인(鄭象仁)·서유린(徐有隣)이었고, 우승지 윤동승(尹東昇), 가

15) 『晩覺齋先生文集』, 권1, 詩, 挽姜右尹碩龜.

16) 『승정원일기』 영조 43년(1767) 1월 22일 ○ 丁亥正月二十二日辰時, 上御集慶堂, 到記儒生殿講入侍時, 命官徐志修, 試官洪重孝·尹東澮, 參試官趙重晦·鄭象仁·徐有隣, 右承旨尹東昇, 假注書鄭汝仁·崔鈺, 記事官李思祚·洪相簡, 以次進伏訖. 上曰, 試官李瀾, 與命官, 有當避之嫌云, 許遞, 其代趙榮順爲之, 卽令入侍. 出傳教 命儒生進講詩傳, 命官徐志修曰, 試官趙重晦, 自閣外, 已有胸痛之漸, 而今登筵席, 病勢益加云, 趙榮順, 方以情勢, 不得入來云矣. 命書傳教, 傳曰, 試官趙榮順許遞, 代前承旨沈勗之, 趙重晦, 代柳脩爲之. 出傳教 儒生宋景煥·具文行·金履權·盧廷良·方宗學·姜錫龜, 於詩傳純通, 更命書傳比較, 方宗學·金履權·盧廷良, 於書傳純通, 更命周易比較, 金履權·方宗學, 於周易純通後, 命書傳教. 傳曰, 到記儒生居首金履權·方宗學, 直赴殿試, 之次姜錫龜·盧廷良·宋景煥·具文行, 直赴會試.

주서 정호인(鄭好仁)·최옥(崔鈺), 기사관 이사조(李思祚)·홍상간(洪相簡)이 참석하였다. 여기서 『시전(詩傳)』, 『서전(書傳)』, 『주역(周易)』을 차례로 강하게 하였다. 모두 통과한 김이권(金履權)과 방종거(方宗擧)는 직부전시(直赴殿試), 하나 혹은 둘을 통과하면 직부회시(直赴會試) 하였다. 여기서 강석구는 『시전』을 통과하고 직부회시의 기회를 얻었다.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노정량(盧廷良)·송경환(宋景煥)·구문행(具文行)이었다.

그리고 1768년 강석구는 43세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성적은 을과 5등으로 매우 우수하였다. 1768년 3월 15일 합격 교지를 받았고, 3월 18일 거주서에 임명되어 국왕 영조를 대면하였다. 이날 영조는 집경당(集慶堂)에서 한림소시(翰林召試)를 진행하였다. 영증추부사 한익모(韓翼謩), 지춘추(知春秋) 이경호(李景祐), 동지춘추관사 민백흥(閔百興), 대독관 홍경인(洪景顔)과 이영중(李永中), 우부승지 어석정(魚錫定), 거주서 강석구(姜碩龜), 기사관 남주로(南柱老)와 홍주만(洪周萬)이 참석하였다.

영조는 승지에게 분관기(分館記)와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읽게 하였다. 부승지 어석정이 읽어 내려가는데, 강석구(姜碩龜)의 이름을 말하자 영조는 멈추게 하고 그가 누구인지 질문하였다. 그러자 같은 자리에 있던 남주로가 ‘영남 김산(金山) 사람으로 고 참의 강여호(姜汝床)의 증손이고, 전 한림 강흔(姜儼)과는 동종(同宗)으로 멀지 않은 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영조는 그렇다면 명가(名家)의 사람으로서 응당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였다.<sup>17)</sup> 영조가 강석구에 주목한 것은 같은 자리에 있던 정겸제(鄭兼濟)와 비교하면 두드러지는 점이 있다. 역시 영조는 정겸제가 누구인지 물었고, 이 때에도 남주로가 상주(尙州) 사람이라고 설명하자 영남 사람인데 한림의 권점에 들지 못하였

17) 『승정원일기』 영조 44년(1768) 3월 18일 戊子三月十八日酉時, 上御集慶堂. 翰林召試入侍時, 領監事韓翼謩, 知春秋李景祐, 同春秋閔百興, 對讀官洪景顔·李永中, 右副承旨魚錫定, 假注書姜碩龜, 記事官南柱老·洪周萬進伏訖. 上命承旨, 讀分館記及翰圈. 錫定讀至姜碩龜, 上曰, 誰也? 柱老曰, 嶺南金山人, 故參議姜汝床曾孫, 前翰林姜儼同宗不遠聞云矣. 上曰, 然則名家之人, 應入之人矣. 上曰, 鄭兼濟誰也? 柱老曰, 尙州人矣. 上曰, 以嶺南人, 不參翰圈, 其不表表, 可知矣.

으니 두드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강석구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증조 강여호와 강흔 등 영조 시대 활동하였던 친족을 배경으로 한림 권점에 들게 되었다.

예문관 검열은 고위 관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리였고, 그 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용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영조는 한림을 선발할 때 자신이 직접 면접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것이 소시였다. 소시는 1741년(영조 17) 과거 합격생을 대상으로 예문관 검열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다. 먼저 전현직 한림이 모여 후보자의 이름에 권점을 하고 차점자까지 확인하면, 영사와 감사 및 각관의 당상을 모아두고 다시 권점하게 한 후에 여기서 뽑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조 자신이 직접 선발하였다. 이 방식은 174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방식으로 출사한 사람 가운데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있었다. 채제공이 오필운(吳弼運, 1692~1744)의 사위가 되면서 남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sup>18)</sup>, 1743년 왕세자의 가례를 기념해서 시행한 정사에서 급제하였다. 채제공과 함께 급제한 이들은 영남 출신으로 전광제(全光濟)와 고유(高裕), 복인계의 정항령(鄭恒齡), 해주의 현광우(玄光宇) 등이었다. 이에 송인명(宋寅明)은 해당 정시의 방(榜)은 극히 괴이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19)</sup> 그러나 이 시기에 영남 인물들과 남인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채제공이 과거에 합격한 후에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아간 것은 1748년이였다. 영조와 탕평파의 배려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20)</sup> 채제공 역시 1741년에 제정된 소시로 관직에 나아갔기 때문이었다. 1741년 이전까지 한림은 자천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당쟁의 소굴이라고 인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조는 1741년 '한천이혁절목(翰薦釐革節目)'을 제정하였다. 한림이 권점법으로 바뀌게 되었다.<sup>21)</sup>

18) 이근호, 「영조대 채제공의 정치 활동과 대응논리」, 『포은학연구』 29, 2022.

19) 『승정원일기』 영조 17년(1741) 10월 1일.

20) 이근호, 2022.

한림 권점법으로 개편되면서 사관 제수 인원이 증가하였고, 자천제 시기보다 정원을 충원하는 것이 쉬워졌다. 한림 권점은 한림이 권점한 뒤에 관각(館閣) 회권(會圈)이 이루어지고, 이어 소시(召試)를 진행하였다. 이런 제도에 따라 채제공도 권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조가 도당록(都堂錄)을 작성할 때 그에게 2점을 특별히 추가하면서 채제공은 한림 소시에서 장원으로 검열에 제수되었다.

영조가 채제공에게 2점을 가한 것은 "널리 취한다(廣取)"는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 영조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한림 소시에서 채제공이 장원을 하자 영조는 "이 사람의 가용(加用)에서 가히 나의 고심을 볼 수 있다(此人之加用, 可見予苦心)"라고 하였다. 결국, 채제공의 한림 권점과 소시, 그리고 검열 임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영조와 탕평파들이 탕평의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1768년 강석구는 채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국왕을 대면하였다.

그사이에 채제공은 남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1764년 5월 채제공은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는데, 영조는 앞서 1764년 2월에 사도세자의 위호를 회복하는 갑신처분을 내렸다.<sup>21)</sup> 채제공은 영조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정계에 복귀하였다. 강석구가 과거에 합격하였던 1768년 즈음은 남인에게 기회의 시대였다. 강석구가 대과에 합격하고, 국왕을 대면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이런 배경에서 강석구는 한림의 권점에 들었다. 강석구는 과거에 합격한 직후에 소시에 응시한 것을 보면 실력은 이미 검증 받았다. 게다가 영조가 직접 강석구에게 영남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의 내력을 물어 보면서 한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언급하였다.

그러나 강석구는 관직에 안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68년 3월부

21) 김가영, 「영조대 사관 자천제의 폐지와 권점제 시행」,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2) 『영조실록』 영조 40년(1764) 2월 20일.

터 거주서로 있다가 같은 해 1768년 11월 24일 거주서에서 물러났다.<sup>23)</sup> 사정은 아마 남인에 대한 견제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석구는 1769년 3월 28일 성균관 전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아가지 않았다. 다시 1775년 11월에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었다.<sup>24)</sup> 이 시기에도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낙향하였다. 강석구는 영조 연간에 과거에 합격한 이후에 국왕의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정국에서 관직에 머물러 있지 못하였다.

강석구가 관직에 나아간 것은 영조 말기였다. 이시기 남인은 체제공을 중심으로 남인의 학문적인 계통을 정리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갔다. 이런 사정에서 강석구는 강세황과 강흔 부자 등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진주 강씨들을 배경으로 하고, 증조 강여호의 영향으로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처음부터 한림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에 낙점되었고, 10개월 가량 거주서로 국왕과 대신들이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다. 강석구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고, 이어서 2년 후에는 6품으로 승차되는 등 파격적인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극심한 정쟁 속에서 관직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다. 강석구의 관직 진출의 과정은 영조 말기에 체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남인이 정치적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노력은 정조의 즉위와 함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 IV. 정치 활동과 현실 인식

1777년(정조 1) 새 국왕 정조가 즉위하고 곧바로 강석구는 예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아가지 않았다. 강석구는 벼슬에 뜻을 버리고 이만운, 이동항, 이동급 등과 함께 강론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강석구가 관직에 다시

23) 『승정원일기』 영조 44년(1768) 11월 24일 假注書姜碩龜汰去, 代以韓鼎運爲假注書.

24) 姜碩龜, 『鶴巖遺稿』 권1.

나아가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때였다. 이때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고, 가을에 기성랑에 제수되었다가, 겨울에는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그러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강석구는 1788년 다시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이즈음 조정에서는 무신란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사면이 논의되고 있었다. 1788년 11월 경상도 유학(幼學) 이진동(李鎭東) 등이 상언(上言)해서 무신란 때 안동(安東) 등 열 세 고을에서 창의한 사적을 정리해서 올렸다.<sup>25)</sup> 이것을 계기로 정조는 우의정 채제공에게 이 일로 인해서 아직도 전체 영남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조 대에 권상일(權相一)을 특별히 부제학으로 제수하신 것은 인재를 수습하려는 뜻에서 나온 조치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영남 사대부를 기용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에 채제공은 영남 사람들이 올린 사적은 단지 당시의 사실을 알려주기 바라는 뜻에서 올린 것이지 관직을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좌의정 이성원은 영남 인사에 대한 신원과 적극적인 발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성원은 영남에서 올린 『창의록(倡義錄)』에 수록된 인물의 간략한 정보를 정리해서 책으로 간행하자고 하였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덕린(趙德鄰, 1658~1737)과 황익재(黃翼再, 1682~1747)에 대한 사면을 확인하고, 더불어 영남 사대부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1789년 5월 강석구는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이 즈음 조정에서는 조덕린과 황익재의 신원과 영남지역 인물들의 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조덕린과 황익재에 대한 신원을 논의하는 가운데 조덕린의 손자 조진도(趙進道, 1724~1788)의 대과 합격 취소 처분에 대해서 복과 시키라는 논의가 있었다.<sup>26)</sup> 이 전교를 향교에 봉안하려는데 안동부사 신익빈이 향교에 ‘전교를

25) 『정조실록』 정조 12년(1788) 11월 8일.

26) 김문식, 「조선 후기 경남과 영남의 교류양상-영양 주실의 한양조씨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5, 2002.

향교에 봉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익빈을 처벌하라는 논의가 있었다.<sup>27)</sup> 그러나 정조는 신원과 복과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며, 이를 둘러싸고 신익빈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일은 소문으로 들은 것이므로 그대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도록 선언하였다.

이런 가운데 강석구는 관직에 나갔고, 6월에 이 문제를 언급하였다.<sup>28)</sup> 조덕린의 신원과 신익빈에 대해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경상감사 홍억(洪億)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 향전율로 논죄하겠다는 전교를 빙자해서 금년 봄에 통문(通文)을 발송한 유생에 대해 본 고을에 관문을 보내어 넉 달 동안이나 가두고, 모질게 형문(刑問)을 하여서 남해의 섬으로 귀양 가도록 조치하였다. 이 일을 묵과할 수 없었던 강석구는 다시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정조의 처분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석구는 신익빈과 홍억을 처벌하라고 하였다.

강석구의 논의로 정조는 비록 사실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경상 감사는 편벽되게 억압한 잘못이 있으니 상당한 책벌(責罰)이 있어야 하므로 월봉 일등(越俸一等)에 처하고, 억울하게 귀양을 가게 된 유생들은 즉시 풀어주라고 하였다. 이후로 다시 이 사건으로 시끄럽게 구는 일이 있으면 곡직(曲直)을 불문하고 향전율로 처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강석구의 논의로 조덕린의 신원을 둘러싸고 안동부사와 경상감사가 지역 사대부들에게 행사하던 폭력적인 조치가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일로 강석구는 파직을 당하였다. 정조는 강석구에게 대간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고을의 수령과 방백에 대해 고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강석구는 파직되었다. 강석구는 조덕린과 황

27) 『정조실록』 정조 13년(1789) 5월 2일.

28) 『정조실록』 정조 13년(1789) 6월 22일.

익재의 신원과 조진도에 대한 복과 처분이 지역에서 지방관과 사대부 사이에 갈등으로 비화되자, 이를 위해 관직을 걸고 논의에 뛰어들었다. 강석구는 영남 사대부로 정체성을 드러내었고, 그것은 관직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였다.

이런 이유에서 체직되었기 때문에 정조는 해가 바뀌자 강석구를 지평, 정언에 연이어 임명하였다. 그러나 강석구는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 시기 조정에서 논의되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회완옹주에 대한 처리였다. 강석구는 상소를 통해서 회완옹주에게 극형을 처분하지 않고 지체한 것에 대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악행을 고려하면 처분하는 것은 당연히 그럭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sup>29)</sup>

29) 『승정원일기』 정조 14년(1790) 10월 12일 ○ 持平姜碩龜疏曰, 伏以天休滋至, 邦籙無疆, 聖嗣誕降, 霈澤旁流, 環東土含生之類, 莫不欣忭而蹈舞, 歌管之聲, 日聞於四方, 頌祝之辭, 洋溢於八域, 臣以衰朽廢棄之蹤, 幸得少須臾無死, 獲觀此萬億年惟休之慶也. 第伏念臣, 僻在下土, 晚後聞知扶輿登途, 艱關入城, 而賀班已過, 未及進參, 義分莫伸, 惶愧實深, 卽欲退伏田廬, 歌詠聖化, 而臣素患痰濕, 又添暑症, 轉向近地先楸之下, 方謀俟間南下之便矣. 不意柏府新除, 忽下於此際, 惶隕感慙, 靡所容措, 況伏念臣, 素以庸愚, 全昧體例, 曾以軍銜, 出位論事, 致勤嚴教, 旋蒙恩叙, 且惶且感, 無以仰報. 又此除命, 實出望外, 揆以臣分, 卽當竭蹶出肅, 而旅次病喘, 實難調將, 頭疼氣眩, 省識昏昏, 詣臺傳啓, 亦難如意, 略暴衷懇, 仰瀆崇嚴, 伏乞天地父母, 俯垂鑑諒, 特許鑄免, 以安愚分, 千萬幸甚. 臣既巧免, 不宜贅他, 而今於目下事, 有不得不言者. 噫, 鄭妻之罪, 天地之所不容, 神人之所共誅, 則雖以我殿下至仁至愛之情, 有不得自私者也. 近甸之置, 已是刑政之失, 極律之請, 尙斬允俞之音, 輿情憤鬱今幾年矣, 而尙與此賊, 共戴一天, 莫非群下之誠意淺薄, 有不能導達之致也. 至於今日擅離之舉, 則尤有所凜然而驚惋者矣. 其在齊憤共討之義, 孰敢有先後, 而臣自外入來, 事已妥帖, 獲伏見臺筭下批, 則過自引咎, 益慎祇悔, 至有上下俱便之教, 臣奉讀再三, 不勝感激益歎, 大聖人轉環之量, 出尋常萬萬者, 始雖不能無憾於天地之大, 而終能使人, 咸仰於日月之更, 豈不休哉? 豈不休哉? 然而承宣之譴罷, 皆卽反汗, 畿伯之黜免, 尙未還寢, 竊恐殿下之祇悔自勵, 或有所未盡而然耶? 易曰不遠復, 語曰勿憚改, 此正殿下之所當勉處, 事雖已往, 談屬陳腐, 而區區寸忱, 不容泯默, 敢此尾陳於乞免之章, 伏願聖明, 不以人廢言, 凡於申命行事之間, 益懋慎始之道, 永絕祇悔之端, 今此八方同慶之日, 咸觀百工協和之休, 則國家幸甚, 臣隣幸甚,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遞職已久, 爾其勿辭.

이렇게 강석구는 조정에 있는 동안 자신의 안위를 염두에 두지 않았고, 소신을 다해 직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국에서 관직에 머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귀향하여 학문에 매진하였다.

1796년에는 봄부터 자연 재해가 심각하였다.<sup>30)</sup> 게다가 화성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국왕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1796년 정조는 대신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재해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sup>31)</sup> 이 자리에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이소(金履素)는

인로란 나라의 혈맥이어서 언로가 막히고도 나라가 잘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날 조정 신하들이 비록 곧은 말과 훌륭한 논의로써 성의(聖意)의 만분지일도 선양하지 못했더라도 어찌 한두 가지 채택할 만한 말이야 없었겠습니니까마는, 후시라도 성상의 뜻에 맞지 않으면 허심 탄화하게 청납하시는 실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중대한 의리에 관계되고 공공한 극론이라 하더라도 문득 꺾어 억제하고, 금령까지 설치했으니, 거두어 받아들이는 본의가 어디에 있으며 비록 참으로 훌륭한 말이 있더라도 누가 기꺼이 전하를 위해서 말하겠습니까. 참으로 언로를 넓히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금령을 환수해야 하니, 오늘날 재이를 소멸시키는 방도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듯합니다.<sup>32)</sup>

30)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3월 29일.

31)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3월 26일.

32)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3월 26일 領敦寧府事金履素曰: "昨奉聖教, 首以言路之杜塞爲憂. 夫言路者, 有國之血脈也. 言路閉而能爲國者, 未之有也. 今日廷臣, 雖無以讜言昌論, 對揚聖意之萬一, 然亦豈無一二可採之言, 而若或不概於聖意, 則未見虛心聽納之實. 雖係義理之重, 國論之公, 輒加摧抑, 至設禁令, 烏在其翕受之本意, 而雖有真箇昌言, 誰肯爲殿下道哉? 苟欲恢張言路, 必宜先收禁令. 今日消災之方, 恐無急於此矣." 上曰: "卿言皆好, 而至於設禁, 予之不得已而然也. 往古來今, 言路之閉塞, 未有若今之甚者. 禁令之設, 固知在古無稽, 於後有弊, 而禁令之外, 亦豈無衰闕時政之可言者乎?" 履素曰: "殿下凡於政注得失, 言議是非之間, 若或未及省察, 而有此闕遺, 則猶可望如更日月之美, 而今殿下, 獨於此事, 苟且彌綸, 繹而不從, 臣誠不能無憾於天地之大也." 上曰: "修省消弭之方, 無出於敦風厚俗, 而顧今習俗淪薄如此, 而國豈得爲國, 人豈得爲人乎? 方今急先之務, 莫若敦敎五倫, 恥言人過, 期做淳厚之治, 而近日俗習, 相反於是, 此予所以期欲挽回, 而有如救焚拯溺者也. 要其歸, 則無出於靖世道, 保世臣, 而每有一番求言, 輒生一番風波. 予則以爲風俗敦然後, 言路自開. 風

라고 하였다. 김이소는 언로를 바로 잡으라고 하였다. 같이 자리하던 판중추 부사 이병모는 “세도가 높아지고 낮아짐과 재변이 생기는 것은 사람을 쓰고 버리는 즘음보다 더 빠른 것이 없으니, 옛날 역사에서 분명하게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충후한 선비가 나오면 풍속이 절로 충후한 데로 돌아가고, 부화한 사람이 나오면 풍속이 절로 부화한 데로 돌아가니, 이는 필연의 징험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쓰고 버리는 즘에 아주 신중하게 하소서.”라고 하여 인재를 잘 가려 뽑아야 한다고 하였다. 원로들은 정조가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자 언로를 열고, 인재를 가려 뽑으라는 등 단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강석구는 상소에 열 개 조목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sup>33)</sup> 당시 강석구는 70세가 넘었다. 관직 경험도 어느덧 30년이 되었다. 영조 시대부터 한림으로 국왕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도 남다른 경험이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를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학문도 경험하였다. 이 시기에 강석구가 올린 글은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첫째, 정학(正學)을 밝혀서 풍속을 돈독하게 해야 한다. 강석구는 유교(儒敎)가 점점 쇠퇴하고 선비의 기풍이 점점 쇠퇴하는 상황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당시 천주교가 확산되면서, 1791년 진산사건과 신해박해 사건은 사대 부들 사이에서 학문의 방향을 고민하게 하였다. 강석구는 유학의 본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고 사습(士習)을 바로잡아야 한다.<sup>34)</sup> 강석구가

俗不敦, 則(難)[雖] 公車日積, 言議風生, 而其流必至於世道不靖, 世臣難保, 眞所謂如是難, 不如是亦難者也. 若使薄俗未變, 淳風未回, 則雖使休祥日臻, 災異未現, 不足以爲幸. 《書》不云乎? 予有臣三千, 惟一心. 此所以爲成周基業, 而今則二人同坐, 其心各異. 如是而雖欲, 從欲得乎?”

33)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5월 9일 재이로 구언하여 올린 상소

34)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5월 9일 何言乎革科弊以正士習也? 蓋科擧, 古制也. 周家之大比, 漢朝之賢良, 皆所以需世之具, 觀國之用, 而叔世以後, 奸僞百出, 法意全壞, 至于今日而極矣. 臣每讀我殿下御極初科弊論音, 未嘗不歎歎莊誦, 以爲大聖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시권을 제출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는 시험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합격 여부를 문장 능력에 따라서 하지 않고 답안을 제출하는 것이 빠르고 늦은 지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과거 시험장에서는 시제(試題)를 게시하자마자 시권(試券)을 제출하고 시험 시간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시험장이 텅 비게 된다고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시험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글을 써서 준비해 오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면서 짓밟고 구타하는 것이 마치 전장(戰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 시험은 대충 마치게 되어서 아이들 장난처럼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강석구는 경상도 예천(醴泉)에서 다투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었고, 용궁(龍宮)에서는 다투다가 압사(壓死)하는 일까지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강석구는 응시생에게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자고 하였다. 전날 저녁에 시험장의 문을 열고, 시험은 날이 저물 때까지 답안을 작성하고, 시권을 거둘 때는 제출하는 순서에 구애되지 않게 응시생이 답안의 글을 다 써서 제출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거두라고 하였다. 또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은 오직 글을 잘 짓는 지를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응시생이 자신의 재주를 모두 소진해서 작성하면, 충분히 인재를 가려 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석구의 학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안이었다.

셋째, 언로를 열어 보고 듣는 것을 넓혀야 한다.<sup>35)</sup> 대간의 역할에 힘을 실

---

人所作爲，出尋常萬萬。而十數年來，其所釐革，靡不用極，則僥倖之習，幾乎少祛，躁競之風，宜其盡革。而奈之何近來，科弊猶前，奸竇益新，倩述代寫，視以常事，禁亂搜挾，不遵朝令，此固識者之寒心。而其中早呈之弊，愈往愈甚。此皆掌試之任，不以文譽，而必以地望赴舉之類，不計工拙，而惟計早晚，書題纔揭，試券已呈，時刻未至，禮圍先空。甚至於預書文套於入場之前，必爭要地於懸板之下，蹂躪毆打，無異戰場。草率了當，便同兒戲。醴泉之競渡淪沒，龍宮之爭先壓死，其數夥然，聽聞駭慘，臣所聞見，只及道內，而反隅觸類，謠道可知。此罔非由於科弊之已痼，士習之蠹競，而此豈獨儒生之罪也？

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김이소가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강석구는 현실의 사정을 언급하는 데서 차이가 있었다. 대간이 탄핵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게 마련인데, 탄핵을 받는 탐관오리가 오히려 풍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억울하다고 소호하면, 그를 용서해 주고 심지어 직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간의 말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결국 대간의 역할을 불신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대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하고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넷째, 공론(公論)을 세우고 붕당(朋黨)을 없애야 한다.<sup>35)</sup> 강석구는 지금 정

35) 『승정원일기』 정조20년(1796) 5월 9일 何言乎開言路以廣視聽也? 夫人主以渺然一身, 處乎億兆之上, 四方至廣, 萬機至夥, 雖有不世之聰明, 不可遍觀而周聽, 故以大舜之聖, 而亦日昃四目達四聰, 蓋所以集四方之聰明, 而爲一人之視聽也, 惟我殿下深知其然也. 英睿卓越, 而不自以爲聖, 聰明冠古, 而不自以爲能, 特恢詢芻之量, 誕降求言之教, 有曰國之興亡, 實係於言路之開閉. 大哉王言也, 不待臣愚區區之言. 殿下固以開言路爲急務, 而終未見言路之開, 此曷故哉? 夫不避雷霆之威, 而敢進鯁直之言者, 非折檻之朱雲, 裂麻之陽城, 不能責之於人人, 故雖導之使言, 誘之使諫, 尙患直聲之難聞也. 今殿下雖未嘗一言者, 然或有涉於說而不釋, 從而不改, 故貪官污吏之見彈於臺垣者, 反疑風聞之或爽, 曲加涵貸, 使之仍任, 竟致臺言之無施, 此亦言路不開之一端也. 臺臣之言, 雖涉風聞, 未嘗及於無瑕之人, 蓋指人爲淫, 未必眞淫, 而必是好色之人也. 指人爲盜, 未必眞盜, 而必指貪財之人也. 然則以臆見彈者, 雖或有虛實之相蒙, 不可無輕重之隨坐, 而今乃不然, 道啓纒上, 臺緘繼下, 有若兩造相辨者然. 噫, 彈一營邑, 猶尙如此, 人孰能不畏重誅, 而出氣力進危言, 以補聖德之萬一哉? 伏願殿下, 廣求四方之賢, 益恢虛受之量, 有言逆耳, 必求諸道, 有言遜志, 必求諸非道, 使讒說日退, 讜直日進, 則庶見臺風丕振, 朝著肅清, 何憂言路之不開, 視聽之不廣也?

36)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5월 9일 何言乎植公論以消朋黨也? 夫禍人家國, 莫甚於朋黨, 而朋黨之禍, 亦莫甚於本朝, 色目之分, 倍於漢之甘陵, 戈戟之尋, 甚於唐之牛·李, 殆將二百餘年, 而類聚群分, 舉國皆然, 各懷黨同伐異之計, 俱有是已非彼之心, 人心由是而睽乖, 朝象職此而潰裂, 言議可否, 無異楚越之相懸, 情志親疎, 便是水炭之不同. 噫, 正人以邪爲邪, 邪人以正爲邪, 已有古人之的論. 而今之朋黨, 殆有甚焉, 俱未免於偏倚, 卒同歸於傾軋, 銓衡注擬, 專視彼我之跡, 藩閫殿最, 不無愛惡之嫌, 名器以之破壞, 用捨以之不均, 當今之弊, 莫非私一字爲之崇, 而國受其害矣. 然則一箇公字, 正爲矯弊之急務, 而秉心公然後邪情之莫能遁, 立公論然後是非之得其正, 扶正抑邪, 而不流於偏倚, 則所謂色目, 雖若難消, 而自歸消融矣. 意, 當此世道波蕩, 人物

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극심한 편 가르기이며, 특히 인사에서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선대왕께서 50년 동안 고심하신 것은 오직 탕평(蕩平)에 있었고, 우리 전하께서 선조의 뜻을 계승하는 성대한 일도 탕평에 있었다.’는 말로 탕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석구 자신이 영조 시대에 관직에 나아간 것이 영조의 탕평에 힘입은 것이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것은 고질적인 봉당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개혁안이었다.

다섯째, 관방(官方)의 임기를 보장하고 암행어사를 통해 감독하라.<sup>37)</sup> 강석구는 지방관의 임기에 대한 정식(定式)은 임기를 3년에서 6년으로 하고 있는

渺然之時，雖盡用一世之才，猶不能了得一世之事。況勢有所偏重，而用有所不盡耶？書曰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惟我先大王五十年苦心，惟在於蕩平，我殿下繼述之盛，亦在於蕩平，其所以調劑鎮安之道，至矣盡矣。而夫何朝著之間，公論不行，私意難法，朋黨之弊，日以益甚，而莫之救也？顧今冠簪而垂紳，立我殿下之庭者，同是祖宗朝遺臣也，同是世祿家裔胄也，同是有願忠之心者也，同是有可用之才者也。甲未必優於乙，左未必劣於右，若能俱收竝用，矯其偏而抑其過，使之比肩於清朝，彙証於明時，酸鹹苦辛，各濟其味，根居楔[根闌居楔]，各適其器，則朝有俊彥之美，野無遺逸之賢，公論不期植而自植，朋黨不期消而自消，同寅協恭，百工允諧，措國勢於泰山盤石之安，豈不休哉，豈不美哉？

- 37) 『승정원일기』 정조20년(1796) 5월 9일 何言乎戒數遷以重官方也？夫官方自有定式，或有六年之窠，或有三年之窠，祖宗之遺制，其來已久。蓋所以考其能否於經年之外，察其勤慢於閱歲之後，而奈之何挽回以來，遞易無常，未滿半暮，而旋聞遞歸，未至一年，而旋即罷黜。其間雖或有公事之斷不饒貸，而送迎之弊，皆由於民戶，則奔走道路，僕夫況瘁，大抵數易長吏，本爲安民，而適足以害民，亦非所以重官方之道也。昔子產爲政之初，人欲殺之，至于三年而後治績始著，人皆愛戴，雖以子產之賢猶尚如此，況下於此者乎？惟其視事日淺，無以昭見其迹，迫於舉劾，懼於刺議，飾詐作偽，徒事彌縫，此朱浮所以言於光武，矯救數易之弊也。亦粵處舜之世，慎於官方，三載考績，三考黜陟，則顧今數易之弊，不已左乎？臣竊伏惟，殿下睿智出天，聖學高明，政令施爲，靡不合理，非不俯獨數易之爲弊於民，而特慮夫長吏貪虐之風，未免求治太速之病。凡在外任之臣，率皆責效於旬月之內，然人品之賢愚不同，治效之遲速有異，或爲政寬平，譽聲稍遲，或御下嚴明，不事姑息者，例被白簡之評，姦民以此而議其是非，浮謗以此而售其奸計，其與東漢之弊，古今一轍。臣謂差遣之時，其難其慎，既遣之後，戒在數遷，使之安其分而盡其職，考其聲績而期有實效，則官方自重，而無躐進之望矣。公器自尊，而無躐等之心矣。

데 근래에는 반년에 그만 두거나 1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자주 지방관이 교체되면 해당 지역에 주민들은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맞이하고 송별하는 것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먼저 관리를 선발할 때 신중하게 하고, 중간에 암행어사(暗行御史)를 파견해서 수령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하였다.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수령이 업무를 살피고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용하였다. 특히 19세기에 더욱 활발하였다. 암행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강석구의 건의는 시대의 요구를 파악한 것이었다.<sup>38)</sup>

여섯째, 도사(都事)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도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도사는 삼사의 관원 가운데 선발하고, 체직된 후에도 삼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sup>39)</sup> 삼사의 직임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관리

38) 이상순, 「조선 후기 사회변동과 어사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박범, 「19세기 암행어사 파견 양상과 성격」, 『역사와 현실』 128, 2023.

39)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5월 9일 何言乎擇守令以養民命也? 國以民爲本, 而民之休戚, 係乎守令, 則守令之任, 顧不重歟? 才謂而有歲首之薦剡, 臧否而有冬夏之殿最, 間而有繡衣之暗行, 則列朝之法意甚重, 長吏之貪墨庶戢, 而近日以來, 世無水孽之勳, 人多簞篋之誚, 雄府映邑, 徒以肥己爲心, 疲弁冷蔭, 惟以善事爲務, 廉風掃地, 貪聲載路, 薦剡之法, 殿最之規, 徒爲文具, 俱無實效. 況且繡衣之行, 既無按廉糾治之舉, 反有苞苴公行之譏, 則暗行之法, 亦不可恃也. 哀我元元, 日益困瘁, 無異倒懸, 何賴而爲生, 何恃而爲命乎? 噫, 欲養民命, 守令不可不擇也, 欲察廉貪, 都事亦不可不擇也. 何者? 蓋都事職是亞使, 名以外臺, 殿最之時, 執筆而參席, 災祥之際, 遍邑而審察, 則當初設置, 爲任不輕, 而夫何近來, 漸爲冗官, 雖有慶祿, 而無所住着, 乍往乍來, 便一羈旅, 方伯不以去留關念, 營吏不以官員待之, 故人皆厭避, 必以鄉曲無勢者爲當窠, 有關輒擬, 次第差遣, 而習俗已痼, 卒難變革. 如欲變其習, 莫如重其任也, 莫如別立條目, 必以三司中有威望者擇遣, 及其瓜遞也, 亦必以三司之職內遷, 還朝之日, 使之撮其道內所聞守宰賢否, 軍情民瘼, 一如御史之書啓, 則是無御史之名, 有御史之實也. 御史常在道內, 則貪吏有所懲畏, 廉吏益復獎勵, 其於扶世道保民命之道, 豈曰少補之哉? 且殿下耳目之寄, 布列八路, 則聰明不蔽於上, 而善政日加於下矣. 臣請極擇都事, 可也. 亦願另飭諸道道臣, 嚴明殿最, 居上而題目之極好者, 施以褒異之典, 居下而題目之最惡者, 施以禁錮之典. 至若繡衣, 則別遣剛明練達之人, 不拘顏私, 一心奉公, 又與都事相議, 探聞黜陟臧否, 無所容貸, 則庶見風俗丕變, 生民奠安, 豈不休哉, 豈不美哉?

가 삼사에 몸담기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도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였다.

일곱째, 군정(軍政)을 잘 시행해야 한다.<sup>40)</sup> 각 지역의 액외군관을 모두 없애서 군액에 보충하고, 부유한 백성들이 유학으로 칭하는 경우에 시험을 엄격하게 시행해서 속오군에 넣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제외해서 긴장한 장정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구는 이 대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각 군현의 군액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각 읍에 군액은 수가 정해져 있는데, 주목은 90명을 넘지 않고, 군읍은 50명, 현령과 현감 지역은 30명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큰 고을은 수천 명이 되고 다음은 3~4백 명, 혹은 백여 명이 있으며, 이것은 원래 정해진 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군관청은 이것을 확인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과 결탁해

40)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5월 9일 何言乎修軍政以祛民瘼也? 夫修練甲兵, 斯爲陰雨之備, 整頓軍務, 固爲禦侮之方, 而荷戈之卒, 俱是兒弱, 執戟之士, 未見強壯, 所謂軍兵直是兒戲, 其他富實之民, 或稱幼學, 或稱軍官, 托名於校宮, 納祖於軍廳, 以爲發身之階, 軍兵職此而疲殘, 戎器以之而毀缺, 每當習操之時, 所謂軍兵, 無非烏合之庸卒, 所謂軍器, 無非苟充之破物, 治平無事之時, 猶得以揆過時月, 脫有緩急, 其可以此而應變乎? 書曰, 詰爾戎兵, 張皇六師. 易曰, 除戎器戒不虞. 蓋出於安不忘危, 有備無患之意也. 伏願殿下, 詢於廟堂, 行會諸道, 另飭守宰, 州縣之額外軍官, 除案而填充於軍額, 富民之稱以幼學, 試講而移, 講而移充於東伍, 疲癯殘疾之人, 無赴於行伍, 壯健精勇之丁, 盡歸於操練, 則緩急庶可有恃, 而軍額不爲虛薄矣. 且伏念, 列邑軍官額數, 自有定規, 州牧則不過九十, 郡邑則不過五十, 縣令·縣監則不過三十. 而今則不然, 大官幾千數, 其次或三四百, 或百有零餘, 而元額之外, 皆是謀避軍役之類也. 軍官廳便作逋逃之淵藪, 除番租適爲長官之奇貨. 又有官吏·保人, 巧作名目, 厥數甚夥, 隱匿無限, 軍額之減縮, 職由於此. 其父子兄弟價布五六疋, 皆出於一室寒女之手, 終歲勤苦, 無路辦備, 盡賣流離, 漂轉如浮草浮苴, 罔有根帶. 況彼白骨之徵, 黃口之役, 刮毛龜背, 剝膚椎髓, 如煎膏火, 如衆涸鮒, 其愁痛冤號之狀, 足以上干天和, 以殿下如傷之仁, 若保之惠, 儻能俯燭於蔀屋之下, 則必思拯溺救焚之不暇, 而叫闕無路, 民情莫暴, 此固列邑之通患. 而博施濟衆, 堯·舜其猶病諸, 欲思救弊之方, 莫若先祛其太甚. 伏願殿下, 更加振作淬勵, 申命道臣, 查問尤甚之邑, 抄出虛額之數, 或開移定之路, 濫稱之幼學, 額外之軍官, 亦爲降充於虛額, 使白骨黃口, 無含冤之端, 疲洞殘戶, 無侵徵之患, 則和氣可致, 而災沴可消矣. 伏惟聖明, 留神採納焉.

서 부정한 돈을 받고 묵인하기 때문에 군액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 힘겹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부자와 형제를 위해서 부담하는 가포는 한 여성의 손에서 모두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게 되며, 여기에 더해서 백골(白骨)과 황구(黃口)에 징수하기까지 하니 도저히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니 지방관을 독려해서 거짓으로 유학(幼學)이라고 하거나, 액외(額外) 군관(軍官)도 충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덟째, 도적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하라. 다소 뜻밖의 의견이었는데, 당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도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강석구는 도적을 다스리는 형률이 점점 헤이해져 형신(刑訊)하는 도구는 태곤(笞棍)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엄격한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조적(糶糶)의 폐단을 바로잡으라. 각 감영과 병영에서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서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고 해독이 날로 불어나서 상평포(常平浦)와 군자감(軍資監) 이외에 명색이 이미 많은데, 감영과 병영, 통영(統營) 사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주현(州縣)의 서리(胥吏)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봄철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빈껍데기에 불과한데 가을이 되면 반드시 정곡(精穀)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백성들에게는 소두(小斗)와 비곡(米穀)을 나누어 주는데, 거두어들일 때에는 간색(看色)이라 일컫고 혹은 낙정(落庭)이라고 칭하면서 백성의 자산을 침탈하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니 백성들을 살리기를 바란다면, 환곡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열째, 기강을 세워 임금의 명을 높여야 한다. 『서경(書經)』에 임금이 극(極)을 세워 그 극(極)을 만든다고 하였으니, 그 극(極)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어찌

기강을 세워 임금의 명을 높이는 것으로 이런 것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소를 마무리 하였다. 이 상소에 대해 정조는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

강석구의 의견은 시기와 내용에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같은 시기에 조정에서 논의하던 대신들과 비교할 때 현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강석구의 상소에 대한 정조는 주요한 대목을 다시 언급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정조는 강석구의 상소에서 각 항을 모두 언급하면서 유용하다는 입장이었다.

강석구의 상소는 당시의 사회 문제를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 합격하고 비록 오랜 시간 동안 관직에 있지는 못했지만 현실을 진단하고 이해하는 식견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석구는 백성들이 삶을 보다 안정시키고 국왕 이하 국가가 강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 V. 맺음말

강석구는 18세기 후반에 관직에 나아가 활동하였던 영남의 사대부 관료이다. 그는 혼란한 정치 현실에서 영남 사대부로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로 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소신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였고, 물러나 지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의 사대부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에 충실하였다. 강세황 강흔 부자를 중심으로 평생을 두고 진주 강씨 일족과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영남을 넘어서 충청과 경기 일대의 사대부들의 관념과 정치적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의 시각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런 강석구의 입장은 정조 시기에 그가 제안한 현실 정치에 대한 입장에 담겨 있다. 지역사회 사대부의 입장에서 조덕린과 황익재에 대한 신원을 둘러싼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까이서 친족들의 일이었고, 넓게 보

면 영남 사대부의 일이기도 하였다. 정조의 엄격한 처분이 있었지만, 지방관과 지역 사대부들의 갈등은 이어졌고, 이에 대해 소신을 다해 지방관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강석구도 파직되었다. 자신의 안녕과 벼슬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강석구는 지역 지식인으로 영남 사대부의 정체성을 간직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응지 상소는 그의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자리에 있던 이들이 언로를 개혁하라거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라는 등의 제안을 하였지만, 이들은 단편적이면서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반면, 강석구의 대응은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70대 후반까지 현실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고안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지식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기반과 함께 충청과 경기 일대의 일족들과 교류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강석구의 학문과 관직 활동에서 진주 강씨 혈족과의 유대와 혼인으로 형성된 지역 사대부들과의 교류라는 두 측면을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영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강석구(姜錫龜, 1726~1810), 『학암유고(鶴巖遺稿)』  
강여호(姜汝床, 1620~1682), 『기재선생문집(耆齋先生文集)』  
『진주강씨세보(晉州姜氏世譜)』 무오보(戊午譜)(1918)  
『진주강씨 왕자사부공(王子師傅公) 파보(派譜)』(2023)

### 2. 연구논저

이근호,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민속원, 2016.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김가영, 「영조대 사관 자천제의 폐지와 권점제 시행」, 고려대 석사논문, 2016.  
김문식, 「조선후기 경남과 영남의 교류양상-영양 주실의 한양조씨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5, 2002.  
김성우,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1, 2012.  
김인걸, 「19세기 '세도정치기'의 求言敎와 應旨疏- '탕평정치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4, 2011.  
김정자, 「英·正祖 연간 樊巖 蔡濟恭의 생애와 정치 활동」, 『민족문화』 64, 2023.  
김준혁, 「변암 체제공의 화성신도시기반조성과 화성 축성」, 『중앙사론』 23, 2013.  
박범, 「19세기 암행어사 파견 양상과 성격」, 『역사와 현실』 128, 2023.  
박정숙, 「학암 강석구에 대한 일고찰」, 『통합인문학연구』 10-2, 2018.  
이근호, 「영조대 체제공의 정치 활동과 대응 논리」, 『포은학연구』 29, 2022.  
이상순,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어사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최성환, 「영·정조대 체제공의 정치 생애와 정치 의리」, 『한국실학연구』 33, 2017.

Abstract

## Kang Seok-gu(姜碩龜, 1726-1810)'s Academic and bureaucratic life

Kim Jeong-un\*

Kang Seok-gu was a scholar and bureaucrat who worked in the late 18th century based in Yeongnam. Kang Seok-gu's daily life was in the same context as a general Yeongnam intellectual. The period when Kang Seok-gu was active was the era of King Jeongjo in Yeongjo. During this period, those who grew up in Yeongnam and went to office faced many problems. It was a period of rapid intersection of achievement and frustration, from passing in the past to living in office, depending on the region and system of origin. What was Kang Seok-gu's life like during this perio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mmunity godfather, Kang Seok-gu's restoration of honor for Cho Deok-rin and Hwang Ik-jae could never be overlooked. He was not conscious of his well-being and government post, and presented the ideal. In addition, his appeal contains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reasonable countermeasures. Kang Seok-gu's response clearly pointed out the problem and suggested a reasonable alternative. Until his late 70s, he can see his side as a reasonable intellectual who is constantly interested in real problems and wants to devise alternatives.

This view can be attributed to the ability to maintain a balanced perspective while connecting with the clans of Chungcheong and Gyeonggi areas along

---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with the foundation of the region. Kang Seok-gu's academic and government activities have two aspects: ties to Jinju Kang's blood relatives and ties with local noblemen formed by marriage.

Key word : Kang Seok-gu(姜碩龜), Jadong Seowon(紫東書院), Gimcheon, Jinju kang(晉州姜氏), Kang Se-hwang (姜世晃)

논문 투고일: 2024. 05. 15 심사 완료일: 2024. 06. 11 게재 확정일: 2024. 06. 11

## ■ 일반논문

- ▣ 영해(寧海) 구봉서원(九峯書院)의 설립 과정과 운영
- ▣ 경주손씨의 상주 정착과 손만웅의 활동



# 영해(寧海) 구봉서원(九峯書院)의 설립 과정과 운영

장 준 호\*

- I. 머리말
- II. 朴毅長·朴弘長의 행적과 위상 정립
- III. 구봉서원의 설립 과정과 운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九峯書院은 丹山書院과 함께 영해를 대표하는 서원이다. 이 서원은 선조조 무신인 박의장·박홍장 형제를 모신 서원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1655년 정충사라는 사유로 건립되어 두 형제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를 올렸고, 1656년 구봉정사로 확대·개편되면서 교육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정충사와 구봉정사의 건립은 양난 이후 대명여론이 강조되던 시기에 추진되었다. 구봉정사는 박의장의 증시와 함께 서원으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무안박씨 문중과 향촌 유림들은 증시를 계기로 구봉정사에 대한 서원 승격을 추진했다. 1785년 정충사로 출발한 정사는 구봉서원이라는 편액을 내걸었다.

구봉서원은 승격 후 무안박씨 문중의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고, 영해부의 물선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구봉서원은 비사액서원으로 10명의 유생을 배정받았지만, 10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봉서원은 운영 과정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구봉서원은 향사와 강학 기능을 수행하면서 영해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잡았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망일루만을 남기고 훼손되었지만, 『경상북도영해읍지』에 단산서원과 함께 영해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제어 : 朴毅長, 朴弘長, 精忠祠, 九逢精舍, 九峯書院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총무공연구부장

## I. 머리말

구봉서원은 선조조 무신인 朴毅長과 그의 아우 朴弘長을 배향한 사우에서 출발하였다. 구봉서원은 영해의 丹山書院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잡았다.<sup>1)</sup> 1655년(효종 6) 향중 사람들은 박의장·박홍장 형제를 향사하기 위한 院祠 건립을 논의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문중의식이 확대되고, 향촌 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각기 자기 조상을 위주로 한 서원·사우·향사·정사 등의 건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무안 박씨 영해파는 선조조의 무신이며 전란 시기에 두각을 나타냈던 박의장과 박홍장을 기리기 위한 사우를 건립하였다. 1655년 향중 사람들은 관아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박의장과 박홍장의 위패를 모신 精忠祠를 건립하였다.

선조조의 두 무신에 대한 향사를 위해 건립한 정충사는 이후 구봉정사를 거쳐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영해에서는 1608년(선조 41) 申活의 건의로 禹倬을 제향한 단산서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영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李

1) 변승주 역주, 『여지도서』 「경상도」, 디자인흐름, 2009, 217쪽. 무안을 향사한 다수의 서원이 존재한다. 경주 용산서원은 임란 때 경주판관 박의장이 경주성을 탈환할 때 창의했던 무신 최진립을 향사한 곳이다. 경주 최씨 최진립 집안은 무 반 가문으로 세계를 이어왔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고, 이후 무과에 급제 하면서 무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병자호란에도 참여하여 군공을 세운 것으로 향사되었다. 1699년(숙종 25) 경주의 용산지역에 충렬사가 건립되었고, 1700년(숙종 16) 묘우를 완성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듬해 강당인 敏古堂과 남·북재인 好德齋와 游藝齋를 건립하여 유생들이 학문을 익혔다. 1711년(숙종 37) 崇烈祠宇라 사액을 받았다(정재훈, 「조선 후기 龍山書院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16, 2023, 44~45쪽). 구봉서원과 용산서원은 임진왜란기에 활약했던 무신을 향사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용산서원은 숙종조에 사액을 받은 후 승렬사우로 불리다 1747~1748년 무렵 자연스럽게 용산서원이라고 불렸다(정재훈, 위의 논문, 47쪽). 한편, 구봉서원은 사액을 받지 못했지만 정조조에 박 의장에 대한 증시가 이루어지면서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구봉서원은 후손과 향중 유림이 서원 승격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용산서원과는 차이가 있다.

穀과 李穡이 추향되었다. 이 서원 건립을 주도한 향촌 사족들은 예안 역동서원의 원규를 참고하여 12조로 된 별도의 원규를 작성하기도 했다.<sup>2)</sup> 단산서원의 건립과 운영은 이후 무안박씨 영해파가 정충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되었고, 이 서원은 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16세기부터 정치를 주도한 사림 세력의 향촌질서 재편 운동의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다. 사림들은 향촌에서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구체화하려는 과정에서 훈구 세력과의 마찰을 일으켰다. 이에 사림들은 교육과 교화를 표방한 서원을 통해 향촌 사회의 구심점을 마련하였다.<sup>3)</sup> 조선 서원의 역사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周世鵬이 安珦을 모시고 儒生을 교육하기 위해 白雲洞書院을 경상도 순흥에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원은 先賢·先師를 봉사하는 ‘祠’·子弟를 교육하는 ‘齋’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sup>4)</sup> 서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sup>5)</sup> 초창기 서원 연구는 사림과의 향촌 질서의 재편 운동의 일환으로 개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서원학회의 설립과 함께 서원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각 지역 소재 서원을 중심으로 건립 경위와 운영·변천 양상 등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이루어졌다. 특히 書院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배향 인물들의 문집과 고문서 등이

2) 이수환, 「寧海 仁山書院의 設立과 毀撤」, 『大丘史學』 63, 2005, 6쪽.

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1996, 280쪽.

4) 정만조는 서원과 사우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書院은 일차적 목적이 인재양성에 있고 있고, 士子の 藏修處와 講學所로서 기능한 교육 기관이라 정의했다. 이후 여기에 기거하는 자제들의 感發興起를 위해 先聖·先賢이나 名儒 등을 제향하는 사모를 부설해 놓아 祀賢의 기능이 부가되었다고 했다. 이에 반해 祠宇는 祀賢과 風化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정의했다(정만조, 「17~18 세기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2, 1975, 217쪽.

5) 서원 연구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이해준, 『조선 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 ; 정순우,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활용되면서 특정 서원의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인 양상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봉서원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儒賢을 모신 서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 서원 연구는 학맥과 도통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한편 무신을 배향한 서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지만, 영해에 건립된 구봉서원은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영해 지역의 사족인 무안 박씨 문중에 관한 연구<sup>6)</sup>, 박의장의 임진왜란기 활약상을 구명한 연구<sup>7)</sup>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무신을 배향한 사우에서 영해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잡았던 구봉서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655년 무렵 무안박씨가 배출한 두 무신에 대한 사우 건립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행적과 문중 내 위상 정립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두 무신을 배향한 정충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서원으로 변모하였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명가의 고문서』 7에 수록된 고문서를 통해 구봉서원의 운영 양상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봉서원에 대한 고찰은 어떠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사우가 서원으로 변모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되며, 이 연구를 통해 무신을 배향한 다른 서원과의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Ⅱ. 朴毅長·朴弘長의 행적과 위상 정립

### 1. 임진왜란기 朴毅長의 행적

박의장은 1555년(명종 10) 朴世廉과 영양 남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

6) 우인수, 「영덕(盈德)지역 무안박씨(務安朴氏) 가학(家學)의 전승과 양상」, 『국학연구』 36, 2018.

7) 우인수, 「務安 朴氏 寧海派와 武毅公 朴毅長」, 『朝鮮史研究』 17, 2008; 장준호, 「임진왜란기 경주(慶州)의 동향(動向)과 경주부윤 박의장(朴毅長)의 전시행정(戰時行政)」, 『국학연구』 36, 2018.

다. 1577년(선조 10) 23세때 무과에 급제하였다.<sup>8)</sup> 1588년(선조 21) 진해현감을 역임하였고 1592년(선조 25) 경주판관으로 부임하였는데 경주부윤은 尹仁涵이었다. 1592년 4월 일본군 제2군 선봉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죄병사 李珪이 도망한 경상좌병영을 점령하고 경주로 북상하였다. 일본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박의장은 동래성을 구원하기 위해 죄병사 휘하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각은 동래성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하려고 하였다. 박의장은 主將 이각의 비겁한 행태에 분개하기도 했다. 경주로 돌아온 박의장은 장기현감 李守一과 성을 지키려 하였으나, 애초부터 가토 기요마사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박의장은 죽장현으로 퇴각하여 경주성 수복을 준비하였다. 이후 그는 영천에서 봉기한 의병장 權應銖의 요청으로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전하였고, 그해 9월 빼앗겼던 임지 경주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sup>9)</sup>

박의장은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무렵인 1593년(선조 26) 3월 대구 바깥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sup>10)</sup> 대구 파잠전투는 박의장이 소수의 정예부대로 다수의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강화협상이 시작될 무렵에 올린 승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선조는 파잠 전투의 승전을 인정하여 박의장을 경주부윤에 임명하였다.<sup>11)</sup> 이후 그는 탈환한 경주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방위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북상하려는 일본군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고, 남하한 명군에 대한 군량미 지원도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또한 조정에 납속미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전시 목민관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는 경주 부민의 구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그는 1591년(선조 24) 경주판관으로 부임한 이래 1599년(선조 32) 성

8) 『萬曆五年丁丑十月初六日文武科別試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9)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 『군사』 76, 2010, 64~78쪽 참조.

10) 『觀感錄』 卷1, 「家傳」. 『관감록』의 인용은 관감록역간추진위원회에서 간행한 국역 『관감록』을 참조하였다(관감록역간추진위원회, 『관감록』, 관감록역간추진위원회, 1979).

11) 장준호, 위의 논문, 78~79쪽.

주목사<sup>12)</sup> 겸 좌도방어사로 이임될 때까지 약 9년여 동안 경주 방어와 전후처리에 진력하였다.

한편, 그는 전란이 끝난 후 儒風 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興學은 목민관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이기도 했다.<sup>13)</sup> 그는 전란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 옥산서원에 謁廟하였다. 여름에는 學습을 내려 경주부내 士子들을 훈계하였다. 이 학령이 『관감록』 권3에 수록된 「諭玉山書院諸生文」이다. 그는 이 효유문과 학령을 통해 諸生들에게 학문할 것을 권면하였다. 그는 옥산서원 제생에게 경주가 신라 천년 문화의 고장이며, 회재 李彦迪을 배출한 곳임을 환기시켰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병화를 겪었고 경주가 적진과 가까워 모두가 전쟁에 얽매어서 사는 것 자체가 다행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창을 던지고 글을 읽어서 향학의 열을 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른과 아이가 전부 문학으로 일을 삼아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유옥산서원제생문」 뒤에는 「約條」<sup>14)</sup>가 付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박의장이 어떻게 경주의 문풍을 진작하고자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박의장에 제정한 약규는 일반적인 서원에서 제정한 院規<sup>15)</sup>와는 차이가 있다. 즉 원규가 운영을 위해 서원 설립의 주체자 및 운영자 등이 제정한 것이라면, 이 약조는 경주부윤 박의장이 목민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인 興學을 위해 만든 것이고 전후처리의 일환이기도 했다. 위 약조는 총 5조항으로 구성

12) 『宣祖實錄』 卷112, 선조 32년 윤4월 29일 정미.

13) 『牧民心書』 「禮典六條」 '興學'.

14) 『觀感錄』 卷3, 「諭玉山書院諸生文」.

15) 이경동은 경주의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의 원규를 분석하여 남계서원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의 원규는 총 1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조 강학범위, 2조 원생 생활규정, 3조 원생 齋宿규정, 4조 원생 서원 출입 규정, 5조 강당 내 擲板, 13조 원속 관리 규정은 이산서원의 원규를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7~12조는 소수서원의 원규를 참조했고, 14~17조는 새롭게 소수서원과 이산서원 원규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이경동, 「16세기~17세기 초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구조와 변화」, 『중앙사론』 55, 2022, 21~27쪽 참조).

되어 있다. 1조항은 강화 대상자의 범위이다. 7~8세의 소아부터 15~16세의 成童까지 학습 대상자를 설정하고 儒案에 있는 선비들이 책임지고 학습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2조는 강화 대상자의 명단 작성 및 제출이다. 이 항목에서는 擧主의 명단 및 읽어야 할 도서명(교재)까지 기술하여 6월 15일까지 경주부로 제출하도록 했다. 3조는 평가이다. 평가는 학습자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벌을 주되, 지도하는 사람에게도 그 포상과 책임이 따르도록 했다. 4조는 학습 교재이다. 『소학』과 『동몽선습』을 교재로 강학을 하고, 책이 없을 경우 부형에게 필사하여 주도록 했다. 5조는 교육의 목표이다. 이 조항에서 박의장은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즉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서 성현을 배우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또한 그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소학』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약조는 다른 서원의 원구보다는 소략하지만, 교육의 목표와 대상, 평가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박의장은 전란으로 무너졌던 경주부의 문풍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전근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sup>16)</sup>

1599년 4월 박의장은 성주목사 겸 좌도방어사로 전근되었다. 그는 전란 전 경주판관으로 부임하여 경주부윤으로서 경주부의 방위 활동과 전시 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그는 전후 9년 동안 경주부의 목민관으로 경주를 이끌다 성주목사로 부임하였다. 1600년(선조 33) 박의장은 경상좌병사로 승직되었다. 이 시기 그는 장계를 올려 각읍에 군액이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의 휘하 장수 중 당상관인 자는 변방 방어의 책임을 부여해 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그해 겨울 그는 진영에서 風痺病으로 집으로 돌아왔다.<sup>17)</sup> 그는 풍비병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후 집에 머물며 療養했다.

1605년(선조 38)에 선조는 전란 중 공로를 참작하여 공신책봉을 단행하였

16) 『觀感錄續篇』 上, 「年譜」.

17) 위와 같음.

다. 박의장은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선무공신에는 책봉되지 못했으나, 공신 녹훈은 문중의 家格과 위상을 높이고 문중의 결속력 강화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sup>18)</sup> 1607년(선조 40) 박의장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고<sup>19)</sup>, 1610년(광해군 2) 사헌부는 그의 파직을 건의하기도 했다. 광해군은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박의장의 파직을 허가했다.<sup>20)</sup> 이후 박의장은 재서용되어 경상좌수사에 제수되었으나, 1615년(광해군 7) 경상좌수영 官廬에서 향년 61세로 별세하였다. 2월 棺柩가 고향으로 돌아왔고, 4월 8일 영해부 서쪽 烏峴 兪坐에 葬事했다.

## 2. 임진왜란기 朴弘長의 행적

박홍장은 1558년(명종 13) 아버지 박세렴과 영양 남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소년 박홍장은 거동이 의젓하고 기상은 엄숙하며 말이 적었다고 한다.<sup>21)</sup> 1575년(선조 8) 그는 월성 손씨와 혼인하였다. 「연보」에 의하면 1577년(선조 21) 再娶로 참봉 노만응의 딸인 광주 노씨를 맞이했다. 이듬해 박홍장은 구봉산 아래로 거처를 옮겨 살았다.<sup>22)</sup>

1580년(선조 13) 그는 23세때 무과에 급제<sup>23)</sup>한 후 阿耳萬戶<sup>24)</sup>로 부임했다. 1582년(선조 15) 평안도로부터 돌아와 선전관에 임명되었다.<sup>25)</sup> 「연보」에는

18) 장준호, 「務安 朴氏 武毅公派의 形成」, 『한국계보연구』 10, 2020, 103쪽.

19) 『宣祖實錄』 권211, 선조 40년 5월 7일 기사.

20) 『光海君日記』(중초본) 권92, 광해군 2년 5월 25일 기사.

21)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22)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23) 『庚辰別試文武科榜目』(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24) 阿耳萬戶는 평안도 理山郡 소속 관방인 阿耳堡를 관할하는 무관직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아이만호와 관련해서 7건이 검색된다. 『宣祖實錄』에는 金應瑞가 아이만호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확인되나, 박홍장이 아이만호에 제수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25)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에는 관직에 임명된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

1583년(선조 16)~1586년(선조 19)까지 박홍장의 사환 내력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sup>26)</sup> 1587년(선조 20) 그는 제주판관에 제수되었다. 「연보」에는 제주목사 시절의 일화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에는 기이한 보물이 많았으나 한번 묻는 일도 없었다. 매일 활쏘기를 일삼고 밤으로는 반드시 글을 읽었으며 병서와 사기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더욱 소학을 읽기를 좋아하여서 항상 하는 말이 “이것은 임금과 아버지가 주시는 글이라 하였다.” 서울에 있는 왕자 한 사람이 종을 시켜서 말을 사는데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데 관에서도 말리지 못하는 것을 부군이 엄하게 다스려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니 제주도민들이 다들 놀라서 아마 큰 화를 당하리라 하였으나 마침내 무사하였다.<sup>27)</sup>

위 내용을 보면 박홍장은 문인으로도 소양을 갖추고 있었고, 『소학』을 매우 중요시 한 것을 알 수 있다. 불의를 묵과하지 않았던 강개한 성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연보」를 보면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이전까지 관직 제수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주판관으로 직무 연한을 모두 채운 것으로 생각된다. 「연보」의 기록에도 ‘임진 4월 재직 연한이 차서 딴 곳으로 옮겨야 하나 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助防將으로 유임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다.<sup>28)</sup>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박홍장은 제주판관 겸 조방장에 제수되었다. 선조가 몽진길에 올랐다는 소식은 제주에도 전해졌다. 그는 형이 일본군에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경주성을 빼앗겼다는 소식에 분개하였다. 그는 형을 구원하고 싶어도 제주도에 갇혀 있던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였다. 무인으로서

---

제 仕宦을 했는지를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연보」에는 직첩과 문적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선조실록』에도 박홍장의 사환 내력은 1596년(선조 29) 대구부사 재직시절부터 확인이 가능하다(『宣祖實錄』 권76, 선조 29년 6월 26일 신유).

26) 『務安朴氏武毅公派世譜』, 호서출판사, 1975, 20쪽.

27)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28)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국은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9월 형이 경주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다.<sup>29)</sup>

1593년(선조 26) 10월 박홍장은 선조가 환도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계사년 말 박홍장은 잇단 부고를 전해들었다. 11월에 伯父 朴世賢이 별세하였다. 다음 달 23일에는 아버지 판서공 박세렴이 작고하였다. 백부와 생부의 연이은 별세는 박홍장에게 큰 충격이었다. 국가적으로 위급한 전란 상황에서 父親喪을 당했으나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다. 그는 무인으로서 사명감이 컸다. 『소학』의 실천을 중요시했던 그는 부모의 상을 치를 수 없는 애통함에 병을 얻고 말았다.<sup>30)</sup>

1594년(선조 27) 정월 아버지 박세렴은 초수동에 묻혔다. 상주인 형 박의장은 경주부윤으로 侍墓를 하지 못하고 임지인 경주로 돌아갔다. 이에 영양 남씨가 홀로 여막을 지켜야 할 상황이 되자, 박홍장은 비변사에 글을 올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차남 박홍장만 시묘하도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박홍장의 귀

29)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30)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박의장과 박홍장 두 형제는 『소학』과 이에 대한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상호의 연구에 의하면, 『소학』은 대부분 성현의 말씀과 행동을 중심으로 각 개별 사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소학공부가 성현들이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몸으로 익히게 하여, 그를 통해 도덕적 이치를 익히는 공부의 선행 학습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황에 의해 『소학』이 성인됨과 직결되는 책으로 인식되었고, 영남학파는 『소학』을 마음 공부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중요시하였다(이상호, 「영남학파의 『소학』 중시가 가진 철학적 특징과 교육적 함의」, 『국학연구』 18, 2011, 46~53쪽). 박의장의 숙부 박세현은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박의장은 퇴계의 문인인 金彦璣와 琴蘭秀에게 학문을 배웠다(장준호, 「임진왜란기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2쪽). 이처럼 박의장과 박홍장 두 형제는 퇴계학풍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두 형제는 주희가 말한 바와 같이 『소학』이 부모와 어른을 섬기는 것에 대한 배움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두 사람은 배움에 대한 실천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했다.

항길은 매우 험난했다. 조정의 허가를 받아 급히 돌아오느라 풍파에 시달려 배가 전복될 뻔한 위험도 감내했다.<sup>31)</sup> 그는 바다를 건너다가 康津에서 병을 얻었으나, 이후 海南에서 靈岩군수에 제수되었다. 부임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는 박홍장을 대구부사<sup>32)</sup>에 제수하였다.<sup>33)</sup>

임진왜란 초기 대구는 일본 제1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이후에도 일본군의 후속 부대가 연이어 대구를 통과해 북상했다.<sup>34)</sup> 7월 이후 대구지역에서도 의병 창 의가 이어지면서 일본군과의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화협상 시기 대구는 일본군의 북상을 차단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부각되었고, 柳成龍도 대구 방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홍장이 대구부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유성룡의 기대처럼 瘡痍을 어루만지고,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미를 마련했다. 또한 甲兵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박홍장의 노력으로 대구부는 完邑이 되었다.

31)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연보 중 갑오년 기사에는 박의장이 말미를 청하는 글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해 그가 동생이 바다를 건너면서 병을 얻어 강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박의장과 박홍장은 무인으로 일찍 관직에 나가면서 10여 년간 만나지 못했다. 이때 박의장은 동생이 제주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귀향할 때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했다.

32) 전임 대구부사는 具滉이었으나 사헌부는 그에게 字牧의 소임을 맡길 수 없다 하여 체차할 것을 요청했다. 선조는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황을 체차하고, 후임 대구부사로 박홍장을 임명하였다(『宣祖實錄』 권43, 선조 26년 10월 2일 임오).

33)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서애집』에 수록된 啓辭를 통해 柳成龍이 박홍장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유성룡은 「措置防守事宜 啓 乙未」를 선조에게 올렸다. 유성룡은 대구가 갖는 지리적·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대구는 서울로 가는 바른 길이며, 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도 사이는 땅이 매우 비옥하여, 금년(1595) 농경을 크게 실시하여 흠어진 군사를 모으면 진을 이루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성룡은 신임 대구부사 박홍장은 박의장의 아우로 무사 중에 유명한 자라고 하면서,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본부를 수리하고 기르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西厓先生文集』 권8, 「啓辭」 '措置防守事宜啓 乙未').

34) 大邱府 편, 『大邱府史』, 大邱府, 1943, 96쪽.

1595년(선조 28) 李元翼은 도체찰사를 겸하였다.<sup>35)</sup> 그는 8월 호남을 순행하고 영남에 이르렀다. 이때 경상우도 성주에 체찰부를 개설하였다.<sup>36)</sup> 「부목사공사적」에는 이원익과 박홍장과의 일화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우상 이원익 대감이 체찰부를 경상도에 개설하고 모든 군병들을 소집할 때 부군으로 중군을 삼기로 했다. 부군이 마침 외부에 나갔다가 급히 달려오는데, 세 마리의 준마에 한 필은 당신이 타고 한 필은 활과 화살을 싣고 한 필은 전투에 쓸 기물을 싣고 세 필이 가지런히 달려오는 것이 흡사 날아오는 것 같았다. 군중이 다 놀라서 바라보고 체찰사도 일어나서 보다가 “사람은 말을 맡은 사람을 서로 옮겨 만났구나”하고 위로하여 말하되 “공의 훌륭한 명망은 진작 듣고 있었으나 말을 어찌 이와 같이 연습시킬 수가 있느냐”하였다. 부군이 대답하되 “제가 임진난을 당하여서 먼 섬 속에 갇혀있어 아무 공을 세운 일이 없었는지라, 아직도 평란이 되지 않았으니 힘써 전투에 달려서 조그만 공로라도 세워볼까 하는 뜻에서 이 말을 훈련시킨 것입니다”하니 체찰사도 놀라는 얼굴을 지었다.<sup>37)</sup>

위의 내용은 『宣祖實錄』과 『宣祖修正實錄』, 『梧里先生文集』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록으로, 도체찰사 이원익과 박홍장과의 일화로 주목된다. 「연보」를 보면 박홍장에 관한 일화 중 馬와 관련된 것이 다수 등장한다. 즉 제주판관으로 있으면서 왕자가 말을 구입하려고 할 때의 일화, 대구부사로 재직 시 갑병을 보수한 것, 말을 조련한 것이 그것이다. 「연보」에 나오는 ‘繕 甲兵과’, ‘求得此馬 訓練’의 문구는 제주판관을 역임했던 박홍장의 경험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는 오랜 기간 제주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말의 선별과 조련 등의 경험을 갖고 있었고, 戰馬를 갖추어 전투에 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재능과 경험이 「부목사공사적」 속에 녹아 있다.

1596년(선조 29) 2월 부친상을 마쳤다. 6월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 책봉

35) 1595년 6월 이원익은 우의정 겸 하삼도·강원도 도체찰사에 임명되었고, 金玘은 부체찰사에 제수되었다.(『宣祖修正實錄』 권29, 선조 28년 6월 1일 임인).

36) 『梧里先生續集附錄』 卷1, 「年譜」; 『선조수정실록』 권29, 선조 28년 8월 1일 신축.

37)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사를 따라갈 배신의 선발을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이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權滉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무신인 대구부사 박홍장을 배신으로 보내는 방안이 제기되었다.<sup>38)</sup> 이에 조정에서는 박홍장에게도 3품의 실직을 제수하도록 했고, 노모에게는 매월 食物을 제공하도록 하였다.<sup>39)</sup>

1596년 8월 1일 명 책봉사의 배신으로 조선에서는 황신을 上使, 박홍장을 副使로 삼았다. 박홍장은 使行에 대해 '8월 10일 대마도 府中에 도착하여 15일까지 머물다, 日岐島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명 사신과 유격 심유경은 현재 五沙浦에서 머물면서 고척을 기다려 관백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나는 곳마다 왜인들의 접대가 공손했고 야나가와 시게노부 [平調信-柳川調信]도 정성을 다해 일행을 호송했다고 보고하였다.<sup>40)</sup> 병부에서는 일본의 정세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황신과 박홍장의 귀국 후 정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sup>41)</sup> 이후 조정에서는 박홍장을 순천부사에 제수하였으나 대구 부민들의 요청으로 유임되었다. 1597년(선조 30) 박홍장은 상주목사 상주진 첨병마절제사에 제수되었으나, 이듬해인 1598년(선조 31) 정월 초3일 향년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sup>42)</sup> 박홍장의 죽음에 박의장은 輓詞를 지어 애도했다. 만사에는 전쟁 속 무인으로 사는 삶의 고단함과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박홍장은 副使로 일본 사행을 다녀온 뒤 병을 얻었고,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박의장은 전장을 누비느라 동생의 입관조차 보지 못한 한스러움을 만사에 담았다. 박의장은 亡弟에 대한 제문을 지어 애도했다.<sup>43)</sup>

38) 『宣祖實錄』 권76, 선조 29년 6월 25일 신유.

39) 위와 같음.

40) 『宣祖實錄』 권80, 선조 29년 9월 1일 갑오. 「부목사공사적」에는 박홍장이 부사로 일본으로 가기 전 상황과 일본 내에서 있었던 일들이 소상히 기술되어 있다.

41) 『宣祖實錄』 권80, 선조 29년 9월 8일 신축.

42)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43) 『觀感錄』 卷3, 「拾遺」 '祭亡弟土任'.

### 3. 박의장·박홍장의 위상 정립

무안 박씨 영해파 중 박의장과 박홍장은 선조조에서 무신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박의장은 임진왜란 발발 전후 9년간 경주판관·부윤을 역임하면서 일본군에게 빼앗겼던 임지 경주성을 탈환하였다. 9년간 경주부 목민관을 역임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기도 했다. 1605년 선조는 대대적인 공신을 책봉하였는데, 이때 박의장은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그는 무반으로 문관 종2품직인 경주부윤을 역임하였고, 사후 자헌대부 호조판서겸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증직되었다.<sup>44)</sup> 한편, 박의장의 아우 박홍장은 1596년 일본에 사행을 가기 전 3품으로 승품되었고, 실직으로 종3품인 대구부사와 상주목사를 역임하였다.<sup>45)</sup> 박홍장이 목사공으로 불린 것을 상주목사를 역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충신과 열사에 대한 현창 사업은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지속되었고, 치열한 전적지나 충신·열사들의 연고지 등에 사우가 계속 설치되었다.<sup>46)</sup>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박의장의 사남<sup>47)</sup> 박선은 아버지에 대한 爲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증직이 이루어진 직후 그는 府君의 家傳을 정리하였다. 家傳의 앞 부분에 ‘贈資憲大夫 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 行嘉義大夫 慶尙左道兵馬節度使兼蔚山都護府使 府君家傳<sup>48)</sup>’이라고 기술된 점에서, 가전이 증직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가전을 통해 선대의 업적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묘의 이장도 단행하였다. 그는 1633년(인조 11)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면서 어머니 영천 이씨와 합장하였다. 박선은 아버지의 묘를 이장한 후 鄭好仁에게 편지를 보

44) 『觀感錄續篇』上, 「年譜」.

45)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46) 정옥자, 「正祖代 對明義理論의 整理作業」, 『韓國學報』 69, 1992, 85쪽.

47) 삼남은 朴功으로 출계하였다.

48) 『觀感錄』 권1, 「家傳」.

내 묘지명을 부탁하였다. 아버지의 장례때는 정신이 없어 묘지명을 청하지 못하다, 묘의 이장을 계기로 정호인에게 묘지명을 부탁한 것으로 생각된다.<sup>49)</sup> 묘지명 다음으로는 신도비를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신도비명은 전 대사간 金應祖가 썼다. 그는 박홍장의 묘갈명도 지었다.<sup>50)</sup> 신도비명의 마지막 부분에 祠宇를 세우려는 의논이 있다는 내용을 통해 이 글은 1655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응조가 지은 신도비명 뒤에는 갈암 李玄逸이 「書金鶴沙所撰判書朴公碑銘後」를 짓기도 했다. 또한 외증손 밀암 李栽는 「神道碑陰記」를 썼다. 박의장의 사남 박선은 墓誌과 神道碑를 통해 아버지의 임진왜란 기 공로를 환기시켜, 문중의 결속을 강화하였다.<sup>51)</sup>

묘지명과 신도비명에 박의장의 임진왜란 시의 공로가 강조되어 있고, 후에 추기된 신도비명 後記의 주요 골자도 박의장의 임진왜란 공로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이렇듯 박의장에 대한 강도 높은 宣揚의 배경에는 朴而章의 탄핵이 있었다. 박선은 위선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촌과 문중 내 박의장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향촌 내 사우 건립의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의장과 박홍장을 모신 사우의 건립이 이루어졌다.

### Ⅲ. 구봉서원의 설립 과정과 운영

#### 1. 구봉서원의 설립

영해에서는 1608년(선조 41) 단산서원이 건립되었다. 영해에 서원 건립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신활이었다. 그는 영해 사람들이 무예를 숭상하여 문풍이 쇠잔해졌기에 문풍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영해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에서와 같이 서원 건립이 필요하다

49) 『觀感錄附錄』 ‘墓誌銘’.

50) 『觀感錄』 「附牧使公事蹟」.

51) 장준호, 앞의 논문, 2021, 107쪽.

고 주장했다.<sup>52)</sup> 1608년 신활을 비롯한 영해 사람들은 영해부사 盧景任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경상감사에게 상서를 올려 서원 건립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sup>53)</sup> 영해 일향 사족들은 이 서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노력의 결과 영해부사와 경상감사의 도움으로 단산서원이 건립되었다. 신활의 건의로 우탁만이 제향되었으나 이후 영해와 연관이 있는 이곡·이색이 추향되었다. 단산서원은 건립 후 영해 향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향촌사람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sup>54)</sup> 이 서원은 예천의 역동서원의 원규를 본받았고, 별도의 12조를 제정하였다.<sup>55)</sup> 단산서원은 원규뿐만 아니라 건물의 명칭도 예천의 역동서원을 모방하였다.<sup>56)</sup>

한편, 박선의 위선 사업은 박의장의 판서 증직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향중 내 사우 건립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관감록』 부록 유사에는 ‘1655년 이후로 향중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院祠를 세우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기술이 있다.’<sup>57)</sup> 조선시대 원사는 초창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일향 또는 一道 사람의 공론에 의해 祭享者의 내외손과 일향 사람의 공동협력에 의해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55년 무렵 향촌에서는 박의장과 박홍장을 기리는 사우 건립 논의가 무르익고 있었다. 『관감록부록』 「연보」에는 영해 향중에서 九峯에 사우를 세우고 精忠祠라 명명했다고 기술되어 있다.<sup>58)</sup> 『관감록속편』 「부목사공연부」에도 영해 사람들이 구봉산 아래 사당을 세우고 제향을 치렀으며, 1785년(정조 9) 정월 초6일에 유림들이 구봉정사를 서원으로의 승격을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다.<sup>59)</sup> 앞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현종조

52) 이병훈, 「우탁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국학연구』 43, 2020, 397쪽.

53) 위와 같음.

54) 이수환, 앞의 논문, 6쪽.

55) 위와 같음.

56) 이병훈, 위의 논문, 398쪽.

57)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年譜」.

58) 『觀感錄』 「附錄」 「年譜」 와 「附牧使公事蹟」 에도 같은 해 영해 사람들이 구봉산 아래 사당을 세워서 정충사로 이름하고 제향을 치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 1655년에 정충사가 먼저 건립되어 박의장과 박홍장에 대한 향사가 이루어졌고, 1666년(현종 7) 구봉정사가 건립되면서<sup>60)</sup> 함길도도사 박종문을 추향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감록부록』에는 李嵩逸이 쓴 「구봉정서상량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승일이 쓴 「구봉정사상량문」에는 ‘丹陽(영해)는 먼 고을이지만 해동에서 이름이 높은 곳으로 풍속이 무를 숭상하니 장수의 재목이 성하게 일어났다’고 쓰여있다. 그가 영해에서 배출한 무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함길도도사를 지낸 박종문과 호조판서로 증직된 관군 장수 박의장,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도 君命을 욱되게 하지 않은 대구목사 박홍장이었다.<sup>61)</sup> 「구봉정사상량문」에는 구봉정사 건립을 위한 자손과 향중인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상량문을 보면, 예의를 갖추지 못하여 부끄럽다고 한 것과 백방으로 계획하여 커다란 규모의 건물들을 건립한 것으로 볼 때, 정충사 이후 구봉정사의 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sup>62)</sup> 이제 정충사는 영해가 배출한 세 무인(박종문, 박의장, 박홍장)을 배향한 구봉정사의 부속건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영해 무안 박씨 문중은 박의장과 박홍장의 사우를 세운 후 구봉정사를 건립하였다. 봉안문에는 구봉정사에 박의장과 박홍장의 위패를 모시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즉 박의장의 경주성 탈환의 전공과 대구목사로 일본에 갔던 박

59) 『觀感錄續編』 「附牧使公事蹟」.

60) 『燃藜室記述』 별집 권4, 「祀典典故」 書院. 『연려실기술』에는 구봉정사가 현종 병오년에 세웠다고 기술되어 있다. 『관감록』 「연보」 『관감록속집』에는 현종 6년 1655년에 구봉에 사우를 세워 정충사라고 하였다. 김응조가 쓴 박의장의 「神道碑銘」의 마지막에 「精祠數椽 公義一脈」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신도비명의 작성 시점에 사우를 지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해은은 정충사는 행장에 근거해 볼 때 박의장 사후가 아닌 그 이전에 세워졌고 원래 박홍장의 사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정해은, 壬辰亂期 龔啞堂 朴弘長의 救國活動研究, 壬辰亂情神文化宣揚會, 2020, 178쪽). 그러나 박홍장의 사당이 먼저 건립되었다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61) 『觀感錄續編』 「九逢精舍上樑文」.

6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명가의 고문서』 7, 2009, 261쪽.

홍장의 의기를 선양하기 위함이었다. 두 사람의 위패와 함께 함길도도사 박종문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 향중 사람들은 영해가 나온 세 무인의 위패를 구봉정사에 봉안했던 것이다. 봉안문 뒤에는 常享祝文이 수록되어 있다.<sup>63)</sup> 뒤에는 鄭玉이 쓴 「觀感錄跋文」 수록되어 있다.<sup>64)</sup>

한편, 1672년(현종 13) 李徽逸의 서거 이후 영해 향중에서는 또다른 서원 건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687년(숙종 13)에는 서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유림들은 공론을 모아 仁山精舍를 짓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영해부사 任元耆에게 보고했다. 인산서원의 건립 과정을 보면 우선 인랑리 書簾下에 터를 잡고 정사 건립을 위한 각 집사를 분정했다. 1688년(숙종 14) 10월 18일 터를 닦기 시작하여 11월 3일 사당 3칸을 상량하였다. 상량문은 金克一이 지었다. 경상도관찰사 李玄紀는 군정과 미포를 지급하여 인산정사 건립을 후원해 주었다.<sup>65)</sup>

1783년(정조 7) 박의장의 6세손인 朴師周는 講誦上言을 올렸다. 제학 黃景源은 謚狀을 지었다. 그는 시장에서 임란 중 박의장의 전공을 상세하게 밝히고 전란 후 효를 다했다고 기술했다.<sup>66)</sup> 영해 사람들은 公議를 모아 박의장의 행적을 정리한 다음 영해부사에게 연명으로 박의장의 시호를 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해 일대 유림들의 공의이기도 했지만, 배후에

63) 『觀感錄附錄』 「常享祝文」 ; 「부목사공사적」에는 김응조가 쓴 「九逢精舍常享祝文」이 수록되어 있다.

64) 『觀感錄附錄』 「觀感錄跋文」. 『관감록』은 박의장의 외증손인 밀암 이재가 서문을 쓰고, 1757년 정옥이 발문을 써서 완성하였다. 광해군대에 증직을 계기로 박의장에 대한 事蹟 정리가 이루어졌고, 묘의 이장과 함께 묘지명과 신도비명도 완성되었다. 한편, 박의장과 박홍장의 공적과 충정을 기리기 위한 구봉정사가 건립되면서 두 형제의 위패와 박종문의 위패가 함께 모셔졌다. 이후 『관감록』과 『관감록부록』이 완성되었다.

65) 그러나 인산서원의 건립은 갑술환국을 맞게 되고 이현일이 노론으로부터 ‘名義罪人’으로 몰려 귀향을 가게 됨으로써 지연되었다. 인산서원은 8년 만에 건립의 역사를 마무리했다. 어렵게 준공한 인산서원은 1737년(영조 13) 노론의 대남인 탄압책의 일환으로 훼손되고 말았다(이수환, 앞의 논문, 7~19쪽 참조).

66) 장준호, 앞의 논문, 2021, 109쪽.

무안 박씨 문중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sup>67)</sup>

박사주는 보다 적극적으로 講誼 활동을 벌였다. 즉 정조의 원릉 행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시장을 올렸다. 그가 올린 시장을 승지 이형원이 접수하였다. 박사주가 올린 시장은 증시 행정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다. 그는 장문의 청시 상언에서 선대 박의장의 임진왜란기 공로를 열거하였다. 그는 임진왜란 동안 박의장이 경주판관으로 2년, 경주부윤으로 7년을 역임하면서 경주를 지킨 공로는 유성룡과 이원익의 장계에도 나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신의 先祖와 함께 공을 세웠던 문·무관이 시호를 얻었는데, 자신의 선조만 시호를 얻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의 청시는 정조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정조는 박의장에게 사시하는 은전을 베풀 것을 명하였다.<sup>68)</sup>

박사주를 비롯한 영해 무안 박씨와 향촌 유림들의 노력으로 박의장에게 ‘武毅’라는 시호가 내려졌다.<sup>69)</sup> 武는 왜구를 무찔러 적을 두렵게 하였다는 것이며, 義는 강직하게 일을 잘 판단했다는 것이었다. 무의의 시주는 박의장의 품모와 행적을 적절하게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sup>70)</sup> 박의장에 대한 증시는 정조대에 와서 박의장의 임란 전공을 재확인받았다는 점은 문중에게 대단한 영광이었다. 또한, 이것은 영해 무안 박씨 문중이 임란 공신을 배출한 가문으로서의 위상을 조야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1784년(정조 8) 3월 박의장의 시호가 확정되었고, 그해 10월 연시 행사 준비가 완료되었다. 조정에서는 사시관을 파견하였다. 연시 행사에 무의공 중

6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명가의 고문서』 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110쪽.

68) 양난 이후 조선은 국가적으로 충신·열사의 현창사업의 지속하였다. 정조가 임란 공신 박의장에게 사시를 결정한 것은 열성조부터 진행되어 왔던 국가적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는 충신·열사의 후손과 皇朝人 후손을 국가에서 찾아내어 수용하는 조치를 계속 반복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조는 열성조의 정신적 지주였던 존주론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 『尊周彙編』을 편찬하기도 했다(정옥자, 앞의 논문, 79쪽). 『正祖實錄』 권17, 정조 8년 2월 8일 갑자.

69) 『正祖實錄』 권17, 정조 8년 3월 11일 병신.

7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앞의 책, 160쪽.

손을 비롯한 문중 인사들과 영해 향중 유림이 대거 참가했다. 연시는 무안 박씨 문중뿐만 아니라 향중 전체의 큰 행사였고, 이를 계기로 무안 박씨 문중의 가격은 보다 높아졌다. 연시가 끝난 후 박의장의 6세손 朴顯周는 「焚黃告辭」를 지어 선대에게 시호가 내려진 것을 고하였다.<sup>71)</sup> 시호가 내려지자, 구봉서원의 位版改題가 이루어졌다. 위판교체를 위한 고유문은 이주원이 지었다. 박의장에게 시호가 내려진 직후 후손들은 구봉정사에 모셔진 박의장의 위판을 교체하였다. 사시를 계기로 구봉정사는 서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후 구봉정사는 구봉서원으로 격상되었다. 임진왜란시 경주를 지켜낸 공로가 있는 박의장과 적진에 들어가서도 굴하지 않는 절의를 보여주었던 박홍장을 모신 사우는 구봉정사로 개편되었고, 정조가 시호를 내린 후 서원으로 개편되었다.

## 2. 구봉서원의 운영

구봉서원은 서원 승격 이전 구봉정사 시기인 1771년(영조 47) 조정으로부터 10명의 원생을 배정받았다. 10명은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에 할당되는 원생수였다. 1784년 박의장에게 무의의 시호가 내려지자, 1785년(정조 9) 영해 유림은 구봉정사를 구봉서원으로 승격시켰다. 가장 먼저 구봉정사의 위판을 구봉서원으로 고쳐 달았다. 『관감록속편』에는 「九峯改題位版時 告由文」<sup>72)</sup>과 「九峯禮成後告辭」가 수록되어 있다. 「구봉개제위판시고유문」인 이주원이 지었다. 그가 쓴 고유문을 필두로 많은 유림들이 모여 구봉서원으로 위판 교체를 축하했다. 이제 구봉정사는 박의장의 증시를 기점으로 구봉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구봉서원은 서원으로서 각종 의식과 규범을 정비하였다. 이것은 당시 영해부사였던 洪彦喆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영해부에서 구

71) 『觀感錄續編下』 「附錄」 '焚黃告辭'.

72) 『觀感錄續編』에는 「九峯改題位版時 告由文」과 「九峯禮成後告辭」.

봉서원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각종 제물 지원을 인정하는 원문을 발급해 향후 안정적인 서원 운영을 지원하였다.<sup>73)</sup> 1785년 구봉정사가 서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무안박씨 宗中에서는 서원 운영에 필요한 토지와 노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구봉서원은 기존 사우에서 수행하던 향사의 기능을 확대·계승하면서 교육 기능도 겸하게 되었다. 무의중 종택 종손 朴漢大를 필두로 문중인사들은 구봉서원에 노비 4구를 바쳤다. 다음 명문을 통해 구봉서원 운영을 위해 무안박씨 종중에서 어떠한 지원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乾隆 51년(1786년) 병오 8월 17일에 구봉서원 원장 權昌祚 앞으로 작성한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 때문이다. 선조의 諡號를 받아 승격된 뒤에 규모와 品式이 전과 다르지만 본소의 奴僕이 적어서 廟宇를 수호하는 절차와 향사하는 무렵에 매번 어려움이 많았다. 자손된 도리에 있어서 근심스럽고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에 罷齋하는 날에 문중과 상의하여 集喜庵 재사의 婢 任德의 첫 번째 소생 비 □□와 같은 비 첫 번째 소생 노 □□, 두 번째 소생 비 □□, 같은 비 첫 번째 소생 노 □□ 등 4구를 이미 태어난 것과 뒤에 태어날 자식과 더불어 영구히 상납한다.

뒷날 잡담하는 일이 생기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일.

종손 朴漢大 喪不着<sup>74)</sup>

구봉서원의 승격을 계기로 박한대는 문중소유의 희암재사의 소속 노비 4구를 구봉서원에 상납하였다.<sup>75)</sup> 『관감록속집』 「구봉망일루상량문」을 통해 구봉정사가 제향과 강학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구봉망일루상량문」은 사간원 정언을 지낸 南景羲가 지었다. 1788년(정조 12)에 사간원 정언이었던 권력을 고려할 때, 구봉망일루는 박의장에게 시호가 내려진 후에 건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구봉산 구봉정사에는 유생들이 공

73)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앞의 책, 2009, 263쪽. 고문서의 원문 인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74)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위의 책, 267쪽.

75) 위와 같음.

부를 위해 모였고, 문중과 관에서 재물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堂室이 좁아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 망일루를 건립하였다. 건립 당시 망일루는 2층으로 지어졌고, 두 간 방을 두어 유생들이 머물 수도 있었다.<sup>76)</sup> 망일루가 건립되면서 구봉서원은 묘우인 정충사를 필두로 강당인 惇典堂과 재실인 正義齋, 一誠齋, 누각인 望日樓 등을 갖추었다.



〈그림 1〉 구봉서원과 망일루 편액

그러던 중 1793년(정조 17) 영해부에서는 구봉서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영해 유림들은 연명해 옛 제도로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等狀을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化民 白斗玉 등이 황공한 마음으로 재배하고 성주께 우러러 진달하옵니다. 삼가 생각건대 구봉서원은 바로 증판서 박공의장 형제의 영혼을 모시는 곳입니다. 임진년과 계사년의 왜란 때 박공께서는 경주를 수복하여 경주부윤에 올랐으니, 8년 전쟁에 그 공훈이 우뚝이 드러났습니다. 공의 아우이신 목사공 박홍장께서는 槲浦 黃愼과 함께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국명을 욕되지 않고 임무를 잘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선묘조에 正卿으로 증직되었고, 인조조에는 사당을 세워 (두 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sup>77)</sup> 갑진년(1784)에 시호를 내려주시어 은전이 있어 무의공이라고 증시하여, 온 고장의 사람과 원근의 선비들이 즉시 精舍를 세웠는데 서원으로 승급되었습니다. 그때 성주 혼연철이 부임하여 참배

76) 『觀感錄續編』 「九峯望日樓上梁文」.

77) 『관감록』의 기록에 의하면, 정충사는 현종조인 1655년 세워졌다(각주 58번 참조).

하고, 完文을 확정하여 品式과 儀節을 한결같이 단산서원의 예를 따라 서원 가운데 보관하여 영구히 遵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금년 묘당에서 바닷가의 백성을 보호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예전 성주께서 巡營의 關文에 따라 순영에 보고하여 본 서원의 斜膳規例를 혁파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해당 아전들이 문적을 대조하여 등재할 적에 흥 성주께서 서원으로 승급한 이후의 사실을 망각하고, 옛날의 정사인양 등록하였기 때문에 옛 성주께서 이를 보고 혁파 하셨습니다.

대저 본부의 향교와 서원이 쇠락한 사실은 성주께서 부임한 날이 얼마되지 않으셨으니 오래되면 응당 잘 아실 것이지만, 구봉서원의 쇠락은 한 고장의 사림이 모두 걱정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읍의 모든 사람이 명백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사선을 폐지한 것은 어찌 민정을 더욱 제대로 살피시지 않음이 아니겠습니까. 봄·가을 上丁日에 올리는 제사 때에 물품을 마련하기 어려운 폐단은 두 번째 일입니다. 院規의 常道가 없이 오르내리고 관가에서 균등하지 않게 주고 빼앗으니 어찌 저희들이 한탄하며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이번에 이러한 거조는 朝令과 감영과 관계되는 일이니, 결코 합하게서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 아니옵니다. 삼가 들건대 금명간에 영문으로 행차한다 하시니, 이에 감히 우러러 학문을 숭상하고 학교를 흥시하려는 합하게 하소연하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監司를 직접 만나시어 자세히 본부 학사의 쇠락한 폐단을 아뢰신 뒤에, 본원의 이전 규례를 허락하시어 쇠락한 학사가 영구히 祭享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주께서 처분해 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바라나이다.

계축년(1793) 7월 일 李宇芳 (후략)

[제사 본 서원의 쇠락한 상황은 알고 있지만, 다만 이미 혁파한 物膳을 갑자기 옛날의 규례대로 회복하기 어려우니 심히 민망스럽다. 영문에 가서 감사를 만나서 직접 품의하는 것은 편의에 따라 선처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 만일 달리 대신할 만한 좋은 방도가 있다면 사림들은 아뢰어서 잘 처리한다면 좋은 일이다. 18일

사 [압]<sup>78)</sup>

78)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앞의 책, 2009, 263쪽.

迺日軒 백두옥이 중심이 되어 올린 등장에는 대흥백씨, 안동권씨, 무안박씨, 재령이씨 등 영해 향중의 대표적인 선비들이 연명했다. 그러나 등장을 접수한 영해부사는 이미 혁파한 물건을 옛 제도대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백두옥 등이 감사를 만나 품의하여 선처해 달라는 요청도 규례가 아닌 편의에 따라 선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구봉서원은 영해부가 지급해주는 물선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1793년 새로 부임한 영해부사가 사선규례를 폐지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구봉서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물질·인적 자원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한편, 구봉서원 승격 이후 下人廳도 건립되었다. 구봉서원 실무 운영을 담당하는 인사들은 하인청 설립 경위를 목판에 판각해 놓았다. 다음은 내용을 통해 하인청 설립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 하인청 설립기

廳을 설립한 지 오래되었다. 우리 손선생 奉이 班中을 통솔하고 재물을 모아 대략 규모를 갖추었지만, 불행하게도 선생께서 끝을 보지 못하고 班首였던 김선생 갑진이 그 뜻을 이루어 큰 공로를 세웠다. 이에 우리들이 봄가을 講會를 맞아 개연히 감회를 일으켜 가만히 공중을 기록하는 의를 본받으려 했지만 아직까지 겨를을 내지 못했다. 근자에 校院이 모두 하인청을 설립하여 선생안이 길이 우리러 사모할 곳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반중이 일제히 모이는 날 공의를 발하여 두 선생의 이름을 새겨 쓰고, 또 아래 줄에 某事를 기록하니 모든 사람이 뒷날 보고 느끼는 자료로 삼고자 할 따름이다.

가경 18년 계유년(1812) 2월 초하루에 적음.

先生案 孫奉 金甲辰

掌務 尹山

都色 朴行得

書記 林得孫<sup>79)</sup>

7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앞의 책, 2009, 271쪽.

위 하인청 설립기를 통해 하인청의 건립과 완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즉 孫奉이 여러 사람을 의견을 수렴하고 재물을 모아 하인청의 기본 규모를 갖추었으나, 하인청 설립의 완성은 보지 못했다. 이후 金甲辰이 재원을 보충해 하인청을 설립하였다. 이후 구봉서원의 실무 운영을 담당했던 장무 尹山, 도색 朴行得, 서기 林得孫은 공의를 발의하여 손봉과 김갑진이 하인청을 설립한 경위를 밝히고 그 사실을 목판에 판각해 놓았던 것이다.

하인청 설립 이후 1850년 이전까지 구봉서원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알 수 없으나, 하인청 설립기 판목의 내용을 통해 서원 운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즉 구봉서원은 비사액서원으로 10명의 원생을 배정받았고, 봄·가을에 강회를 열었다. 구봉서원의 구성원으로는 원장, 재임, 장무, 도색, 서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구봉서원은 10명의 원생수를 채우지 못한 채 3명에게 향례 및 제수 운영과 관련한 소임을 할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생 중 金仁順이 영해의 사령으로 차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인순의 차출은 구봉서원 유지 및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朴壽周를 소두로 하여 영해부사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九峯書院儒生等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봉서원 유생 남유상 등이 목욕재계하고 재배하며 성주합하게 우리러 전 달하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본 서원은 선묘조 일등공신 시호 무의공 淸愼齋 박선생과 목사 박공 형제의 영혼을 모시는 곳입니다. 두 분의 우뚝한 공훈과 뛰어난 절의는 역사책에 기재되어 있고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어 있으므로 굳이 장황스럽게 말하거나 자잘하게 다시 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저 원생 역시 명색은 儒生이라고 하니, 그 지위와 문벌이 어떠한지 논할 필요없이 여타 서원의 下隸들과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서원에서 제향을 올리는 집사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장수의 휘하에서 使役に 편입되어 있으니, 事體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인을 제향하며 학문을 강론하는 서원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어진 사또님께서 첫 번째로 행해야 할 일인데, 이와 같이 뜻밖의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을 가지고 따져보면 의아한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생

각건대, 이는 필시 사역에 편입시키는 자가 착오가 있었고 위에 계시는 사또님이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감히 사유를 갖추어 訴狀을 올리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통촉하시어 분간하시고 특별히 頗免하시옵소서.

경술년(1850) 7월 일 박심주 (후략)

[제사 문적이 분명하므로 특별히 탈면해 줄 것. 13일

사 [압]<sup>80)</sup>

구봉서원에서 올린 소장을 접수한 영해부사는 특별히 역을 면해주었다. 서원에 소속된 원생은 제향을 올리는 집사로 서원 운영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禮納의 형태로 일정한 재원을 서원에 납입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봉서원이 향사와 교육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sup>81)</sup>

1850년 영해부에서 구봉서원 유생에 대한 탈면 조치를 내렸으나, 1852년(철종 3) 구봉서원 소속 노복 3명을 군역에 편입시켰다. 이에 구봉서원 원장과 齋任은 영해부사에게 다음과 같은 牒報를 올렸다.

구봉서원이 牒報하는 일이다.

삼가 생각건대 본원의 노복을 모두 줄여서 내려주고 이른바 分汗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조에서 관례대로 정한 액수가 10명인데 다만 3명만 얻었으니 숫자를 갖추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군사를 점검하는 날에 서로 섞이게 되는 폐단이 있으나 관가에서 특별히 錄案을 만들어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발표하는 날에 본원의 奴인 장계득과 권철보를 爬丁에 혼동하여 넣었습니다. 이는 필시 해당 아전이 녹안을 살피지 못한 까닭입니다.

대저 張季得은 일찍이 고지기를 지낸 사람의 아들로 그 아우와 함께이고, 權哲甫는 의례대로 지급해 준 원래 액수인 11명 중에 그 수입입니다. 참으로 한변

80)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위의 책, 2009, 269쪽.

81) 위와 같음.

사유를 갖추어 올리니, 생각건대 반드시 현인을 숭상하고 학문을 존중하는 정치를 펴는 입장에서 생각하여 살펴 주실 것입니다. 마침 城邑에 일이 있어서 물러나서 打疊을 기다린 뒤에 우리러 호소하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녹안을 살펴서 분간하시어 처음의 명령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러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첩정을 보냅니다.

이 첩정은 도호부 앞으로

임자년(1852) 7월 일 원장 南 [작명]

재임 朴 [작명]

[제사] 마땅히 敎院案을 거두어 들인 것은 살펴볼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정하는 날에 여러 눈이 있는데도 살피지 못함은 허물이 관가에 있으니 장계득 및 권철보 두 사람의 역을 특별히 頌下할 일

25일 兵房<sup>82)</sup>

위 첩보를 접수한 영해부사는 영해부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구봉서원의 원장과 재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구봉서원에 소속된 장계득과 권철보에 대한 군역 차출은 면제되었다. 위의 두 자료에서 보면, 배정된 유생 및 소속 노복들이 군역에 편입될 경우 서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봉서원이 비사액서원으로 배정받은 10명의 원생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10명 이하로 운영되던 중 영해부의 군역 차출은 서원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 이에 원장과 재임이 소장을 올려 영해부사에게 탈면을 요청했던 것이다. 어렵사리 운영되었던 구봉서원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의 서원철폐령으로 강당 건물 외 나머지 건물들이 모두 훼손되고 말았다.<sup>83)</sup>

8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앞의 책, 2009, 273쪽.

83) 서원철폐령으로 구봉서원은 철폐되었지만 1899년(고종 3)에 간행된 『경상북도 영해군읍지』에는 구봉서원은 단산서원과 함께 영해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읍지에는 구봉서원에 판서 박의장과 목사 박홍장이 並享됐다고 표기되어 있다(『경상북도영해군읍지』(奎 10811)). 현재 구봉서원은 훼손 이후 복설되지 못했고, 齋舍였던 망일루만 남아 있다(장동익 편저, 『鸞啞堂 朴弘長의

#### IV. 맺음말

단산서원과 함께 영해를 대표하는 서원인 구봉서원은 일반적인 서원과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선조조 무신이었던 박의장·박홍장 형제를 향사한 서원이라는 점이다. 정충사라는 사우에서 구봉정사로 박의장의 증시를 계기로 서원으로 변모하였다. 이 서원의 운영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박의장의 문집인 『관감록』을 통해 사우에서 서원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655년 정충사라는 사우가 건립되었고, 1656년 구봉정사가 건립되었다. 정충사와 구봉정사는 대명의리론이 강조되고 존주론이 성립되던 시기에 건립되었다. 정충사와 구봉정사의 건립 과정에서 문중 후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들은 박의장·박홍장 형제의 사우 건립을 위한 향론을 주도하였다. 임진왜란시 경주성을 탈환한 박의장과 엄중한 시기에 일본 사신으로 가서 국명을 지킨 박홍장의 의기를 향중의 인사들은 높이 평가했다. 영해 구봉에 자리잡은 정충사는 무안박씨 문중과 영해 향중 사람들에게 忠과 義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박의장의 6세손 박사주는 존주론이 강조되던 정조조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선조에 대한 증시를 청원하였다. 정조는 박사주의 증시청원을 받아들여 박의장에게 무의라는 시호를 내렸다. 시호의 증직은 정조로부터 박의장의 임란기 공적을 재확인 받는 계기가 되었다. 증시가 이루어진 후 무안박씨 문중과 향촌 유림들은 구봉정사의 위패를 교체하였고, 구봉정사의 편액을 내리고 구봉서원이라는 편액을 내걸었다. 1656년 정충사에서 구봉정사로, 다시 구봉정사에서 서원으로 변모하면서 구봉서원은 영해를 대표하는 또 다른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구봉서원으로 승격하였으나 사액은 받지 못했다. 구봉서원은 비사액서원

---

生涯와 壬亂救國活動』,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2, 221쪽).

으로 10명의 유생을 배정받아, 제향과 강학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서원으로 승격된 이후 영해부로부터 물선을 지급받기도 했으나, 새로운 부사의 부임 이후 물선 지급이 중단되어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영해부에서 유생과 노복을 군역에 차출하자, 서원 운영을 위해 원장과 재임을 영해 부사에게 탈역을 연명하기도 했다. 봄과 가을에 강학을 하고, 향사를 하던 구봉서원은 여타의 서원과 마찬가지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휘철되고 말았다. 그러나 구봉서원은 1899년 편찬된 『경상북도영해읍지』 단산서원과 함께 영해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무안박씨 문중의 걸출한 무신을 배향한 서원으로 인식되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觀感錄』

『光海君日記』(중초본)

『경상북도영해군읍지』(奎 10811)

『庚辰別試文武科榜目』

『萬曆五年丁丑十月初六日文武科別試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牧民心書』

『務安朴氏武毅公派世譜』

『西厓先生文集』

『宣祖實錄』

『梧里先生續集附錄』

『燃藜室記述』

『務安朴氏武毅公派世譜』, 호서출판사, 1975

관감록역간추진위원회, 『觀感錄』, 관감록역간추진위원회, 1979.

변승주 역주, 『여지도서』, 디자인흐름,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명가의 고문서』 7, 2009.

### 2. 연구논저

大邱府 편, 『大邱府史』, 大邱府, 1943.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2, 1975.

정옥자, 「正祖代 對明義理論의 整理作業」, 『韓國學報』 69, 199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1996.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장동의 편저, 『鸞啞堂 朴弘長의 生涯와 壬亂救國活動』,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2.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수환, 『寧海 仁山書院의 設立과 毀撤』, 『大丘史學』 63, 2005.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장준호, 「임진왜란기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우인수, 「務安 朴氏 寧海派와 武毅公 朴毅長」, 『朝鮮史研究』 17, 2008.
-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 『군사』 76, 2010.
- 이상호, 「영남학파의 『소학』 중시가 가진 철학적 특징과 교육적 함의」, 『국학연구』 18, 2011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
- 정순우,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 우인수, 「영덕(盈德)지역 무안박씨(務安朴氏) 가학(家學)의 전승과 양상」, 『국학연구』 36, 2018.
- 장준호, 「임진왜란기 경주(慶州)의 동향(動向)과 경주부윤 박의장(朴毅長)의 전시행정(戰時行政)」, 『국학연구』 36, 2018.
- 이병훈, 「우탁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국학연구』 43, 2020.
- 장준호, 「務安 朴氏 武毅公派의 形成」, 『한국계보연구』 10, 2020.
- 정해은, 壬辰亂期 龔啞堂朴弘長의 救國活動研究, 壬辰亂情神文化宣揚會, 2020.
- 이경동, 「16세기~17세기 초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구조와 변화」, 『중앙사론』 55, 2022.
- 정재훈, 「조선후기 龍山書院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16, 2023.

Abstract

##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Operation of Gubong Seowon in Yeonghae(寧海)

Jang, Jun-ho\*

Gubong Seowon(九峯書院) is Yeonghae's representative Dansan seowon(丹山書院) along with the kindergarten. Mortuary tablet for Park Uijang and Park Hong-jang, who were active in the Joseon Dynasty's King Seonjo in Gubong Seowon. 1655, a shrine was built to commemorate the two men's memorial tablets. The shrine's construction was promoted during a period of emphasis on Daemyeong uiriron(對明義理論),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the Second Manchu Invasion. Later, as the title was given to Park Uijang of Jeongjo University, it was promoted to a seowon.

After being promoted, the seowon was supported by the Muan Park clan's human and material support, and was operated with the support of Yeonghaebu(寧海府). 10 Yusaeng(儒生)s were assigned because it was not officially approved by the government. However, Gubong Seowon had several difficulties in its operation. Nevertheless, this seowon was developed into a seowon representing the Yeonghae, and rituals and education were actively conducted until it was abolished.

Key word : Gubong Seowon, Yeonghae, Park Uijang, Park Hongjang, Daemyeong uiriron

논문 투고일: 2024. 05. 15 심사 완료일: 2024. 06. 11 게재 확정일: 2024. 06. 11

---

\* Naval Academy Maritime Institute / Director of the Chungmugong Research Department, hisjunho@naver.com

# 경주손씨의 상주 정착과 손만웅의 활동

송 석 현\*

- I. 머리말
- II. 경주손씨의 상주 정착
- III. 손만웅의 활동과 교유의 확대
- IV. 18세기 상주지역 경주손씨의 위상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상주지역에서 경주손씨의 정착과정을 살펴보고, 17세기 인물인 손만웅의 활동을 통해 상주지역에 경주손씨의 위상 변화를 고찰하였다. 경주손씨 손사장 계열은 조목 계열과 학문, 훈인을 통한 교유를 바탕으로 예안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손우는 유배를 가고 향촌에서는 휘가출항을 당하게 된다. 예안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자 손당은 처가인 진양정씨의 기반이 있는 상주가 활동의 중심이 된다. 상주지역 사족 활동을 주도하는 진양정씨, 흥양이씨, 재령강씨 등과의 교유를 통해 상주에서의 터전을 다질 수 있었다. 경주손씨는 손만웅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 활동을 하면서 교유관계가 확장될 수 있었다. 손만웅은 숙종 초반 환국 시기에 관직을 지내며 상주지역을 넘어 영남의 남인들뿐만 아니라 중앙의 남인들과도 교유를 맺었다. 손만웅의 권력은 지역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높게 되어 도남서원 원장을 여러 차례 역임하거나 서원의 건립, 운영 등을 주도할 수 있게 하였다. 경주손씨 가문의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주의 경주손씨와 협의하여 족보의 출간을 진행하였다. 손만웅의 활동은 상주지역에서 경주손씨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고 그의 후손들은 상주 사족으로의 정체성과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서원 건립, 무신 난의 의병 창의, 존애원 복원 등의

\* 경북대학교 강사, 1modowon@hanmail.net

상주지역의 사족 활동에서 경주손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손만웅, 경주손씨, 상주, 도남서원, 관직

## I. 머리말

상주는 읍의 규모나 상징성에서 경주와 함께 경상도를 대표하는 군현이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이러한 중요성은 바뀌지 않아서 초기에는 감영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감영은 대구로 옮겨졌으나 상주는 학문과 정치의 영향력에서 안동과 함께 영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상주에 대해서는 영남학파의 관점에서 상주를 개관한 이수건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김학수는 영남학파의 주도 흐름에 따른 상주 사족들의 활동과 의의를 규명하였고, 정진영은 ‘사족지배체제’라는 시각에서 임진왜란 이후 상주 사족들의 동향을 정리하였다.<sup>1)</sup> 이후 상주 출신의 인물과 서원 등 사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많은 연구 성과가 쌓이고 있다. 인조반정 이후 정경세가 홍문관 부제학으로 등용되고 이준, 전식, 홍호 등이 관직 활동을 하며 상주는 17세기 전반 영남 남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상주 출신으로 활동한 인물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17세기 후반은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대립과 정국의 변화가 심하던 시기이다. 영남 남인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배려로 정치적 진출이 이루어졌으나 활동과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성리학의 보급으로 예문이 활발해지고, 붕당정치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에서 논의와

1)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8 ; 정진영, 「임란 전후 상주지방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대립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영남의 남인들은 정치적 진출이 줄어들며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경기 지역의 남인과의 유대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경기 남인 역시 영남과의 유대를 통해 정치적 외연의 확대와 학문적 정통성의 강화를 도모하는 상황이었다.<sup>2)</sup> 이 시기 영남 남인으로 정치적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이원정, 이현일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주 출신 역시 주목 받은 인물이 없다.<sup>3)</sup>

손만웅(孫萬雄, 1643~1712)은 바로 이러한 시기인 17세기 중반 관직에 진출하여 갑술환국 때까지 활동한 상주 출신의 인물이다. 1669년(현종 10) 27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하였고, 숙종 초반 환국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사헌부 장령, 사간원 정원, 경주부윤 등의 관직을 지냈다. 지역에서도 상주 도남서원의 원장직을 여러 번 역임하였고, 서원에서 강학을 주관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7세기 후반 상주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손만웅의 선대는 예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손만웅의 조부 대에 혼인을 통해 상주에도 연고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인조반정의 영향으로 예안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상주에서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특히 손만웅의 과거 합격과 관직 경력은 경주손씨의 상주 정착과 영향력 확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상주 출신으로 관직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적은 만큼 손만웅은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고, 함께 관직 생활을 한 영남 출신 인물들과의 교류는 손만웅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었다. 동

2)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 이수건, 앞의 책, 일조각, 1998 ; 유봉학 『조선 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3) 이원정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김문택, 「숙종대 이원정의 정치활동과 피화」, 『역사와 실학』 38, 2009 ; 김학수, 「칠곡 광주이씨 이원정가의 정치적 위상과 학문적 성격-이원정, 이담명, 이만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원 학술대회, 2009 ; 이근호, 「석전 광주이씨 가문과 근기 남인의 제후」, 『한국학논집』 57, 2014 등이 있고, 이현일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우인수, 「조선 숙종대 정국과 산림의 기능」, 『국사관논총』 43, 1993 ; 김학수, 「갈암 이현일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4, 1998 ; 정만조, 「조선 후기 政局動向과 葛庵 李玄逸의 정치적 위상」, 『퇴계학』 20, 2011 등이 있다.

시에 중앙의 남인 인물들과의 교유도 새롭게 이루어졌다. 관직 생활은 중앙에서 새로운 교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었고, 영남 인물들과의 교유도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족들의 활동에 있어서 교유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교유는 훈인·학문·관직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되고, 한번 이루어진 교유 관계는 역시 다양한 형태로 계승된다. 교유 관계의 형성과 유지, 계승은 조선 사족 계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상주 지역에서 손만옹의 영향력 확대는 학문, 훈인 등의 교유 관계를 확장할 수 있게 하였고, 확장된 교유는 후대로 전승되었다. 손만옹의 활동과 교유 관계는 확대는 상주 지역에서 경주손씨의 위상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손만옹 후손들의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손만옹은 선대에 형성된 교유 관계를 강조하여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관직 생활을 통해 교유 관계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갑술환국 이후 본인과 자손들의 관직 진출이 어려워지며 중앙에서 형성된 교유는 유지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교유 관계는 후손들에게 계승되었고, 상주에서 경주손씨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경주손씨가 상주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후 손만옹의 활동을 통해 상주에서 경주손씨 위상이 변화하고 그의 후손에게 전승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손만옹의 과거 합격을 통한 관직 경험이 그의 교유와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였다.

## Ⅱ. 경주손씨의 상주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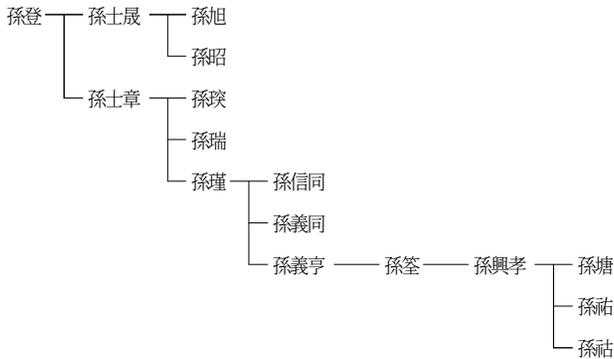
### 1. 16세기 경주손씨의 분화

손만옹의 행장과 연보에 의하면 손만옹의 조부인 손당(孫塘)이 예안에서

4) 김정운, 「17세기 예안 사족 김령의 교유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상주의 율리(栗里)로 이주하였다고 한다.<sup>5)</sup> 하지만 경주손씨는 손당의 선대부터 상주에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의 토성인 경주손씨는 여말선초 인물인 손등(孫登)이 상주의 호장(戶長) 박시우의 딸과 혼인을 하며 처가인 상주의 중동면에 거주하였다. 손등은 조선에서 관직에 진출하며 사족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sup>6)</sup> 이후 손등의 후손들이 분화하며 영남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였지만 중동면의 기반은 계속 남아 있었다고 생각된다. 손등은 『상산지』 「인물」 조에도 경주손씨로는 처음으로 등재되어 입향조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경주손씨 계보〉



손등의 아들 두 명은 지역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분화되어 다른 활동을 보여준다. 맏아들인 손사성(孫士晟)은 청송으로 이주했고, 손자 손소(孫昭)가 다시 경주 양좌동으로 이주하면서 경주 양동의 손씨로 정착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둘째 아들인 손사장(孫士章) 계열은 대체로 무과를 거쳐 군직을 수행

5) 『야촌집』 권5 부록, 「年譜」, “祖考承旨公贊于鄭復齋國成之門 自禮安始移於尙州之栗里”; 「行狀」, “祖諱禱中進士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早遊趙月川門下 聘晉陽鄭氏參奉國成之女 移居于尙州之栗里村”

6) 차장섭, 「양동마을 慶州孫氏 家門의 家風과 계승」, 『江原史學』 37, 2021, 82쪽.

하는 경향을 보였다. 손사장의 아들 손근, 손자 손신동, 손의동, 증손 손규는 모두 무과 출신이다. 이 시기 활동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족보상에 나타나는 혼인 관계와 묘의 위치로 볼 때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장자인 손사성 계열이 혼인을 통해 영남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며 문과를 통해 문반적 지위를 획득하였다면 차자인 손사장 계열은 대체로 영남 북부 지역과 혼인을 맺으며 무과를 거쳐 군직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했다.<sup>7)</sup>

손사장 계열은 손자인 손의형이 예안의 봉화금씨와의 혼인을 통해 예안에 기반을 마련하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손의형은 금난수(琴蘭秀, 1530~1604)의 조부인 금치소(琴致韶)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금난수의 부인은 진성이씨로 월천 조목의 손위 처남이었다. 동시에 금난수의 아들 가운데 첫째 금경의 둘째 부인이 진성이씨이고, 셋째 금개의 첫 번째 부인은 이황의 장손인 이안도의 딸과 혼인을 하며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손의형은 금난수의 권유로 이황의 문인이 되었다. 조목과도 교유를 하여 그와 함께 역동서원(易東書院)의 건립을 주도하였으며 이황 사후에는 도산서원의 건립에도 참여하였다.<sup>8)</sup> 예안지역에서 경제력·학문·혼인 관계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봉화금씨와의 혼인은 경주손씨가 예안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선대들이 주로 군직을 수행하던 상황에서 경주손씨가 퇴계 이황과 조목의 문하에 들어가 다른 사족들과 교유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손의형의 손자들인 손홍효 등은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손홍효의 아들은 조목의 문인이 되었다. 이 무렵 사족들이 처가의 기반을 계승하여 거주하듯 손홍효는 봉화금씨의 기반이 있는 예안 부포(浮浦)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조목, 금난수가 주도한 역동서원 건립 공사에 감독으로 참여하기도 하

7) 김학수, 「16세기 사림과 관료 孫仲嘯(1463~1529)의 經世觀과 學風」, 『韓國系譜研究』 11, 2021, 362~363쪽.

8) 역동서원은 1570년 이황의 발의로 고려말 유학자인 역동 우탁(禹倬, 1263~1342)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다.

였다.<sup>9)</sup>

예안의 핵심 사족인 봉화금씨와의 혼인과 이황, 조목의 문인이라는 정체성은 경주손씨의 예안 정착과 활동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예안을 중심으로 한 안동권의 사족들은 대체로 퇴계학맥이라는 동질성에 기반하여 혼반을 형성, 확대하고 있었다. 이황에게 학문을 배운 파조들의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각각 가문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한 가운데 이러한 혼반을 횡적으로 연대함으로써 그 외연을 점차 넓혀가고 있었다.<sup>10)</sup> 경주손씨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손흥효의 아들 손당 역시 조목의 문인이 되며 경주손씨는 이황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월천 조목의 계열로 인식되었다.

손당의 동생인 손우, 손호는 예안에서 조목의 제자인 김중청(金中淸, 1567~1629), 영천이씨 형제들과 친하게 지냈다. 김령은 영천이씨 형제들을 초두(草豆) 무리라고 칭하며 오만방자 하다고 비판하고 손우를 그들의 노예라고까지 표현하였다.<sup>11)</sup> 김령은 손우를 대북 세력에 붙은 형편없고 버려진 무리들 가운데 가장 심한 자로 비난하기도 하였다.<sup>12)</sup> 이러한 김령의 인식은 광해군 시기 대북 세력과 연계되어 예안 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조정에서도 손우는 광해군대 유생으로 상소를 올려 옥사에 참여하거나 삼사를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금부 도사의 벼슬을 얻은 인물로 사관에게 무뢰한이라고 비판을 받았다.<sup>13)</sup> 인조반정 이후에는 이이첨의 심복으로 지목되어 정심(鄭諶)과 함께 ‘영남 유생이 활을 당겨 화살을 메긴다.[嶺儒

9) 『월진집』 권5 잡저, 「易東書院事實」, “今年春 始敦匠事 向之諸公及溫溪李審, 烏川金富儀 金富倫, 浮浦申治 孫興孝 池沙麻禹致武 月川蔡雲慶等 分番相適 五日爲限 或留宿而監董焉”

10) 설석규, 「안동사림의 정치적 분화와 혼반 형성」, 『안동학연구』 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2, 133~136쪽.

11) 『계암일록』 1615년(광해군 7) 3월 5일.

12) 『계암일록』 1618년(광해군 10) 9월 4일.

13) 『광해군일기정초본』 169권, 광해 13년 9월 6일 갑진.

張弓挾矢'는 말을 주장한 것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sup>14)</sup> 이후에도 삼사에서는 손우를 역괴를 받들어 선비를 모함하고 폐모론을 담당한 인물이므로 석방을 반대하였다.<sup>15)</sup>

경주손씨는 중앙 조정과 예안 사족 모두에게 광해군대 권신과 친한 조목의 문인계열로 인식되고 있었다. 경주손씨와 조목 계열과의 친분은 인조반정 이후 예안 지역에서 조목 계열이 타격을 입을 때 함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조목 문인 중의 일부가 광해군대 대북정권과 밀착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죄인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조목의 생질인 금개, 금업 등이 처벌받고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른바 초두 사형제 [이강(李荳), 이립(李笠), 이모(李慕), 이시(李蔣)]가 이이첨, 허균의 당으로 몰려 처형당하거나 귀향을 갔고, 나머지 복인과 연결되었다고 보는 손우, 서궁 등이 휘가출향되었다.<sup>16)</sup>

손우의 귀향과 휘가출향은 경주손씨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손우의 형인 손당과 그의 아들 손신언은 예안 사회에서 견제를 받게 되었다. 예안 현감은 이들이 작패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하였고 손신언은 두드려 맞으며 신문을 받게 되었다.<sup>17)</sup> 예안 현감은 이에 대해 감사에게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경세의 서자인 정역(鄭穰)이 예안에 왔다가 감옥에서 손신언(孫愼言)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들으니, 예안 현감이 손신언을 가둘 때, 정역이 손신언을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고 공포에 질려 밤새도록 뜬눈으로 새우면서 무릎을

14)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2일 신유.

15) 『인조실록』 권8, 인조 3년 2월 12일 신묘 ;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25일 계사.

16) 이상현,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 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북악사론』 8, 북악사학회, 2001 ; 정만조, 「월천 조목과 예안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0.

17) 『계암일록』 1628년(인조 6) 9월 16일.

안고 근심했는데, 그의 처가 또 그를 질책하자, 이튿날 아침 바로 풀어 주었다고 한다.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사의(具思義)라는 자는 대동목(大同木)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환자(還子) 쌀과 벼를 그의 집에서 받았다. 전에 손당이 단지를 제출하여 이를 모두 말했는데도 예안 현감은 못 들은 체하고 도리어 장황하게 죄를 얹어서 극도의 지경에 빠뜨리고자 했다. 지난 번에 정역이 아니었다면 손당의 아들은 위험했을 것이다.<sup>18)</sup>

정경세는 인조반정 이후 영남 남인을 대표하여 발탁된 인물로 이때에는 판서를 역임하고 우참찬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손당은 정경세의 종숙부인 정국성의 딸과 혼인을 하여 혼맥으로 이어져 있었다. 손당과 손신언은 정경세의 위상으로 예안 수령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예안에서 경주손씨의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상주 정착

예안에서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은 손당에게 상주의 기반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게 되었다. 손당은 상주의 진양정씨 정국성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진양정씨의 기반인 상주 울리 지역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고, 손만웅의 연보에서는 울리로 이주하였다고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혼인은 손당에게 상주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교유와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손당과 손신언의 묘는 예안에 있고 『계암일록』에는 1641년 새해를 맞아 손신언이 김령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손당의 예안 기반은 손신언 계열에서 계승하여 예안에서 거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손당의 상주 울리 기반은 둘째 아들이자 손만웅의 부친인 손신의 계열에게 계승되었다. 이는 손신의의 묘가 상주의 정곡(鼎谷) 지역에 있고, 『계암일록』에서도 상주의 인물로 표현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sup>19)</sup> 두 아들에게 각각의 지역 기

18) 『계암일록』 1628년(인조 6) 10월 12일.

19) 『계암일록』 1638년(인조 16) 12월 24일. “상주의 손신의(孫愼儀)라는 자가 김산

반을 나누어 주고 손당은 예안과 상주를 오가며 활동을 하였다. 손만옹이 쓴 부친 손신의의 묘표에는 손신의가 상주 울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두 형제가 수 백리를 떨어져 거처하여 간혹 만나면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sup>20)</sup>

손당과 혼인한 상주 진양정씨는 상주의 유력 사족으로 상산김씨, 홍양이씨, 재령강씨, 장수황씨 등과 함께 16세기부터 계를 조직하며 교류를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 활동을 하였으며 전쟁 이후에는 향안을 중수하고 의료기관인 존애원(存愛院)을 설치하는 등의 복구 활동을 하며 상주 사족 사회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17세기 초에는 기존의 계를 통합하여 낙사계(洛社 稷)를 결성하고 상주 최초의 서원인 도남서원의 건립을 주도하면서 상주 사족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21)</sup>

정정세, 이진, 이준, 강응철, 김광두 등은 비슷한 연배들로 선대부터 학문과 혼인을 통해 중첩적으로 이어졌으며 유성룡이 상주목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그의 문하가 되어 퇴계학맥에서도 서애계를 대표하게 되었다. 과거에 합격한 이후 관직 생활을 경험하며 상주 사족 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이다.

손당에게 있어 진양정씨와의 혼인은 이러한 관계망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진양정씨와 교유가 있는 낙사계 사족들과의 교류가 확대되었고 상주 사족 사회의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손당은 낙사계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1559년 창건한 존애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존애원수정안좌목>에는 3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손당은 수행(修行)으로 표기되어 있다.<sup>22)</sup> 1606년 건립된 도남서원의 경우에는 손당과 손신의 부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sup>23)</sup>

(金山)에 있는 도산서원의 논을 가로챈 것은 지극히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20) 『야촌집』, 권3 묘표, 「先考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府君, 先妣貞夫人仁川李氏墓碣識」.

21)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 27, 2015.

22) 좌목에서 ‘수행’이라는 표현은 존애원 창건을 주도한 낙사계 소속 이외의 인물로 뒤늦게 존애원 운영에 참여한 사람들로 추정된다. 송석현, 앞의 논문, 31~32쪽.



손만옹은 상주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인 진양정씨와의 관계를 특별히 생각하였다. 조모 진양정씨의 묘지명을 작성하며 부친이 가난한 살림에도 모친인 진양정씨에게 효도를 다하였고 이에 특별히 토지를 주어서 부친의 효를 표장하였다고 하였다.<sup>27)</sup> 정경세의 기제사에는 직접 참여하였으며 1680년 무침재(無忝齋) 정도응(鄭道應, 1618~1667)의 개장에 참여하며 만사를 짓기도 하였다. 정도응은 정경세의 손자로 그의 학문을 계승한 인물이다. 손만옹에게는 7세에 처음으로 글을 배운 이후 계속 학문을 익혔으며 함께 유희를 즐기기도 하였다. 손만옹은 경주손씨의 상주 기반과 학문적 연관성을 진양정씨를 통해 강조하였다.

손만옹의 처가인 재령강씨 강응철의 후손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였다. 강응철은 정경세, 이준과 함께 의병, 낙사계, 도남서원 창건 등의 활동을 함께 하였다. 손만옹은 강응철의 아들로 장인인 강용직의 묘표를 지으며 어릴 때부터 문하에 들어가서 배웠으며 집안의 가르침과 자식의 훈육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다.<sup>28)</sup> 손만옹은 정도응과 강용직을 학문적 스승으로 표방하였고 이를 통해 정경세-유성룡으로 이어지는 학맥의 계승을 내세운 것이라 생각된다.

손만옹은 강용직의 형인 강응후의 며느리 평산신씨의 묘지명도 작성하였다. 평산신씨의 부친은 신석무로 정경세의 문인이자 17세기 중반 상주 서인계의 핵심인 신석빈, 신석형의 형이다.

다음으로 향양이씨와의 관계가 주목된다. 손만옹 선대까지는 향양이씨와 혼인이나 학문적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손만옹은 향촌 활동을 하며 가장 자주 만나는 인물들이 향양이씨들이었다. 창석 이준의 손자인 이재관(李在寬), 이전의 아들인 이신규(李身圭), 후손들인 이증록(李增祿), 이태지(李

27) 『아촌집』, 권3 묘표, 「祖妣贈淑夫人晉陽鄭氏墓誌」, ‘奉慈闈三十餘年, 承顏順志, 終始如一日, 家素貧, 朝夕之膳, 必極滋味, 有不安節, 府君必嘗糞甜苦, 以試差劇, 常時嗜煨栗, 府君每晨興炮之, 親自剝皮以進, 手指爛坼, 淑夫人給土田表其孝’

28) 『아촌집』, 권3 묘표, 「學生康公墓表」, ‘余少贅公之門, 見公居家有法度’

泰至) 등과의 교유가 보인다. 이재관은 장남인 손경욱의 관례에서 빈(賓)의 역할을 맡았으며 만사에서 어른(丈)이라는 존경을 표하였다.

홍양이씨 인물들과는 옥성서원의 운영이나 문집의 간행과 같은 업무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준의 문집인 『창석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태지에게 옥성서원의 토지를 팔아서 물자를 조력하고, 수선서당에게 통보하여 도움을 받도록 조언을 하였다.<sup>29)</sup> 손만웅이 유성룡의 핵심 문인 가운데 한 명인 이준의 문집 간역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는 혼인 관계를 통한 학문의 계승에 더하여 유성룡 문인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옥성서원은 1633년 김득배와 신잠을 제향하며 건립한 서원으로 이후 김범, 이준, 이전을 추향하였다. 옥성서원은 홍양이씨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상주에서 두 번째로 건립되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결과물인 결정통문이 가장 많이 작성된 서원이기도 하였다.<sup>30)</sup>

손만웅은 옥성서원의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사당을 배알하거나 선비들과 상음례(相揖禮)를 하는 것 외에도 1681년과 1700년에는 직접 서원에서 강학을 하기도 하였다. 1695년에는 홍수에 잠긴 옥성서원의 이건을 담당하였으며, 1710년 이전을 추향할 때에는 비록 사양하였지만 축문의 작성을 의뢰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손만웅의 맏손주인 손운엽은 이태지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손당-손신의 대의 교유는 상주 낙사계 사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손만웅은 인척들의 묘도문자를 작성하며 특히 진양정씨, 재령강씨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는 유성룡-정경세와의 학문적 관계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상주 사족들에게 손만웅 선대까지는 조목 계열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증보한 『상산지』 「인물조」에는

29) 『아촌집』, 권3 서, 「與李來仲泰至」.

30) 상주청년유도회, 『尙州의 書院』, 경상북도, 2006.

손만이 상주인물로 수록되어 있지만 조목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손만옹 이후에는 점차 유성룡-정경세의 문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데 이는 손만옹의 활동과 영향력의 확대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손만옹은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교유를 기반으로 자신의 관직 경력과 향촌 사회에서의 영향력으로 인해 교유 관계가 상주를 넘어서까지 확대할 수 있었고, 기존의 교유 관계는 더욱 굳힐 수 있었다.

### Ⅲ. 손만옹의 활동과 교유의 확대

#### 1. 관직 활동

손만옹은 1669년(현종 10) 5월 27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분속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손만옹의 문과 합격은 그의 교유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었다. 선대에서 계승된 교유 관계는 향촌 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나 관직 생활은 교유 관계의 범위가 다방면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장 손만옹은 문과에 합격한 다음 달인 6월 전시를 마치고 상주에 도착하자 당시 관찰사인 심재(沈粹, 1624~1693)와 의성 현령 이당규(李堂揆, 1625~1684)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심재의 본관은 청송으로 이후 상주 봉산서원에 제향되는 심희수(沈喜壽, 1548~1622)의 증손자이자 즉종 즉위 후 도승지, 이조참판, 대사간,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손만옹은 심재와 함께 연행을 다녀오는 등 관직 생활 동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의 아들 심최량, 심중량 등과도 교유하였다. 이당규는 본관은 전주로 조부는 이수광(李睟光, 1563~1628), 부친은 영의정을 지낸 이성구(李聖求, 1584~1644)이다. 이들은 손만옹의 중앙 남인과의 교류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손만옹이 관직 기간은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대립이 심해진 예송 및 환국

시기와 겹치고 있다. 손만웅의 정치적 입장은 남인이 분명하였으며 따라서 정치적 격변에 따라 관직 생활도 영향을 받았다.<sup>31)</sup> 하지만 사헌부 장령을 역임할 때를 제외하고는 환국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외직에 있는 많았다.

관직 생활의 전환점은 현종이 죽은 후인 1674년(현종 15) 2월 24일 현종 국장도감 낭청으로 예조좌랑을 맡고서부터이다. 숙종 초 남인이 집권하면서 형조정랑, 병조좌랑 등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영광군수, 사간원 정언, 응교를 역임하였다.

1677년(숙종 3)에는 동지정사에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청나라를 다녀온다. 정사는 영창군(瀛昌君) 이침(李沈), 부사는 호조참판 심재로 여행을 다녀오며 심재 부자와의 관계가 매우 돈독해진다. 이후 호조정랑, 사헌부 지평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공주목사로 재직하던 1680년 환국으로 관직에서 물러난다.

1689년 2월 충청도 도사로 등용되어, 나주목사, 괴산군수, 정언, 사헌부 장령, 금산군수, 청주목사, 동래부사, 그리고 1694년 경주부윤을 지내던 중 갑술환국으로 사직하였다. 1706년 모친의 부양을 위해 풍기군수로 부임하나 12월 모친상을 당하면서 물러나고 이후로는 관직에 진출하지 않았다.

손만웅이 관직 생활을 하며 맺은 교유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영남 출신의 인물들과의 교유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 남인과의 교유이다. 먼저 영남 출신 인물들과의 교유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광주이씨 이원정(李元禎, 1622~1680)과 이담명(李聃命, 1646~1701)이다.

광주이씨는 안동김씨 김시양, 전주이씨 이성구, 해주정씨 정중휘, 사천목씨 목내선, 동복오씨 오시수 가문과 혼맥을 맺었고 이들을 통해 여흥민씨 민희, 전주이씨 이원익, 남원윤씨 윤희 등과 연결된다. 숙종 초 정권을 장악한 남인은 위로는 삼복(三福)을 맹주로 하여 허목과 윤희, 허적 등을 영수로 운

31)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8월 23일 정묘의 기사에는 사헌부 지평인 손만웅이 김수홍을 서용하도록 한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는 계를 올리자 대사간 이원정, 좌의정 권대운 등이 적극 간하여 그만두도록 하였다.

영되었으며, 이런 궁중과 부종의 세력을 중간에서 연결시키던 인물이 오정창(吳挺昌)이었다. 그리고 중간 그룹으로 오정위를 비롯해 오시수, 이무, 조사기, 이수경과 민희, 김휘, 민점, 목내선, 심재, 이관징, 이당규 등이 형성되었고, 전위 그룹으로는 장응일과 남천한, 이서우, 오시복, 유명천, 목창명, 유하익 등이 활동하였다.<sup>32)</sup> 숙종 초 남인의 핵심 인물들과 모두 연결된 인물이 광주이씨의 이원정, 이담명 부자이다.

손만웅에게 이원정은 같은 영남 출신으로 관료 선배이며 이담명은 친숙한 동료였다. 동시에 이윤우의 증손이자 이원정의 5촌 조카인 이휴명의 딸과 손만웅의 장자 손경옥이 혼인을 한 인척이기도 하였다. 이휴명의 또 다른 딸은 안동의 의성김씨 팔오현(八吾軒) 김성구(金聲久, 1641~1707)의 아들 김여건(金汝鍵, 1660~1697)에게 시집갔다. 이 혼인은 1665년에 태어난 손경옥이 15세인 1679(숙종 5)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17세기 후반 안동, 상주, 칠곡을 대표하는 세 명의 관료가 혼인으로 맺어진 것이다.<sup>33)</sup>

손만웅과 이원정, 이담명 부자와의 관계는 손만웅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기록인 『연행일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손만웅은 이전에 사행을 다녀온 이원정과 관련한 일을 확인하면 특별히 기록하였다. 또한 이원정과 이담명의 편지를 통해 서울의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으며 고향에 보내는 편지도 두 사람에게 부탁하였다.<sup>34)</sup> 사신단 일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심재라면 조선에 남아 있는 인물들 중에는 이원정, 이담명 부자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아춘집』에도 광주이씨와의 교류가 많이 보인다. 이원정의 개장 만사, 이담명, 이휴명의 만사, 이주명, 이휴명에게 쓴 편지가 실려있다. 이주명에게

32) 이근호, 「석전 광주이씨 가문과 근기 남인의 제후」, 『한국학논집』 57, 2014, 48쪽.

33) 손만웅 연보에 의하면 손경옥은 1679년 8월 부마를 간택하는 삼간(三揀)에 들어갔으므로 이때까지는 미혼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조정에서 손만웅이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4) 『아춘집』 권4, 「연행일록」.

쓴 답장에는 상례와 복에 대한 논의가 실려 있고, 이휴명에게 쓴 답장에는 집안의 아이에게 과거 응시를 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답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 등을 의논하고 있다.<sup>35)</sup>

다음으로는 팔오현 김성구와의 교유가 돋보인다. 이휴명을 매개로 혼인 관계가 이어져 있으며 비슷한 연배에 관직 생활을 함께 하였다. 김성구가 1679년(숙종 5) 제주도 정의현으로 유배를 갈 때 손만웅은 공주목사로 있으면서 임소에서 김성구를 전송하였고 전별의 시도 남겼다.<sup>36)</sup> 김성구는 손만웅과 전별한 이후 꿈에서도 볼 정도로 깊은 관계였다.<sup>37)</sup> 그 외에도 안동, 예안의 인물들과의 교유도 확대되었다. 전주유씨 유지(柳檣), 성주배씨 배정휘(裴正徽) 등과도 짧은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자주 만남을 가졌다.<sup>38)</sup>

중앙의 남인들과의 교유를 문집과 실록 등의 자료로 살펴보면 숙종 시기 남인들과의 교류를 기본으로 앞서 언급한 청송심씨 심재 부자들이 가장 주목된다. 심재와는 관직 생활을 함께 하였으며 심취량과 심중량은 손만웅 사후 만사를 보냈고, 심계량(沈季良)은 손만웅의 벗으로 연행에서 복귀할 때 부친을 영접하기 위해 평양에서 만난 이후 계속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다.<sup>39)</sup>

다음으로 여흥민씨 민희, 민점, 민암 등과의 관계이다. 3형제는 문과에 합격한 이후 청요직을 지냈다. 특히 민점은 이도장과 함께 김시양의 사위로 남인의 중요 가문 중 하나였다. 하지만 민점은 경상감사로 재직하던 시절 손만웅의 부친을 형신하여 죽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기사환국 이후 집권한 서인은 1681년(숙종 7) 손만웅을 탄핵하면서 “부친이 상주 죄수가 되었을 때 민점이 경상감사로 형신을 가하다가 죽어 손만웅은 민점과 의리상 대면할 수 없는데, 민점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청환(淸畝)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며 탄핵

35) 『아촌집』 권3, 서, 「答李佐郎周命別紙辛巳三月日」, 「答李■休命」.

36) 『아촌집』 권1, 시, 「次金旻義德休聲久○丙辰」.

37) 『팔오현집』 권5, 「남천록 상」.

38) 『과애집』 권4, 「남궁일록」.

39) 『아촌집』 권4, 「연행일록」 1678년 3월 1일 임신.

을 하였다.<sup>40)</sup> 이도장과 손만옹의 관계로 볼 때 민점과의 교유는 생각할 수 있으나 서인의 비판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손만옹의 연보에서 손신의는 민점이 경상감사로 있던 1666년 병환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손만옹의 관직 생활은 그의 교유 관계의 변화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영남의 중요 인물들과 교유를 맺고 혼인 관계를 이룰 수 있었으며 선대의 기반인 안동, 예안의 인물들과도 교유를 쌓았다. 동시에 중앙의 남인들과도 교유를 맺을 수 있었다. 관직 생활을 함께한 동료들과의 교유는 손만옹의 관계망이 상주 지역을 넘어 확대될 수 계기가 되었다.

## 2. 향촌 활동과 가문의 현창

관직 활동을 통한 손만옹의 위상 증가와 교유 관계의 확대는 상주 지역의 향촌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손만옹의 향촌 활동은 관직 생활 중간의 공백기와 말년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손만옹의 서원 활동을 살펴보겠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상주에서는 서원의 건립과 추향 등이 많이 이루어졌고 손만옹 다수의 서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옥성서원, 수양서당에서 강회를 하였고, 1711년에는 『창석집』의 교정과 간역이 있었다.

서원의 건립과 이건도 주관하였다. 1695년 옥성서원의 이건을 주관하였고, 1708년 건립되는 봉산서원 창건에도 참여하였다. 근암서원에서는 1701년 홍여하와 김홍민의 병향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논의가 일어났으며 이에 대해 김우태가 손만옹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sup>41)</sup> 봉산서원 역시 건립을 앞두고 전오익(全五益)이 손만옹에게 편지들 보내 위치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봉산서원은 건립을 앞두고 심희수, 성여해, 노수신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만옹은 여강서원과 근암서원의 사례를 예로

40) 『인조실록』 11권, 숙종 7년 2월 11일 을미.

41) 『아촌집』 권3, 서, 「答金參奉宇泰」.

들면서 의견을 보냈다.<sup>42)</sup>

무엇보다도 손만웅은 상주의 대표 서원인 도남서원의 원장을 수차례 맡았다.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도남서원의 원장직을 맡은 인물들 가운데 손만웅이 가장 높은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4번을 역임한 신필성(申弼成) 다음으로 많은 3번을 맡았다.<sup>43)</sup> 도남서원 원장은 여러 가문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지내는 특성을 볼 때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다.<sup>44)</sup>

관직에 진출한 이후의 손만웅의 위상은 당시 상주에서는 드물게 높은 관직을 경험한 관료이자 중앙과 영남에서 폭넓은 교유 관계를 가진 인물이었다. 따라서 상주 여러 서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직접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면모는 손만웅의 개인적인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손만웅은 고을의 부로(父老)들과 용흥사에서 모임을 갖거나 낙동강 매호에서 배를 띄워 선유를 즐기기도 하였다. 상주의 낙강선유는 오랜 유서를 지닌 전통으로 상주의 주요 사족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모임이었다. 손만웅은 풍양 조씨 조대윤, 순천김씨 김수담의 관례에 빈으로 참여 하고, 노사성, 노사헌, 전오익, 강자시와 함께 갑계(甲稷)를 만들기도 하였다.

손만웅의 활동은 안동, 예안 등의 경북 북부에서도 이루어졌다. 순흥, 예안에 있는 선영을 관리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관직 생활을 하며 교유한 배정휘, 권해(權階, 1639~1704) 등을 만나기도 하였다. 1688년에는 안동의 청암정(靑巖亭)을 방문하여 하당 권두인(權斗寅, 1643~1719)을 만나 예설을 논하였다. 선대 기반을 방문하고 선영을 관리하는 명목 이외에도 17세기 이후 영남 북부에서 이현일 계열의 영향이 커지는 것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된다.

손만웅은 자신의 활동 범위와 영향력이 커지자 경주손씨 가문의 현창을 위한 일들을 주도하였다. 상주 동쪽 중동면의 정곡(鼎谷)에 있는 선대의 묘를

42) 『아촌집』 권3, 서, 「與全惠仲」.

43) 1684년 1695년, 1699년의 원장직을 맡았다.

44)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관직 생활을 하며 틈틈이 선산을 정리하여 1678년 10월에는 화수회를 만들고, 1693년 6월에는 선조의 무덤을 위하여 재사를 건립하여 ‘정곡재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손만옹은 병외(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에게 기문을 부탁하여 걸고, 장남 손경옥에게 ‘정곡(鼎谷)’ 두 글자를 쓰게 하여 동네 입구의 바위에 새겼다. 만년에는 정리한 선산에 표석을 세웠다. 1706년 순흥의 선산에 묘표를 세우고, 1707년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무덤에 갈석을 세웠다.

경주 지역의 손씨와의 교류도 나타났다. 1684년 손덕승이 문과에 합격하자 편지를 보내어 젊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며 몸가짐을 진중하게 하기를 바라기도 하였다.<sup>45)</sup> 손만옹은 경주 양좌동에서 열린 손덕승의 문회연에 직접 참여하여 가문의 경사를 축하하고 선조인 계천군과 월성군의 묘사에도 참여하였다. 경주의 경주손씨와의 교류는 손만옹이 1693년 경주부윤으로 부임하여 족보의 편찬으로 이어진다. 손만옹은 경주부윤으로 있으면서 단자를 모아 족보를 만들고 손덕승과 손이옹의 서문을 받아 출판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교체되어 간행되지는 못하였다.<sup>46)</sup>

1703년에는 석평(石坪)<sup>47)</sup>에 새로운 터를 경영하여 생활하였다. 그러나 1710년에는 새로운 거주지를 거두고 야촌의 옛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기 손만옹은 가족인 어머니, 부인 강씨, 장자 손경옥이 연달아 죽고, 이현일, 배정휘, 김성구 같은 친구들의 죽음도 맞게 되어 석평의 터전을 철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45) 『야촌집』 권3, 서, 「與再從侄德升」.

46) 『목서집』 권4, 서, 「族譜序」, 「惟我野村先祖尹莅東都, 慨然于斯欲收單印刻, 不幸徑遞未果, 梅湖灘西二公之序并盡之矣」

47) 석평: 상주 외남면 신상리의 새마 마을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상 2리 옥성의 북서쪽과 청리면 울리의 동산 밑 마을 서쪽 산 너머에 있다.(상주지명총람)

#### IV. 18세기 상주지역 경주손씨의 위상

손만옹의 권력과 활동은 상주에서 경주손씨의 위상을 크게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먼저 손만옹 후대의 혼인 관계를 통해 살펴보겠다. 손만옹의 장자 손경욱의 혼인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차자 손경석은 안동권씨 권수경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권수경은 동계 권달수(權達手, 1469~1504)의 후손으로 권달수는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종묘에 모시는 것을 반대하다가 국문을 받고 참형에 처해졌다. 1693년 함창의 임호서원에 제향되었다. 셋째 아들은 서자인 손경의으로 장수황씨와 혼인을 하고, 딸은 용궁전씨 전양선(全揚善)과 혼인하였다. 상주권의 여러 사족들과 폭넓게 혼인을 맺고 있다.

손만옹의 손자 대에 가면 혼인 관계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 낙사계 소속의 사족들과의 혼인과 함께 상주권역의 사족들과 다양하게 혼인을 맺고 있다. 손경욱의 경우 장자 손운엽은 흥양이씨 이태지의 딸과 혼인을 하고, 딸은 장수황씨와 동북오씨 오석관(吳錫觀)과 혼인을 맺는다. 동북오씨의 경우 손만옹이 오시수, 오수창 등과 함께 관직 생활을 하였지만 자세한 교류 양상이 남아 있지는 않는다. 다만 1704년 은이와(恩移窩) 오시진(吳始震)이 손만옹을 방문하여 함께 시를 짓고 교류하는 모습이 보인다. 오시진은 오정일의 5남으로 인평대군의 장인인 오단(吳端, 1592~1640)의 손자이다. 서울의 동호에 살다가 상주로 이거하였고, 이를 은혜로운 이동이라고 하여 호를 은이와라고 붙였다고 한다. 『상산지』에는 도곡동(道谷洞)으로 이거하였고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손운엽의 딸과 오석관의 혼인은 손만옹의 관직 생활의 교류 관계가 이어져 계승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상주 사족들 중에는 풍양조씨 가문과의 교류가 주목된다. 손만옹은 조대운의 관례에 빈객으로 참여하거나 조여경(趙畚經)을 손녀 사위로 삼았다. 손만옹과 손경욱이 풍양조씨 오작당 입재공파에 보낸 간찰을 보면 평소의 교류를 일부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풍양조씨의 세거지인 낙동 지역이 경주손씨의 세거지인 울리와 선영이 있는 중동과의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왕복하며 방

문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sup>48)</sup>

경주손씨의 위상 확대는 속수서원의 건립에도 나타난다. 속수서원은 본래 상주목사를 지낸 손중돈의 선정을 기리는 생사당에서 시작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1656년 중건하고 경현사(景賢祠)로 이름을 바꾸면서 신우(申祐)를 함께 배향하였다. 손중돈의 선정비는 경주손씨의 선영에서 가까운 중동면에 건립한 것으로 생각되고, 신우의 제향은 의성의 중요 사족인 아주신씨의 영향이 단말까지 미치기 때문에 함께 제향된 것으로 보인다. 경현사가 있는 단말지역은 경주손씨의 선영이 있는 중동면과도 가까우며 의 성과도 가깝다. 경주손씨 가문의 위상 상승과 함께 경현사는 1703년 현재 위치로 이견하면서 속수서원으로 승원하였다. 속수서원은 김우평과 조정을 추향하면서 풍양조씨들도 서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손만용 계열은 손경석과 손경익, 그리고 손진익, 손회경, 손경로까지 지속적으로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다. 손경석은 1711년 도남서원 원장직을 맡고, 손경육은 이인좌의 난에 대해 영남에서 일어난 의병을 기록한 『무신창의록』에서 상주 의병 대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손영로(孫永老, 1820~1891)는 완전히 황폐해진 존애원을 중수하고 낙사계를 복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낙사계 결성 초기 손당이 수행으로 뒤늦게 참여한 것이 비하여 18세기 경주손씨는 낙사계의 중요 가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의 경주손씨와의 교류도 지속되었다. 손영로는 50여 년 전 출간되지 못한 족보를 1743년 인각하여 배포하였다. 상주의 경주손씨가 중심이 되어 손만영의 후손인 손운찬이 주관하였다. 족보를 출간한 직후 상주 중동면 정곡의 손등 묘소에 정학(鄭學)이라는 사람이 투장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손맹걸 등 189명이 경상감사에게 의송을 제출하여 제사를 받고 이에 따라 상주 목사에게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1813년 다시금 투장 사건이

48) 김승균, 오덕훈, 오현진 옮김, 『상주 풍양조씨 오작당 입재공과 간찰』, 한국국학진흥원, 2002, 118~135쪽.

일어나는 등 정곡의 산송, 비갈 파손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경주의 경주 손씨는 상주 경주손씨 들의 산송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sup>49)</sup>

상주 경주손씨의 성장과 교유의 확장은 사실상 상주 입향조라 할 수 있는 손당의 우복문인록 등재로 이어졌다. 정경세의 문인들을 기록한 우복문인록은 현재 초본과 대략 18세기 말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우복선조별간영간시문적(愚伏先祖別集營刊詩文蹟)』내 수록된 중간본 2종이 전해진다. 초본에는 101명이 등재되어 있으나 중간본에는 6명이 추가되어 107명 기록되어 있다. 그 6명은 유성룡의 증손 유의하(柳宜河)와 신재(申在), 손당, 조준도(趙遵道), 성이성(成以性), 신득유(申得游)이다.<sup>50)</sup>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유의하, 신재를 제외한 4명은 1595년 이전 출생으로 정경세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때 교류를 하였던 인물들이다. 다만 사승관계가 중복된 면이 크거나 지역적으로 먼 경우여서 문인록을 처음 만들 때는 제자라는 인식이 약했으나 후대에 정경세와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등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가운데 손만옹의 조부인 손당은 정경세와 거의 동년배로 혼맥으로 이어져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생몰년이 확인 가능한 문인록에 등재 인물들 가운데 김용(金涌, 1557~1620), 조광벽(趙光璧, 1566~1642), 김원진(金遠振, 1559~1606)과 함께 1570년 이전에 태어나 정경세의 동년배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손만옹이 지은 부친의 행장에서도 손당은 장인인 정국성에게 학문을 배운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손당의 우복문인록 등재는 『상산지』의 기록이나 당대의 인식으로는 조목의 문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손당이 뒤늦게 우복 문인으로 바뀐 것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경주손씨는 정경세 문인으로 인식되었고, 그 출발은 손만옹이었다. 1784년(정조 8) 구호사(龜湖祠)에 김선치(金先致), 김혜(金惠)와 함께 손만옹을

49) 『고문서집성』 127, 「경주 경주손씨 고문서2」, ‘尙州鼎谷碑銘狀草’.

50)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韓國系譜研究』 10, 61쪽.

제항하면서 정종로가 작성한 봉안문에서도 손만옹의 학문을 정도응에게 배우고 정경세를 사모하였다고 하였다.<sup>51)</sup>

## V. 맺음말

경주손씨가 손사성, 손사장 계열로 분리된 이후 손사장 계열은 무과를 거쳐 군직을 수행하며 영남 북부 지역에 정착하였다. 특히 예안에 정착한 경주손씨는 봉화금씨와의 혼인을 통하여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황과 조목 문인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대북파와 가까운 조목 계열은 지역 사회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손당은 처가인 상주 율리의 기반 경영에 힘을 기울인다. 경주손씨는 상주의 다른 사족들에 비하여 늦게 정착하였지만 낙사계 사족들과의 혼인을 통하여 기반을 다지고 손만옹이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진출하면서 위상이 변하게 된다.

손만옹은 정치적으로 영남 남인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이원정, 이현일, 김성구와 함께 영남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당대 상주 출신으로는 가장 높은 관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관력은 손만옹의 교유를 선대에 비하여 급격히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중앙 남인들과의 관계는 갑술환국 이후 관직 생활이 끊기며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영남 사족들과의 관계는 혼인, 학문 등을 통하여 더욱 강화시키고 계승할 수 있었다.

손만옹의 관직 활동은 상주 지역 사회에서 손만옹과 경주손씨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손만옹은 상주 사족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남서원 원장도 3번이나 역임하게 된다. 선영의 정비, 재사의 설립, 족보 편찬 등 경주손씨 가문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경주 경주손씨와

51) 『입재집』 권5, 봉안문, 「龜湖洞洛城君金公松灣金公野村孫公奉安文」.

의 교류도 이루어진다.

손만웅을 통해 상주에서 경주손씨의 위상은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손만웅 계열 후손들의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문과 합격자의 증가, 향촌 사회의 주요 사업의 주도, 손중돈 제향 서원의 건립, 경주의 경주손씨와의 유대 강화와 공동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상주 경주손씨의 정착 과정과 위상의 변화 양상은 조선 후기 지역 사족에게 관직 경력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경주손씨와 손만웅은 관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혼인, 학문 관계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의지에 맞게 수정하였다. 다만 손만웅 이후 영남 사회에서 학문을 이끌만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상 강화에서도 한계는 있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목서집』, 『아촌집』, 『입재집』  
『계암일록』, 『상산지』

### 2. 연구논저

- 김승균, 오덕훈, 오현진 옮김, 『상주 풍양조씨 오작당 입재공파 간찰』, 한국국학진흥원, 2002
- 김정운, 「17세기 예안 사족 김령의 교유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 김학수, 「칠곡 광주이씨 이원정가의 정치적 위상과 학문적 성격—이원정, 이담명, 이만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원 학술대회, 2009.
- 김학수, 「우재 손중돈의 학자·관료적 삶과 그 자취」, 『양동마을 경주손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김학수, 「영남학인 손덕승의 학자 관료적 성격」,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2015.
- 김학수, 「16세기 사림과 관료 孫仲嘯(1463~1529)의 經世觀과 學風」, 『韓國系譜研究』 11, 2021.
- 설석규, 「안동사림의 정치적 분화와 혼반 형성」, 『안동학연구』 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2
-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 27, 2015.
-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 이근호, 「석전 광주이씨 가문과 근기 남인의 제후」, 『한국학논집』 57, 2014.
- 이상현,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17세기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북악사론』 8, 북악사학회, 2001
-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8.
-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 정만조, 「月川 趙穆과 禮安地域의 退溪學脈」, 『韓國의 哲學』 28, 2000.

- 차장섭, 「양동마을 慶州孫氏 家門의 家風과 계승」, 『江原史學』 37, 2021.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韓國系譜研究』 10, 2020.

Abstract

## The Resident Settlement of Gyeongju Son and the Activities of Son Man-woong

Song, Suk-hyun\*

This study examined the settlement process of Gyeongju Son's settlement process of Sangju, and considered the phase change of Gyeongju Son Man-woong's phase change. Son Sa-jang of Gyeongju Son was established based on Chomok, academic and marriage. However, Son woo has passed away from the scent of the scent and the scent of the scent. When In-joo political upheaval, Son will be the center of activities with Jinyang Jung's base of activities. Jinyang Jung, who led the community activities in Sangju area, Heungyang Lee, and Jaereong Gang, who led the community activities.

Gyeongju Sonman could extend the relationship while Son Man-woong passed through the past. Son Man-woong has lived in the beginning of the accommodation of the dorm, but only the men of the Central. Son Man-woong's perspective of Son Man-woong was high in the local society, and can lead to the construction of Seowon, and operate the construction of Seowon. In the activities of Gyeongju Son, participated actively participated in consulting with Gyeongju Son Kyung-joo, participated in consultation with Gyeongju Son. Son Manwoong's activities could increase the status of Gyeongju Sonman, and his descendants were able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Gyeongju Sonman. Based on this, Gyeongju Son was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18th century.

---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modowon@hanmail.net

Key word : Son Man-Woong, Gyeongju Son, Sangju, Donam Seowon

논문 투고일: 2024. 05. 15 심사 완료일: 2024. 06. 11 게재 확정일: 2024. 06. 11



- 후보



## 1. 주요 연혁

2024. 02. 15. : 한국서원학회 정기총회 결과 제6대 회장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선출 및 제8기 임원 및 편집위원회 선임 (2024.3~2026.2)
2024. 03. 15. : 한국서원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진주강씨 김천 찰방공파의 역사적 전개와 자동서원(紫東書院)>
2024. 05. 11. : 한국서원학회 5월 연구발표회 진행

## 2. 활동

- 2024년 한국서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진주강씨 김천 찰방공파의 역사적 전개와 자동서원(紫東書院)>
    - 발표 ① 진주강씨 찰방공파의 김천 정착과 종족의 성장(김성우, 대구한의대학교)
    - 발표 ② 진주강씨 남와(南窩) 강설가(姜濼家)의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구축과 작동: 처연·학연 및 종족적 유대를 중심으로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 발표 ③ 기재(耆齋) 강여호(姜汝床)의 인적네트워크와 정치활동 (이근호, 충남대학교)
    - 발표 ④ 강석구(姜錫龜, 1726~1810)의 학문과 관직생활(김정은, 경북대학교)
    - 발표 ⑤ 자동서원(紫東書院)의 건립과 배향인물(이수환, 영남대학교)
    - 발표 ⑥ 자동서원(紫東書院)의 건축적 특성(조영화, 교남문화유산원)
- 종합토론
- 좌 장: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자: 박병련(한국학중앙연구원), 조준호(경기도박물관), 임근실(단국대학교)

■ 2024년 5월 연구발표회

발표 ① 九峯書院의 설립 과정과 그 의미(장준호, 해군사관학교)

토론 : 이경동(공주대학교)

발표 ② 경주손씨의 상주 정착과 손만옹의 활동(송석현, 세명대학교)

토론 : 노춘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③ 咸安 西山書院을 중심으로 한 함안조씨 가문의 활동

(김현지, 경북대학교)

토론 : 안선규(안동시청)

### 3.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1) 2월 정기총회

-일시: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17~19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220호

-안건

(1) 제6대 회장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선출

(2) 제8기 임원진 및 편집위원회 선임

#### 2) 3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일시: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17~19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안건

(1) 2024년도 학술지 평가(재인증 평가) 대비 투고·게재 논문 점검  
(2021~2023년도)

(2) 『한국서원학보』 제18호 원고 모집 현황 점검

(3) 『한국서원학보』 제18호 심사자 선정 논의

4) 6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일시: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17~19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안건

(1) 2024년도 학술지 평가(재인증 평가) 대비 관련 서류 점검

(2) 『한국서원학보』 제18호 심사 결과 수합 및 향후 간행 일정 재논의

## 회 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이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

- 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 제3장 재정

-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 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

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sup>1</sup>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가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 관계인[미성년자·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만 투고를 인정한다. <개정 2021.3.15.>

###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 <개정 2018.12.15.>

####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개정 2018.12.15.>

####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준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4) 온라인 투고시 시스템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동의>에 서명하면,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5>

5) 공동논문의 경우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논문접수신청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3.15>

#### 제11조(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 배제 요청)

논문 투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개정 2021.3.15>

- ① 논문 투고자는 특정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 요청시 그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시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단, 사유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요청인의 성명, 소속 및 배제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고,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인물의 배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3자를 논문 심사자로 선정한다.

#### 부 칙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과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

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瑱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심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sup>1)</sup>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sup>2)</sup>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41~42쪽.

정만조, 앞의 책, 2012, 22쪽.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17쪽.

정순우, 앞의 논문, 2013a, 213쪽.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7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150~153쪽.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 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③ 주저자는 논문 투고시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논문에서의 역할, 기여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신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경우 19세를 초과한 성인이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21.3.15.>

####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광고)

표절 및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 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8기 임원명단(2024.3~2026.2)

고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수환
회장	: 김학수(한중연)
부회장	: 이근호(충남대)
총무이사	: 김정운(경북대)
편집이사	: 김수경(상지대)
재무이사	: 윤혜민(건국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한국국학진흥원),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부산가톨릭대), 김대식(경인교육대),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최석기(경상대), 배창현(울산대), 임근실(단국대), 이창일(한국학중앙연구원), 신채용(국민대), 이치역(공주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식(송실대), 백광렬(서울대), 신정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김연수(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이사	: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김지운(공주대), 임근실(단국대), 박소영(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채광수(영남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왕무(경기대) / 전라·제주 김봉곤(원광대), 박정민(전북대) / 경상 정재훈(경북대), 이남옥(한국국학진흥원) / 충청 김의환(충북대),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보이사	: 김순한(영남대)
총무간사	: 권지은(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간사	: 김진홍(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근호(역사, 충남대)
편집위원	: 등홍파(역사, 중국 호남대), 정수환(역사, 한중연), 정우락(문학, 경북대), 한형조(철학, 한중연), 조준호(역사, 경기도박물관), 정재훈(역사, 경북대), 어강석(문학, 충북대), 이치역(철학, 공주대), 김지운(교육사, 공주대), 김봉곤(역사, 원광대)
편집이사	: 김수경(상지대)
편집간사	: 김진홍(한중연)

중신회원(2006~2024)

강대걸, 권오영, 김덕현, 김문택, 김순한, 김정자, 김의환, 김자운, 김학수, 박종배,  
안상천, 이병갑, 이병훈, 이상해, 이수환, 이우진, 이해준, 정만조, 정수환, 정순우,  
조준호

韓國書院學報 제18호

값 15,000원

인쇄일 2024년 6월 23일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발행인 김학수  
발행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전화 031-730-8840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김학수(한국서원학회)  
KB국민은행 673601-04-074420  
제작 도서출판 온샘(02-6338-1608)

ISSN 2234-8603